

발간등록번호

71-4050000-000040-01

용인의 모든 지정문화재 및
함포문화재 수록
쉽고 재미있는 내용
학계의 최신 의견 포함!

쉽고 흥미로운

용인의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s of Yongin City

사람들의 용인

쉽고 흥미로운 용인의 문화유산

원고 / 심준용, 김정호, 이현성, 서건혁

도움주신 분들 / 기호철, 김대순, 김재홍, 박영재, 우장문, 이순영, 정성권

펴낸이 / 정찬민

편집 / A&A문화연구소

디자인 / 소희민

펴낸곳 / 용인시청

발간등록번호 / 71-4050000-000040-01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전화 / 031-324-2148

팩스 / 031-324-2149

초판발행 / 2015년 12월 24일

쉽고 흥미로운
용인의 문화유산

2015

사람들의 용인

일러두기

- 이 책은 2015년도 ‘용인시 문화재 총람 제작 용역’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 본문의 순서는 문화유산의 시대순으로 작성하였으나, 일부 문화유산의 경우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 문화유산의 명칭 및 문화재 지정사항은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정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타 기관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진 제목에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 이 책에 사용된 글·이미지·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용인시에 있습니다.

발간사

경기도에서도 중심에 위치한 용인은 예로부터 동서와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전해져 온 곳이었습니다. 넓은 농경지와 구석구석 흐르는 하천, 그리고 덤지도 축지도 않은 자연환경에 힘입어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었습니다. 용인에 남아있는 선사시대의 선돌과 지식모들은 과거 용인사람들이 상당한 규모의 부락을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켜왔던 것을 알려줍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 될 만큼 용인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는 할미산성, 보정동 고분군 등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고려시대에는 서봉사를 위시하여 많은 사찰이 용인에 건립되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불교미술품들이 당시 용인의 찬란한 문화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인성은 몽골군을 물리친 대표적인 호국 유적으로서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조선 태종 14년에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쳐 용인이 만들어진 후 약 600년이 흐르는 세월동안 학자와 무관으로부터 예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였고, 이들은 건축, 공예, 그림, 분묘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남겨왔습니다. 현재 용인에 소재한 지정문화재의 대부분은 바로 조선시대의 것입니다. 이를 잘 살펴보면 과거 용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였고, 어떤 옷을 입었으며, 어떤 집에서 생활하였는지, 그리고 죽은 뒤에는 어떤 곳에 매장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 시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거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소중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유산은 전통과 역사라는 틀 속에 갇혀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유산이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지금껏 문화유산을 다룬 책이나 안내판의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책입니다. 여기에 실려 있는 170여 개의 용인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읽고 나면 과거 용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용인시의 문화유산이 널리 알려지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진익

2015년 12월

Contents

1. 선사시대

1. 용인 남사면 창리 선돌	_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12
2. 사암리 선돌	_ 악귀를 막고 풍년이 들게 해주는 마을 지킴이	16
3. 두창리 선돌	_ 주내마을에 있는 선사시대의 유적	20
4. 운학동 돌무지군	_ 시대를 알 수 없는 8기의 돌무지	24
5. 모현 지석묘	_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고인돌	26
6. 용인 주북리 지석묘	_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30
7. 용인 맹리 지석묘	_ 전형적인 남방식 고인돌	34

2. 삼국시대

8.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_ 오래된 반가상의 양식을 간직한 금동불	40
9. 용인 보정동 고분	_ 신라시대에 조성된 대규모 고분군	42
10. 운학동 돌방무덤	_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	46
11. 용인 할미산성	_ 할미산에 있는 신라시대의 산성	48

3.고려시대

12. 처인성	_ 승장 김윤후가 몽골군을 물리친 곳	58
13.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_ 용화봉을 들고 있는 대표적인 불상	62
14. 문수산 마애보살상	_ 고려 전기에 새긴 보살상	68
15.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_ 우리나라의 고려 초기 백자 가마터	72
16.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_ 용인이 고려 백자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유적	76
17. 용인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_ 고려 전기의 불상	78
18. 동도사 석불좌상	_ 신라시대 이후 조성된 전형적인 불상 양식	80
19.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_ 별석괴임이 눈길을 끄는 나말여초기의 삼층석탑	82
20.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	_ 사라진 고려 초조대장경의 실체를 보여주는 화엄경	86
21. 유가사지론 권 17	_ 요가를 통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불서	88
22.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	_ 고려 초조대장경 판본	90
23. 청자양각도철문방형향로	_ 12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제사용 향로	92
24. 아미타여래도	_ 고려불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물	94
25. 수월관음도	_ 14세기에 제작된 화려하고 섬세한 고려 불화	96
26.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_ 잘 만든 공예품 같은 고려 후기의 석탑	98
27.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_ 고려시대에 민간이 주도하여 만든 석불	102
28.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	_ 통일신라의 삼층석탑 양식을 계승한 고려 석탑	106
29. 두창리 삼층석탑	_ 고려 중기의 삼층석탑	108
30.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_ 고려 명종 연간의 고승 현오국사의 탑비	112
31. 진화 묘	_ 자연을 맑고 담백하게 노래한 고려의 시인	118
32. 용천리 오층석탑	_ 통일신라의 석탑양식을 계승한 고려의 석탑	122
33. 대혜원명 동종	_ 대혜원(大惠院) 명문이 있는 고려시대 동종	126
34.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	_ 석인상과 유사한 형태의 석불입상과 고려시대의 탑	130
35. 목신리 보살입상	_ 몸체와 보개가 따로 만들어진 보살상	134
36. 천태사교의	_ 고려의 승려가 천태종의 기본사상을 정리한 책	138

4. 조선시대

37. 정몽주 선생 묘	_ 조선이 충신의 모범으로 삼은 정몽주의 묘	142
38. 충렬서원	_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	146
39. 정몽주 초상	_ 정몽주 초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	150
40. 이중인 묘	_ 이성계의 부름을 거부한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	152
41. 이사위 묘	_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고 조선의 벼슬을 받은 아들	156
42. 이백지 묘	_ 용인이씨 청백리공파 시조	158
43.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_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화려한 불경	162
44. 분청사기 도요지	_ 조선 초기에 운영된 작은 가마터	164
45. 가창리 부도	_ 종모양의 부도	166
46. 이애와 경신공주 묘	_ 조선 초기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무덤	168
47.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_ 조선 전기의 출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물	170
48. 죽정 최유경묘역	_ 조선 태조를 도운 개국공신의 묘역	172
49. 이종무 장군 묘	_ 대마도를 정벌한 조선 초기 무신의 묘	176
50.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_ 종 모양의 희귀한 묘지	180
51. 증급유방	_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의서	182
52. 고려사절요(갑인자본)	_ 우리나라 최초 편년체 역사서	184
53.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일원	_ 조광조의 죽음에 항의하다 귀양 간 김세필의 묘	186
54. 서거정·기순 필적	_ 15세기 조선의 문인명필 서거정의 대표적 필적	190
55. 서거정선생묘지석	_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의 묘지석	194
56. 저헌 이석형 묘 및 신도비	_ 조선 최초로 '삼장원'을 이룬 천재의 묘	196
57.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_ 고려 보조국사 지눌의 선 사상이 담긴 유물	200
58. 이숙기 묘	_ 무신으로서 형조판서·호조판서를 지낸 인물	202
59. 진언권공(언해)	_ 15세기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불교 서적	206
60.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	_ 15세기의 한글을 볼 수 있는 국문학 연구의 보고	208
61. 이십삼상대회도와 김종한 교지	_ 조선 초기 사헌부 관원들의 계모임 풍경	210
62. 현수제승법수	_ 당나라 현수법장이 저술한 불교사전	212
63.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_ 조선시대 중산층의 집을 엿볼 수 있는 곳	214
64. 음애 이자 묘역	_ 조광조의 동지였던 이자의 부부묘	220
65. 유순정 초상 및 함	_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초상화	224
66. 양지향교	_ 조선 후기 작은 규모의 향교	226
67. 연안부부인전씨묘소	_ 중종의 외할머니 전씨의 묘	232
68. 과천 출토 광주이씨 의복	_ 16세기 사대부가 부인의 멋을 보여주는 옷	236
69. 류복립 묘	_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한 인물	238
70. 류복립 정려각	_ 의병장 류복립의 충절을 기리는 기념물	242
71. 유흥 초상화	_ 중종반정에 참가했던 무관 출신 공신의 초상	244

72. 이언충 묘 출토복식	_ 16세기 서울 고위층 관료가 입던 옷	246
73. 공안공정옥형충정공정응두 신도비	_ 한 비각 안에 나란히 서 있는 부자의 신도비	250
74.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및 송언신초상	_ 왕과 신하 간의 친분을 보여주는 유물	254
75. 문정공조광조묘및신도비	_ 중종 때의 개혁 정치가 조광조의 묘소	258
76. 용인 심곡서원	_ 정암 조광조와 학포 양팽손을 배향하는 서원	262
77. 청원군심대호성공신교서	_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심대의 공신교서	268
78. 심대 장군 묘	_ 임진왜란 때 전사한 심대의 묘	270
79. 원균 선무공신교서	_ 원균의 공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	274
80. 황립 묘	_ 명나라에 가서 종계변무를 해결한 인물	276
81. 김함의 묘 출토의복	_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사한 무관 김함의 옷	280
82. 백자태호<내외호> 및 태지석	_ 조선시대 왕자녀의 태를 안치하는 데 썼던 백자	282
83.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 약사) 좌상	_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작품	284
84. 이완 묘 및 정려각	_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필한 무관	286
85. 이일 장군 묘소	_ 임진왜란에서 큰공을 세운 용인 출신 무신의 묘	290
86. 충렬서원증수록	_ 충렬서원의 강당과 사당을 고친 기록	294
87. 의원군 이혁 일가묘출토유물	_ 중기 조선 후기에 왕족 출신이 입었던 옷	296
88. 정윤복, 정호선묘 및 신도비	_ 조선 중기 문신 부자의 신도비	298
89. 광해군비 당의	_ 광해군과 함께 폐위된 비운의 왕비 유씨의 옷	302
90. 이중로정사공신교서및초상	_ 인조반정에 참가했던 무신 이중로에 대한 포상 내역과 초상화	304
91.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녹권	_ 인조 때 공신의 초상화와 교서	308
92. 허적 영정	_ 선비의 평소 옷차림을 보여주는 초상화	312
93. 남양홍씨판중추공파무관묘역	_ 용인 출신 남양홍씨 무관들의 무덤	314
94. 오희문 묘	_ 임진왜란 때 피난생활을 일기로 남긴 재야학자	316
95. 오윤겸 선생 묘	_ 인조 때의 문신 오윤겸과 부인 경주 이씨의 묘	318
96. 오달제묘소및대낭장비	_ 병자호란뒤청나라에끌려가죽은'삼학사'의한사람	320
97. 황성원초상	_ 17세기 공신 초상화의 전형	324
98. 황진초상	_ 아버지와 함께 공신이 된 아들의 초상화	326
99. 이경증 신도비 및 묘	_ 병자호란 당시 도승지로 인조를 보필했던 문신	328
100.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첩	_ 현종이 이경석에게 공경의 뜻으로 하사한 궤장과 이를 하사하는 연회도를 그린 그림	332
101. 유형원 선생 묘	_ 평생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한 실학의 시조	336
102. 감로탱화	_ 불교적인 효성을 표현한 조선시대의 불화	340
103. 남계박세채영정	_ 당쟁의 시대, 소론 지도자의 초상화	342
104. 백자태호	_ 보름달처럼 풍만한 느낌을 주는 달항아리	344
105. 숙종어필 칠언시	_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친필 시	346

106. 임방초상	_ 18세기 초반의 문신 초상화	348
107. 임연초상	_ 18세기에 그려진 공신도상	350
108. 남구만 선생 초상화	_ 인물을 정면으로 그린 희귀한 초상화	352
109. 남구만 선생 묘소	_ 숙종 때 소론의 지도자 남구만의 묘	354
110. 약천선생 별묘	_ 서낭당 역할을 하는 돌무지와 느티나무	358
111. 의령남씨문중고문서일괄	_ 약천 남구만과 관련된 고문서와 서찰·그림	362
112. 오도일 초상화	_ 몸과 얼굴의 각도가 다르게 그려진 초상화	364
113. 이인엽 영정	_ 숙종 때 대제학을 지낸 합리적인 인물	366
114. 김유 초상	_ 18세기 전기 문신상의 전형	370
115. 연행일록·연행별장외 명현간찰	_ 조선 사대부의 인맥과 교류 상황을 볼 수 있는 유물	372
116. 조영복 초상	_ 한 인물, 두 화가의 색다른 초상화	374
117.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_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고사인물화를 함께 볼 수 있는 화첩	376
118. 풍창부부인조씨묘소	_ 인현왕후의 친정어머니 조씨의 묘	378
119. 이재 선생 묘	_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지침서를 남긴 학자	382
120. 백자청화산수화조문대호	_ 늘씬하고 아름답게 생긴 청화 백자	384
121. 유수초상	_ 왕실 초상화가 진재해가 그린 걸작	386
122. 용인 이주국 장군 고택	_ 조선시대 경기도 지방 살림집의 특징을 간직한 가옥	388
123. 이주국 묘소 및 신도비	_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무신 이주국의 묘	394
124.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_ 8세기에 제작된 조선 팔도 지도의 일부	398
125. 홍계희 묘	_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노론계 인사	400
126. 조중희 선생 묘소	_ 영조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던 노론계 문신	404
127. 양천허씨 노비 분재기	_ 시집간 딸도 부모의 재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문서	408
128.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_ 김홍도의 스승 강세황의 완숙한 서체가 담긴 서첩	410
129. 오명항영정병합부 양무공신교서	_ 천연두 자국까지 묘사한 조선후기 문신 초상화	412
130. 오명항 선생 묘소	_ 영조가 두텁게 신임했던 소론계 인물	414
131. 채제공 선생 묘	_ 조선 정조 연간의 명재상이 잠든 곳	418
132. 채제공 선생 뇌문비	_ 채제공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조가 내린 제문	422
133. 심환지 초상	_ 정조의 정적으로 알려졌던 심환지의 실제 모습	428
134. 요지연도	_ 서왕모가 베푼 연회 장면을 그린 신선도	430
135. 보광사 신중탱화	_ 화승 경천이 그린 불화	432
136. 덕온공주당의	_ 순조의 셋째딸 덕온공주가 입었던 옷	434
137. 덕온공주의복	_ 공주가 16세 때 혼인하면서 예복으로 입었던 옷	436
138. 덕온공주유물	_ 덕온공주가 궁중에서 사용했던 생활용품	438
139. 향아당의	_ 덕온공주가 혼인하던 날 향아가 입었던 당의	440
140. 현종기례진하도병풍	_ 17세 현종의 혼례식 풍경	442
141. 소조 독존나한상	_ 흙으로 빚은 불교 성자상	446
142. 흥선대원군자적단령	_ 흥선대원군이 집무할 때 입었던 평상복	448

143. 허전 초상	_ 선비의 평소 옷차림을 보여주는 초상화	450
144. 심동신금관조복	_ 조선 후기 문신 심동신이 입었던 당상관용 조복	452
145. 윤용구유물	_ 일제의 유혹을 뿌리치고 산에 들어간 구한말 대신	454
146. 용인향교	_ 조선시대에 많은 인재를 길러냈던 요람	456
147. 장경사 산신행화	_ 화승 연허당 병규(丙圭)가 그린 산신도	462
148. 고종의 누비저고리	_ 고종 황제가 평상복으로 입었던 옷	464
149. 충렬서원선생안	_ 충렬서원의 역대 원장을 적은 책첩	466
150. 운학동 돌무지	_ 서인 소론의 영수 남구만의 사당	468
151. 이사주당·유한규묘	_ 조선시대 태교에 대한 책을 남긴 여성의 묘	472

5. 근대문화유산

152. 민영환 선생 묘	_ 을사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며 자결한 민영환의 묘	476
153. 이한응 묘소	_ <한일신협약> 체결에 울분을 토하며 순절한 용인 인물	478
154. 안중근의사유묵	_ 일제 통치자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	480
155. 흥남파동요악보원판	_ 근대기 한국이 낳은 천재 작곡가	482
156. 치성광여래도	_ ‘금어’로 불린 화승 보응의 작품	484
157. 신중도	_ 불법을 지키려는 신중들을 그린 불화	486
158. 용인 장육진 가옥	_ 어린이 그림 같은 독특한 화풍을 남긴 서양화가의 집	488
159. 사은정	_ 조광조가 학문을 논하던 조선 전기의 정자를 복원	492
160. 석주명 유품	_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곤충학자의 유품	498
161. 삼성전자64KDRAM	_ 정보화 시대를 연 첨단기술 제품	500

6. 무형문화유산

162. 소목장	_ 나무에 깃든 우리 문화를 찾아내는 장인	504
163. 종묘제례	_ 옛 의례와 법도를 이어가는 계승자	506
164. 경기민요	_ 우리 소리를 알리고 전하는 예인	508
165. 자수장	_ 침선공예의 전통을 계승하는 장인	510
166. 악기장(현악기)	_ 우리 악기의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	512
167. 주성장(梵鐘)	_ 불교 미술과 전통 공예의 극치	516
168. 주성장(佛具)	_ 불교의 자비로움을 소리로 이끌어내는 장인	518
169. 경기고갈소고춤	_ 용인 지역 예인의 맥을 잇는 장인	520
170. 용인할미성대동굿	_ 농경 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마을 제례와 놀이	522

1

선사시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1 용인 남사면 창리 선돌



용인 남사면 창리선돌

종 목 | 경기도문화재자료 제61호
명 칭 | 용인 남사면 창리 선돌
(龍仁 南四面 倉里 선돌)
분 류 | 민간신앙 / 마을신앙
시 대 | 청동기시대
수량/면적 | 1구
지정(등록)일 | 1985. 06. 28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487-1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용인시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용인 남사면 창리선돌 전경

선돌이란 말 그대로 ‘서 있는 돌’입니다. 남사면 창리 마을에 가면, 창리천 건너 야트막한 기슭 논두렁에는 선돌 하나가 있는데, 1984년 용인향토문화연구회가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듬해 6월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길쭉하고 커다란 돌을 약간 다듬어 마을 입구에 세우고 기념물이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선돌 역시 다듬지 않은 자연돌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창리 선돌은 윗면이 한쪽으로 뾰족하여 마치 칼을 꽂아 놓은 모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검 바위’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예로부터 이 마을에는 선돌이 쓰러지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말이있어 선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인 남사면 창리선돌 정측면

오늘날까지 이 선돌이 논두렁에 서 있는 까닭은 혹시 모를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선돌이 쓰러지지 않도록 잘 돌봤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돌의 앞면이 마을을 향하고 있어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창리 선돌은 지상으로 노출된 부분의 높이가 약 2.1m, 폭은 약 0.7m, 두께는 약 0.3m의 크기입니다. 선돌 아래쪽 0.3m 높이에 돌로 두들긴 흔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과거 사람들이 주술적인 목적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리 선돌은 남곡사거리에서 처인성로를 이용하여 약 2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창리교를 건넌 다음 좌회전하여 완정천로로 약 500m 올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용인의 돌 문화>

용인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지리적·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사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아왔는데 그 흔적들이 다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2만 5천년 전의 유적으로 확인된 평창리 유적과 동백리 유적, 모현면 갈담리 유적 등이 조사되었고, 용인 각지에서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아직 뚜렷하게 확인된 바 없지만 기흥구 상갈동, 고매동, 죽전동 등의 유물포함층에서 빗살무늬토기 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용인 전 지역에서 고르게 확인되고 있으며, 유적의 종류와 숫자에서 다른 시기보다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관련 유적으로는 주거지, 고인돌, 선돌 등이 있습니다. 용인의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마북동, 구갈동, 죽전동, 임진산성, 봉명리, 영덕동 등지의 주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았던 선사시대 인류는 고인돌과 선돌 등의 거석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고인돌의 경우 용인 지역에서는 북으로 왕산리 고인돌부터 남으로 장평리 고인돌까지 대략 7곳에서 10기가 발견되었는데 인근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크고 탁자식과 개석식 고인돌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고인돌을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할 때에는 용인 지역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선돌은 고인돌과 함께 거석문화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자연석이 나 일부만 다듬은 큰 돌을 세우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대개 단독으로 세워지지만 여러 개의 돌을 열을 지워 세우거나 원형으로 배치하기도 하였고 고인돌 옆에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용인 지역의 선돌은 크게 5군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1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악귀를 막고 풍년이 들게 해주는 마을 지킴이 2 사암리 선돌

종	목		용인시향토유적 제22호
명	칭		사암리 선돌(沙岩里 立石)
분	류		민간신앙 / 마을신앙
시	대		청동기시대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1990. 11. 22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753-2



사암리 선돌 전경

사암리 선돌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에 있으며, 용인시 향토 유적 2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선돌 부근을 ‘선돌뱅이’라 부르는데, ‘선돌백이’의 변형으로 보입니다. 선돌은 말 그대로 ‘서 있는 돌’을 의미하고 뱅이(박이, 백이)는 터나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돌이 세워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청동기시대에 고인돌과 함께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선사시대의 선돌은 잘라낸 면이 거친데 반해 청동기시대의 선돌은 매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700m 거리에 고인돌로 추정되는 다수의 돌이 있지만 서로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암리 선돌은 3기가 나란히 있는데, 암질이나 크기로 볼 때 원통형의 돌 하나를 셋으로 쪼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선돌은 한 기나 두 기가 서있는 것이 보통인데, 사암리에는 세 기가 나란히 서있고, 가까운 곳에 다른 선돌까지 있는 점에서 이채롭습니다. 고인돌이 집단을 이룬 경우는 많지만 선돌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선돌의 크기는 대략 길이 2m 내외이고, 폭 1m, 두께 0.3~0.4m이며, 정동향을 향해 배열되어 있습니다.



사암리 선돌 전면



사암리 선돌 후면

이 선돌들 외에 2기의 선돌이 가까운 곳에 더 있는데, 원래 논바닥에 있었던 것을 옮겨 세운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사암리 선돌 옆쪽에 세워 두고 ‘안꼐 물구리’라고 새겨 마을 안내석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암리 선돌은 마을 입구에 서있는 점에서, 악귀를 막는 수호신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선돌 앞에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져 있는 점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풍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골 물구리 마을 안내석

사암리 선돌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탁발승을 구박했는데, 중이 ‘이곳에 큰 돌 셋을 세우면 아주 큰 부자가 될 것’이라 하기에 그 말을 따랐다가 망했다는 설이 있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지 못한 어느 며느리가 남매를 데리고 집을 나와 서 있다가 그대로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내려옵니다.

사암리 선돌은 용인농촌테마파크 입구에서 내동로를 따라 약 350m 북쪽으로 이동 후 내동마을회관을 지나서 내동로23번길을 따라 약 200m 가량 이동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주내마을에 있는 선사시대의 유적

3 두창리 선돌



종	목		용인시 향토유적 제39호
명	칭		두창리 선돌(杜倉里 立石)
분	류		민간신앙 / 마을신앙
시	대		선사시대
수	량/면적		1기
지	정(등록)일		1997. 12. 10
소	재 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2025

두창리 선돌 전경



두창리 선돌

원삼면 두창리에는 삼층석탑(향토유적 제19호) 인근에 선사시대의 유적인 선돌이 있습니다. 이 선돌은 1996년 1월 24일, 용인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두창리 삼층석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두창리에는 7개의 작은 마을이 있는데, 선돌이 있는 곳은 두창4리로 주내(골안)로 불립니다. 이 선돌은 향토유적 제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창리 선돌 측면

이 선돌은 높이 약 1.9m, 두께 약 0.4m, 상단폭 약 0.45m, 중단폭 약 0.7m 규모이며 가공된 흔적이 없는 자연석으로 방향은 정동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년 정월 보름날 이 선돌에 제사를 지낸 뒤 집집마다 호주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은 종이를 불사르는 행사가 행해졌으며, 불공을 올리거나 왼새끼를 꼬아 선돌에 두르고 시루떡에 술과 음식을 차려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두창리 선돌 둘레에는 용인의 다른 선돌과 달리 장대석들이 놓여 있습니다. 선돌 앞에는 넓은 판석을 두었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으로 보이며, 좌우와 뒤편에도 장대석이 있습니다.



두창리 선돌 측면

두창1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돌 화살촉이 나왔는데, 그것은 두창리 일대에 청동기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돌은 고인돌과 함께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큰 돌 문화유산기도 합니다.

선돌은 집안이나 마을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 기능을 하고, 풍요로움을 비는 신앙물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두창리 선돌은 두창리에서 가좌리에 이르는 넓은 농경지에 서있는 점으로 보아 농경지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창리 선돌은 고당-수산간도로의 평대사거리에서 두창저수지 방면으로 980m 이동 한 후, 두창호수로124번길로 우회전하여 첫번째 갈림길에서 다시 우회전 하면 약 100m 앞에 있습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8기의 돌무지

4 운학동 돌무지군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44호
칭 칭 | 운학동 돌무지군
(雲鶴洞 積石遺構)
분 류 | 민간신앙 / 마을신앙
시 대 | 미상
수 량/면적 | 8기
자정(등록)일 | 1997. 12. 10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산11-1



운학동 돌무지군의 돌무지



운학동 돌무지군 전경

이 돌무지는 인접한 <운학동 돌무지> (향토유적 제42호)에 비하여 높이가 낮으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훼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1988년 국립중앙박물관의 고적조사에 의해 4기가 발견되었으며, 1996년 추가로 4기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11-1에 위치하는데 8기라고 하지만 현재는 1기 정도만 제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흔적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위치는 국사봉(해발 346.2m)의 남서 끝자락이며, ‘용인 운학동 돌방무덤’(향토유적 제43호)에서 북서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8기의 돌무지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4~5m, 높이 0.5~1m 정도입니다. 형태는 일정하지 않고 주변에서 채집된 유물은 없습니다. 이 돌무지군은 용인시 향토유적 제44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성격, 축조 연대 등 학술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유적입니다.

운학동 돌무지군은 운학초등학교에서 동부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800m 이동하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고인돌 5 모현 지석묘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22호
칭 칭 | 모현 지석묘(慕賢 支石墓)
분 류 | 무덤 / 지석묘
시 대 | 청동기시대
수량/면적 | 2기
지정(등록)일 | 1974.09.26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98
소유자(소유단체) | 용인시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모현 지석묘 전경



모현 지석묘 중 서쪽 지석묘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며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경제력이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석실(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탁자식과 땅 속에 석실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현면 왕산리에는 탁자식 고인돌이 2기가 보존되어 있는데, 근처에 받침돌로 추정되는 돌이 남아있어 본래는 3기의 고인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크고 보존상태가 좋은 서쪽 고인돌은 ㄷ자형의 지석 위에 타원형의 개석(덮개돌)을 올린 형태인데, 개석의 길이는 5.3m, 폭은 4.1m, 두께는 0.9m, 지상 높이는 1.4m로 대형 고인돌에 속합니다.



모현 지석묘 중 서쪽 지석묘 석실 부분

이 고인돌 동쪽에는 덮개돌의 길이가 4.2m, 폭이 3.8m, 두께가 0.8m에 달하는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의 받침돌은 쓰러져 있습니다. 덮개돌에 비해서는 받침돌의 높이가 조금 작은 편이나 전체적인 규모가 커서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덮개돌 사이에 썩기돌을 끼워서 수평을 바로잡으려 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모현면 왕산리의 고인돌은 자연석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도 훌륭하여 과거 용인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건축기술이 뛰어났던 점을 알려주는 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현 지석묘 중 동쪽 지석묘



모현 지석묘 중 동쪽 지석묘

모현 지석묘는 한국외국어대 사거리에서 외국어대 방향으로 약 400m 이동 후 외대로 40번길로 진입한 다음 첫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6 용인 주북리 지석묘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9호
명 칭 | 용인 주북리 지석묘
(龍仁 朱北里 支石墓)
분 류 | 무덤 / 지석묘
시 대 | 청동기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83.09.19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825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주북리 지석묘



주북리 지석묘 석실 부분

지석묘는 흔히 ‘고인돌’이라고 부르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덤의 주인은 청동기 시대에 경제력과 정치권력을 쥔 사람이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돌은 크게 세 가지 양식으로 구분되는데,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크고 넓적한 덮개돌을 올린 양식(북방식), 지하에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리고 돌을 괴는 양식(남방식), 지하에 묘실은 만들지만 돌을 괴지 않고 묘실 위에 덮개돌을 올리는 양식(개석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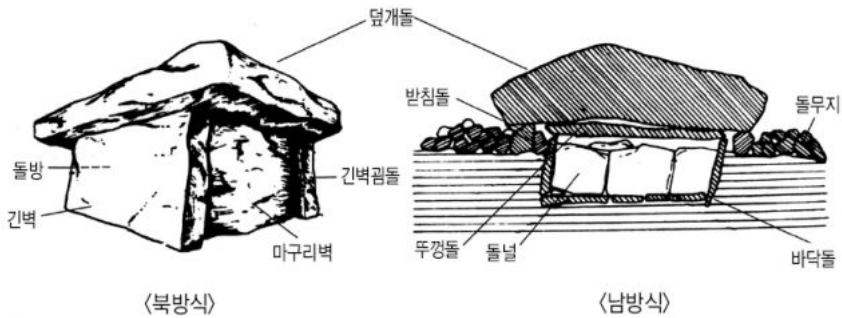
주북리 지석묘 주변의 석재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 숲원이 마을에 있는 이 고인돌은 북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덮개돌은 길이가 약 2.8m, 두께 0.45m이며, 재질은 화강암질 편마암입니다. 덮개돌 아래쪽에는 약 1m 높이의 받침돌 3개가 받치고 있는데 양쪽 킴돌 2개와 막음돌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침돌이 평평한 덮개돌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탁자식 고인돌이라고도 하며 받침돌이 낮고 덮개돌이 두꺼워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이 고인돌 근처에는 다른 고인돌의 일부로 보이는 유사한 재질의 석재들이 남아 있는데 다른 지석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석재들은 다른 고인돌의 받침돌이나 덮개돌로 추정됩니다.

<고인돌의 구조>

(자료 : 문화재청)



고인돌에서 가까운 곳에는 주북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낮은 구릉지대이고 주변에 물줄기가 있어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고인돌이 있는 곳의 지형이 배의 형상이라 하여 ‘배터골’, ‘배모루’로 부릅니다.

주북리 지석묘를 찾기 위해서는 고림초등학교 삼거리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한터로를 따라 약 400m 이동 후 주북교를 건너 250m 가량 진입하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주북로23번길을 따라 좌회전하여 150m 가량 들어간 다음, 다시 좌측 방향으로 150m 가량 이동하면 지석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남방식 고인돌 7 용인 맹리 지석묘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8호
칭 칭 | 용인 맹리 지석묘
(龍仁 孟里 支石墓)
분 류 | 무덤 / 지석묘
시 대 | 청동기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85.09.20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 148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맹리 지석묘 전경



맹리 지석묘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맹리의 지석묘(고인돌)는 맹골마을로 들어서는 마을회관 옆에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덮개돌의 길이가 3m, 너비가 2.5m, 두께가 0.6m인데 현재 2개로 갈라져 틈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갈라진 면의 위쪽 부분에 네모꼴로 정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일 부러 깨뜨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덮개돌의 윗면에는 크고 작은 알구멍(성혈^{성혈}穴, 잔 모양의 구멍)으로 불리는 오목한 구멍이 많은데, 특히 지름이 30cm 이상의 큰 알구멍이 40여 개나 보입니다.



맹리 지석묘(사진 : 용인시)

이 알구멍을 왜 만들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풍년을 기원하거나 아들 낳기를 바라는 민간신앙과 연관 짓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별자리를 표시한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지하에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리는 전형적인 남방식 형태의 고인돌인데, 1985년에 이 고인돌이 발견되면서 용인지역에 북방식과 남방식 고인돌이 공존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고인돌은 바둑판식으로 알려졌지만, 깨진 덮개돌 아래쪽과 고인돌 옆에 있는 돌들이 탁자식 고인돌의 받침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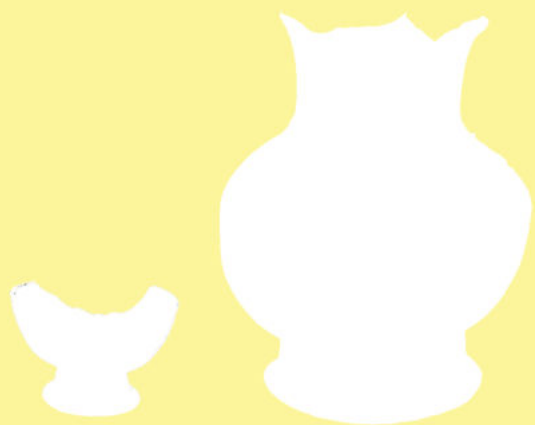
맹리 지석묘로 가기 위해서는 죽양대로 원삼사거리에서 맹리 방면 골목으로 진입 후 약 1.4km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후 맹리경로당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음 갈림길에서 왼쪽길로 30m 가량 이동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맹리 지석묘 상부의 구멍(성혈)

2

삼국시대



오래된 반가상의 양식을 간직한 금동불

8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정면 (사진:문화재청)

종 목 | 보물 제643호
 명 칭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金銅彌勒菩薩半迦思惟像)
 분 류 | 불교조각 / 보살상
 시 대 | 삼국시대
 수 량 / 면 적 | 1구
 지 정 (등 록) 일 | 1978.12.07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562번길 38,
 호암미술관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호암미술관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정측면 (사진:문화재청)

보물 제643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현재 경기도 용인의 호암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높이 11.1센티미터의 작은 금동불입니다. ‘반가’란 ‘반가부좌’를 의미하는데, 부처님이 참선할 때 앉았던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금동불은 머리에 산봉우리 모양의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있는데, 봉우리가 거의 동일선상에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머리카락은 두 가닥으로 길게 늘어뜨려 양 어깨를 덮고 있으며 얼굴은 몸에 비해 큰 편이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웃음을 머금고 있습니다. 목이 없어 보여 약간은 투박한 느낌을 줍니다.

상체에는 옷을 걸치고 있지 않으며 치마가 가슴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옷자락은 굽은 주름으로 표현되어 대좌(臺座, 불상을 올려놓는 대) 아래까지 넓게 퍼져 있으며, 불상의 앞면 외에 뒷면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반가상(半跏像)의 형식대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포개고 오른쪽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에 대어 오른손을 볼에 가볍게 댄 채 사유(생각)에 빠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팔목에는 두꺼운 팔찌가 있고 늘어뜨린 왼발 밑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진 발받침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금동불은 조각수법이나 표현기법이 그다지 세련되진 않지만, 아주 오래된 반가상 양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작은 몸체에 비해 얼굴이 크고 허리가 굽으며 상체를 강조한 점에서 중국의 제나라, 혹은 주나라의 양식과 비슷하여, 6세기 후반경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경상남도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처인 호암미술관은 에버랜드 후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조성된 대규모 고분군 9 용인 보정동 고분

종 목 | 사적 제500호
칭 칭 | 용인 보정동 고분
(龍仁 寶亭洞 古墳)
분 류 | 무덤 / 고분군
시 대 | 신라
수량 / 면적 | 18,473㎡
지정(등록)일 | 2009.06.24
소 재 지 | 경기용인시흥구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소유자(소유단체) | 용인시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용인 보정동 고분 전경



용인 보정동 고분의 봉토분

용인 보정동 고분은 신라시대의 고분군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삼막곡 저수지 근처 소실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의 끝 남쪽 사면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2002년 지표조사 때 벌목한 경사지에서 다수의 봉토분(封土墳)이 발견되었고, 정밀조사를 한 결과 80여 기(基)가 넘는 고분이 모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2기를 발굴했더니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앞트기식¹⁾ 돌덧널무덤²⁾이었고, 신라 지배층의 무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지-신갈 사이 6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노선이 보정동 고분군 동쪽지역을 관통하게 되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는데 확인된 유구는 구석기문화층을 비롯하여 총 210기로 백제시대 움집, 원삼국시대 독무덤과 토실, 통일신라시대 돌방무덤,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의 돌덧널무덤, 중·근세에 조성된 회곽묘와 널무덤 등 다양한 시기에 걸친 생활·분묘 유구가 조사되었습니다. 고분군이라는 점에서 보정동 일대가 북진하던 신라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 앞트기식 무덤 : 무덤의 측면에 입구를 만들어 여러 명을 추가로 매장할 수 있도록 만든 무덤

2) 돌덧널무덤 : 지하에 구덩이를 파고 덩이돌로 직사각형의 벽을 만들어 시신을 매장한 구덩식 무덤



복원된 보정동 고분 석실 내부(사진 : 용인시)

수습된 유물은 6세기 후반에서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굽다리 긴목항아리(臺附長頸壺)·굽다리접시(短脚高杯)·주발(盃)·굽다리바리(臺附鉢) 등 토기가 대부분이며, 그밖에 청동 허리띠장식(帶金具)·쇠집게(鐵鑷)·손칼(刀子)·널못(棺釘) 같은 금속류도 출토되었습니다.

중요한 분묘로 신라, 혹은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앞트기식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³⁾과 돌덧널무덤 10여 기가 확인되었는데, 돌방의 경우 장방형 평면으로 석실을 만든 후 뚜껑돌을 얹은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소실봉 동향 경사면의 아파트 부지에서도 보정동 고분과 비슷한 앞트기식돌방무덤과 돌덧널무덤이 조사되는 등 다수의 무덤에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3) 돌방무덤 : 지하에 묘관을 파고 돌을 이용하여 무덤방을 만들어 시신을 매장한 굴식 무덤



복원된 보정동 고분(사진 : 용인시)

이 고분군은 신라가 한강 유역에 진출한 뒤에 조성된 고분군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며, 6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조성된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 충청·경기 지역의 신라 고분군들 가운데 대규모 고분군이라는 점에서 보정동 일대가 북진하던 신라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개착식 터널공사 후 이 유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상부에 원래의 지형과 통일신라시대의 고분을 원상태로 추정복원하였고 일부 고분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전시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토실 1기에는 안내문을 만들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24일 사적 제5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정동 고분군은 삼막곡저수지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저수지 북쪽에 소실봉 남쪽 사면이 펼쳐져 있는데, 고분군은 이 사면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석실묘

10 운학동 돌방무덤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43호
명 칭 | 운학동 돌방무덤
(雲鶴洞 石室墓)
분 류 | 무덤 / 고분
시 대 | 삼국시대 / 통일신라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7. 12. 10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산11-1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



운학동 돌방무덤



운학동 돌방무덤 전경

이 무덤은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돌방(석실) 무덤인데, 운학초등학교의 남동편에 있는 국사봉(해발 346.2m) 남서자락에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원삼면으로 가는 도로변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이 도로와 나란히 운학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돌방은 얼핏 보기에 네모꼴에 가까우며, 길이와 폭이 각각 1.7m 정도이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1.5m입니다. 도굴을 당해 천장 석이 일부 파괴되는 등 본디 모습이 훼손되긴 했지만 횡혈식(橫穴式, 굴식) 석실묘로 보입니다. 채집된 유물은 없고, 돌방 앞에는 도굴 당시 허물어진 잡석이 널려 있습니다. 천장은 길이 약 2m, 두께 약 0.3m 정도의 넓직한 자연석을 다듬어서 사용하였고 묘실의 길이는 1.5m 이상, 폭은 1.4m 정도입니다. 연구자들은 삼국시대의 고분이라 발표하였으나, 주변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하여야 정확한 연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학동 돌방무덤은 운학초등학교에서 동부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800m 이동하면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돌방무덤은 운학동 돌무지군과 인접하여 있습니다.

할미산에 있는 신라시대의 산성

11 용인 할미산성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215호
칭 칭 | 용인할미산성
(龍仁할미山城)
분 류 | 유적건조물 / 석성
시 대 | 삼국시대
수량/면적 | 73,504㎡
지정(등록)일 | 2007.09.17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41 일원
소유자(소유단체) | 용인시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할미산성 내 팔각형 건물지(사진 : 용인시)



할미산성 발굴조사 현장 전경(사진 : 용인시)

할미산성은 기흥구 동백동과 포곡읍 가실리 및 마성리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할미산 정상에 위치한 신라시대의 산성이며, 노고성(老姑城), 할미성, 마고성(麻姑城)으로도 불립니다. 할미산성 북쪽 성벽은 정상부를 포함한 높은 지대에 축조되었고, 남쪽 성벽은 비교적 낮은 지대에 조성되었는데 사모봉형(紗帽峯形)¹⁾으로 보입니다.

할미산성에 대한 문헌기록은 증보동국문헌비고에 처음 보이는데, 이미 폐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할미산성의 축성에 대한 전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미산성 성벽의 전체 둘레는 651m로 할미산의 정상부와 그 남쪽의 능선을 둘러싸고 있고, 내·외벽의 바닥에서 보강 공사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성벽 구간이 가장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벽 부분은 대부분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1) 용인시,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용인 할미산성 (III), 2014, 129쪽 내용 정리



할미산성 성벽(사진 : 용인시)

기초 부분은 크게 암반이나 토층을 깎아내는 삭토기초법과 토사나 석재를 보완하여 다지는 지반보강법이 함께 활용되었습니다. 내성벽은 기초 위에 화강암 계열의 석재를 일부만 다듬고 쌓았는데, 이 때문에 수평이 질서정연하지 않고 흐트러져 보입니다. 이러한 축성법을 허튼층 쌓기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외성벽은 비교적 줄을 맞춰 돌을 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바른층 쌓기라고 합니다. 다만 외성벽의 경우에도 석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사이사이로 빈 공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판석과 정사각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보강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정형 할석 등으로 뒷채움을 하여 성벽 내부를 단단히 받치고 있으며 성벽을 보강하기 위한 보축시설도 있습니다.



할미산성 내 건물지(사진 : 용인시)

최정상부에서 매납(埋納, 특정한 목적으로 청동기나 석기 등 유물을 묻는 것) 유구가 발견되었으며, 평지에서 적심석(돌을 쌓을 때 안쪽에 두어 무게를 받치도록 하는 돌)이 나왔고 작은 개울(수구지)과 토광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았던 주거지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해발 약 297m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지에는 취사시설과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돌을 이용하여 부뚜막과 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할미산성 시굴조사 시 출토된 대부장경호(사진 : 한국고통대학교 강진주 제공)

할미산성에서는 2011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철제가위, 화살촉, 갑옷의 부속구 등 철제류 일부와 대부장경호, 고배²⁾ 등 신라계 토기류가 주로 나왔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3차 발굴조사를 통해 할미산성 남쪽 경사면에서 팔각형 건물지 2동과 장방형 건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팔각형 건물지에서 발견된 고배와 토기로 만든 완³⁾ 등으로 볼 때 할미산성은 전쟁이 없던 평상시에는 시조신과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할미산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신라의 6~7세기 경 한강유역 진출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 고배(高杯) : 굽 높은 잔

3) 완 : 사발 형태의 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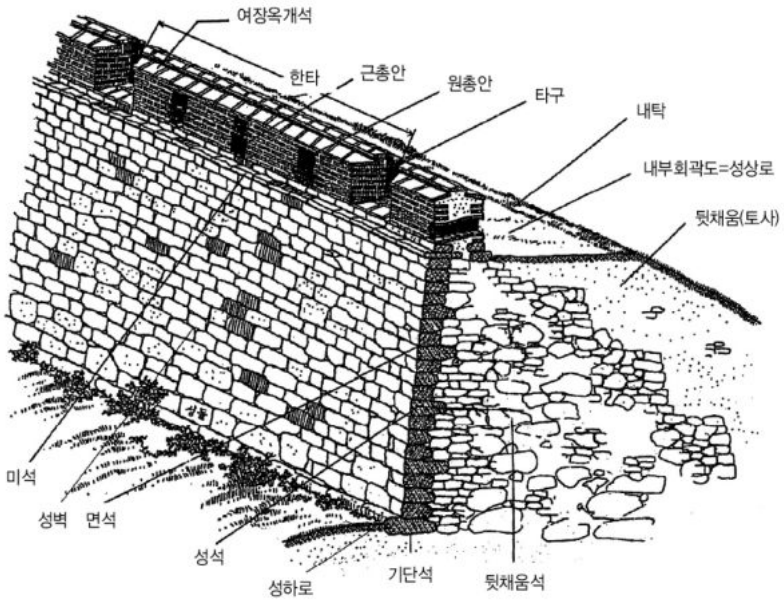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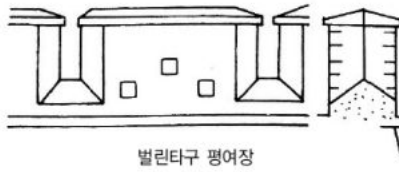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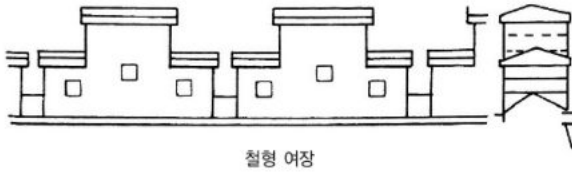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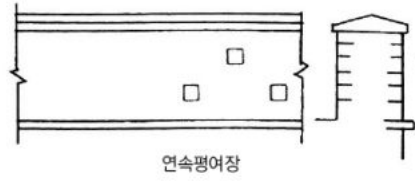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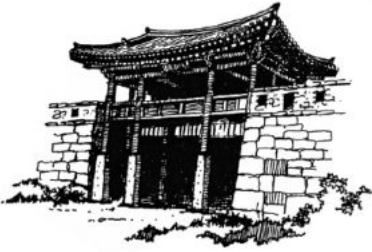
할미산성 집수시설 조사 사진(사진 : 용인시)

용인 할미산성은 호암미술관 대표소에서 마성톨게이트 쪽으로 2.8km 이동 후 마성톨게이트 진입 전 오른쪽 산에 있습니다.

<성곽의 구조와 명칭>

(자료 : 문화재청)





〈개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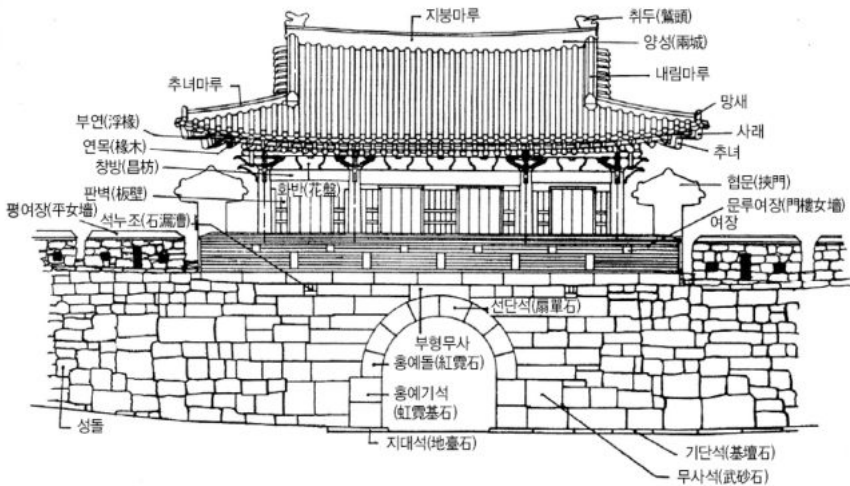
〈평거식〉



〈홍예식〉



〈현문식〉



3

고려시대



승장 김윤후가 몽골군을 물리친 곳 12 처인성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44호
칭 칭 | 처인성 (處仁城)
분 류 | 유적건조물 / 토성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25,564㎡
지정(등록)일 | 1977.10.13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산43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처인성 전경



처인성 서북쪽 토성벽

처인성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에 있으며 둘레 약 425m, 높이 3~6m 가량의 작은 토성입니다. 이곳은 고려 때 ‘처인부곡’으로 불렸는데, ‘부곡’은 ‘향’, ‘소’와 함께 천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곳을 의미합니다. 처인성의 지형을 보면, 야산의 끝자락인 구릉 위에 쌓은 평지성이며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서 성벽 일부는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처인성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일설에는 백제시대에 쌓은 성이라고도 합니다. 처인성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고려도검인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단 2점의 고려시대 칼 중 하나로 큰 가치를 지니며, 또한 처인성에서 고려시대에 전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유물이기도 합니다. 이 곳은 예로부터 동서와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여서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지역이었으며, 고려시대에는 군량을 저장하던 군창(軍倉)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인성 내부

고려 고종 19년(1232)에 몽골의 2차 침입 당시 처인부곡민과 인근의 승려들이 힘을 합쳐 항전하였는데, 백현원(白峴院)의 승려였던 김윤후가 몽골군의 지휘관인 살리타(Salietai, 撒禮塔)를 활로 쏘아 사살했습니다. 장수를 잃은 몽골군은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철군하였으며 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강화도로 천도하였던 고려 조정에서는 김윤후에게 상장군을 제수하려 하였으나 김윤후는 ‘나는 싸울 당시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지 않았는데 어찌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거절하고 대신 하급 무관에 해당하는 섭랑장(攝朗將)의 직을 받았습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되었으며 부곡민들도 평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처인성과 처인현의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1414년(조선 태종 14)부터는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쳐 용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처인성 외부 북쪽 전경

이 성에서 마주 보이는 곳에 말안장 같은 형국의 야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살리타가 화살을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장(死將)터’라고 부릅니다.

처인성은 1977년 경기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하였고, 그때 남서쪽 성곽 120m를 수축하였으며, 1979년에는 동남북 방면의 성곽 205m를 수축하고, 처인성대첩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처인성은 남곡초등학교 입구에서 처인성로를 따라 북쪽으로 850m 이동 후 좌회전 하면 있습니다.

용화봉을 들고 있는 대표적인 불상 13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정면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1호
칭 칭 | 용덕사석조여래입상
 (龍德寺石造如來立像)
분 류 | 불교조각 / 불상
시 대 | 나말여초
수 량/면적 | 1구
지정(등록)일 | 2001.09.16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71-41
소유자(소유단체) | 용덕사
관리자(관리단체) | 용덕사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정측면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측면

용덕사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에 있으며, 조계종 2교구 용주사에서 갈라져 나온 말사입니다. 용덕사 석조여래입상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1호로 지정되었고, 용덕사 미륵전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불상의 높이는 약 2.3m이며, 목과 복부 부분이 절단된 것을 수리하여 붙여 놓았습니다.

이 불상은 원래 용인시 이동면 천리(泉里) 용덕저수지 아래에 있던 것이라 ‘천리 석조여래입상’으로 불렸습니다. 신라 때 천리에는 거밀현(巨密縣) 관아가 있었고, 이 불상은 그 관아에서 모시던 불상이었다고 전해옵니다.¹⁾

1) 李仁寧, 내고장 龍仁 文化遺蹟總攬, 龍仁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所, 1997, pp.271~272.



용덕사 석조여래입상의 얼굴 부분

용덕사 석조여래입상의 머리 부분에는 육계²⁾ 흔적이 남아 있고, 얼굴은 눈과 코를 수리했는데 부자연스럽게 복구되었습니다. 목 부분의 주름인 삼도(三道)는 매우 두껍게 표현되었는데, 목과 가슴, 허리 부분에서는 현대의 석재 가공 공구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체 부분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상의 상체는 많이 변형되었지만 다행히도 전체 모습을 감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불상은 양 어깨를 덮는 통견 방식의 법복을 입고 있는데, 옷의 주름은 ‘우전왕상’ 형식으로 불리는 Y자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전왕은 인도의 왕이며, 도리천에 올라간 석가모니부처를 그리워하며 부처 모습을 나무로 조각하였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³⁾

2) 육계 : 부처의 정수리에 상투처럼 솟은 혹

3) 국립중앙박물관,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2008, p.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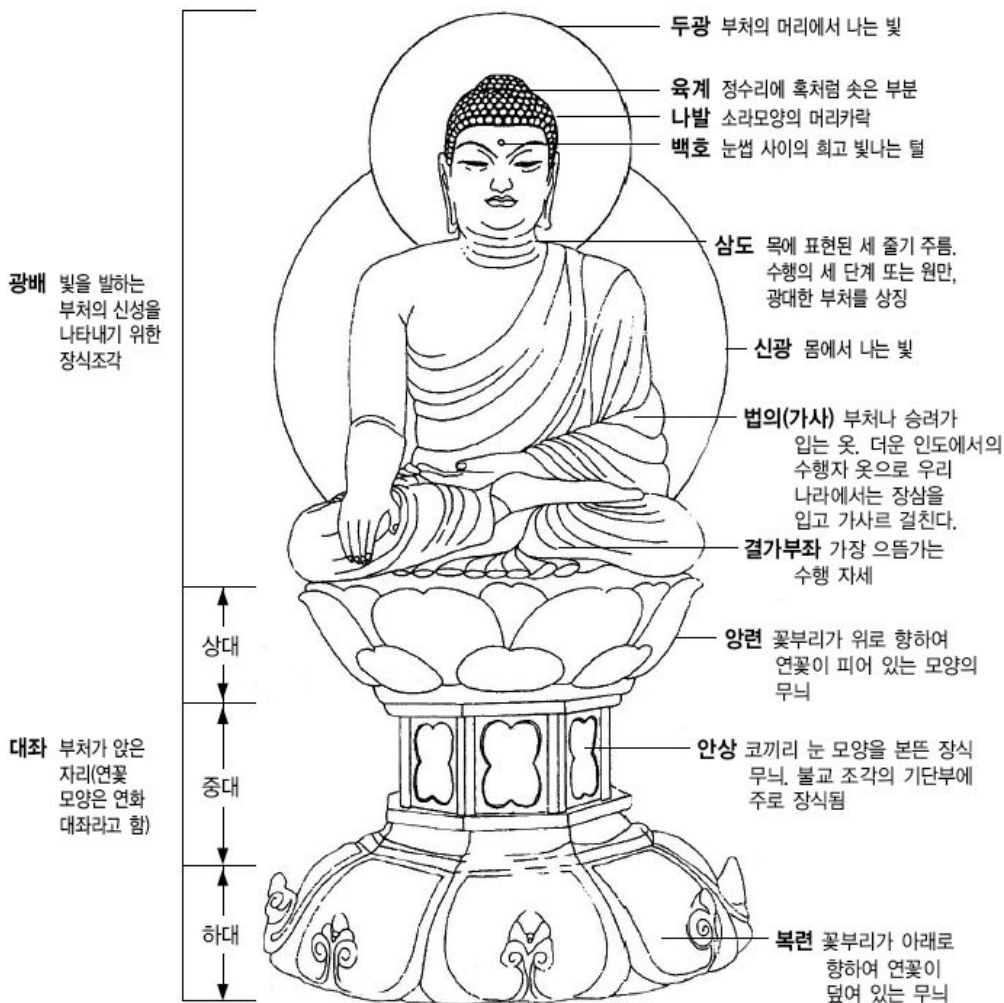
용덕사 석조여래입상 정측면

용덕사 석조여래입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연봉인데, 이 연봉을 용화봉(龍華峯)이라 부르며 미륵불의 지물이라고 합니다. 이 불상은 용화봉을 지닌 대표적인 불상 중 하나이며 불상의 조성 시기는 통일신라말기에서 고려초기로 추정됩니다.

용덕사는 이동면 묵2리 영보자애원 좌측길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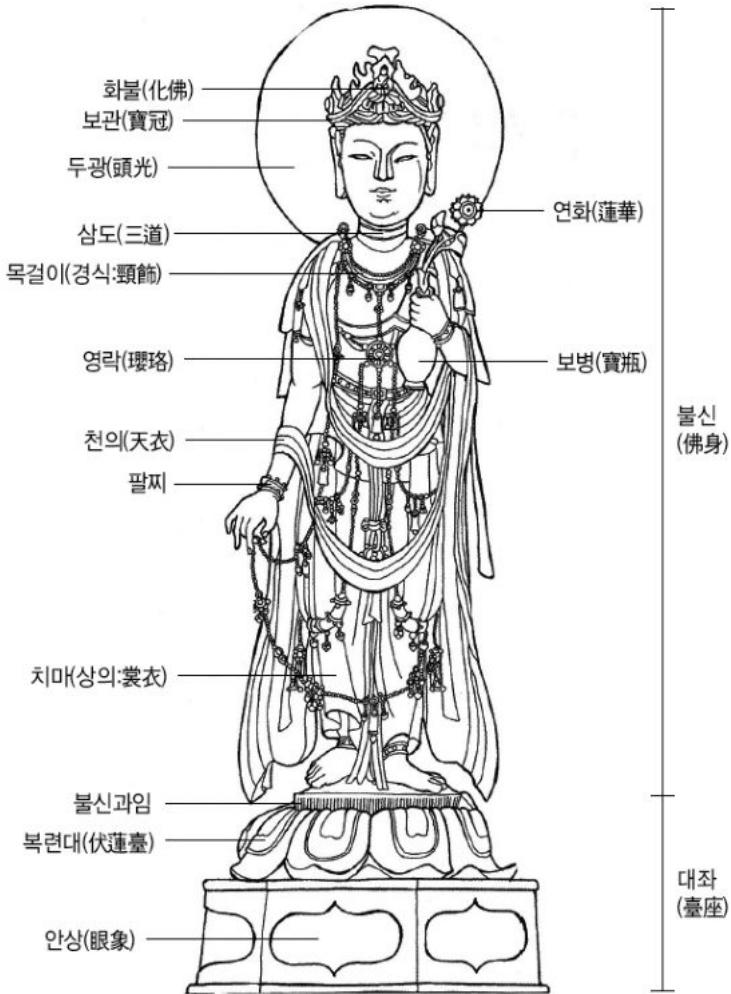
<불상의 부분별 명칭>

(자료 : 문화재청)



<보살상의 부분별 명칭>

(자료 : 문화재청)



고려 전기에 새긴 보살상

14 문수산 마애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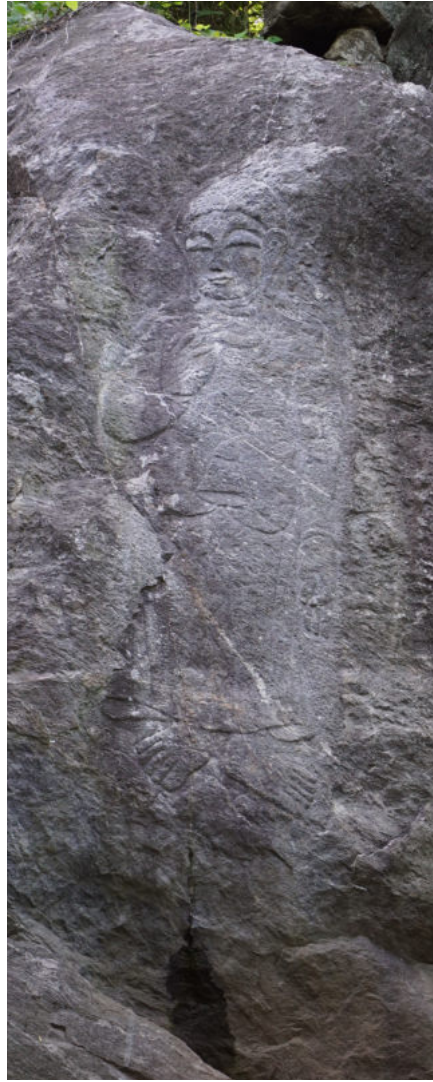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0호
칭 칭 | 문수산마애보살상
(文殊山磨崖菩薩像)
분 류 | 불교조각 / 보살상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2구
지정(등록)일 | 1984.09.12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춘리 산25번지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문수산 마애보살상 전경



문수산 마애보살상 좌측 불상



문수산 마애보살상 우측 불상

〈문수산 마애보살상〉은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문수봉 정상 부근 바위에 조각되어 있으며, 1984년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수산 정상 동쪽에 문수사지로 추정되는 절터가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약 40m가량 떨어진 암반에 새겨진 높이 약 2.7m의 마애보살입니다.



문수산 마애보살상 우측 보살의 허리 매듭

오른쪽의 불상은 머리가 신체에 비해 약간 큰 편이며, 귀는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 있고 목에는 삼도¹⁾가 있으며, 가슴에는 크고 둥근 옷 주름이 있습니다.

허리에는 방울을 단 것처럼 매듭이 새겨져 있고, 손동작(수인)은, 엄지와 검지를 맞댄 오른손을 가슴까지 올리고 있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고 있습니다. 하반신에는 치마 같은 천의를 입고 있고, 옷 주름과 함께 다리의 윤곽을 새겨놓았습니다.

왼쪽의 불상은 머리를 위로 높게 틀어 올렸고, 상호(얼굴)만 놓고 본다면 여래(부처의 열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처럼 보이지만, 옷차림에서 보살상을 알 수 있다. 오른쪽 불상은 옆에 있는 보살상보다 얼굴 크기가 조금 작으며, 미소를 띠고 있어 마치 여성의 상호처럼 보입니다.

1) 삼도 ; 부처와 보살의 목에 표현된 세 줄기의 주름, 수행의 세 단계를 상징하기도 함, 문화재청



문수산 마애보살상 상호 탁본



문수산 마애보살상 상호 탁본

두 불상의 공통점은 하체가 상체에 비해 짧고 팔이 길게 표현된 점입니다. 특히, 손이 매우 크게 표현되어 신체 비례가 어색하며, 상체의 옷이 목 부분과 소매만 표현되어 있어 마치 나신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고려시대 이전 시기의 반가사유상에서 흔히 보이는 수법입니다. 대담하고 단순하게 새긴 형태묘사를 보면 제작 시기는 고려 전기로 추정됩니다.²⁾

문수산 마애보살상은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옆 산길을 통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2) 吳虎錫, 高麗時代 竹州地域 石造美術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20.

우리나라의 고려 초기 백자 가마터

15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종 목 | 사적 제 329호
명 칭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龍仁 西里 高麗白磁 窯址)
분 류 | 유적건조물 / 도자가마
시 대 | 고려시대
수 량/면적 | 4,168㎡
지정(등록)일 | 1989. 01.14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중덕로 7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전경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갑발편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함박산의 남서쪽으로 뺏어 내린 산줄기의 끝자락에 위치한 고려시대 가마터입니다. 196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고려 초기의 백자요지로 9세기 중반 무렵부터 12세기까지 청자와 백자를 생산했던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이곳에는 거대한 퇴적층이 있는데, 퇴적층에서 가마의 유구와 백자, 청자, 도기 조각 등과 작업에 관계되는 건물터도 조사되었습니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가마 퇴적층

가마는 벽돌로 된 가마와 진흙으로 지은 가마가 확인되었는데, 벽돌 가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고 진흙 가마는 길이 83m의 대형가마로, 출입구가 27개나 확인되었습니다. 출토유물로는 그릇이 많으며, 특히 해무리굽을 가진 대접(완)이 대부분입니다. 제작 시기는 10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까지로 추정됩니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가마퇴적층

이 유적은 거대한 퇴적층과 벽돌·진흙 가마의 존재, 다양한 모양의 백자 조각 등이 발견되어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전기에 이르는 도자역사 연구에 획기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백자의 발생과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해무리굽 백자를 만들던 시기의 지층에서 원시 상감청자 조각이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청자의 상감기법이 발생한 시기를 100년 이상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유물입니다.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는 용인대학교 정문에서 학교개 터널 방향으로 약 3km 이동 후 백자로297번길로 좌회전 한 다음 1km 가량 진입하여 문화재 안내판을 따라 마을 길로 올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용인이 고려 백자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유적

16 서리 상반 고려백자 요지

종 목		용인시 향토유적 제45호
명 칭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西里 上盤 高麗白磁窯址)
분 류		유적건조물 / 도자가마
시 대		고려 초기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1997. 12. 10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547



서리 상반 고려백자요지 전경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전경(사진: 용인시)

이 백자 요지는 처인구 이동면 서리 547 번지를 중심으로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여러 곳에 고려 시대 요지(가마터)가 있는데, 서리 중덕 마을의 고려백자 요지는 발굴을 통해 초기 백자의 생산지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리 상반 고려백자 요지’는 용인시 향토유적 제 45호인데, 사적 329호로 지정된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곳 역시 초기 백자의 생산지로 학계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고려 전기의 백자 생산지이며, 유적의 폭은 약 42m, 길이가 72m인 매우 큰 가마터입니다. 백자를 구울 때 사용한 갑발(도자기에 불길이가 직접 닿지 않도록 씌우는 토기)이 쌓여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길이가 53m에 달하는 가마 1기와 수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가마의 운영 시기는 9~11세기이며, 가마터에서 나온 도자기 조각(片)들은 발·완·접시 같은 생활용기와 일상 용기들입니다.

서리 상반 고려백자 요지는 고려 전기 가마의 구조 변화와 백자의 발생 시기·발달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며, 도자기의 유통 관계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경제상까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또한 이 유적은 인접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와 함께 용인 지역이 고려 전기부터 백자 생산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곳은 하반교차로에서 하반곡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약 1.5km 진입하면 우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려 전기의 불상

17 용인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정면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2호
 명 칭 | 용인목신리석조여래입상
 (龍仁木新里石造如來立像)
 분 류 | 불교조각 / 불상
 시 대 | 고려시대
 수 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85.06.28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7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목신리 석조여래입상 배면

〈목신리 석조여래입상〉은 현재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새말(신촌마을)의 가정집 담장 앞에 있는데, 마을 전체가 과거 사역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¹⁾

이 불상의 전체 높이는 현재 약 1.7m이나 허리 아래 부분이 매몰되어 있어 실제 불상의 크기는 2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신촌마을과 안성시 고삼면 가현리의 경계에 위치하여 계미륵(界彌勒)으로도 불렸으며,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1985년에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모가 심해서 불상의 이목구비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머리에 육계가 비교적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귀는 흔적만 남아있고 훼손된 눈과 코 부분은 시멘트로 메워져 있습니다. 목에도 삼도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분명치 않고, 불상의 법의는 통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옷 주름은 전형적인 통견형 법의에서 보이는 ‘U’자형 옷 주름이 아니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사선으로 흐르는 형태가 일부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여 어깨부근까지 올리고 시무외인²⁾을 결하고 있으며,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려서 여원인³⁾을 결하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에는 옷 주름이 희미한 형태로 남아 있는데, 그 형태는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 초기에 만든 여래상에서 볼 수 있는 옷 주름입니다. 이 옷 주름 형태와 수인의 종류 등을 근거로 볼 때 이 불상은 나말여초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신리 석조여래입상은 천주교공원묘지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250m 지점에 있습니다.

1)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 경기남부, 2010, p470 참조

2) 시무외인(施無畏印) : 다섯 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도록 들어올린 형태의 수인으로 중생의 두려움과 근심을 없애준다는 의미

3) 여원인(與願印) : 손바닥을 펴서 내린 손 모양으로 중생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의 수인

신라시대 이후 조성된 전형적인 불상 양식

18 동도사 석불좌상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65호
 명 칭 | 동도사 석불좌상
 (동도사 石佛坐像)
 분 류 | 불교조각 / 불상
 시 대 | 고려 초기
 수 량 / 면적 | 불상1기 / 대좌1기
 지정(등록)일 | 2011.06.27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도면
 어비리 807-9
 (동도사 대웅전 내)
 소유자(소유단체) | 동도사
 관리자(관리단체) | 동도사



동도사 석불좌상



동도사 석불좌상의 대좌

〈동도사 석불좌상〉은 이동저수지가 조성될 때 수몰된 어비리 사지에 있던 것인데, 1963년에 현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불상은 왼손에 약함을 들고 있어서 약사불로 여겨졌는데 1993년 6월 불상을 덮고 있던 석고와 이물질들을 제거한 결과 향마촉지인(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 놓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의 불상으로 밝혀졌습니다.¹⁾

이 불상은 본래 대좌(불상을 올려놓는 대)의 하대석·중대석·상대석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었으나 동도사로 이전한 직후 중대석이 사라지는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사라진 중대석은 팔각 모양이며 각 면마다 여래상과 공양보살상 등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각들은 마모가 심하여 원형을 알 수 없지만, 선정인(불상의 손 모양의 하나)을 취하고 있는 여래좌상도 있으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댄 공양상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석은 하부에 낮은 2단의 받침을 두고 활짝 핀 양련문(仰蓮紋, 연꽃잎이 위로 세워진 문양)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연꽃무늬는 이층으로 단판 16엽을 배치하였으며, 연화문 안에 화문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석불좌상은 상대석 위에서 결가부좌를 취하고 있는데, 방치된 세월 동안 파손되어 원형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근래의 화재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복원하였기 때문에 원형 손상이 심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옷 주름의 섬세한 조각 기법 등을 통해 본래는 수준 높은 불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호(相好, 부처가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다는 신체상의 특징)는 원만하며 머리에는 나발이 표현되어 있고 육계가 알맞게 솟아나 있습니다. 연화문의 표현 기법이 우수한 것으로 보아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도사는 어비리 마을회관에서 어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李仁寧, 내고장 龍仁 文化遺蹟總攬, 龍仁文化院 附設 鄉土文化研究所, 1997, pp.264~265.

별석괴임이 눈길을 끄는 나말여초기의 삼층석탑

19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4호
 명 칭 | 용인어비리삼층석탑
 (龍仁魚肥里三層石塔)
 분 류 | 유적건조물 / 탑
 시 대 | 신라말~고려초기
 수 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4.11.29
 소 재 지 | 용인시차안구 이동면 차안구
 이동면 어진로 842
 소유자(소유단체) | 동도사
 관리자(관리단체) | 동도사

어비리 삼층석탑 우측경



어비리 삼층석탑 좌측면

〈용인 어비리 삼층석탑〉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4호이고, 현재 동도사 경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 석탑이 있던 곳은 이동저수지에 있던 사찰인데, 1963년 당시 석불좌상과 함께 동도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석탑은 네모난 이중 기단¹⁾ 위에 삼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이 있는 전형적인 삼층 석탑입니다. 석탑의 전체 높이는 3.25m이며 기단부 높이는 1.23m로 규모가 작은 석탑에 속합니다.

이 탑의 기단부분은 여러 개의 돌을 정교하게 짜 맞추었는데, 상층 기단에는 우주²⁾ 2주와 탕주³⁾ 1주를 얇게 조각하였습니다. 상대갑석⁴⁾ 위에는 별도로 탑신괴임을 마련하였는데 이중기단과 별석 탑신괴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신라 말기의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기단 : 건물, 석탑 등의 하부에 위치하는 받침 단
- 2) 우주(隅柱) : 모서리 기둥
- 3) 탕주(撐柱) : 가운데 기둥
- 4) 상대갑석(上臺甲石) : 여러 단으로 된 탑의 기단부의 윗 부분(上臺)에 덮은 뚜껑돌(甲石)



어비리 삼층석탑 탑신괴임

석탑의 규모나 3층 옥개석⁵⁾ 상부에 남아있는 원공⁶⁾을 통해 탑신부가 원래부터 3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탑신석들에는 기단부와 같이 우주를 얹게 조각하였으며, 1층 탑신석과 2층 탑신석의 비례는 2: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옥개석을 세공하는 치석⁷⁾수법은 고르고 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마부에는 일정한 너비로 낙수홈대를 마련하였으며, 처마선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낙수면을 따라 급경사를 이루며 내려오다가 유려한 곡선을 이루며 처마 쪽으로 흐르도록 치석되었습니다. 옥개석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규모만 작아질 뿐 치석 기법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었습니다.

이 석탑은 수도권 석탑에서는 보기드문 별석 탑신괴임이 눈길을 끄니다. 별석 탑신괴임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유행한 석탑의 부재입니다. 또한 이 석탑은 통일신라의 석탑에 비해 규모가 작는데, 그 점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석탑으로 추정됩니다.⁸⁾

동도사 석불좌상과 함께 동도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 옥개석(屋蓋石) : 탑이나 석등의 지붕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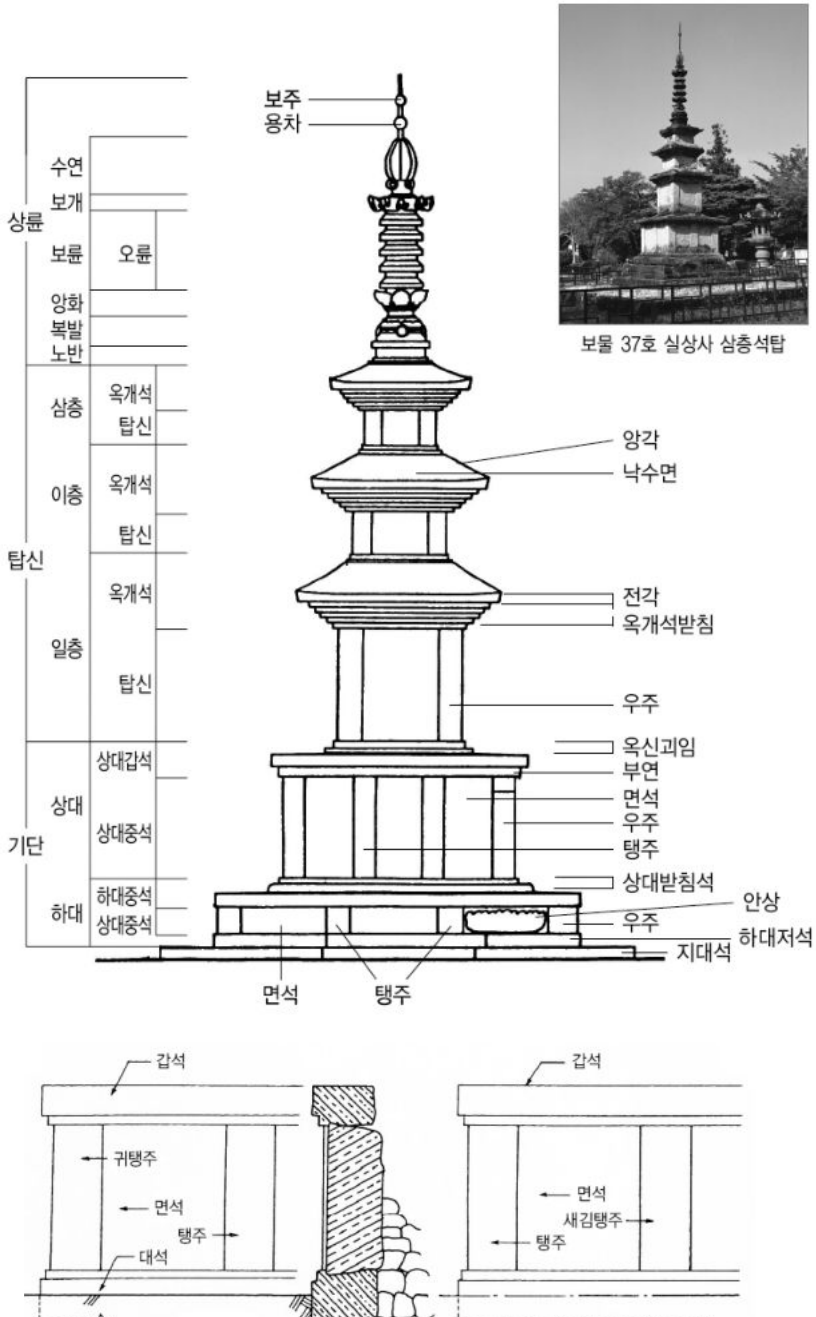
6) 원공(圓孔) : 본문에서는 탑신부 위로 상륜부를 설치하기 위해 만든 구멍을 의미함

7) 치석(治石) : 석공이 돌을 세공한 솜씨나 방법

8) 엄기표, 龍仁 魚肥里 三層石塔에 대한 考察, 龍仁 東度寺 (漁肥里 寺址), 東度寺, 2005, pp.107~109.

<석탑의 부분별 명칭>

(자료 : 문화재청)



사라진 고려 초조대장경의 실체를 보여주는 화엄경 20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종 목 | 국보 제256호
 명 칭 |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1
 (初雕本大方廣佛華嚴經周本卷一)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권1축
 지정(등록)일 | 1990.09.20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사진 : 문화재청)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중 표전문(사진 : 문화재청)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는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석가의 크고 넓은 깨달음이 담긴 대승경 전입니다. 이 경전은 화엄종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방광불이란 대방광(大方廣)의 이치를 깨달은 부처님을 가리키며, ‘대방광’이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또는 대승 불교의 교법이 담긴 대승경(화엄경·대집경·반야경·법화경·열반경)을 가리킵니다.

화엄경은 세 가지 한역본이 있는데, ‘진본’은 중국의 동진 때 불타발 타라(부다바드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입니다. 다음으로 ‘주본’은 당나라 측천무후가 국호를 주(周)로 고쳤을 때 실차난타(實叉難陀, 시크샤난, 타클라마칸 사막의 우전국 사람)가 화엄경을 들고 와서 번역한 80권 화엄경이며, 진본에서 누락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정원본’은 당나라 정원 연간(785~804년)에 반야가 <보현행원품> 만 따로 번역한 것입니다.

국보 제25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은 실차난타가 번역한 주본 80권 중 권 제1에 해당됩니다. 이 유물은 고려 현종(1011~1031) 때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인데, 초조대장경 목판은 훗날 몽골의 침입 때 불에 타서 소실되었습니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크기는 세로 28.5cm, 가로 1223.5cm입니다.

이 초조대장경은 훗날 새로 만든 해인사 대장경판(재조대장경 또는 고려대장경)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목판의 새김이 정교하며, 해인사대장경과 글자 수가 다르고 간행연도를 적은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초조대장경은 책의 장수를 표시할 때 ‘장(丈)’자나 ‘폭(幅)’자를 쓰는 데 해인사대장경은 ‘장(張)’자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요가를 통해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불서 21 유가사지론 권17

종 목 | 국보 제244호
 칭 | 유가사지론 권17
 (瑜伽師地論 卷十七)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권 1축
 지정(등록)일 | 1988.12.28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명지학원
 관리자(관리단체) | 명지대학교박물관



유가사지론 권17(사진 : 문화재청)

『유가사지론』은 대승불교의 한 갈래인 유가행파의 기본적인 사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유가사의 경지에 대한 논서’라는 뜻이고, ‘유가사’라는 건 유가행(yoga)을 수행의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요가를 한자로 표기하려니 ‘유가’가 된 것입니다. 요가의 핵심 원리를 대승불교의 수행 원리로 받아들인 것인데, 몸의 자세와 진언(眞言, 진실하여 거짓 없는 말), 명상을 통한 자기 수련으로 성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논서를 지은 사람은 4세기 경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보살인 인도의 마이트레야(Maitreya, 미륵보살)로 알려져 있고, 번역한 사람은 당나라의 승려 현장입니다. 『유가사지론』은 고려 현종 때(11세기) 간행한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인데, 국보 제244호로 지정된 ‘유가사지론 권17’은 전체 100권 가운데 17권이며 습(習) 자의 함에 들어있고, 종이는 닥나무 지이며,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8.5센티미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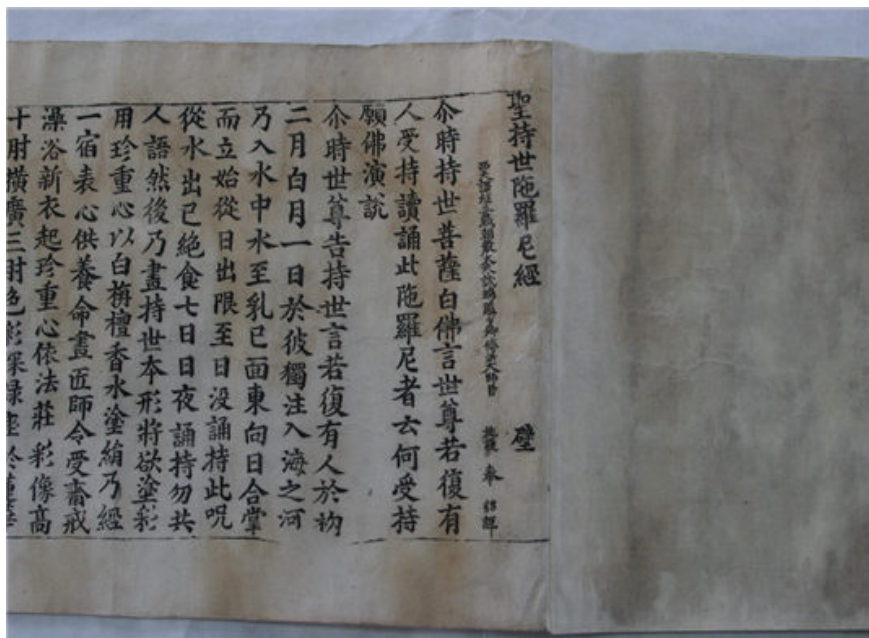
이 초조본(처음 새긴 판본)은 『현양성교론』 권11(국보 제243호)과 같은 시기인 11세기에 새겨 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다시 새긴 판본(재조본)과는 판식과 간행기록이 서로 다른데, 초조본은 경(敬)자, 경(竟)자가 각각 횡수가 빠져있으나 다시 새긴 본은 모두 완전하게 고쳐 새겨져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각기술은 초조본이 재조본보다 나은 편이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초조대장경 가운데 보존상태가 좋은 것에 속합니다.

소장처인 명지대학교 박물관은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려 초조대장경 판본

22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

종 목 | 보물 제1579호
 명 칭 |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
 (初雕本 聖持世陀羅尼經)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권1축
 지정(등록)일 | 2008.12.22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초조본 성지세다라니경(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은 고려시대(11세기)에 간행된 불경으로, 10세기 말에 인도 출신의 학승 시호(施護)가 번역한 초조대장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지세 다라니(聖持世陀羅尼)’라는 이름은 ‘덕망이 높은 지세보살(持世菩薩)의 주문’이라는 뜻이며, ‘사람이 무거운 죄를 없애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 주문을 잊지 않고 외면 복을 얻는 수단이 되고, 부처와 비구들을 공양하면서 주문을 외면 더 큰 복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판의 새김이 정교하고 글자의 먹색에 윤이 나며 지질(닥종이)이 질박하다는 점에서 11세기 인출본으로 판명되었고, 정각본(정서한 원본을 정성껏 조각하여 먹으로 처음 인쇄한 것)으로서 초조판(初雕板)의 원형을 살필 수 있어 역사적 의미가 큰 유물입니다.

권말에는 신역(新譯)할 때의 증의자(證義者), 철문(綴文), 필수(筆授), 증범문(證梵文), 증범의(證梵義), 윤문(潤文)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에 불경을 한역하는 방법과 역경(譯經)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크기는 세로 29.5cm, 가로 548.5cm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12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제사용 향로

23 청자 양각도철문 방형향로

종 목 | 보물 제1026호
 명 칭 | 청자양각도철문방형향로
 (靑磁陽刻饗養文方形香爐)
 분 류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시 대 | 고려시대
 수 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1990.05.21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562번길 38
 호암미술관(가실리)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호암미술관



청자양각도철문 방형향로(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은 중국 주나라의 청동기 가운데 네모난(방형) 솥의 형태를 모방하여 만든 청자 향로로, 크기는 높이 11.8cm, 입구 부분 지름 17.5×14.9cm, 밑지름 12.5×9.4cm입니다. 네모꼴을 부드럽게 변형시켜 밑이 좁고 위가 넓은 사다리꼴로 만들고, 윗면에 각진 고리를 두 개 달았으며, 몸체 네 귀퉁이마다 매미를 두 마리씩 조각하였습니다.



청자양각도철문 방형향로 무늬(사진 : 문화재청)

향로의 몸체 안쪽에는 무늬가 없지만, 손잡이와 턱 쪽에는 꽃무늬와 번개무늬를 얇게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새겨 넣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와 같은 무늬 수법으로 몸체 바깥 면에 돌아가며 뺨뺨하게 무늬를 새겼는데, 윗면에는 네모 안에 동심원 무늬와 회오리 무늬가 교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번개 무늬가 잔잔하게 깔려 있고 그 바탕 위에 두 마리의 도철(재물과 음식을 탐내는 악한 동물)이 마주보는 모습이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취색의 유약이 전면에 얇고 고르게 입혀져 정교하게 새겨진 무늬들을 세세히 볼 수 있으며, 얇게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새긴 양인각(陽印刻)의 무늬 장식이 매우 빼어난 유물입니다.

이 향로의 무늬들은 소재와 배열에서 제기(祭器)라는 용도와 잘 어울리며, 양식적으로 봤을 때 12세기에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가마에서 제작된 청자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소장처인 호암미술관은 에버랜드 후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려불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물

24 아미타여래도



종 목 | 보물 제1238호
 명 칭 | 아미타여래도 (阿彌陀如來圖)
 분 류 | 회화 / 불화
 시 대 | 고려시대
 수 량 / 면 적 | 1폭
 지정(등록)일 | 1996.04.04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로 134
 용인대학교박물관(삼가동)
 소유자(소유단체) | 우학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대학교

아미타여래도(사진 : 문화재청)

아미타여래는 극락세계(불교의 이상세계)에 머물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왕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부처이며, 무한한 수명을 가진 부처라는 뜻에서 ‘무량수불’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 불화의 대부분은 아미타여래를 주제로 한 것이며, 극락에서 설법하는 모습이나 염불 수행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 그림은 수행자들을 맞이하는 아미타여래의 자세를 그린 것인데, 보통은 오른쪽을 향하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는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가사와 녹색의 장삼을 입고 있는 아미타여래는 왼손을 가슴 앞쪽에 놓고, 오른손은 아래로 내린 채 양발을 약간 벌리고 서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의 머리 뒤에는 금가루로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붉은 가사와 녹색 장삼, 그리고 금가루로 그린 원 무늬 등은 고려불화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비단 바탕에 채색이며, 크기는 가로 203.5cm, 세로 105cm입니다.

이 불화에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은 없으나 전체적인 모습이 일본 동해안에 소장된 고려시대의 〈아미타여래입상도〉와 비슷하여 같은 시대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로 내린 오른손으로 엄지와 중지를 모아 중품인을 취한 것이나, 왼손은 아무런 손 모양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작품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소장처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 제작된 화려하고 섬세한 고려 불화

25 수월관음도



종 목 | 보물 제1286호
명 칭 |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분 류 | 회화 / 보살도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폭
지정(등록)일 | 1998.10.10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134
용인대학교박물관(삼가동)
소유자(소유단체) | 우학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대학교

수월관음도(사진 : 문화재청)

불교에서 관음보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 고난에 빠진 중생을 안락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자비로운 보살입니다. 보물 제 1286호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의 묘사와 함께 그가 머무는 정토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관음보살은 화불이 있는 보관을 썼으며,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좌 자세로 바위에 걸터앉아 선재동자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선재동자는 왼쪽 아래 구석에서 허리 굽혀 합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화엄경』의 한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관음보살 주위에는 금색으로 월형이 그려져 있고, 뒷 배경에는 한 쌍의 대나무가 그려져 있으며, 앞에는 버들가지가 꽃힌 꽃병이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정면이 아닌 왼쪽으로 약간 돌아앉은 자세로, 동자승을 내려다보는 그윽한 눈빛이 승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 구성은 14세기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상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그림의 윤곽선과 세부 묘사에는 붉은색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배일의 바탕과 주름선은 백색으로 그린 뒤에 금가루에 아교를 섞은 금니로 겹쳐 그렸고, 안쪽에는 고려 문양의 특징인 연꽃무늬를 원안에 넣었습니다. 입고 있는 치마는 붉은색을 칠하고 백색 안료로 거북 등껍질 문양을 그린 다음 그 위에 먹선을 덧그려 문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본래 퇴색이 심했으나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보수작업을 해서 본 모습을 거의 되찾아 현재는 바탕 비단과 안료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전체적인 형상에 안정감이 있으며 고려 불화의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수월관음도의 양식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며, 섬세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소장처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공예품 같은 고려 후기의 석탑

26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공세리 오층석탑 우측면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2호
명 칭 |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龍仁貢稅里 五層石塔)
분 류 | 유적건조물 / 탑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83.09.19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81번길 48 (공세동)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개인



공세리 오층석탑 정측면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2호로 지정된 석탑입니다. 이 탑은 기흥초등학교에서 신갈저수지 방향으로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탑안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2층 기단을 갖춘 평면 네모꼴의 오층석탑이며, 높이는 약 2.6m입니다. 탑 옆에는 머리 부분이 없는 석불좌상과 대좌가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하대갑석에 해당하는 대석 상부가 노출되어 있는 단층 기단인데, 『기내사원지』에는 지대석과 하층기단부가 매몰되어 있다고 나옵니다.¹⁾ 하층 기단에는 측면에 안상(眼象)²⁾이 네 개씩 조각되어 있으며, 안상 가운데에는 연꽃이 핀 화려한 형태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1) 京畿道, 機內寺院誌, 1988, p.623.

2) 안상(眼象) : 불상의 대좌나 석등, 석탑, 목조건축 등, 불교 미술품에서 나타나는 문양으로 코끼리의 눈을 의미한다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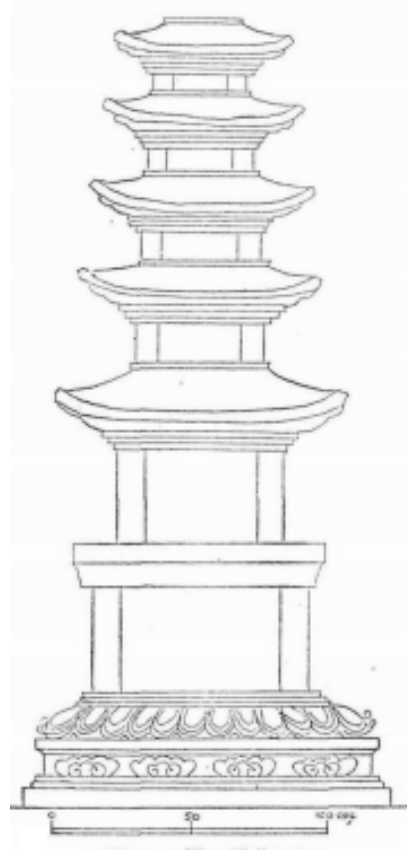
공세리 오층석탑 기단부

상층기단부에는 원래 4매의 면석(面石)³⁾이 있었겠지만 현재 2매가 유실되어 좌우의 면석만 남아있습니다. 탑신부는 5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 탑신과 옥개석(지붕돌)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2층 이상은 탑신부와 옥개석이 통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탑신부에는 우주(모서리 기둥)가 조각되어 있으며, 옥개석 하부에는 3단의 옥개받침을 두었습니다. 옥개석의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나 모서리는 위쪽으로 경쾌하게 들리게 만들어졌습니다. 옥개석 상면에는 1단의 낮은 탑신괴임이 모각되어 있습니다. 노반 이상의 상륜부는 사라졌으나, 5층 옥개석 윗면에는 직경 37mm 정도의 원형 찰주공이 뚫려있어 과거 석탑 위로 상륜부가 존재했음을 알려줍니다.

3) 면석(面石) : 상층기단과 하층기단의 주축부로 네 면을 이루는 벽체부분



공세리 오층석탑 정측면



공세리 오층석탑 실측도
(이은창, 용인 공세리 오층석탑,
고고미술 제6권 제5호, 1965년)

이 석탑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오층석탑인데, 하층기단부에 안상이 새겨져 있고, 기단 갑석에 양련이 새겨져 있는 등 세공수법이 세밀하고 보존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탑의 형태와 구조에서 보이는 특징을 고려할 때 공세리 오층석탑은 한강 이남에 남아있는 15~16개의 고려 중기 탑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세리오층석탑은 기흥초등학교 정문에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공세로82번길을 따라 약 500m 이동 후 우측 방향에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민간이 주도하여 만든 석불

27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44호
칭 칭 |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龍仁 彌坪里 藥師如來立像)
분 류 | 불교조각 / 불상
시 대 | 고려시대
수 량/면적 | 1구
지정(등록)일 | 1983.09.19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로 81번길 38-9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정면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은 원삼면 미평리 마을회관 뒤편으로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불상의 높이는 4.3m로 용인 지역의 불상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상당히 큰 키에 얼굴이 긴데 상대적으로 신체는 짧아서 3등신 정도로 보입니다.

풍만하고 넉넉한 얼굴과는 달리 신체는 평면적으로 조각하였습니다. 특히 양손이 지나치게 작고, 양발 또한 따로 제작하여 불상과 배례석 사이에 놓았는데 왜소하여 부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얼굴은 이마와 턱을 둥글게 처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깝고, 목에는 수행의 세 단계를 의미하는 삼도가 선명하며, 귀는 큼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마에는 눈썹 사이의 터럭인 백호를 새겼습니다.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맞댄 모양으로 손등을 내밀었고, 왼손엔 감로정병을 들었습니다. 옷은 양 어깨에 법의를 걸친 통견이며, 옷 주름은 발밑까지 크게 ‘U’자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미평리 약사여래입상의 정병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병을 손에 지니고 있는 점입니다. 관음보살의 지물로 알려진 정병을 부처가 들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학술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나, 고려시대에는 전 시대보다 불교가 지방으로 널리 퍼지면서 불상을 관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여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생소한 불상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¹⁾

1) 임석규, 용인지역 불상의 현상과 양식적 특징, 용인의 불교유적, 용인시·용인문화원, 2001, pp.207-208.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정측면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배면

이 불상의 또 다른 특징은 옷 주름인데, 부근에 있는 주요 불상들의 옷 주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불상의 다리와 다리 사이에는 굵은 선이 돌을새김으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옷 주름은 다른 불상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을 띠 형식의 굵은 옷 주름이 새겨진 까닭은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은 고려 초기에 조성된 불상인데, 다리와 다리 사이에 수직선의 선명한 띠가 돌을새김 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과 <용인 미평리 약사여래입상>은 약 17k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²⁾

이 입상은 미평1리 마을회관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2) 정성권, 高麗 光宗代 石佛의 특성과 영향, 文化史學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pp.596~599.

통일신라의 삼층석탑 양식을 계승한 고려 석탑

28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



법륜사 삼층석탑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5호
명 칭 |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
(龍仁法輪寺三層石塔)
분 류 | 유적건조물 / 탑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9.03.10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농촌파크로126(원삼면, 법륜사)
소유자(소유단체) | 법륜사
관리자(관리단체) | 법륜사

〈용인 법륜사 삼층석탑〉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5호로 지정된 석탑입니다. 이 탑은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던 이덕문 씨가 집에 있던 것을 법륜사에 기증한 것입니다. 탑의 연혁이나 유래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이 석탑은 법륜사 관음전 앞에 서 있습니다. 2매의 판석으로 지대석을 만들었으며 지대석 위에 단층 기단을 올렸습니다. 기단은 1매의 통 돌로 만들었으며, 기단 각 모퉁이에는 우주(꺾기둥)를 조각하였습니다. 대개 탑신석은 1매의 돌로 제작하지만, 기단을 1매의 돌로 만든 탑은 드문 편입니다. 간혹 소형 석탑에서 하나의 돌로 기단을 만든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법륜사 삼층석탑의 경우 소형 석탑으로 보기에 큰 편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석탑에서 기단을 통 돌로 만든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 석탑을 통일신라의 삼층석탑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중·후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단 위에는 1매의 돌로 갑석을 올렸고, 갑석 하단에는 두꺼운 부연이 있습니다. 갑석 상면에는 2단의 탑신받침이 있습니다. 1층 탑신석은 2층과 3층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만들었습니다. 옥개석은 평평한 편이며, 옥개받침은 1층과 2층이 4단으로 되어 있고 3층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륜부는 사라졌으나 석탑을 옮길 당시 새로 상륜부를 만들어 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륜사는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 농촌파크로를 따라 약 300m 가량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려 중기의 삼층석탑

29 두창리 삼층석탑



종 목		용인시 향토유적 제19호
명 칭		두창리 삼층석탑 (杜倉里 三層石塔)
분 류		유적건조물 / 탑
시 대		고려시대
수량/면적		높이 약 2m
지정(등록)일		1990.11.22.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1447-2

두창리 삼층석탑 전경



두창리 삼층석탑 기단부

용인 <두창리 삼층석탑>은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두창저수지 서안에 있습니다. 이 석탑은 원래 두창리 1439번지 개인 소유의 밭에 있었으며, 오랫동안 이정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에 저수지의 제방을 쌓으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웠으며, 한때 2층 이상의 부재를 도난당하여 1층만 남아있었으나 주민들이 부재를 되찾아 복원하였습니다.

이 석탑은 화강암을 거칠게 다듬어 만들었는데, 전체 높이는 약 2m에 달하며, 비교적 큰 기단 위에 탑신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형태입니다. 기단 하부는 1매의 판석으로 되어있는데 크기는 가로세로 약 1.2m, 두께는 약 0.2m입니다. 그 위로 면석 4매를 놓고 2매로 된 상대갑석을 덮어 기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기단 위에 올린 1층 탑신석과 2층 탑신석 모퉁이에는 모두 우주(모서리 기둥)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3층 탑신석은 마치 상륜부의 노반¹⁾처럼 보이니 모퉁이에 우주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3층 탑신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노반(露盤) : 탑신부 위에 올려 상륜부의 기초가 되는 사각형 돌, 승로반(承露盤)을 줄여서 이르는 말



두창리 삼층석탑 정면

1층 옥개석(지붕돌)과 2층 옥개석은 옥개석 지붕돌의 두께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2층 옥개석은 측면이 1층 옥개석보다 얇게 만들어졌으며 전각 부분의 두께 역시 두껍지 않습니다. 옥개석 두께 차이만 놓고 본다면 이 석탑에는 다른 석탑의 옥개석 부재가 섞인 것처럼²⁾ 보이지만, 1층 옥개석과 2층 옥개석 모두 옥개받침이 3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돌의 재질이 비슷하고 탑신석의 비례가 별로 어색하지 않은 점에서 본래 한 석탑의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3층 옥개석은 원래 석탑 아래에 놓여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분실된 상황입니다.

2) 배병선, 용인지역 석탑현황, 용인의 불교유적, 용인시·용인문화원, 2001, p.220~224.



두창리 삼층석탑 삼층 탑신석



두창리 삼층석탑 상대갑석

이 석탑은 치석 수법이 거친 편이지만 기단이 단층이면서도 탑신이 비교적 큰 편이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탑의 전체적인 형상과 3단의 받침을 가진 옥개석으로 볼 때 고려 중기 이후에 조성된 석탑으로 추정됩니다.

두창리 삼층석탑은 평대사거리에서 두창저수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900m 가량 이동하면 왼쪽 편에 있습니다.

고려 명종 연간의 고승 현오국사의 탑비

30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종 목 | 보물 제9호
명 칭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龍仁 瑞鳳寺址 玄悟國師塔碑)
분 류 | 금석각 / 비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63.01.21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국유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현오국사탑비와 보호각



서봉사지 명문 기와 막새(사진 : 용인시) 이 개울을 따라 10리나 흘러내려가, 왜군이 물을 따라 올라가서 절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현오국사탑비〉는 광교산 동쪽 서봉사지에 있습니다. 서봉사가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남아있는 절터의 규모를 보면 아주 큰 절로 추정됩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절에서 나온 쌀뜨물

이곳이 서봉사의 옛터임이 밝혀진 것은, 〈현오국사탑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각을 세우는 공사를 하던 도중에 기록이 남아있는 기와조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명종 15년(1185)에 세워진 이 탑비는 현오국사(玄悟國師)의 행적을 후대에 알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스님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탑비는 사리를 모신 부도탑과 함께 건립되는데, 서봉사지에는 부도의 흔적은 아직 확인 되지 않았고 이 비석만 남아 있습니다. 비석의 형태는 화강암으로 된 받침 위에 점판암으로 만들어진 몸돌이 놓인 단출한 모습입니다. 비 받침 부분의 윗면은 네 귀퉁이를 비스듬히 잘라내었고, 비문이 새겨지는 비 몸에도 윗부분의 양귀 끝을 사선으로 접듯이 잘라서 마무리하였습니다. 비 몸의 높이는 1.8m, 너비는 0.97m입니다.

비문에는 글을 지은 이와 건립연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쓴 사람은 이지명(李知命, 고려 명종 대의 문신)이며, 글씨를 쓴 사람은 초서로 이름을 날렸던 유공권(柳公權)입니다.



현오국사탑비 정면

비문에 의하면 현오국사는 고려 중기의 승려로 세속의 성은 왕씨(王氏)였으며, 속명은 종린(宗璘)이었습니다. 15세에 불일사(佛日寺)에서 승려가 된 후, 부석사(浮石寺)의 주지를 거쳐 명종 8년(1178) 53세의 나이로 입적하였습니다. 명종은 크게 슬퍼하며 그를 국사(國師)로 삼고, ‘현오(玄悟)’라는 시호를 내린 뒤 동림산 기슭에서 다비(화장)하였다고 합니다. 현오국사는 대각국사 여풍의 권위를 계승한 대표적인 고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오국사탑비로 가려면 신봉교에서 우회전하여 신봉1로를 따라 570m 이동 후 신봉1로439번길을 따라 80m 가량 이동한 다음, 서봉사 안내판 출발점에서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속된 명찰’ 서봉사

서봉사지는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인 광교산 동남쪽 해발 260m의 구릉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세워진 사찰이며, 조선 초기 승유억불 정책 하에 시행되었던 사찰혁파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을 정도의 큰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서봉사지는 자연적인 경사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6단의 석축을 마련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산지가람입니다. 절터의 남북 길이는 약 130m, 동서 폭은 약 90m로 추정됩니다.



서봉사지 발굴조사 지역 전경(사진 : 용인시)



서봉사지 발굴조사 중 출토 유물(사진 : 용인시)

절터 대부분은 폐허에 가까우며 탑과 석등과 같은 과거 서봉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널려 있었고 현오국사탑비 주변 등 일부만 정비된 상태입니다.

『태종실록』의 태종 7년(1407) 12월 2일 기사를 보면 용구(龍駒)¹⁾의 서봉사를 나라의 복을 비는 사찰인 자복사(資福寺)의 하나로 정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1530년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1799년에 편찬된 『범우고(梵宇攷)』에도 현존한다는 기록이 있어 18세기 후반까지 존속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용구 : 용인의 옛 지명,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쳐 용인이 되었음



서봉사지 금당지 일대 발굴조사 현장(사진 : 용인시)

그러나 20세기 초에 편찬된 『사탑고적고(寺塔古蹟攷)』에는 폐사된 것으로 나와 있어 19세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광교산 전투와 연관 지어 폐사시기를 주장하기도 하나, 정확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을 맑고 담백하게 노래한 고려의 시인

31 진화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31호
명 칭 | 진화 묘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2.10.12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산38
소유자(소유단체) | 여왕암씨창양군종회



진화 묘 전경



진화 묘 봉분과 석물

진화는 고려시대의 시인이며, 본관은 여양(驪陽)이고 호는 매호(梅湖)입니다. 출생연도는 대략 1180년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려 고종(高宗) 때 정언(正言)¹⁾, 보궐²⁾, 우사간³⁾을 거쳐 지공주사를 지낸 문신입니다. 글재주가 뛰어나 고려 명종(明宗)이 소상팔경(瀟湘八景, 중국 후난성 샹오상의 여덟 가지 아름다운 풍경)으로 시를 짓게 하자 장편을 지어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시는 현재 59수가 전하고 있으며, 그 중 무신의 난 이후의 피폐한 농촌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도원가(桃源歌)〉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금나라에 사신으로 가면서 지은 〈사금통주구일(使金通州九日)〉, 〈봉사입금(奉使入金)〉도 그가 남긴 뛰어난 시문입니다.

진화는 자연을 소재로 하여 맑고 담백하게 노래한 시도 썼지만, 비판적인 자세를 굽히지 않는 청렴한 관료문인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조선 선조 때의 허균(許筠)은 그의 시를 가리켜 ‘맑고 굳세어 율을 만하다’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1) 정언 : 고려시대에 중서문화성에 속한 종6품의 관직으로 후에 정6품으로 승급되었음
- 2) 보궐 : 중서문화성에 속한 정6품 벼슬이며 후에 헌납으로 고침
- 3) 우사간 : 중서문화성에 속한 정6품 벼슬로 후에 정5품으로 승급되었다가 다시 종5품으로 바뀜, 간쟁을 맡아보는 업무를 담당



진화 묘 상석과 향로석

정조(正祖) 8년(1784) 진화의 16세손인 후(厚)가 『동문선(東文選)』, 『동인시화(東人詩話)』, 『기아(箕雅)』 등에서 시를 찾아내어 『매호유고(梅湖遺稿)』를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1973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려 명현집II』에 영인되어 있습니다.

진화의 묘소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산 38번지에 있습니다. 봉분 하단의 기단부에 장대석을 두었고, 봉분 앞쪽에 혼유석, 상석, 향안석, 장명등이 있으며, 묘소 양측에 망주석과 문관석, 봉분 우측으로 표석과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문인석은 33×40×150cm, 상석은 114×83×33cm, 향로석은 28.4×28.4×34.5cm, 표석은 23×71×12cm의 크기입니다.



진화 묘역 내 문인석

이 묘는 진화 사후 5백여 년이 흐르는 동안 찾지 못하다가 1849년(己酉) 후손 동오(東五)가 지석을 발견하여 유택(遺澤)을 복원하였습니다. 1921년(辛酉)에 23세손 평호(平鎬)가 묘소를 단장하고 석물과 묘표를 세웠으며, 1978년에는 종중에서 묘비를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화 묘는 원암보건진료소에서 천덕산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약 500m 이동 후 원암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100m 이동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석탑양식을 계승한 고려의 석탑 32 용천리 오층석탑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66호
 명 칭 | 용천리 오층석탑
 (湧泉里 五層石塔)
 분 류 | 유적건조물 / 탑
 시 대 | 고려시대
 수 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12. 8. 2
 소 재 지 |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산67-11

용천리 오층석탑 정면



용천리 오층석탑 탑신부

〈용인 용천리 오층석탑〉은 백암면 용천리 ‘용인 MBC 드라마이’ 주차장에서 북서쪽 오솔길을 따라 약 250m 가량 오르면 있습니다. 이 석탑은 원래 절터로 추정되는 인근 논바닥에 흩어져 있던 부재들을 모아 1978년에 복원한 것입니다.¹⁾

이 석탑은 향토유적 제66호로 지정되었고, 크기는 약 4.3m로 용인시 관내에서 가장 큰 석탑입니다. 기단의 규모가 작아 전체적으로 고준한 느낌을 줍니다. 기단부의 북쪽 면석과 갑석은 석탑을 이전 복원할 때 새로 만든 것입니다. 지대석과 면석받침 등을 같은 돌로 만든 점은 고려시대 석탑들과 비슷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단부가 단층기단인 석탑으로는 북한 영통사 삼층석탑과 오층석탑, 밀양 소테리 오층석탑, 안성 죽산리 오층석탑 등이 있는데, 고려시대에 전국적으로 성행하였던 형식으로 생각됩니다.

1)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국문화유산총람 제1집(CD롬)



용천리 오층석탑 기반부

용천리 오층석탑은 2층 탑신석부터 1층 탑신석보다 높이를 현저하게 줄이고 있고, 옥개석의 정연한 치석 수법은 통일신라 석탑인 화엄사 동 오층석탑, 광주 동오층석탑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만하게 처리된 옥개석의 낙수면은 고려시대의 석탑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보면 용인 용천리 석탑은 통일신라 말기에 건립된 석탑 양식을 계승한 고려시대 전기의 석탑으로 생각됩니다.²⁾ 건립 초기의 높이는 6m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5층의 옥개석과 상륜부가 소실되면서 5m를 넘지 않는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용천리 오층석탑은 MBC드라마아 매표소에서 북쪽으로 난 산길을 따라 약 200m 가량 올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2) 龍仁 東度寺(漁肥里 寺址), 東度寺, 2005, pp.40~41.



용천리 오층석탑 전경

대혜원 명문이 있는 고려시대 동종

33 대혜원명 동종

종 목 | 보물 제1781호
명 칭 | 대혜원명 동종
(大惠院銘 銅鐘)
분 류 | 불교공예 / 의식법구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2012.12.27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로 134
용인대학교박물관(삼가동)
소유자(소유단체) | 우학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대학교



대혜원명 동종(사진 : 문화재청)

대혜원명 동종은 ‘대혜원’이라는 건물 명칭이 새겨져 있는 동종이라는 뜻입니다. 대혜원은 고려시대에 경기도 죽주(안성) 부근에 있었던 불교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데, 종신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1223년에 대혜원의 종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푸른 녹이 종 전체에 슬어 있으나 주조 상태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크기는 높이 74cm, 지름 44.5cm입니다.

동종의 모양은 불룩한 몸체가 아래 부분에서 살짝 오므라든 형태이며, 한 마리의 용으로 만들어진 종뉴(종을 종각에 매달 때 연결하는 부위)와 긴 음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판(범종의 머리 부분) 가장자리에는 입상화문대(立狀花文帶, 꽃잎무늬를 입체적으로 세워 장식한 문양띠)가 있으며, 몸체의 위와 아래에는 상대와 하대를 둘렀고 모란당초문으로 장식하였습니다.

몸체의 중심에는 당좌(종을 칠 때 망치가 늘 닿는 자리)와 보살상이 번갈아 배치되었는데, 보살상은 두 손을 모으고 구름 위에 무릎 꿇고 앉은 모습입니다. 당좌는 연판으로 장식된 테두리 안에 범어(梵語, 산스크리트어)의 하나인 실담자(悉曇字, 범어 서체의 일종)가 부조된 형태입니다. 보살상과 당좌 사이에는 12행 94자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습니다.

대혜원명 동종은 종뉴, 음통, 몸체의 외형, 상대와 하대의 위치로 볼 때 통일신라 이후 전통형 범종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상화문대의 등장과 연곽대(蓮廓帶, 종의 상단에 연꽃을 새겨 넣은 사각형)의 뇌문(번개 문양) 장식은 고려시대에 새롭게 유행되는 특징이며, 실담자가 장식된 당좌는 보기 드문 것이라 특이합니다.

종의 몸체에는 12행 94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범종 주성에 참여한 인물로는 안일호장, 동량도인, 대혜원 주지, 남일월사 등 관리와 승려들의 이름이 보이고, 국왕의 장수와 국가의 안위,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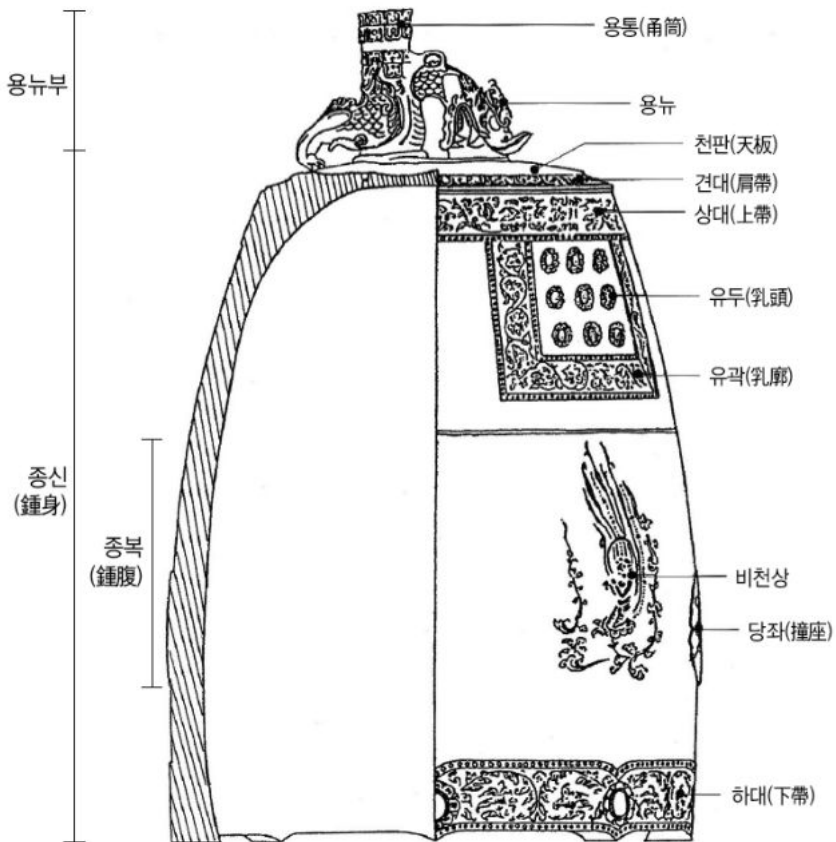
‘계미(癸未)년 8월 28일’, ‘중량 163근’ 등의 기록이 있어 제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입상화문대의 표현, 당좌의 장식, 연곽대의 뇌문 등의 특징을 상기할 때 계미년은 고려 후기로 파악됩니다.

종의 전체적인 모양과 세부 장식은 오어사 동종(1216년)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을사명 동종과 유사하여 종의 주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1223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처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종의 부분별 명칭>

(자료 : 문화재청)



석인상과 유사한 형태의 석불입상과 고려시대의 탑

34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



마북리 석불입상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52호
칭 칭 |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
(麻北里 石佛立像 및 石塔)
분 류 | 불교조각 / 불상,
유적건조물 / 탑
시 대 | 석탑 : 고려시대
석상 : 조선시대 추정
수량/면적 | 각 1기
지정(등록)일 | 2001.04.18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마북동
330-1

〈마북리 석불입상과 석탑〉은 용인시 향토유적 제52호입니다. 이 유적은 원래 구성 삼거리 근처에 있었다고 하며, 현재 석불입상은 보호각 안에 안치되어 있고 석탑은 보호각 옆에 서 있습니다.

석불입상의 높이는 약 2.1m입니다. 생김새는 묘소의 석인상과 비슷한데, 직육면체의 몸통에 높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은 긴 네모꼴이며 턱을 둥글게 처리하였습니다. 눈은 크게 치켜뜨고 있으며 코는 크고 오뎅하며 입은 꼭 다물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볼륨감이 없어서 엄격함과 근엄함이 풍깁니다. 두 손은 배에 모은 형태이며 가슴에는 만(卍)자가 양각되어 있습니다. 옷 주름은 손과 배 밑에만 몇 가닥이 보이는데 옷은 불교의 법복이 아니고 관복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때문에 이 석불을 장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예로부터 이곳은 ‘용화전’으로 지칭해왔으므로 미륵불로서 섬겨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문화재총람』에서는 이 석상의 조성 시기를 조선 후기로 보고 있으나 그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석인상이나 장승과 같이 불상이 아닌 조각상을 미륵불로 여기고 치성을 드리는 경향이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으로 유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 전경



마북리 석불입상 옆 석재

석탑의 원래 위치는 불분명합니다. 이 석탑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마을 주민들이 한곳에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단부는 널따란 판석형이고 탑신석은 1개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탑신석의 높이가 높고, 네 면을 고르게 다듬은 것으로 보아 정연한 석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개석은 총 4개인데, 다듬은 솜씨가 고르고 깔끔합니다.

1층의 옥개석(지붕돌)은 옥개받침이 4단이고, 지붕 끝선이 줄을 느슨히 풀어놓은 듯한 곡선(현수곡선)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고려 초기 석탑의 특징입니다. 1층 옥개석 위로 올려져 있는 돌에는 연꽃문양이 새겨져 있어 2층 탑신석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위로 2층부터 4층까지의 옥개석이 탑신석 없이 포개져 있습니다.



마북리 석재

이 석탑은 고려 전기의 석탑으로 추정됩니다. 이 석탑이 용인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고려 중양의 불교문화가 이곳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며, 불교문화가 지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용인이 교량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¹⁾ 불상이 있는 보호각 왼쪽에 몇개의 석재가 흩어져 있지만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북리 석불입상 및 석탑은 구성초등학교 정문에서 구성삼거리 방향으로 200m 이동하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1) 龍仁 東度寺(漁肥里 寺址), 東度寺, 2005, pp.45~47.

몸체와 보개가 따로 만들어진 보살상

35 목신리 보살입상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55호
칭 칭 | 목신리 보살입상
(木新里 菩薩立像)
분 류 | 불교조각 / 불상
시 대 | 고려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2.12.20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147-2

목신리 보살입상



현재 목신리 보살입상 전경

〈목신리 보살입상〉은 원삼면 목신리를 지나는 57번 지방도로에서 구봉산 오토캠핑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향토유적 제 55호로 지정되어 보호각 안에 안치되어 있는데, 보호각 밖에 새로운 보호각이 근대기에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의 보호각 종도리(서까래를 받치는 도리 중 가장 위에 있는 도리)에 먹 글씨로 “광서십사년 술자십일월초일일 신시 光緒十四年戊子十一月初一日申時.....”라고 중수한 날짜가 쓰여 있는데, ‘광서 14년’은 1888년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현재는 근대기의 보호각을 철거하여 종도리는 보존하였고, 새로 건립된 보호각 외부에는 단청을 하였습니다.

보살입상의 높이는 약 1.5m인데, 허리 아래 부분이 묻혀있어 실제 크기는 더 큼니다. 머리에는 원형의 보개를 쓰고 있는데, 두께가 두꺼우며 가운데가 병거지처럼 솟은 보개입니다. 보관은 네모에 가까운 원통형 고관이며, 중앙에는 화불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화불은 많이 마모가되어서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과거 목신리 보살입상 보호각 근대기 보호각 외부에 보호각을 다시 설치한 모습

보살상의 얼굴 역시 마모가 심해서 눈, 코, 입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 부분의 마멸이 심해서 속칭 ‘언청이 미륵’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오른손은 거드랑이 높이로 들어 올렸고, 왼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보살상의 옷 주름은 사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목신리 보살입상〉에서 주목할 것은 보살상의 보개입니다. 우리나라에 보개를 쓴 불상은 전국적으로 80여 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께가 두꺼운 원형 보개는 주로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에 유행하였는데, 〈목신리 보살입상〉의 보살상과 보개는 돌의 재질과 조성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살상은 고려 전기에 보개 없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보개는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신리 보살입상〉의 얼굴은 〈매산리 석조보살입상〉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를 근거로 보면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신리 보살상은 원삼면에서 원양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원삼1교차로에서 보개원삼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4.5km 가량 더 내려가면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신리 보살입상과 근대기 보호각

고려의 승려가 천태종의 기본사상을 정리한 책 36 천태사교의

종 목 | 보물 제1052호
명 칭 |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고려시대
수 량/면적 | 1책
지정(등록)일 | 1990.09.20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천태사교의(사진 : 문화재청)

이 책은 고려의 승려 제관(諦觀, 고려 광종 때 승려)이 법화경의 이론과 실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한 천태사상을 집약한 것입니다. 천태사상이란 ‘모든 현상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모든 현상은 막힘없이 서로 받아들여지면서 역동적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에서 우주를 한 마음으로 동시에 체득하려는 불교사상이며, 이론과 실천이 같이 어울려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의 한 종파인 천태종이 성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물 제1052호로 지정된 이 유물은 닥종이에 적은 목판본이며, 2권의 책 중 상권 1책에 해당됩니다. 크기는 세로 24.5cm, 가로 16.5cm입니다. 책 끝에 있는 목암노인의 글에 의하면 오래된 판본이 있었는데 글자가 크고 책이 무거워 휴대하기 불편하여 평지대선사(宏之大禪師)가 수여(水如)에게 다시 쓰도록 하여 충숙왕 2년(1315)에 기복도감(祈福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복도감에서 뒤에 다시 찍어 낸 판본이지만 본문이 완전하게 판독될 수 있을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승이 쓴 책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크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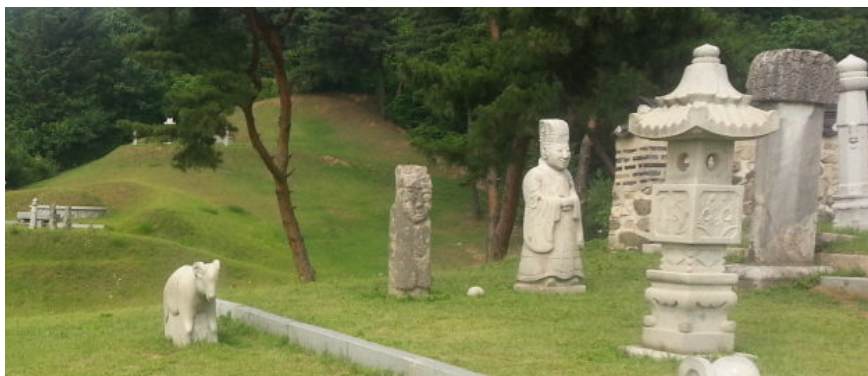
조선이 충신의 모범으로 삼은 정몽주의 묘

37 정몽주 선생 묘

종 목 | 경기도기념물 제1호
 명 칭 | 정몽주 선생 묘
 (鄭夢周 先生 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72.05.04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 45 (능원리)
 소유자(소유단체) | 영일정씨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영일정씨종중



정몽주 선생 묘 전경



정몽주 선생 묘 석물

이 묘는 고려 후기의 충신으로 우리나라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포은 정몽주(1337~1392) 선생의 묘입니다. 정몽주는 고려 공민왕 9년(1360)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예문관검열, 예부정랑, 대사성 등의 여러 벼슬을 거쳤습니다. 오부학당을 세워 후진을 양성했으며, 일본에 가서 외교 활동을 펼치기도 하는 등 문신으로서 크게 활약하였으나, 이성계의 세력이 날로 커지면서 정도전 등이 새 왕조를 세우려 하자 끝까지 고려 왕실을 지키려다가 선죽교에서 피살당했습니다.

그 뒤로 선생의 묘는 경기도 개성에 속하였던 풍덕군에 있었는데, 1406년(태종 6) 3월에 현재 위치인 용인시 모현면으로 천묘¹⁾하였습니다. 애초 계획은 선생의 고향(경상북도 영일과 영천)인 영천에 안장하는 것이었는데, 천묘 행렬이 현재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풍덕천리에 이르자 앞에 걸어두었던 명정²⁾이 바람에 날아가 지금의 묘소 자리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후손들은 의논 끝에 이곳에 묘를 썼다고 합니다. 그때 부인 경주이씨와 합장하였습니다.

1) 천묘(遷墓) : 묘를 이장하여 다른 곳으로 옮김

2) 명정(銘旌) : 다홍 바탕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성씨를 기록한 깃발



정몽주 선생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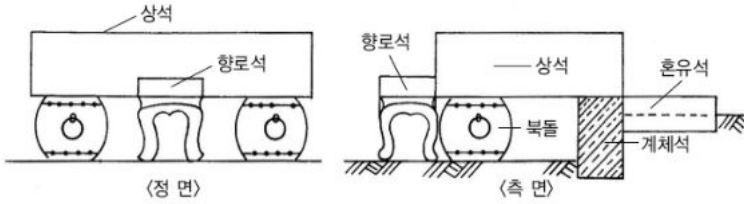
현재 묘역에는 상석, 향로석, 문무인석, 석양을 비롯한 석물들이 잘 조성되어 있고, 묘표와 신도비³⁾도 서 있습니다. 묘표는 조선 중종 12년 (1517)에 성균관 유생들이 중종에게 청원하여 세운 것이고, 신도비는 숙종 25년(1699)에 세웠습니다. 신도비의 주요 내용은 정몽주의 충절과 높은 학식에 대한 칭송인데, 글은 송시열이 짓고 문신 김수증이 글씨를 썼습니다.

정몽주 선생 묘는 능원초등학교 정문에서 충렬로8번길을 따라 약 550m 이동 후 좌회전 하여 100m 가량 진입하면 있습니다.

3) 신도비(神道碑) : 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

<묘역의 석물 · 비석의 부분별 명칭>

(자료 : 문화재청)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

38 충렬서원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호
명 칭 | 충렬서원(忠烈書院)
분 류 | 교육기관 / 서원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72. 05. 04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118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충렬서원
관리자(관리단체) | 충렬서원



충렬서원 외삼문



충렬서원 명륜당

충렬서원은 고려 후기 충신이자 ‘동방성리학의 시조’로 불린 포은 정몽주(1337~1392) 선생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서원입니다. 조선 선조 9년(1576)에 지방 유림들이 뜻을 모아 정몽주와 조광조를 기리기 위해 처음 지었는데, 당시 이름은 ‘죽전서원’이었습니다.

죽전서원은 임진왜란(1592)때 불에 타서 사라졌고, 선조 38년(1605)에 정몽주의 묘소 아래에 서원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때 조광조의 위패는 심곡서원으로 옮겼고, 광해군 원년(1608) ‘충렬’이라는 이름을 짓고 현판을 하사하여(사액), 나라의 공인과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충렬서원은 선현에 대한 배향과 지방민의 유학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고종 8년(1871)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폐쇄되었으나, 1911년에 새로 사우를 세우고 강당(1956)을 복원하였으며, 1972년에는 서원 전체를 보완 신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충렬서원은 공부하는 강당을 앞쪽에 배치하고 사당을 뒤쪽에 배치한 ‘전학후묘’의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입구의 홍살문과 내삼문·외삼문·사당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강당이 축에서 벗어나 사당과 나란히 보이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또한 재실이나 장경각, 고직사 등 부속건물이 없고 사당과 강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세기 이후에는 서원의 교육 기능이 사라지고 제사 기능 중심의 시설로 바뀌면서 생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렬서원중건기(1608)에 따르면 사우(사당)가 3칸이고 동재와 서재가 각각 2칸이며, 문루는 3칸인데 윗채가 강당이고 아래채가 문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현재와 달리 앞에는 문루와 강당을 갖추었는데, 문루의 위를 강당으로 활용하였고 그 뒤에 재사 건축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충렬서원과 달리 건축물을 모두 갖춘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¹⁾

충렬서원의 사당에는 정몽주를 중심으로 좌우에 정보(鄭保, 정몽주의 손자)와 이시직(李時稷, 선조~인조 때의 문신)의 위패를 모셨고, 1997년 유림이 뜻을 함께 하여 추담 오달제(吳痘濟, 인조 때의 문신)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오달제는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에 끌려가 참형을 당한 삼학사(홍익한·윤집·오달제) 중 한 사람입니다.

충렬서원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로는 정몽주의 『단심가』와 홍원주(정조 때 여류시인)의 『유한집』이 있습니다. 이 곳은 강당과 사당만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서원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해마다 음력 3월과 9월에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충렬서원은 능원리 마을 뒤쪽의 야산 기슭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포은 정몽주 [鄭夢周, 1337~1392]

정몽주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이색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정도전을 만나 동심우(마음을 같이한 벗)가 되기로 서로 다짐하고 우정을 나누었는데, 정도전도 학문이 뛰어났지만, 정몽주는 스승 이색이 '우리나라 성리학의 창시자'라고 칭찬할 만큼 뛰어났고, 1360년에는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습니다.

1) 이희봉, 심곡서원 조영과정과 배치에 관한 연구 및 마구잡이성 복원에 대한 토론, 건축역사연구 제19호, 2010

그는 문신으로서 1372년 명나라에 다녀오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 되어 13일 동안 표류하다 구조되기도 하였고, 1376년 성균관 대사성에 오른 뒤에는 친원파 이인임의 배명친원(명을 배격하고 원과 화친함) 외교 방침에 반대했다가 언양(울산시)에 유배되기도 하였습니다. 일 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난 그는 외교관을 맡아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정몽주를 시기한 친원파 대신들이 그를 제거할 속셈으로 ‘일본에 가서 왜구의 단속을 요구하라’고 등을 떠밀었는데, 정몽주는 뛰어난 외교술로 임무를 수행하고 왜구에게 잡혀갔던 고려인 수백 명까지 데리고 귀국하였습니다. 뛰어난 학문에 외교 능력까지 인정받은 정몽주는 요직에 중용되면서 친명파 신진 사대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고려는 부패와 혼란의 늪에서 허덕였고, 명나라마저 함경도 철령을 내놓으라며 외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은 명나라(요동)를 치자는 최영파와 반대하는 이성계파로 나뉘었는데, 고려 우왕의 명으로 요동정벌에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을 장악하고 최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며 이성계의 야망을 읽은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기로 마음먹고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하여가’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았고, 그는 ‘단심가’로 고려를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정몽주는 이방원이 보낸 자객한테 선죽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록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몽주 초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

39 정몽주 초상

종 목 | 보물 제1110-2호
명 칭 | 정몽주 초상 (鄭夢周 肖像)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폭
지정(등록)일 | 2011.12.23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정몽주 초상(사진 : 문화재청)

정몽주(1337~1392)는 고려 말기의 문신이며, 1360년(공민왕 9) 문과에서 장원급제한 뒤 예조정랑, 대사성, 대제학, 문하찬성사 등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1389년에는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세웠으나, 조준과 정도전 등이 이성계를 추대하려 하자 이들에게 반대하다가 이방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였던 인물입니다.

정몽주의 초상화가 처음 그려진 시기는 1390년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좌명공신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 초상화를 원본으로 여러 점의 이모본(본떠서 그린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임고서원 등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초상화는 1555년에 제작된 이모본으로 추정되며,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손을 모은 채 앉아있는 좌안 9분면의 전신교의좌상입니다. 흑색의 사모는 모정(帽頂, 갓모자)이 낮고 둥글며, 좌우 두 갈래의 각(角)은 폭이 좁고 아래로 쳐져 있습니다. 단령은 원래 청포(靑袍)였으리라 추정되지만, 색이 바래 거의 회색으로 보입니다. 목선이 짧고 소매통이 좁은데, 이런 형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보이는 특징입니다. 허리에는 삼금대(금 장식이 달린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옷과 모자, 얼굴의 간결한 묘사, 의자의 방석 끈, 같은 방향으로 놓인 흑피화, 단령의 트임 사이로 첩리와 답호가 겹겹이 내보이는 점으로 볼 때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의 공신도상에 보이는 특징을 잘 묘사하여 보여줍니다.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의 양식적 특징이 잘 반영된 조선 중기의 이모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정몽주 초상으로 알려져 왔던 보물 제1110호본 보다 약 70년 가량 앞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이성계의 부름을 거부한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 40 이중인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60호
명 칭 | 이중인 묘(李中仁 묘)
분 류 | 무덤/봉토분
시 대 | 조선 초기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7. 8. 17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
소유자(소유단체) | 용인이씨 대종회



이중인 묘 전경



이중인 묘 봉분

이중인(1315~1392)은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충숙왕 2년에 개경의 일청재(一淸齋)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용인(龍仁)이며 호는 진초(秦楚)이고, 조선 왕조에 출사하기를 거부했던 고려의 충신들인 ‘두문동(杜門洞) 72현(賢)’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손자인 이백지의 묘가 용인시 향토유적 제5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인은 일찍이 학문에 뜻이 있어 당시 8현(賢)이라 불리던 이조년(李兆年), 이승인(李崇仁), 김주(金澍) 등과 사귀었는데 그들보다 학문이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목은 이색(李穡)과 포은 정몽주도 그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같은 시대의 학자인 이백겸은 “그대의 마음 가운데에는 진시황(秦始皇)과 초패왕(楚霸王)의 위엄이 있다.”라고 칭송했는데, 그 문장을 따서 호를 진초(秦楚)라 하였습니다. 그는 고려 충혜왕 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홍복도감판관(弘福都監判官)과 문하시랑(門下侍郎)을 거쳐 충목왕 때에 평장사(平章事)를 지냈습니다.



이중인 묘 신도비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그에게 높은 품계를 내리며 국정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자, “나는 고려조의 신하이다.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음이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 그대의 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신규, 조의생, 임선미, 맹호성 등과 함께 개성 광덕산 뒤쪽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태조 이성계가 사람을 보내 회유하고 위협도 했으나, 여러 곳으로 흩어져 은거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양주군 별내면 송산(松山)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중인 묘 석물

그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잔다리마을에 있는데, 용인의 8명당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묘표는 1705년(숙종 31)에 당시 현령(縣令)으로 있던 13세손 이세희가 세웠습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며,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추증되었고, 양주 별내면 송산사(宋山祠)에 위패가 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구성재(駒城齋)에서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중인 묘는 경희대삼거리에서 중부대로를 따라 600m 가량 이동 후 기흥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한 다음, 흥덕마을 13단지 사거리에서 다시 우회전 하고 약 300m 가량 이동하면 왼쪽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고 조선의 벼슬을 받은 아들 41 이사위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63호
명 칭 | 이사위묘(李士冢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1705년(숙종 31년)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9.03.04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산 108-1



이사위 묘 전경(사진 : 용인시청)

이사위(생몰연대 미상)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이성계의 청을 거부한 ‘두문동 72현’ 중 한 사람인 이중인의 아들이며, 이백지의 아버지입니다. 1360년(공민왕 9) 과거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였으며, 1390년(공양왕 2) 왕이 처음으로 경연(經筵, 왕과 신하가 학문과 정치를 논하는 자리)을 열었을 때 참찬관이 되었고, 밀직부사를 거쳐 이듬해에는 서해도도관찰사(西海道都觀察使)를 지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부친 이중인은 이성계의 간곡한 청을 뿌리치고 평생 은둔 생활을 하면서 아들 사위에게 ‘조선 왕조에서는 벼슬을 하지 말라’고 유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위는 부친의 뜻을 저버리고 조선의 벼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고려의 학자 이색(李穡)과 친교가 있어 『목은집(牧隱集)』에 그에 관한 시가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그의 묘소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고매곡에 있습니다. 봉분은 단분이며 주변으로 병풍석을 둘렀으나 후대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봉분 앞에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으로 문인석과 망주석이 좌우 1쌍씩 있습니다. 2009년 3월 용인시 향토유적 제6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사위 묘는 매산1리 마을회관에서 곡현로를 따라 약 100m 이동한 다음 이일로 방향으로 약 400m 이동하고, 다시 우측차로로 650m 진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용인이씨 청백리공파 시조 42 이백지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57호
명 칭 | 이백지 묘(李伯持 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 초기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6.7.31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산12-3
소유자(소유단체) | 용인이씨청백리공파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이씨청백리공파종중



이백지 묘 전경



이백지 묘 봉분과 석물

이백지(1361~1419)는 본관이 용인(龍仁)이며, 판서를 지낸 이광시의 증손입니다. 할아버지 이증인은 고려 왕조에서 홍복도감판관(弘福都監判官)을 지냈고, 아버지 이사위는 호조판서를 지냈습니다.

이백지는 1385년(고려 우왕 11)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조선 태종·세종 때 활동하면서 성주목사(星州牧使)를 비롯하여 강원도·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습니다. 성주목사 시절 백성을 동원하여 관둔전(官屯田, 국유지)을 경작하도록 하였다가 경차관(敬差官, 지방에 파견된 관리)에게 적발되어 중도부처(中途付處, 유배지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되었습니다.



이백지 묘비

1416년(태종 16)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임금이 의정부·육조·삼공신·삼군도총제·예문관(藝文館)·대간(臺諫)에게 한재(旱災, 가뭄)를 해결할 방안을 올리라 하자, 이백지는 24개조의 시무책을 올렸습니다. 태종 15년에서 16년 무렵 승정원 승지(동부대언과 좌부대언)를 지냈는데, 그때 청백리¹⁾로 뽑혔습니다.

1419년 세종이 즉위한 해에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중 병이 나서 사임하였는데, 그 해 겨울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종이 70권을 부의로 하사하면서 애도하였습니다.



이백지 묘 석물

그의 묘지는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에 있습니다. 묘소 앞에는 여러 가지 석물과 신도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묘비와 상석, 향로석, 좌우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묘비는 높이 126cm, 폭 54cm, 두께 29cm이며, 1705년 당시 경기도관찰사였던 이세재가 찬하고 쓴 것입니다. 신도비는 용인이씨 대종회가 1975년에 세운 것으로 높이 175cm, 폭 67cm, 두께 35cm입니다.

이백지 묘는 에버랜드 후문에서 에버랜드로 562번길을 따라 북쪽으로 270m 이동 후 좌회전 하여 에버랜드로 562번길로 330m 이동하면 오른쪽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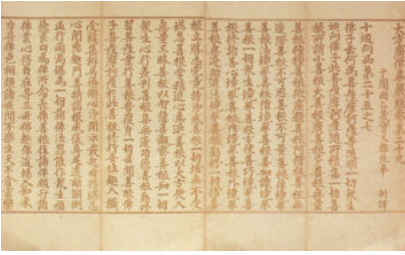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화려한 불경

43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표지

종 목 | 보물 제978호
 명 칭 |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주본권29
 (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司本卷二十九)
 분 류 | 기록유산 / 불경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1권1첩
 지정(등록)일 | 1988.12.28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 134
 용인대학교박물관(삼가동)
 소유자(소유단체) | 우학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대학교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권수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변상도

대방광불화엄경은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입니다. 화엄종의 근본경전이자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입니다.

이 유물은, 당나라의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 80권 가운데 제29권의 내용을 흰 종이(백지)에 금색 글씨(금니)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고, 접은 크기는 세로 41.2cm, 가로 14.7cm입니다.

검푸른 빛의 표지 바탕에는 화려한 꽃무늬와 제목이 금색으로 처리되었고, 권머리에는 불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그린 변상도(變相圖)가 있는데, 변상도란 경전의 내용이나 부처의 생애를 형상화한 그림을 말합니다.

불경을 옮겨 적은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며, 『법화경절본사본』과 비슷한 모양이고 글씨체가 조선 전기에 유행한 글씨와 비슷해서 15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장처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 운영된 작은 가마터 44 분청사기 도요지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5호
명 칭 | 분청사기도요지
(粉靑砂器陶窯址)
분 류 | 유적건조물 / 도자가마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85. 06. 28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 53-2
소유자(소유단체) | 수원백씨 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분청사기 도요지 전경(사진 : 문화재청)

‘도요지’란 자기, 기와, 그릇을 만들어 굽던 가마터를 뜻하며, ‘분청사기’란 회색이나 회흑색의 태토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도자기입니다. 이 〈분청사기도요지〉는 백암면 지내마을 남쪽 야산의 산기슭 ‘사랑골’에 있는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



분청사기 도요지의 유물(사진 : 문화재청)

다. 현재 가마터는 남북 방향으로 폭 15m, 길이 30m 정도의 규모로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이 자라 있고, 땅 속에는 많은 양의 분청사기 조각과 가마벽 조각, 가마 폐기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도자기로는 무늬 없는 청자류·상감 분청사기류·인화 분청사기류가 있고, 그릇 종류는 사발·대접류가 대부분이며, 제기류나 접시·항아리, 병 조각들도 약간씩 있습니다. 이 중 사발·대접류는 그릇 형태가 풍만하고 당당한 조선시대 전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분청사기 가마터는 15세기 무렵에 소규모로 운영된 경기도의 분청사기 가마터 중의 하나로 추정되며, 경기도 광주지역 가마터와 비슷한 조선 초기 가마터로 생각됩니다. 1985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분청사기 도요지는 백봉삼거리에서 좌측방향 고안로로 약 1km 가량 이동한 다음, 지내사거리를 지나 첫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300m 정도 이동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종 모양 부도

45 가창리 부도

종 명 칭 | 용인시 향토유적 제23호
분 류 | 가창리 부도(稼倉里 浮屠)
시 대 | 유적건조물 / 부도
시 대 | 고려말~조선초기
자정(등록)일 | 1990. 11. 22
소 재 지 |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
산56-2



가창리 부도(사진 : 문화재청)

〈가창리 부도〉는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 내창마을 수정농장 안에 있습니다. 인접한 정원사 스님들의 말에 따르면 이 부도는 홍수로 굴러 내린 것을 길가에 세워 놓은 것이라 합니다.

이 부도는 조선시대의 석종형(石鐘形)부도입니다. 어깨가 넓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며, 비례감은 있어도 다소 둔중해 보이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탑신부(몸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으나 상륜 부분에 연주문이 있고 그 위에 연꽃 봉오리 형태의 보주가 있습니다.

상륜부와 탑신부는 한 개의 돌로 만들어졌고, 지대석은 원통형의 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도의 높이는 120cm이고, 탑신 최대폭은 99cm, 어깨 둘레는 315cm입니다.

탑신부에 당호명을 새기지 않아 어느 스님의 부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경기도 안성 칠장사와 청룡사에 위치한 조선시대 부도들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커서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창마을 수정농장 뒤 오솔길을 따라 약 200m 올라가면 정원사가 있는데, 이 절을 바라보고 오른쪽 임도로 오르다가 산길을 따라 150m 더 올라가면 가창리 부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무덤 46 이애와 경신공주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32호
명 칭 | 이애와 경신공주 묘
(李慶와 慶愼公主 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초기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2.10.12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산 40-11
소유자(소유단체) | 청주이씨 종중



이애와 경신공주 묘

이애(1363~1414)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무신이며, 조선 개국공신 이거이(李居易)의 맏아들로 조선 태조의 첫째 딸인 경신공주와 혼인하여 상당부원군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1398년(태조 6)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왕자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자(제1차 왕자의 난) 아버지와 함께 이방원 쪽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고, 그 보답으로 정사좌명공신(定社佐命功臣)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곧이어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을 도왔고, 이방원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데 힘을 쏟고, 박포의 난을 평정한 공로로 정사좌명공신 1등이 되었습니다.

경신공주(미상~1426)는 태조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 사이에 태어난 맏딸입니다. 이애와 경신공주의 묘는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산40-11에 있는데, 저수지 위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나무 숲과 신원저수지가 어우러진 풍광이 운치 있는 곳입니다.

봉분은 두 개인 쌍분인데 왼쪽이 이애, 오른쪽이 경신공주의 봉분입니다. 두 봉분은 하단에 사각형의 지대석이 2단으로 놓여있습니다. 무덤 앞에는 여러 가지 석물들이 놓여 있는데, 묘비 윗부분은 한옥의 맞배지붕처럼 되어 있고 그 앞에 상석과 향로석, 장명등, 문인석과 무인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석물들은 조선 초기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애와 경신공주묘는 신원1리마을회관에서 곡현로를 따라 약 300m 이동 후 신원2, 3리방면을 향해 선장1로를 따라 1.2km 들어간 다음 우회전하여 20m 가량 진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출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물

47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종 목 | 보물 제1149호
 명 칭 |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류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6권1책
 지정(등록)일 | 1993.01.15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명지학원
 관리자(관리단체) | 명지대학교 박물관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신간소왕사기(사진 : 문화재청)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권4의 권수(사진 : 문화재청)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권1의 권수와 권6의 권말(사진 : 문화재청)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는 유교의 시조가 되는 공자가 공경사대부를 비롯한 72제자들과 나눈 문답에 표제를 붙이고 구절을 풀이하여 간행한 책입니다. 문답 중에 『논어』에 편입된 것을 제외하고 여러 서적에서 모은 문답에 원나라 왕광모가 각 장별로 제목을 달고 자세하게 풀이를 하였습니다.

보물 제1149호로 지정된 이 책은 조선 태종 때 박은(1370~1422)이 강릉감영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그는 조선이 건국된 후 태조 7년(1398)의 제1차 왕자의 난과 정종 2년(1400) 제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운 인물인데, 강원도도관찰출척사(관찰사)로 임명받고 부임하였을 때 이 책이 조선에 간행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그곳에서 번각(飜刻, 한번 새긴 책판 등을 본보기로 삼아 다시 새김)해 낸 것입니다. 이 책판은 조선 전기의 지방관이 주도하여 만든 판본치고는 비교적 정교하여 조선 전기 출판문화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소장처인 명지대학교 박물관은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태조를 도운 개국공신의 묘역

48 죽정 최유경 묘역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0호
명 칭 | 죽정 최유경묘역
(竹亭 崔有慶墓域)
분 류 | 무덤/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3.04.21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131번길 17-7
소유자(소유단체) | 전주최씨 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전주최씨 종중



죽정 최유경 묘역 전경



죽정 최유경 묘역의 봉분과 전경

죽정 최유경(崔有慶, 1343~1413)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입니다. 자는 경지(慶之), 호는 죽정(竹亭), 본관은 전주(全州)입니다.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판도좌랑(判圖佐郎)이 되었고, 이후 사헌장령(司憲掌令)을 지내는 등 여러 벼슬을 거쳤습니다.

후에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개국하는데 공을 세워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습니다. 태조 6년(1397)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서 경기·충청 도체찰사(都體察使), 이듬해 개성유후(開城留侯)로서 경기도(京畿右道)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가 되었으며, 태종 1년(1401)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로 있다가 사임하였습니다. 태종 때 청백리(清白吏)에 녹선(祿選)되기도 하였고 시호는 평도(平度)입니다.



죽정 최유경 묘역 배면

최유경 선생의 묘는 공세동 자봉산 기슭에 있는데 천지인 삼혈이 갖춰진 명당이라고 합니다. 봉분 아래에 2단의 장대석이 둘러져 있는 조선 초기의 방형쌍분묘(方形雙墳墓) 형식이고 묘 앞에는 묘표,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있으며, 좌우에는 동자석과 문인석 등 석물을 갖췄습니다.

묘 오른쪽에 있는 묘갈(墓碣)은 장방형 지대석 위에 대리석으로 된 몸돌과 옥개석을 올렸습니다. 선생의 묘 아래에는 그의 아들인 최사강 부부의 묘가 있으며, 묘역 입구에 선생을 기리는 영덕재(永德齋)가 있고, 그 우측에는 1950년대에 건립된 신도비가 있습니다.

죽정 최유경 묘역은 기흥동 주민센터에서 고매로 방향으로 진입 후 좌회전하여 400m 이동하고, 다시 좌회전하여 800m 가량 진입하면 오른쪽 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죽정 최유경 묘역의 장명등

대마도를 정벌한 조선 초기 무신의 묘

49 이종무 장군 묘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25호
명 칭 | 이종무 장군 묘(李從茂將軍墓)
분 류 | 무덤/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75.09.05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79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장수이씨양후공파
관리자(관리단체) | 장수이씨양후공파



이종무 장군 묘 전경(사진 : 용인시)



이종무 장군 봉분과 석물(사진 : 용인시)

광교산 기슭 능말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명장인 이종무(1360~1425) 장군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종무는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했다고 전해오며, 고려 우왕 7년(1381)에 스무 살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에 나아가서 왜구를 격파하였고, 그 공으로 용호군(勇護軍, 중앙군)에 들어갔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용진만호(종4품 무반직)로 복무했는데, 조선 태조 6년(1397)에는 서해안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쳐 첨절제사(종3품 무반직)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방원의 눈에 들어 정종 2년(1400)에 정3품 상장군에 올랐으며, 이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이종무를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인정하고 통원군(通原君)이란 봉호를 내렸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의주 병마절제사와 우군총제 등을 지냈습니다.



이종무 장군 묘역의 문인석

이종무의 전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대마도 정벌입니다. 세종 1년 (1419) 왜구의 침입이 더욱 심해지자 조정에서는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대마도)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이종무는 배 227척과 군사 1700여 명을 거느리고 쓰시마섬을 공략해 항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에게 조선의 국력을 과시하고, 왜구의 침략을 응징한 쾌거였습니다.



이종무 장군 묘비

1422년에는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함께 갔던 정희원이 불경한 행동을 한 것을 바로 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다시 복직하였고, 1425년(세종 7) 향년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봉분에는 앞과 양쪽에 직사각형의 병풍돌을 들렀고, 그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 있습니다. 양 옆에는 문인석 한 쌍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후대에 새로 세운 묘비가 서 있습니다.

이종무 장군 묘는 고기2교에서 좌회전하여 1.6km 이동 후 이종무로 169번길을 따라 120m 진입한 다음, 다시 좌회전하여 250m 이동하면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 모양의 희귀한 묘지

50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종 명 목 | 보물 제1830호
 칭 | 분청사기상감'정통4년명'김명리묘지
 (粉靑沙器象嵌'正統四年銘'金明理墓誌)
 분 류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2014.07.0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안동김씨 문은공파 대종회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사진 : 문화재청)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는 조선시대 성천도호부(成川都護府) 부사(副使)였던 김명리(金明理, 1368~1438)의 묘지석입니다. 종 모양을 한 묘지석은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굉장히 희귀한 유물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위 부분에서 아래 부분으로 내려오면서 직경이 약간 좁아지며, 비대칭을 한 원통형입니다. 위 부분 중앙에 높이 4.0cm의 연꽃 모양 꼭지가 부착되었으며, 묘지문은 몸체 전체에 백상감 기법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문(誌文)은 김명리의 가계·부모·이력 등을 적은 행장(行狀, 고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쓴 글)으로 지은이는 유의손(柳義孫, 1398~1450, 조선 전기의 문신)입니다. 행장을 지은 시기는 김명리가 1438년 12월 죽고 난 이듬해인 1439년 10월 하순입니다. 따라서 묘지의 제작 시기는 1439년 10월 하순 이후로 추정됩니다.

이 묘지는 비록 조선 초기 사대부 한 개인의 것이지만, 조선 초기의 사료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료 가치가 높고, 깔끔한 해서체 각서는 조선 초기 서예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토지가 분명하고, 1439년으로 제작시기가 명확하며, 희귀한 종 모양인 점에서 도자기 연구나 서예 연구에 있어 큰 가치를 지니는 유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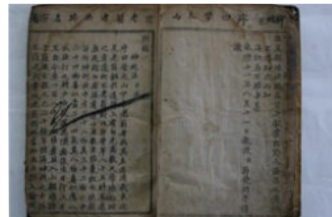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의서 51 증급유방

종 목 | 보물 제1577호
 명 칭 | 증급유방(拯急遺方)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2권1책
 지정(등록)일 | 2008.10.17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증급유방 표지(사진 : 문화재청)



증급유방 내용(사진 : 문화재청)

이 책은 조선시대 초기(15세기)에 나온 중국 의서입니다. 명나라 임강(臨江), 통수(通守), 섭윤현(葉尹賢)이 의원 가문의 비법 처방인 『의가비전수신비용가감십삼방(醫家祕傳隨身備用加減十三方)』과 『경험급구방(經驗急救方)』을 한데 모은 것인데, 그것이 조선에서도 간행되었습니다.

감기, 독감, 복통 등 13방에 대한 처방과 쓰이는 약재 등이 소개되어 있고, 건강 장수베개를 만드는 부록이 있으며, 권하(卷下)에는 치곽란토사(治霍亂吐瀉,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는 증상을 다스리는 법)부터 구사부지(久瀉不止, 설사가 멈추지 않는 증상에 대한 처방)에 이르는 37방에 대한 구급의 의방(醫方, 질병 진단과 치료방안)과 약방문(藥方文, 약처방)을 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간행기록이 없어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판각(板刻) 상태, 판의 형식, 서체, 지질(紙質) 등으로 보아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됩니다. 이 책은 한국 의학사와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국내에서 다른 판본이 발견되지 않아 희소가치가 높은 의서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편년체 역사서

52 고려사절요(갑인자본)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5호
명 칭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권 1책
지정(등록)일 | 2010. 12. 08
소 재 지 | 경기용인시기흥구상갈로6
 경기도 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 박물관



고려사절요 표지(사진 : 문화재청)

『고려사절요』는 김종서(金宗瑞) 등이 문종의 명을 받아 고려 태조 1년(918)부터 공양왕 4년(1392)까지의 기사를 수록한 총 35권의 역사서입니다. 고려시대 편년체(編年體,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서술하는 방식) 역사서인 『고려사』를 바탕으로 편집하여 춘추관(조선의 역사 담당 관청)의 이름으로 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전하지 않지만, 당시의 편년체 사서로 세종 때 윤휴(尹淮)가 편찬한 『수교고려사(讎校高麗史)』와 권제(權躋)의 『고려사전문(高麗史全文)』을 참조하였고, 1451년 완성된 『고려사』의 내용을 축약하여 5개월 만에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비록 『고려사』만큼 풍부하지 못하지만, 그 책에 없는 사실들도 많이 담겨 있고 또 『고려사』에 없는 연대가 밝혀져 있는 것도 있어 고려시대의 역사서로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문종 1년(1451) 8월 25일에 완성하고 단종 1년(1453) 4월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습니다. 같은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전질본이 일본 봉좌문고(蓬左文庫)에 소장되었는데 동일한 책입니다. 권수에 ‘경연(經筵)’(왕의 학문연구 기관) 도장이 찍혀있고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조선시대 초기의 동활자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편년체 고려사이므로 매우 귀한 실물적 자료입니다.

현재 학봉 김성일 종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같은 본의 『고려사절요』가 보물 제90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책에는 ‘권20’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사절요(갑인자본)』에 내재된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광조의 죽음에 항의하다 귀양 간 김세필의 묘

53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일원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2호
명 칭 | 문간공 김세필 묘역 일원
(文簡公 金世弼 墓域 一圓)
분 류 | 무덤/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일원
지정(등록)일 | 1999.04.0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2, 산23, 산26-7
소유자(소유단체) | 경주김씨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경주김씨종중



문간공 김세필 묘역 전경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였던 십청헌(十淸軒) 김세필(1473~1533)과 그 자손들의 묘가 있습니다. 김세필은 연산군 1년(1495)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내다가 사헌부 지평에 올랐으나,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연산군이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에 연루된 선비들을 죽인 사건)에 연루되어 거제도에 유배되었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난 뒤에는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중종 15년(1520) 중국 명나라에 다녀왔습니다. 그해 겨울 기묘사화(훈구파가 조광조와 사림파 선비들을 죽인 사건)가 일어나 중종이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렸는데, 김세필은 이를 부당하다고 규탄하다가 경기도 유춘역(장호원 일대)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중종 17년(1522)에 귀양에서 풀려났지만 그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 내려가 공자당(工字堂, 십청헌)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며 생을 마쳤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조판서의 벼슬을 내렸으며 충주의 팔봉서원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간공 김세필 묘역 뒤편에서 바라본 전경

이 묘역에는 김세필 묘를 비롯하여 1400년부터 조선 후기 사이에 만들어진 그 자손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의 묘에는 신도비가 서있는데, 비석 중앙에 총탄 자국이 나 있습니다. 철종 9년(1858)에 세웠으며, 글은 송시열이 지었고, 글씨는 11대 종손 김도희가 썼습니다.

죽전동 산23번지에는 김세필 선생의 어머니인 진천 송씨의 묘가 가장 위에 자리잡고 있고, 그 아래에 김세필 선생과 정부인 고성 이씨가 합장된 묘가 있으며, 그 아래에 아들인 김구와 김저의 묘가 있습니다.



문간공 김세필 묘역 내 봉분

산22번지에는 김세필 선생의 증손인 김물과 김윤의 묘가 있으며, 산 26-7번지에는 증손인 김의의 묘가 있습니다. 이 묘역은 후대에 들어와 개축되면서 본래의 형태가 많이 훼손되었으나, 1400년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묘제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문간공 김세필 묘역은 대청초등학교 운동장 쪽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문인명필 서거정의 대표적 필적

54 서거정 · 기순 필적

종	목		보물 제1622호
명	칭		서거정·기순 필적 (徐居正·祁順 筆蹟)
분	류		기록유산 / 서간
시	대		조선시대
수	량/면적		1첩
지	정(등록)일		2010.01.04
소	재 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	유자(소유단체)		공유
관	리자(관리단체)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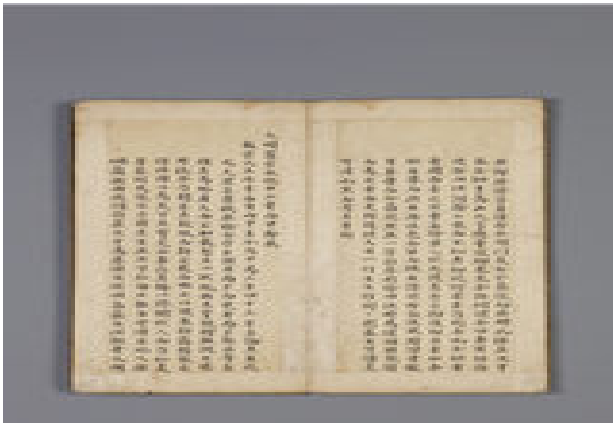
서거정·기순 필적(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은 조선 초기의 서첩으로 필사본이며, 크기는 세로 38.2cm, 가로 17.6cm입니다. 이 서첩에는 1476년(성종 7) 1월 말에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 호부낭중(戶部郎中) 기순(祁順)과 사신 일행을 맞이했던 원접사(遠接使) 서거정(徐居正 : 1420~1488)의 글씨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서거정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문장과 글씨에 능했고, 『동국통감』과 『동문선』 등 많은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서첩의 표지에는 ‘천사사한진적(天使詞翰眞蹟)’이라 쓰여 있습니다. 서첩 앞쪽에는 기순이 쓴 시가 한 편 실려 있고, 안쪽에는 기순의 필적 3면, 서거정의 필적 3면, 필자 미상의 발문 2면이 실려 있습니다. 기순은 조선에 40일쯤 머문 뒤 돌아갔는데, 3월 11일에 의주 의순관(義順館)에서 통역을 담당한 사역원정(司譯院正) 장유화(張有華)에게 <오언장시(五言長詩)>를 써 주었습니다. 서첩 뒤쪽에는 서거정이 장유화에게 써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정2품 좌참찬이었던 서거정은 원접사(遠接使) 겸 관반(館伴) 겸 반송사(伴送使)를 맡았는데, 그해 6월 3일에 통역관 장유화에게 <증장원정서(贈張院正序)>를 써 주었습니다.

서첩 말미에는 이 서첩을 얻은 사람이 ‘1718년(무신)에 이 필적을 김홍기(金弘基, 자는 復初)에게서 얻어 이를 첩으로 장황했다’는 발문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장황이란 책이나 화첩, 족자 따위를 꾸미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 초기의 서예 유물은 매우 희귀한데 이 서첩은 15세기 조선의 문인명필 서거정의 대표적인 필적이며 원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나라 사신의 필적이 함께 실려 있어 양국의 교류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서첩입니다.



서거정·기순 필적(사진 : 문화재청)

각 글씨 끝에는 연월일과 관직, 인명(人名) 그리고 자호(字號)가 기록되어 있고, 이 필적의 전래과정을 알려주는 발문은 작품의 가치를 한층 높여 주고 있습니다. 서거정이 행서(行書)로 쓴 원문은 그의 문집인 『사가집(四佳集)』 권6 『증장원정서(贈張院正序)』 에도 실려 있으며, 『통문관지(通文館志)』 권7에도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서거정·기순 필적(사진 : 문화재청)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의 묘지석

55 서거정 선생 묘지석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칭 칭 | 서거정선생묘지석
(徐居正先生墓誌石)
분 류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9판
지정(등록)일 | 1989.06.01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 박물관



서거정선생 묘지석(사진 : 문화재청)

묘지석이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묘소의 위치 등을 적어서 무덤에 묻어 두는 판석입니다. 무덤 주인의 이름과 조상, 관직, 평생의 행적, 가족관계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묻어둡니다. 이 묘지석은 조선 전기의 대학자인 서거정(1420~1488) 선생의 묘지석인데 그가 세상을 뜬 성종 19년(1488)에 만든 것으로, 도시계획으로 묘소를 옮길 때 발견되었습니다.

서거정은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의약·풍수에 이르기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추었으며, 세종에서 성종 대에 이르기까지 조정의 핵심적인 학자이자 관료였습니다. 조선이 통치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편찬한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사서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제작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특히 시문에도 능통하여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았고, 그에 힘입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이르는 시문 중에서 뛰어난 작품을 골라 엮은 『동문선』을 펴내 한 문학을 집대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묘지석은 모두 19매가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22매로 제작되었으나 16번, 17번, 19번 묘지석은 결실되었습니다. 형태는 직사각형이고, 재료는 백자입니다. 크기는 모두 비슷하나 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1매의 묘지석은 청화(靑畵 : 여러 가지 금속화합물로 구성된 청색칠감)로 쓰여져 있고, 나머지는 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묘지의 명칭은 이숙함이 지었는데 그는 세조 때의 문신이며 글씨를 잘 썼던 인물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선 최초로 ‘삼장원’을 이룬 천재의 묘

56 저헌 이석형 묘 및 신도비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171호
명 칭 | 저헌이석형묘및신도비
(樗軒李石亨墓및神道碑)
분 류 | 무덤/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묘역일원, 신도비1기
지정(등록)일 | 2000.06.12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곡로 45 (능원리)
소유자(소유단체) | 연안이씨 저헌공파
관리자(관리단체) | 연안이씨



이석형 묘역 전경(사진 : 문화재청)



이석형 묘의 봉분과 석물(사진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의 정몽주 묘소 옆에는 잘 꾸며진 또 하나의 묘소가 있는데, 이 무덤의 주인은 조선 초기의 문신 저헌(樵軒)이석형(1415~1477) 선생입니다. 그리고 묘역 근처의 연안이씨 비각공원에는 화려하게 단장된 비각 안에 대리석 비가 서있는데 바로 이석형 선생의 신도비입니다.

이석형은 조선 최초로 세 가지 과거에서 장원급제하여 ‘삼장원’으로 불린 천재였습니다. 그는 세종 23년(1441) 생원·진사 두 시험에 합격하였고,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습니다. 집현전응교로 재임하던 1447년에는 문과 증시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그 뒤로 14년간 집현전에서 여러 관직을 맡았습니다.



이석형 신도비와 비각

세조 2년(1456)에 ‘사육신 사건’(성삼문·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꾸미다 사형된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사육신의 절의를 지지하는 시를 지어 익산 동헌에 남겼습니다. 그때 다른 관리들이 이석형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세조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석형을 두둔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조의 총애를 받아 황해도 관찰사·사헌부 대사헌 등의 요직을 거쳤으며, 성종 때에는 손성좌리공신으로 연성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저서로는 『대학연의』, 『대학연의집략』, 『저헌집』 등이 있습니다.



이석형 묘비

그의 묘는 정몽주 묘의 오른쪽에 있는데, 묘비·문인·석·향로석·상석 등의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포은 정몽주의 증손녀이자 이석형의 부인인 영일정씨가 포은 선생의 묘를 옮기는 천장 행렬 당시 명정이 날아가 앓은 묘자리에 밤새 물을 부었는데, 이 때문에 포은 선생의 묘는 옆 언덕으로 옮기게 되고 남편인 이석형의 묘가 이곳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묘역 오른쪽 아래에는 인조 2년(1624)에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비문은 이정구가 짓고 신익성이 글씨를 썼습니다.

이석형 선생 묘는 능원초등학교 정문에서 충렬로8번길을 따라 약 550m 이동 후 좌회전 하여 100m 가량 진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려 보조국사 지눌의 선 사상이 담긴 유물 57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종 목 | 보물 제1148호
 명 칭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1권1책
 지정(등록)일 | 1993.01.15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명지대학교 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 명지대학교 박물관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사진 : 문화재청)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의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 수행자를 위해 저술한 수행 지침서로 불교의 필수 교과목 중 하나입니다. 지눌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여덟 살에 절에 들어갔고, 1173년(명종 3년)에 승려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무신정변 시대를 살면서 한 스승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원을 다니며 중국 불교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선(禪) 사상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이 곧 부처’라며 마음을 닦는 ‘수심(修心)’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정치적 갈등에 휩싸여 있던 고려 불교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선종과 교종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유물은 당나라 종밀(宗密)이 저술한 『법집별행록』을 간략하게 줄여서 싣고, 여러 문헌을 인용하여 지눌의 선(禪) 사상을 바탕으로 참다운 수행인의 길을 제시한 책자입니다. 간행 시기는 조선 성종 17년(1486)인데,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이며 크기는 세로 25.7cm, 가로 16.3cm입니다. 우리나라 고승의 저술로는 드물게 여러 차례 간행되었고 현존하는 판본이 22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물은 보조국사 지눌의 선사상(禪思想)이 결집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서이자, 불교 이론과 실천의 결정체로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에 따라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장처인 명지대학교 박물관은 용인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신으로서 형조판서 · 호조판서를 지낸 인물

58 이숙기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56호
명 칭 | 이숙기 묘(李淑琦 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전기
수량/면적 | 면적 140평 규모
지정(등록)일 | 2004.01.19
소재지 | 용인시 남사면 안장천로 288-11
소유자(소유단체) | 연안이씨 정양공 종회
관리자(관리단체) | 연안이씨 정양공 종회



이숙기 묘 전경



이숙기 묘 봉분과 석물

이숙기(1429~1489)는 조선 전기의 무신이며, 본관은 연안(延安), 시호는 정양(靖襄)입니다. 1453(단종 1)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까지 올랐고, 1455년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사건인 세조반정에 가담하여 원종공신 2등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조의 가전훈도(선전관)가 되어 열병 때 왕명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467년 무신 이시애(李施愛)가 세조의 북방민 홀대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자 이숙기는 강순(康純)의 지휘 아래 반군을 제압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 일로 적개공신 1등을 받았고, 가정대부·이조참판에 올랐으며, 연안군(延安君)에 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해 겨울에는 건주위(建州衛) 야인들을 정벌하는 공을 세웠고, 1471년(성종 2)에는 좌리공신 4등을 받았으며, 끊임없이 출세를 거듭했습니다. 무신으로서는 드물게 형조판서·호조판서까지 올랐습니다. 성품은 강한 편이었고, 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숙기 묘 석물

이숙기 묘는 부인 홍씨와의 합장묘이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에 있습니다. 봉분 좌우에 묘표와 문인석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묘는 처인성에서 완정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정천로를 통해 마을로 진입한 후 완정천로288-11번지 가옥을 지나 산길로 올라오면 좌측에 이숙기 선생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신도비를 지나서 약 10m 가량 올라온 후 우측의 논길로 진입하여 약 300m 가량 더 들어오면 이숙기 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숙기 묘비

15세기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불교 서적

59 진언권공(언해)

종 목 | 보물 제1053호
 명 칭 | 진언권공(언해) (眞言勸供(諺解))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책
 지정(등록)일 | 1990.09.20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진언권공(사진 : 문화재청)

『진언권공』은 불교의 의식을 정리한 책이며, ‘진언으로 공양을 권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왕대비가 승려 학조에게 시식권공(施食勸供)과 일용상행(日用常行) 등 불교의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게 하였는데, 연산군 2년(1496) 5월에 인경목 활자(인경자)로 4백 부를 간행하였습니다. 크기는 가로 21.2cm, 세로 34.5cm입니다. ‘시식권공’이란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 의식이며, ‘일용상행’이란 불교신자가 날마다 해야 할 일상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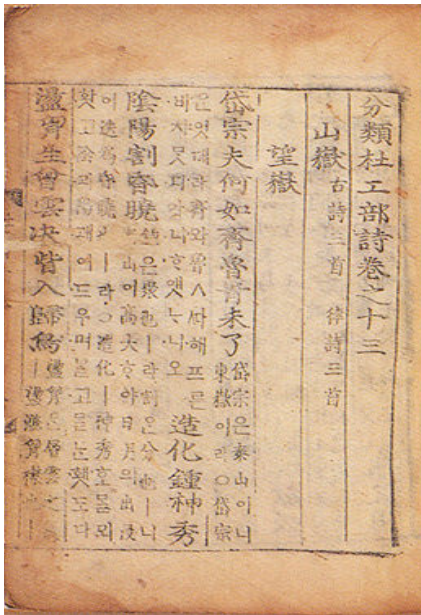
인수대왕대비가 불경을 간행한 까닭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산군 1년(1495)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간행하면서 원각사에서 대대적으로 이 책자를 인쇄하였고, 그 다음해에 불경의 발문을 인쇄하기 위한 한자 목활자와 한글 불경을 인쇄하기 위한 한글 목활자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천지명양수록잡문』(죽은 이의 영혼을 달래고 음식을 베푸는 수록재의 의식을 적은 책)을 한자로 찍었고 다시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하여 찍어냈습니다.

인경자는 왕실에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인 내탕금으로 기술 좋은 장인을 써서 활자를 정성껏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새김이 잘 되어 인쇄 상태가 매우 정교합니다. 이 유물은 15세기 말 인쇄문화의 발달과 목활자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인경자 중에서 한글 목활자는 15세기 국어의 어휘와 표기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날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자 목활자 또한 당시의 한자음이 정리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15세기의 한글을 볼 수 있는 국문학 연구의 보고 60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

종 목 | 보물 제1051호
 명 칭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
 (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三)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권 1책
 지정(등록)일 | 1990.09.20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분류두공부시 권13(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은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보(712~770)의 작품을 우리말로 옮긴(언해) 책입니다. 두보는 이백(이태백)과 함께 당나라의 시성(詩聖)으로서 쌍벽을 이루었는데, 그는 인간의 심리와 자연의 사실 가운데 그 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찾아내어 글을 지었던 시인입니다.

조선 성종은 홍문관의 유윤겸 등에게 명하여 두보의 시를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하게 했는데, 이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공부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두보가 ‘공부원외랑’이라는 벼슬을 지냈기 때문이며, ‘분류’는 중국 송나라 때 펴낸 ‘분문집주두공보시(分門集注杜工甫詩)’를 참고하였다는 표시입니다.

보물 제1051호인 이 책에는 조위(1454~1503, 조선 전기의 문신)가 쓴 서문이 실려 있는데, 이 글을 통해 성종 12년(1481) 가을에 왕의 명을 받아 한글 번역을 착수하여 그 해 12월에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권 13의 인본(인쇄본)을 보면 활자는 을해자(세조가 즉위한 을해년에 만든 구리 활자, 대자·중자·소자의 3종으로 주조했음)의 중자와 소자, 그리고 한글 활자로 찍었는데 인쇄가 깨끗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듬해인 성종 13년(1482)에 가뭄이 심하여 『두시』를 비롯한 『춘추』, 『이백시』, 『용학구결』 등의 발행을 멈추고 그 비용을 가뭄 극복에 쓰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인쇄발행은 다소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분류두공부시언해』는 한글로 표현한 유창한 문체와 풍부한 어휘 때문에 국문학과 국어학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선 초기 사헌부 관원들의 계모임 풍경

61 이십삼상대회도와 김종한 교지



종 목 | 보물 제1406호
 명 칭 |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二十三齋臺會圖 및 金從漢 教旨)
 분 류 | 회화 / 풍속화, 기록유산 / 교지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 / 면적 | 2종 6점(계회도1폭, 교지5장)
 지정(등록)일 | 2004.05.07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이십삼 상대회도와 김종한 교지(사진 : 문화재청)

보물 제1406호로 지정된 유물은 계회도(契會圖, 사대부들의 계모임을 그린 그림) 1점과 교지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한은 조선 세조부터 연산군 대의 문신입니다. 부분(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에 성화(成化, 중국 명나라 현종 때의 연호) 원년(元年, 1465, 세조 11)에 문과에 합격하고 선무랑 훈도를 거쳐 성화 4년(세조 14)에 종사랑 훈도(訓導)로 전직하였고, 이후 홍치(弘治, 중국 명나라 효종의 연호) 18년(연산군 11)에 성균관 사성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기록이 있습니다.

〈이십삼상대회도〉는 사헌부에서 재직하였던 김종한(金從漢) 등 23명이 가졌던 계회를 그린 그림입니다. 상단에는 전서로 쓴 표제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계회 장면이 그려져 있고 찬시(贊詩, 축시)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참가자들의 이름과 품계, 그리고 그 부친의 관직과 이름 등을 쓴 좌목(座目)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초기 계회도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며, 훗날 제작된 계회도에서는 그림의 비중이 낮아지고, 참가자 부친에 대한 정보를 따로 단을 설정해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하단의 추기(덧붙인 글)를 별도로 기록한 좌목 추기가 있는데, 이 문서는 후손들이 정서한 것으로 정확한 작성 연대는 불명확합니다. 계회도의 크기는 세로 98.5cm, 가로 22cm이고, 족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지 5점은 모두 김종한(金從漢) 관련 고신(告身, 관직 임명장)입니다. 김종한의 자세한 이력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데, 계회도의 좌목을 통해 자(字)가 종해(宗海)이고 본관이 상주(尙州), 그리고 부친이 교위(校尉, 장교급 무관)인 김하(金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김종한이 관직에 머무른 기간을 고려하면 현존하는 5점의 교지는 홍치 1년부터 9년(1488~1496) 사이에 발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당나라 현수법장이 저술한 불교사전

62 현수제승법수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9호
명 칭 |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1권1책(총77장)
지정(등록)일 | 1998. 12. 18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현수제승법수(사진 : 문화재청)

『현수제승법수』는 불교 경전의 여러 법문(法文)에서 부처의 깨달음을 수집하여 설명한 책인데, 수(數)를 차례로 벌려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엮어 놓은 일종의 사전입니다. ‘법수’란 불교의 교의 가운데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제(四諦)’, ‘육도(六道)’, ‘십이연기(十二緣起)’ 따위를 가리킵니다.

본래 이 책은 당나라 스님 현수(賢首)가 엮은 책인데, 구집(舊集, 일본)이 전래되지 않아 명나라 스님 행심(行深)이 다시 엮어 1427년에 간행한 명판본을 1500년(연산군 6)에 도인 경민이 경상도 합천 가야산 봉서사에서 개판한 것입니다.

책을 엮은 체제는 권 제1권부터 권 제10까지에 각 숫자에 해당하는 명수를 함께 모아 설명하고, 권 제11에는 그 이상의 숫자에 해당하는 것을 일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목판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고, 규격은 세로 26cm, 가로 16cm입니다. 책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며 인쇄상태도 먹이 진하여 선명하고 정교한 편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당나라 현수의 법수가 다양한 형태의 판본으로 널리 보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산층의 집을 엿볼 수 있는 곳

63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종 목 | 경기도민속문화재 제10호
명 칭 |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龍仁 韓山李氏 陰崖公派 古宅)
분 류 | 유적건조물 / 가옥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7. 12. 26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198번길 30-4
소유자(소유단체) | 한산이씨 음애공파
관리자(관리단체) | 한산이씨 음애공파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전경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의 사랑채 부분

음애 이자(1480~1533) 선생은 조선 중기 중종 때 덕행이 높았던 문신이자, 정암 조광조와 함께 개혁정치를 추구하며 훈구파와 대립했던 사림파의 인물입니다. 이 집은 그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고, 그가 문헌 〈음애 이자 묘역〉(경기도 기념물 제172호)이 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가옥의 행랑채는 불에 타 없어지고 본채만 남아 있습니다. 본채는 사랑채와 안채가 연결된 ㄷ자형 평면 구조인데, 좌우의 날개채의 지붕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채 부분은 팔작지붕이고, 오른쪽 나뭇간과 안채 부분은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어 두 공간의 위계가 서로 달랐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의 사랑채 배면

본채 앞쪽에는 一자형 행랑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당을 별도 건물로 짓는 일반 양반집과 달리 이 집에는 사당이 따로 없으며, 다만 본채 북서쪽에 청방(사당방)을 두고 그곳을 제사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공간과 달리 단청을 칠하여 신성한 공간임을 표시하였다고도 합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한 건물로 연결되어 있지만,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을 따로 구분한 평면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기지역의 중산층 주택이 이와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가까운 곳의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이해룡 고가와 비슷한 특징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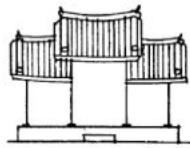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의 대청마루와 지붕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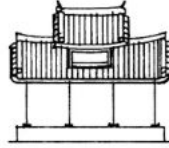
용인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은 지곡1동 마을회관에서 지삼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900m 가량 내려온 후 우회전하여 지삼로198번길을 따라 약 100m 가량 진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건축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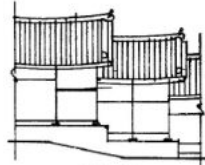
(자료 :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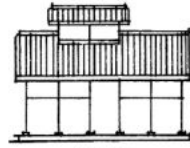
숫을삼문



정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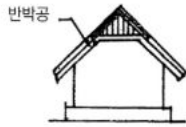


중단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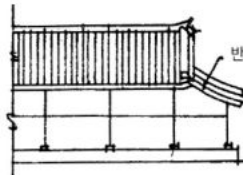


숫을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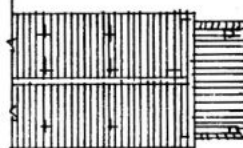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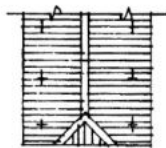
(숫을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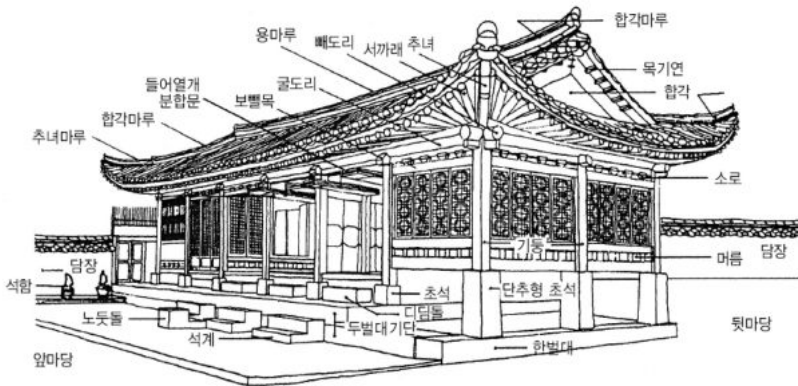
반박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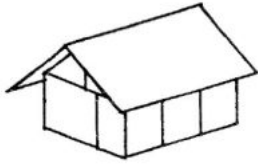
반박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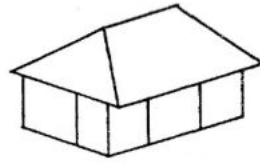
(반박공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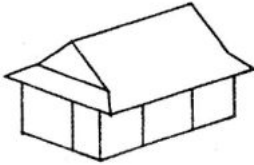
<연경당 사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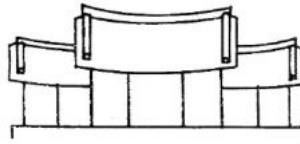
맞배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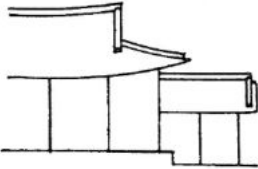
우진각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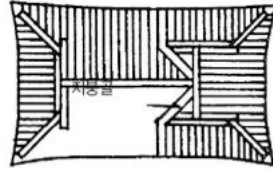
팔작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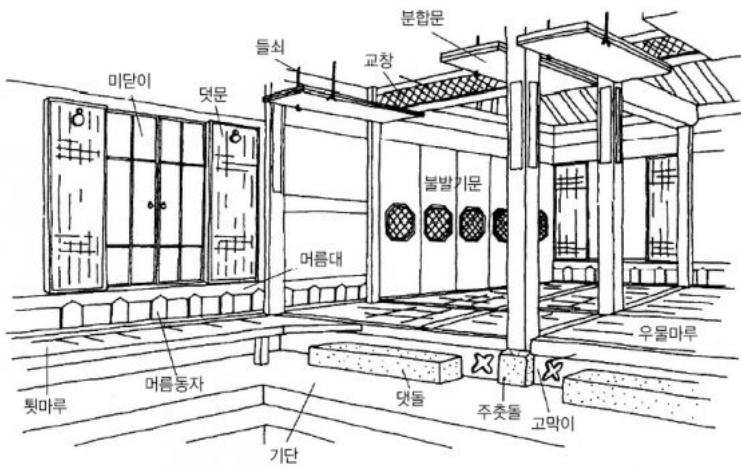
숯을지붕



낮춘지붕



정자지붕(통도사대웅전)



조광조의 동지였던 이자의 부모묘 64 음애 이자 묘역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172호
 명 칭 | 음애이자묘역(陰崖李 墓域)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0.06.12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201번길 31-15
 소유자(소유단체) | 한산이씨음애공파
 관리자(관리단체) | 한산이씨음애공파



음애 이자 묘역 전경



음애 이자 묘역 봉분 정측면

음애(陰崖) 이자(1480~1533)는 중종 때 정암 조광조와 함께 개혁정치를 펼치던 문신입니다. 그는 연산군 7년(1501) 사마시를 거쳐 문과에 급제한 뒤 사헌부 감찰을 지내고,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으나, 연산군의 어지러운 정치에 환멸을 느껴 사직했습니다. 이후 중종반정으로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발생하자 다시 관직에 기용되어 대사헌을 지냈는데, 그때 조광조의 개혁정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중종 14년(1519) 훈구파의 모함으로 기묘사화가 발생하여 조광조는 유배되었고 이자 선생 역시 파직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용인, 음성, 충주 등지에 숨어살며 조용히 학문을 닦는 일로 남은 삶을 살았는데, ‘음애’란 음성 고을 음애를 가리킵니다.



음애 이자 신도비

저서로는 『음애집』, 『음애일록』이 있습니다. 『음애일기』에는 종종 당시 정부 요인과 야인들의 행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왜구와 교섭한 일, 농사 관련 옛 풍속, 훈구파 유자광의 공신 녹훈 삭제에 관한 일 따위도 실려 있어 종종 시기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묘소는 봉분이 두 개로 된 쌍분인데 부부가 따로 묻혀 있고, 봉분 앞에 묘비·상석·향로석·문인석 등이 있습니다. 주변 산줄기에 부친과 형제·자녀의 묘 등 많은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모두 봉분과 석물(石物)이 잘 갖추어져 있고 외형이 비슷합니다. 봉분 아래쪽에는 화강암질인 4매의 장대석이 있는데, 혼백이 드나드는 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합니다.



음애 이자 묘비

음애이자 묘역은 한산이씨 음애공파 고택 인근에 있습니다. 지삼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지곡2교를 지난 후 우회전하여 동북쪽으로 약 100m 들어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초상화 65 유순정 초상 및 함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9호
 명 칭 | 유순정 초상 및 함
 (柳順汀肖像 및 函)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초상 1점, 함 1점
 지정(등록)일 | 2009. 03. 10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 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 박물관

유순정 초상(사진 : 문화재청)



유순정 초상 보관함(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은 조선 중기의 문신 유순정(柳順汀, 1459~1512)의 전신 초상화와 목재 보관함인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순정은 성종 18년(1487)에 문과에 장원급제를 하였고, 홍문관전적을 비롯한 여러 관직을 거쳐 연산군 대에 이조판서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1506년(중종 1)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유순정 초상> 을 보면 ‘정국공신으로 영의정에 올랐던 유순정의 초상’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김상헌(金尙憲, 1570~1657)의 찬사가 적혀 있고, 그 밑에는 1720년(숙종 46)에 후손 유수(柳綬, 1678~1756)가 쓴 글이 있는데, 김상헌의 시를 자신이 다시 적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초상화는 원본을 바탕으로 18세기 경에 모사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유순정은 소매 속에 두 손을 맞잡고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 얼굴은 40대 중년의 모습이고, 양볼과 콧등에는 천연두를 앓아 생긴 흉터까지 보입니다. 머리에는 오사모를 썼으며, 짙은 푸른색의 단령(團領)을 입었습니다. 흉배에는 금 물감으로 그린 공작새 한 쌍이 있고, 서대 허리띠가 보입니다. 바닥에 깔린 울긋불긋한 카펫에는 페르시아 계통의 복잡한 무늬가 특이해 보입니다. 유순정이 앉아 있는 교의(交椅)의 위쪽 등받이와 팔걸이 부분은 둥글게 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자주색 끈은 방석을 묶은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그려진 초상화는 오늘날까지 전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후대의 모사본이지만 16세기의 초상화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며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도상 특징과 화면 구성 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선 후기 작은 규모의 향교

66 양지향교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3호
명 칭 | 양지향교 (陽智鄕校)
분 류 | 교육기관 / 향교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명륜당 1채, 대성전 1채
지정(등록)일 | 1983.09.19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향교로13번 길 20 (양지리)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향교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양지향교



양지향교 강학공간 전경



양지향교 외삼문

처인구 양지면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양지향교가 있습니다. 향교는 공자와 여러 성현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양지향교는 중종 18년(1523)에 처음 지어졌고,¹⁾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수리하였습니다.²⁾

건물 배치를 보면,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이 있고, 그 뒤쪽 내삼문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있어 전학후묘³⁾의 배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뒤로 갈수록 경사가 높아지므로 제사 공간의 위계를 교육 공간에 비해 더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다수 향교에서 대성전과 내삼문, 명륜당과 외삼문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는데 비해 양지향교 명륜당은 대성전의 중심축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내삼문의 축도 대성전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서울, 경기도의 향교건축 에서는 창건연대를 1523년(중종 23)으로 보고 있으나, 용인시,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발간한 용인 양지향교 -강학구역 시·발굴조사보고서 에서는 창건 연대를 1504년~1530년으로 추정하고 있음
- 2) 1697년(숙종23) 대성전 중수, 1792년(정조16) 명륜당 중건 등
- 3) 전학후묘(前學後廟) : 교육 공간을 앞에, 제사 공간을 뒤에 두는 건축 배치 방식



양지향교 대성전

대성전은 앞면 3칸·옆면 2칸의 건물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 처마를 받치는 부분인 공포⁴⁾는 새 날개 모양으로 짜 맞춘 익공⁵⁾양식입니다. 공포의 형태나 가구 수법을 보아 17세기 건물로 보이는데, 대성전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한 여러 성현들과 우리나라 유학자 1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당인 명륜당은 앞면 3칸, 옆면 2칸이던 것을 1971년 앞면 5칸·옆면 2칸 규모로 복원하였습니다. 지붕은 위에서 볼 때 좌우 측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으로 된 팔작지붕으로 지었습니다.

좌우의 4칸은 방으로 되어 있으며 중앙의 6칸은 마루로 되어 있어 이곳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공포 : 기둥 윗 부분에서 부재를 가로 세로로 짜 맞춰 지붕의 무게를 받치는 부분

5) 익공 : 공포의 한 종류로 새의 날개, 혹은 부리 형태로 만들어짐



양지향교 명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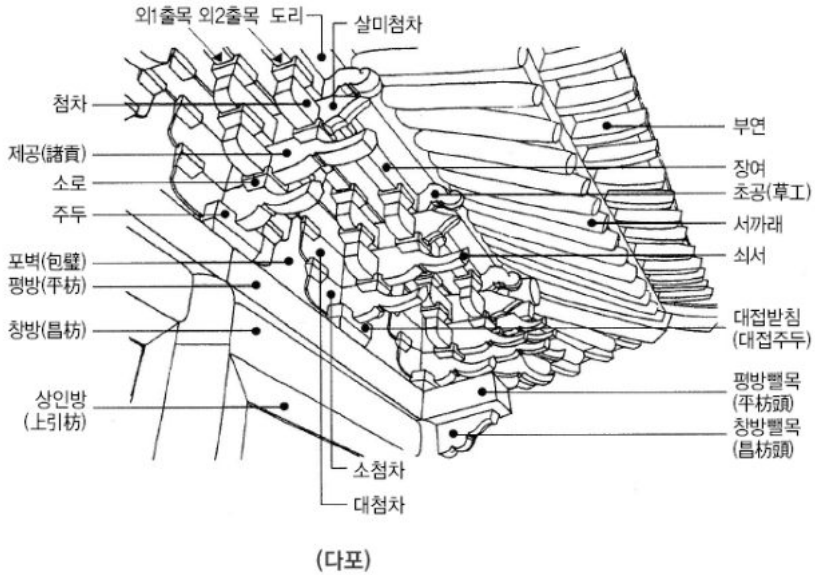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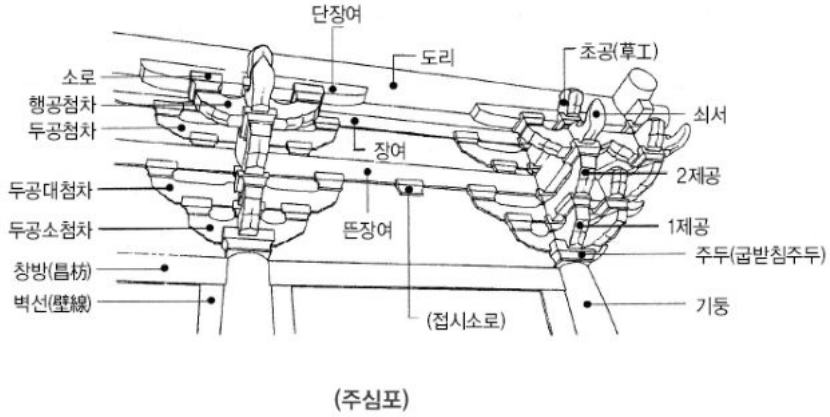
과거에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공부하던 동재와 서재, 전사청, 공사청 등 여러 부속건물이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모두 없어지고 1987년에 신축한 외삼문과 최근 건립한 부속채 2채가 있습니다.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슬삼문 형식이며, 부속채는 공사청과 동재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견된 자리를 조사하여 2014년에 새로 복원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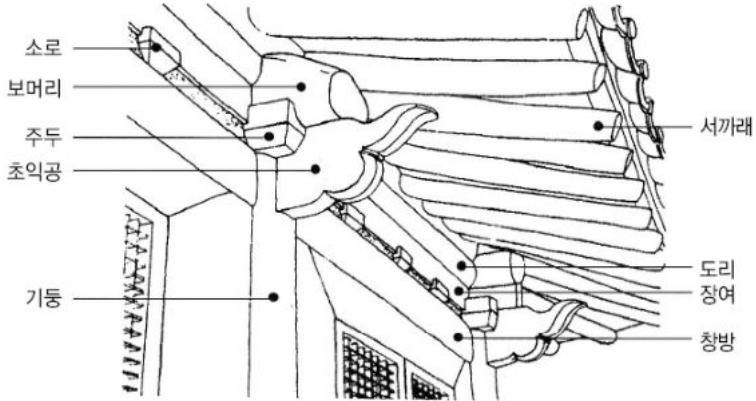
향교는 나라에서 지원해준 토지와 노비, 책 등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였으나, 오늘날에는 교육 기능이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양지향교는 명륜당과 대성전만을 갖춘 작은 향교임에도 불구하고 향교의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 공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고 시민들에게 학문과 교양을 가르치는 등 향교 본래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지향교는 양지초등학교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양지초등학교 정문에서 교동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150m 가량 이동한 후 향교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150m, 향교로13번길을 따라 북쪽으로 약 100m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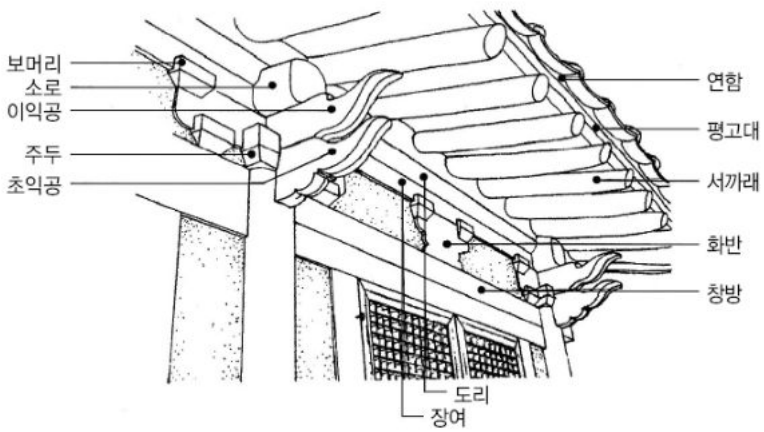
<한국 전통건축 공포의 형태와 부분별 명칭>

(자료 : 문화재청)





(초익공)



(이익공)

중종의 외할머니 전씨의 묘

67 연안부부인 전씨 묘

종	목		용인시 향토유적 18호
명	칭		연안부부인전씨묘 (延安府夫人田氏墓)
분	류		무덤 / 봉토분
시	대		조선시대
수	량/면적		1기
지	정(등록)일		1990. 11. 22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2-4



연안부부인 전씨 묘 전경



연안부부인 전씨 묘 봉분

연안부부인 전씨는 영원부원군(鈴原府院君) 윤호(尹壕)의 부인인데, 윤호는 성종 때 여러 관직을 지낸 문신입니다. 그는 딸이 성종의 비 정현왕후가 되면서 국구(왕의 장인)로서 영원부원군에 올랐습니다.

딸 정현왕후 윤씨는 성종의 후궁 ‘숙의 윤씨’로 왕실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고, 자식으로는 훗날 연산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晉成大君)을 낳았습니다. 이후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외할머니인 전씨(田氏)는 외명부 정1품 위계인 ‘부부인’의 작위를 받았습니다.



연안부부인 전씨 묘역 내 문인석

전씨의 묘소는 기흥구 마북동에 있으며, 1990년 11월 22일 용인시 향토유적 제1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묘역은 약 3백여 평 규모이며, 봉분과 상석·북석(상석을 괴는 북 모양의 돌)·향로석·문인석 등이 놓여 있습니다. 봉분은 높이 3.3m, 직경은 6.8m에 달합니다.

묘소 입구에 ‘대소인개하마(大小人皆下馬)’라고 쓴 하마비(下馬碑)가 있는데,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말에서 내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전씨의 위패를 안치한 가묘(家廟) 현조사(顯祖祠)가 있는데, 정면 3칸, 측면 1칸에 뒷마루가 있고, 지붕은 한식 골기와를 올린 맞배지붕입니다. 4개의 기둥에 주련(柱聯:기둥에 장식으로 써 붙이는 글씨)이 있습니다. 최근 심하게 부서진 것을 해체하고 복원하였습니다.



연안부부인 전씨 하마비

연안부부인전씨묘소는 단국대학교 남쪽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후문에서 마북로247번길을 따라 진입한 다음 동쪽편의 산길을 따라 들어가면 초입에 신도비각과 안내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사대부가 부인의 멋을 보여주는 옷 68 과천 출토 광주이씨 의복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14호
칭 칭 | 과천 출토 광주이씨 의복
(果川出土 廣州李氏 衣服)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지정(등록)일 | 1981.11.29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축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과천 출토 광주이씨 의복(사진 : 문화재청)

‘광주이씨 의복’은 1979년 4월 20일경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소재의 광주이씨 선산묘지를 남서울 대공원 부지 조성 계획에 따라 이장하던 중 이언웅(李彦雄) 묘와 그의 자부¹⁾인 청주한씨(淸州韓氏)의 묘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언웅은 생몰년을 알 수 없으나 그의 아들, 손자의 생몰년으로 보아 중종에서 선조대의 인물로 추정됩니다. 청주한씨는 중종(中宗)의 둘째 딸인 의혜공주(懿惠公主)의 손녀이며, 이집일(李執一, 1574~1613)의 부인이었으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의 묘에서는 단령과 철릭 등 복식류와 수의용품 등이 수습되었습니다.

이들 복식은 문중에 의해 남녀복식이 섞여서 기증되었기 때문에 이언웅의 옷인지 청주한씨의 옷인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치마가 출토되었고 이와 함께 출토된 저고리가 대부분 목판깃으로 화문단(꽃문양 견직물)·금선단(금실로 무늬를 넣은 견직물) 등의 직물이 사용된 점으로 보아 청주한씨의 저고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직물로 만들어진 저고리와 치마는 16세기 사대부 집안 여성의 차림새와 멋을 잘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자부 : 아들의 아내, 며느리를 일컫는 말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한 인물

69 류복립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59호
명 칭 | 류복립 묘 (柳復立 墓)
분 류 | 무덤/봉토분
시 대 | 조선 중기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7. 8. 17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산 16
소유자(소유단체) | 전주류씨 목계공 종회
관리자(관리단체) | 전주류씨 목계공 종회



류복립 묘 전경



류복립 묘 봉분

류복립(1558~1593)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한 인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묵계(墨溪)입니다. 1558년(명종 13)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에서 태어나 왕실 종친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던 종부시에서 주부로 재직하였습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주성을 지키던 경상우도관찰사 학봉 김성일(金誠一)의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김성일은 그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이듬해 김성일이 성을 사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병사하자, 류복립은 의병 김천일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웠으나, 6월 21일부터 이어진 전투에서 왜군에게 밀리자 그는 6월 29일 김천일과 함께 순절하였습니다.

훗날 숙종은 민진후의 주청을 받아들여 류복립을 이조참판에 추증하였고, 영조는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문을 내렸습니다. 그 정려각이 향토유적 제41호로 지정되었는데, 양지면 송문리에 있습니다.



류복립 묘비

그의 묘는 본래 처인구 운학동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후손들이 이장하여 송문리로 옮겼습니다. 묘소는 류복립과 전 부인과 후실 전주이씨가 합장된 ‘삼위합장묘’로 봉분의 형태가 둥글지 않고 각진 것이 특징적입니다. 봉분 좌우로는 신도비와 망주석, 문인석 등이 서 있습니다. 봉분에 두른 호석이나 상석, 향로석은 원래 있던 석물이지만, 망주석과 문인석은 후손들이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류복립 묘 봉분 정면



류복립 묘 상석과 향로석

류복립 묘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송문1리 복지회관에서 송문리입구삼거리로 이동 후 중부대로을 따라 우회전하여 약 300m 가량 이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신촌가든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송문교를 건너 좌회전하여 200m 이동 후, 우회전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의병장 류복립의 충절을 기리는 기념물

70 류복립 정려각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41호
칭 칭 | 류복립 정려각(柳復立 旌閣閣)
분 류 | 유적건조물 / 기념물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각
지정(등록)일 | 1997. 12. 10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산124-5



류복립 정려각

류복립(1558~1593)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진주성에서 싸우다 순절한 인물입니다.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군서(君瑞), 호는 묵계(墨溪)입니다. 1558년(명종 13)에 안동에서 출생하였고, 종부시주부(宗簿侍主簿)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종부시란 왕실의 종친들을 관리하던 기관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류복립은 외삼촌이 되는 학봉 김성일의 의병부대에 들어가 왜군에 맞서 싸웠고, 이듬해 김성일이 병으로 세상을 뜨자 진주성에서 의병장 김천일 등과 함께 왜군을 물리치다 순절하였습니다.

1719년(숙종 45) 대종백(大宗伯) 민진후(閔鎭厚)의 주청으로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추증되었고, 1729년(영조 5)에 충신으로 선정되어 정려문(충신과 효자·열녀를 표창하기 위해 나라에서 내린 붉은 문)이 내려졌습니다. 정려문에는 영조 때 대제학 이재와 이조참판 신만이 쓴 정려기가 있고, 1753년(영조 29)에 열녀로 선정된 류순(柳淳)의 처 안동권씨의 열녀문도 있습니다.

정려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가운데 칸의 지붕을 솟을삼문처럼 높여 격식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앞면에는 홍살창을 세워 안이 보이게 하였고, 옆면과 뒷면은 회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양지면 송문리에 있는데, 중부대로 대종휴게소삼거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m 가량 내려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중종반정에 참가했던 무관 출신 공신의 초상

71 유홍 초상화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16호
명 칭 | 유홍초상화(柳泓肖像畵)
분 류 | 회화/인물화
시 대 | 조선 중기(중종)
수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1990. 11. 22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개인



유홍 초상화(사진 : 용인시)

유홍(1483~1551)은 부친과 함께 증종반정에 참가하여 정국공신이 되었으며, 훗날 증종의 둘째 아들인 혜안군의 장인이 된 인물입니다.

1511년(중종 6) 무과에 급제하여 궁중의 가마와 말을 관리하는 사복시 부정(副正, 종4품)이 되었고, 여러 무신 관직을 거쳐 회령부사·충청도 수군절도사·동지중추부사 겸 훈련원 부총관을 지냈습니다. 이후 증종의 배려로 진산군(晋山君)에 봉해졌습니다.

초상화의 크기는 세로 66cm×가로 54cm인데, 반신상을 그린 것입니다. 부친인 문성공 유순정의 초상화와 전체적인 구도가 비슷하여 같은 시기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홍의 초상은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외개일마을에 거주하는 후손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서울 고위층 관료가 입던 옷 72 이언충 묘 출토 복식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43호
명 칭 | 이언충 묘 출토복식
 (李彦忠 墓 出土服飾)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일괄(7종 24점)
지정(등록)일 | 2002.07.18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이언충 묘 출토복식(사진 : 문화재청)

〈이언충 묘 출토복식〉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이언충(李彦忠, 1524~1582)의 무덤에서 출토된 옷 관련 유물들입니다. 2002년에 중요민속문화재 제2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언충은 세종대 영의정을 지낸 이직의 6대 손이며, 명종 때 병조좌랑, 사헌부 지평, 호조참의, 승정원 도승지, 형조참판(중2품) 등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 유물들은 2000년 4월 성주이씨 도정공파 종회 문중의 선산(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소재)에서 묘를 이장하던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직령 4점, 답호 6점, 철릭 4점, 액주름 1점, 적삼 2점, 바지류 6점, 그리고 명정 1점 등 총 7종 24점에 달합니다.

〈이언충 묘 출토복식〉은 묘주 이언충의 인적사항이 확실하여 다른 묘 출토유물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기준이 되며, 16세기 복식사와 직물사·생활풍속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발굴된 임진왜란 이전의 복식자료라는 점에서 당대 서울지역 고위 관리층의 복식문화와 장례풍습 연구에 크게 기여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이 유물들은 관 내부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넣은 보공의(補空衣)인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출토 상태가 거의 완벽하여 복식의 형태뿐만 아니라 직물의 조직·문양·바느질 기법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복식연구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언충묘 출토 직령



이언충묘 출토 철릭



이언충묘 출토 무명홀직령



이언충묘 출토 명주솜누비바지



이언충묘 출토 모시홀적삼



이언충묘 출토 복식 직물문양

한 비각 안에 나란히 서 있는 부자의 신도비

73 공안공 정옥형 · 충정공 정응두 신도비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1호
 명 칭 | 공안공정옥형충정공정응두신도비
 (恭安公丁玉亨忠靖公丁應斗神道碑)
 분 류 | 금석각 / 비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2기
 지정(등록)일 | 1996.12.24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춘로 102
 소유자(소유단체) | 나주정씨월헌공파
 관리자(관리단체) | 나주정씨월헌공파



정옥형 신도비



정응두 신도비

신도비란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뜻으로 그의 일생과 업적을 새긴 비이며, 묘 가까이 세워두는 것입니다. 이 신도비들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정옥형과 그의 아들 정응두의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정옥형(1486~1549)은 중종 8년(1513)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검열(정9품, 외교문서 관리 업무)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맡아보았습니다. 대사간·대사헌으로 있을 때에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데 힘썼으며, 당시 김안로의 권세가 심해지자 조정을 떠나 외지를 돌며 민심을 두루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중종 39년(1544)에는 병조판서가 되어 국방 업무를 맡아보았으며, 명종이 즉위한 후에는 소윤파(윤원형 쪽)에 가담하여 대윤파(윤임 쪽)를 제거했는데, 그 사건이 을사사화(1545)입니다. 그 공으로 그는 3등공신이 되었고, 좌찬성(종1품)에까지 오른 후 생을 마치었으며, ‘공안’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정응두(1508~1572)는 중종 16년(1521)에 진사가 되었고, 중종 29년(1534)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선공감직장(토목 관련 부서, 종7품)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이조좌랑·좌부승지·병조판서 등의 여러 관직을 거쳐 명종 21년(1566)에는 판중추부사(종1품)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충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정옥형, 정응두 신도비각

비각 한 채에 나란히 서 있는 2기의 신도비는 양식이 같은데, 높직한 사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지붕돌을 올린 모습입니다. 다만 정옥형의 신도비는 지붕돌 부분에서 처마 안쪽부터 지붕 위까지 기왓골이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정옥형 신도비의 비문은 홍섬이 짓고, 글씨는 한호가 썼으며 남응운이 두전¹⁾을 했습니다.

전액²⁾은 “공안공신도비명(恭安公神道碑銘)”이라 하였습니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약 3.1m, 비석 몸돌의 높이는 약 2.2m, 두께는 약 0.2m입니다. 정응두의 신도비문은 남구만이 짓고 썼으며, 최석정이 두전을 했습니다. 전체 높이는 약 3.2m, 비석 몸돌의 높이는 약 2.3m, 비석의 두께는 약 0.4m입니다.

1) 두전(頭篆) : 비석 몸돌의 머리 부분에 전자(篆字)를 쓴 것

2) 전액(篆額) : 전자체로 현판이나 비석에 쓴 글씨



정응두 묘

공안공정옥형 충정공정응두 신도비는 나주정씨 월헌공파 제1선영 내에 있습니다. 이 곳으로 찾아가기 위해서는 충신대신학대학원 입구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왕과 신하 간의 친분을 보여주는 유물

74 선조어서사 송언신밀찰첩 및 송언신 초상



송언신 초상(사진 : 문화재청)

- 종 목 | 보물 제941-1호 및 2호
- 명 칭 |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및송언신초상
(宣祖御書賜宋言慎密札帖 및 宋言慎肖像)
- 분 류 | 기록유산 / 서간, 회화 / 인물화
- 시 대 | 조선시대
- 수량/면적 | 2권 2책 고문서 1건
- 지정(등록)일 | 1997. 12. 26
-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 소유자(소유단체) | 여산송씨호봉공종회
-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송언신(1542~1612)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이항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선조 10년(1577)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평안도·함경도순찰사를 맡아 군병 모집에 힘썼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병조판서·이조판서 등 호조를 뺀 5조의 판서를 지냈으며, 명종 때에는 불교를 배척하여 중 보우를 처형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보물 제941-1호로 지정된 『선조어사송언신밀찰첩』은 선조가 직접 접어서(왕이 쓴 서찰)를 써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송언신(1542~1612)에게 남모르게 보낸 서찰 7건입니다.

이 서첩은 원래 길게 이어있던 종이를 옆으로 적당하게 잘라, 그 앞뒤에 따로 표지를 붙인 것으로 서첩의 크기는 가로 24.2cm, 세로 36.6cm이며, 서찰에는 선조가 임진왜란 때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하면서 자신의 자녀 3인을 찾아 보호해 달라는 글과 그 공을 세운 사람에게 물품을 하사하겠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훗날 정조는 이 『선조어사밀찰』 서첩을 보고 서찰 7건에 대한 내용 해설을 곁들여 직접 발문을 지어서 『정조어제선조어사밀찰발』을 만들고, 호조판서에게 명하여 원첩(선조어사밀찰)과 똑같이 한 권을 만들어 내각(규장각)에 보관하게 하고, 원첩은 궤에 담아 송언신의 후손에게 되돌려주게 하였습니다. 이 어사첩(왕이 내린 서첩)은 그때 모사된 것입니다.

『선조어사사송언신밀찰첩』에 실린 「만력십삼년십이월십팔일에 조입안」은 송언신에게 자식이 없으니 10촌 형 되는 사람에게서 자식을 입양하는 것을 만력 13년(선조 18년, 1585) 2월 18일 예조에서 허락한다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서첩은 당시 조선의 국방, 군신간의 사적인 서신 왕래와 선물교환, 사대부가의 가족제도와 송언신의 가계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보물 제941-2호로 지정된 〈송언신 초상〉은 송언신이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가슴에는 모란과 운안(雲雁, 구름과 기러기) 문양을 한 흉배가 있으며, 삼금대(정이품 관리가 띠던 허리띠)를 두르고 있는데 이는 송언신이 대사헌과 이조판서를 지내던 1603~1604년 시기의 품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작품은 17세기 초의 공신상(功臣像)으로, 옷의 주름 표현과 채연(彩筵)을 깔고 좌안 7분면(左顔七分面, 정면에서 7분면 정도 돌린 얼굴)의 자세로 앉아 있는 형식 등에서 이 시기 초상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사진 : 문화재청)

중종 때의 개혁 정치가 조광조의 묘소

75 문정공 조광조 묘 및 신도비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169호
명 칭 | 문정공조광조묘및신도비
(文貞公趙光祖墓및神道碑)
분 류 | 무덤/봉토분, 유적건조물/기념물
기타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9. 10. 18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산55-1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심곡학원
관리자(관리단체) | 한양조씨 종중



문정공 조광조 묘역 전경



문정공 조광조 묘 봉분

심곡서원이 있는 수지구 상현동(서원말)에는 조선 중기의 문신 정암(靜庵) 조광조(1482~1519)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는 중종 때의 문신이자 성리학자로, ‘소학동자’로 널리 알려진 김굉필에게 학문을 배움으로써 조선 성리학의 종장(우두머리) 김종직의 학통을 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치가로서는 사림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중종 5년(1515) 사마시에 합격하면서 관직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폭군 연산군에 의해 무너진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선생은 사림파를 이끌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교로 정치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와 왕도정치(어진 왕이 현명한 신하와 함께 선정을 베푸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하는 사림파의 정치이념)의 실현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촌을 유교이념으로 교화하기 위해 ‘상호부조’를 내세운 ‘여씨향약’(향약 : 향촌 공동체 규약)을 팔도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정공 조광조 묘역 위에서 바라본 전경

이러한 정책을 펴고 동시에 신진사류(사림파)를 이끌면서 훈구대신들의 부패를 질타하고, 잘못된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하고자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위훈삭제¹⁾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파의 강한 반발과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훈구파에 의하여 전라도 능주로 유배된 후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선조 연간에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고 영의정에 추증하였습니다. 시호는 ‘문정’이며, 문집으로 『정암집』을 남겼습니다.

1) 위훈삭제 : 중종이 반정을 통해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도록 도운 공신 중 실제로 공을 세우지 않은 신하들을 공신록에서 삭제하고 상으로 내렸던 토지 등을 몰수하도록 한 것



문정공 조광조 신도비

선생의 묘소는 심곡서원 맞은 편 산자락 남동쪽 한양조씨 묘소에 있는데, 청렴과 소박함을 강조했던 고인의 삶처럼 수수하게 꾸며져 있고, 정경부인으로 추증된 부인 이씨랑 한 봉분에 누운 합장묘입니다.

묘 앞에는 대리석 묘표와 평상석·향로석·망주석·문인석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도비는 1585년(선조 18)에 세워졌는데, 신도비의 글은 노수신이 지었고, 이산해가 글씨를 썼습니다.

문정공 조광조 선생 묘는 심곡서원에서 심곡로를 따라 상현지구대삼거리에서 수원방면으로 좌회전한 다음, 수지로를 따라 300m 이동 후 수원 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50m 가량 이동하면 우측편에 있습니다.

정암 조광조와 학포 양평손을 배향하는 서원
76 용인 심곡서원

종 목 | 사적 제 530호
칭 칭 | 용인 심곡서원
(龍仁 深谷書院)
분 류 | 교육기관 / 서원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곽
지정(등록)일 | 1972. 05. 04
소재지 | 경기용인시수지구심곡로
16-9 (상현동)
소유자(소유단체) | 심곡서원
관리자(관리단체) | 심곡서원



심곡서원 전경

심곡서원은 조선 중기 중종 대의 학자이며 정치가였던 정암 조광조(1482~1519) 선생의 뜻을 기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선생은 조선 중종(재위 1506~1544) 때 사림파의 대표로 활약하면서 급진적인 사회개혁정치를 추진하다가 기묘사화¹⁾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먼 훗날 효종 원년(1650)에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서원을 설립하였는데, 효종은 ‘심곡’이라는 현판과 토지·노비 등을 하사하여 심곡서원은 사액서원이 되었습니다. 이 곳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무사했던 전국 47개 서원·사당 중의 하나로서, 선현에 대한 제사와 지방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심곡서원 입구의 홍살문과 외삼문·강당·내삼문·사우(사당)가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당은 서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 유림들이 모여 회의와 학문을 토론하던 장소이며, 각 칸마다 널문을 달아 사면을 전부 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강당 안에는 숙종의 어제어필이 담긴 현판과 서원의 규약 등이 걸려 있습니다.

강당 옆에는 서원의 책과 문서가 보관된 장서각이 있고, 제사를 준비하는 재실이자 배향객들의 숙소로도 사용된 건물인 고직사가 있습니다.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건물인 사당은 앞면에 트인 퇴칸²⁾이 있으며, 옆면과 뒷면에는 화방벽³⁾을 설치하였습니다. 정면 3칸·측면 2칸 크기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입니다. 이곳에는 정암 조광조와 학포 양팽손(문신, 조광조를 위해 여러 차례 상소를 하였음)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향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기묘사화 : 1519년에 조광조와 사림파 인사들이 대거 숙청된 사건

2) 퇴칸 : 정면으로 보기에 건물 중심부를 둘러싼 돌레 부분

3) 화방벽 : 건물의 외벽을 만들 때 돌이나 벽돌을 높게 쌓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벽체



심곡서원 사당

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았으며, 내삼문은 3칸의 솟을대문 형식입니다. 사당 뒤편에는 수령 5백여 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심곡서원중건기(1935년)과 심곡서원도(시기미상)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심곡서원에는 사당과 동·서재가 최초에 건축되었고, 후에 강당이 세워졌으며, 현재의 연지 인근에 임심루, 산양재, 문향각 등이 건축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동·서재는 현재 강당 뒤편에 있는 치사재와 장서각의 위치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후 현재 복원되어 있는 위치에 동·서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심곡서원은 최초 사당을 중심으로 제향기능을 강조하여 지어졌으며, 이후 앞쪽에 강당을 두고 뒤편에 재사를 두는 전당후재의 모습을 보였고, 심곡서원도가 그려진 시기에 앞서서 전재후당의 공간구성을 보이고 있음을 옛 자료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심곡서원 강당



심곡서원 장서각

심곡서원은 상현마을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 입구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심곡초등학교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4대 성현’ 조광조 [趙光祖, 1482~1519]

조광조는 한양에서 출생했고, 함경도에 찰방으로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가서 김굉필을 만났습니다. 김굉필은 ‘소학군자’로 불렸던 이름 높은 선비였는데, 그곳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그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조광조는 성균관 시절부터 뛰어난 학행으로 이름을 날렸고, 진사 신분이었지만 이미 사림의 영수로 대접 받았습니다. 1515년 알성시에 급제하여 관직에 입문했는데, 조정은 중종을 왕위에 앉힌 훈구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조광조는 훈구파의 비리를 막고, 연산군이 망가뜨린 유교적 통치체제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입조하였습니다.



문정공 조광조

조광조는 ‘왕도정치’(임금이 유교의 덕목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주장하며 중종에게도 학문에 충실하라고 요구했고, 연산군이 철폐한 성균관을 다시 열게 했습니다. 유교적 통치이념을 회복하기 위해 소격서(도교 시설)를 폐지하였고, 무엇보다 훈구파, 반정 공신들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위훈 삭제’를 주도했습니다.

위훈삭제란 공훈을 위조해 공신이 된 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조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훈구파의 다수가 공신녹권(임명장)과 재산을 빼앗기고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정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훈구파는 기묘사화(1519)를 일으켜 조광조를 위시하여 70여명에 이르는 사림파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때 조광조는 전라도 능주¹⁾로 유배되었다가 한 달 만에 사사²⁾되었습니다.

야사에는 기묘사화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훈구파는 사림파를 제거하기 위해 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 쓰인 나뭇잎 사건입니다. 그 나뭇잎을 본 증중은 ‘주초(走肖)’가 곧 ‘성씨 조(趙)’의 파획이니 이는 곧 ‘조씨가 왕이 될 조짐’이라는 훈구 대신의 해석을 곧이들었고, 그 길로 조광조를 체포하여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사약을 내려 조정을 개혁하려는 사림파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고, 결국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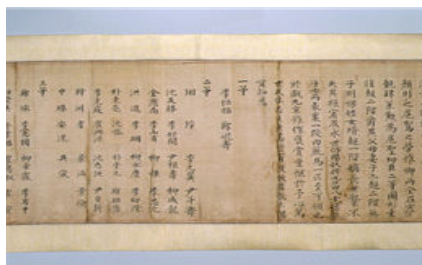
조광조는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사사되었지만 그가 주장한 왕도정치와 도학정치는 후세로 이어졌습니다. 훗날 선조는 조광조를 영의정에 추증하고 문묘에 배향했으며, 전국의 수많은 서원과 사당에도 제향되었습니다. 율곡 이이는 조광조를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과 함께 ‘조선의 4대 성현’이라 불렀으며 후대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1) 능주 : 현재의 전라도 화순 일대

2) 사사 : 임금으로부터 사약을 받고 죽음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심대의 공신교서 77 청원군 심대 호성공신 교서

종 목 | 보물 제1175호
 명 칭 | 청원군심대호성공신교서
 (靑原君沈岱扈聖功臣敎書)
 분 류 | 기록유산 / 교서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1축
 지정(등록)일 | 1993.11.05
 소 재 지 | 경기용인시기흥구상갈로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청원군 심대 호성공신교서(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은 선조가 심대(沈垓, 1546~1592)에게 내린 ‘녹권’입니다. 녹권이란 공신으로 인정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이 녹권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의주로 피난할 때 심대가 호종(扈從, 왕의 수레를 따라감)한 일로 선조가 내린 ‘호종공신’ 임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대는 선조 5년(1572)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호종하여 의주까지 따라갔으며, 경기도 관찰사가 된 뒤로 한양을 탈환하고자 백성들과 함께 싸우다가 왜병들의 습격을 받고 순절한 인물입니다.

이 교서에는 심대가 임진왜란 때 왕을 의주까지 호종했던 공훈과 경기도 관찰사에 제수되어 한양을 되찾으려 하였으나 왜병의 습격에 전사한 사실, 그에게 ‘청원군’ 봉호와 2등 공신을 내린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대의 초상화를 그려 후세에 길이 남기고 관직을 2계급을 특진시키며, 큰아들과 그 후손에게 심대에게 내린 벼슬(이조판서, 좌찬성)의 지위를 영원히 세습하게 하며, 노비 9명과 밭 80결, 은자 7냥, 비단 1필을 내려주도록 교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대의 묘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으며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의 호성공신교서는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조선시대 공신 연구와 임진왜란 연구에 귀중한 가치를 지닌 자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사한 심대의 묘 78 심대 장군 묘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3호
명 칭 | 심대 장군 묘
(沈岱 將軍 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 / 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72. 05. 04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827번길 116-5
소유자(소유단체) | 청송심씨 총장공파
관리자(관리단체) | 청송심씨 총장공파



심대 장군 묘 전경



심대 장군 묘 봉분

이 곳은 조선 중기의 무신인 충장공 심대(1546~1592) 장군의 묘소입니다. ‘장군’으로 불리며 무신 대우를 받고 있지만, 심대는 본관이 청송이며, 선조 5년(1572)에 문과에 급제한 문신입니다. 관직에 나간 후 1584년에는 사헌부 지평(종5품)에 올랐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를 모신 근왕병(왕과 왕실을 위해 싸울 군인) 모집에 힘썼으며 그 공로로 우부승지, 좌부승지를 지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기세가 거세지자 선조를 호위하여 평양에서 의주로 피난하였고, 그해 경기도 관찰사가 되어 경기도 일대에서 왜군을 격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양 수복 작전을 앞두고 왜군의 야습을 받아 전사하였습니다. 왜군은 그의 목을 베어 한양 거리에 효시하였는데, 60일이 지나도 마치 산 사람처럼 보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조는 이 소식을 듣고, 곧 바로 고인이 심대에게 이조판서 벼슬을 내렸고 훗날 다시 좌찬성 벼슬과 청원군에 봉하였으며 ‘충장’이란 시호를 내렸습니다. 전란이 끝난 후 호성공신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심대 장군 묘 문인석

현재 심대 장군 묘에는 묘비와 상석, 장명등이 있고, 무덤이 있음을 알게 해 주는 표식인 망주석(望柱石)과 문인석이 한 쌍씩 세워져 있습니다.

심대 장군 묘로 가기 위해서는 남곡초등학교입구에서 처인성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2km 이동 후 매능교를 건너 다시 좌회전하여야 합니다. 완장천로를 따라 600m 가량 이동한 다음 321번 지방도를 따라 좌측방향으로 약 2km 이동하면 완장제1저수지 우측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심대 장군 신도비

원균의 공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 79 원균 선무공신 교서

종 목 | 보물 제1133호
 명 칭 | 원균 선무공신교서
 (元均 宣武功臣敎書)
 분 류 | 기록유산 / 교지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 / 면 적 | 일괄(1책, 1건)
 지정(등록)일 | 1997. 12. 26
 소 재 지 | 경기용인시기흥구상갈로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원균 선무공신교서(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은 선조가 원균에게 내린 공신교서입니다. 조선 중기의 무신 원균(1540~1597)은 선조 37년(1604) 임진왜란을 맞아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서 왜군과 싸워 이겼고, 정유재란 때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왜수군과 싸우다 전사한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선조는 원균을 이순신과 권율 등 열여덟 명의 무신과 함께 '선무공신'으로 삼고 공신교서를 내렸습니다.

교서의 내용은 왜군을 물리치고 장렬하게 전사한 원균을 공신으로 삼고, 그의 후손들을 국가가 보살필 것이며, 노비 13명, 논 150결, 은 10냥, 옷감 1단, 말 1필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선조는 1605년 정월 18일 원균의 영전에 이 공신교서와 함께 의정부좌찬성(총1품) 관직을 내리고, 치제문(致祭文, 고인의 죽음을 기리어 제사를 지내게 한 글)을 내렸습니다. 이 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물리치는데 많은 공을 세운 원균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됩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명나라에 가서 종계변무를 해결한 인물 80 황림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40호
명 칭 | 황림 묘(黃琳 墓)
분 류 | 무덤/봉토분
시 대 | 조선(선조 30, 1597)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7. 12. 10
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 14



황림 묘역 전경



황림 묘 봉분

황림(1517~1591)은 조선 중기 중종~선조 때의 문신이며,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여온(汝溫)입니다. 1543년(중종 38)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1552년(명종 7)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예문관 검열을 비롯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1578년(선조 11)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서 종계변무(宗系辨誣)¹⁾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공신 반열에 올랐습니다. 명나라의 사적에 태조 이성계의 혈통이 ‘이인임(고려 말의 반명파)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었는데, 조선은 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황림을 비롯한 19명의 주청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으므로 선조는 그들을 수기광국공신으로 책봉했는데, 그때 황림은 2등공신 의창군에 봉해졌습니다.

1) 종계변무 : 조선이 명나라의 역사서에 잘못 기록된 내용을 바로잡은 일



황림 묘비

황림의 묘는 수지구 고기동 낙생저수지 근처에 있는데, 아내 정경부인 파평윤씨와 함께 합장되어 있습니다. 묘소는 소박한 편으로 상석을 중심으로 망주석과 문인석이 서 있는데, 문인석의 이목구비가 잘 생겨서 마치 표정이 살아있는 듯합니다.

황림 묘는 용인시 고기동유원지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고기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고기공원로로 동쪽으로 약 1km 정도 가다보면 낙생저수지 초입을 거쳐 호수로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호수로 남쪽으로 약 100m 가량 내려가면 우측에 묘역이 있습니다.



황림 묘역의 문인석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사한 무관 김함의 옷

81 김함의 묘 출토 의복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09호
명 칭 | 김함의 묘 출토의복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지정(등록)일 | 1987. 02. 12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김함의 묘 출토의복(사진 : 문화재청)

조선 중기의 무관인 김함은 선조 1년(1568)에 출생하여 선조21년(1588)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 되었으며, 선조 31년(1598) 한산도에서 부친인 부사(府使) 극희와 함께 이순신(李舜臣) 장군 지휘 아래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그의 묘에서 나온 복식은 1985년 4월 15일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학계리에서 김해김씨(金海金氏) 문중이 선산(先山)의 묘역(墓域)을 재정리·확장하려고 묘를 옮기다가 나온 유물들입니다. 김함이 해전(海戰)에서 전사하였기 때문에 시신을 찾지 못하자, 후손들은 나무로 시신의 형상을 만들어 염습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이 때문에 그의 묘에 매장된 유물은 매우 특수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목에는 30과(顆)로 꿰어진 목걸이가 있었으며 팔 아래로 삼 겹질로 만든 제웅(사람 형상의 인형)이 5점 출토되었는데, 이는 군졸(軍卒)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출토유물은 장옷 3점, 저고리 2점, 바지 2점, 모자 1점, 누비무명버선 1쌍, 부들신(부들 : 수생식물의 일종) 1쌍, 이불 1점, 주(목걸이) 1점, 제웅 5점 등으로 총 17건의 유물이 수습되었습니다. 복식류가 많지 않은 것은 전란 중이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간략하게 치룬 탓으로 짐작됩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자녀의 태를 안치하는 데 썼던 백자

82 백자태호<내·외호> 및 태지석

종 목 | 보물 제1065호
명 칭 | 백자태호 및 태지석
(白磁胎壺 및 胎誌石)
분 류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조(3점)
지정(등록)일 | 1991.01.25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로 134
용인대학교박물관(삼가동)
소유자(소유단체) | 우학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대학교 박물관



백자태호<내·외호> 및 태지석(사진 : 문화재청)

조선 왕실에서는 왕자와 왕녀가 태어나면 그 태줄(胎)을 물과 술로 깨끗하게 씻어서 항아리에 넣어 매장하였습니다. 그 항아리가 바로 ‘태항아리’인데 외항아리와 내항아리의 두 개를 썼습니다. 태지석은 태의 주인인 왕자, 혹은 왕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록한 표식으로 태항아리와 함께 묻었습니다.

보물 제1065호인 이 유물은 조선시대 백자 태항아리로 외항아리는 전체 높이 35.2cm, 항아리 높이 30.6cm, 아가리 지름 19.7cm, 밑지름 14.6cm이며, 내항아리는 전체 높이 25.1cm, 항아리 높이 21.7cm, 아가리 지름 9.0cm, 밑지름 9.2cm입니다. 태지석(胎誌石)은 가로·세로·높이 21.0cm×21.0cm×5.7cm입니다.

외항아리는 아가리 부분이 밖으로 벌어졌으며 위가 넓고 서서히 좁아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부위 네 곳에는 작은 고리가 달려있으며, 뚜껑은 냄비 뚜껑과 같이 생겼고, 꼭지 네 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뚜껑의 구멍과 어깨 부위에 달린 고리에 끈을 꿰어 뚜껑을 고정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약이 잘 녹아 투명하고 광택이 있습니다. 내항아리는 크기가 작을 뿐 외항아리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태지석은 정사각형의 검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윗면에 태항아리들의 제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 이 태항아리들은 1581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들은 조선 왕실이 16세기 후반에 사용했던 백자의 형식과 유약, 바탕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됩니다.

소장처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작품

83 화운사 목조여래(아미타, 약사)좌상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0호
명 칭 | 화운사목조여래(아미타,약사)좌상
(華雲寺木造如來(阿彌陀,藥師)坐像)
분 류 | 불교조각 / 불상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2구
지정(등록)일 | 2006.06.19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111-14
소유자(소유단체) | 화운사
관리자(관리단체) | 화운사



화운사 아미타불좌상



화운사 약사여래좌상

〈화운사 목조아미타좌상〉과 〈약사여래좌상〉은 현재 화운사 대웅전과 선원의 본존불(오편가는 부처, 석가모니불)로 봉안되어 있는데, 절을 중창한 월조 지명스님이 1960년 김제 금산사에서 옮겨왔습니다. 두 불상은 얼굴(상호)의 표현, 옷 주름의 조각 방법을 볼 때 한 조각가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원에 안치되어 있는 아미타좌상은 무릎 너비가 좁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게 만들어 졌습니다. 머리에는 나발이 ¹⁾ 촘촘하게 새겨져 있고, 목에는 삼도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으며 가슴과 어깨가 넓은 편입니다. 결가부좌한 다리 중앙에는 주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며,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올렸고 왼손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수인(손 모양)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아미타 하품중생인’입니다. 불상의 밑부분에는 ‘서방불(西方佛)’이라는 글씨가 있어 아미타불 상임을 알 수 있고, 제작시기도 1628년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대웅전에 안치되어 있는 약사여래좌상도 밑에 ‘동방불(東方佛)’이라는 글씨가 있어 약사여래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법의는 통견으로 ²⁾ 착용하고 있습니다. 약사여래좌상은 오른손을 들고 있으며 아미타좌상은 왼손을 들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 불상들은 금산사에서 가져왔다는 점에서, 금산사 대적광전의 5불상과 유사한 불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³⁾ 〈화운사 목조 아미타불좌상〉과 〈약사여래불좌상〉은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불상들이 안치된 화운사는 용인경전철 초당역에서 동백죽전대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약 1km 이동한 후 동백죽전대로175번길을 따라 진입하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1) 나발 : 불상의 머리에 조각된 소라모양의 머리카락
 2) 통견(通肩) : 양어깨를 모두 덮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방법
 3) 文明大, 龍仁 華雲寺 木 阿彌陀·藥師佛坐像, 講座 美術史 2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05, p.57.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필한 무관 84 이완 묘 및 정려각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 51호
명 칭 | 이완 묘 및 정려각
(李莞 墓 및 旌閣閣)
분 류 | 무덤/ 봉토분, 유적건조물/기념물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정려각 1기
묘역 1기
지정(등록)일 | 2001.4.18
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
소유자(소유단체) | 덕수이씨 강민공파 종회
관리자(관리단체) | 덕수이씨 강민공파 종회



이완 묘 봉분과 석물



이완 정려각

이완은 조선 중기의 무신이며, 자는 열보(悅甫)이고 본관은 덕수(德水)입니다. 부친은 사후에 참판이 된 희신(羲臣)이며, 어머니는 진주 강씨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완은 숙부가 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종군하였고, 노량해전(1598)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사실을 아군에게 알리지 않고 힘차게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의주부윤으로 있을 때 정묘호란(1627, 인조 5)이 일어나서 후금의 기병 3만이 압록강을 건너왔는데, 이완은 적에 맞서 싸우다가 전세가 기울자 화약고에 불을 지른 뒤 사촌동생인 이신과 함께 뛰어들어 순절하였습니다.



이완 묘 봉분

그의 충절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1692년(숙종18), 숙종은 그에게 강민공(剛愍公)이란 시호와 함께 정려문을 내렸고, 1704년(숙종30) 수지구 고기동(손기마을)의 현재 위치에 정문(旌門)을 세우고 그의 충절을 기렸습니다.

이완의 묘와 정려각은 2001년에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래 정려각은 고기동 167번지의 후손 가옥 내에 있었으나, 2003년 덕수이씨 강민공파 종회에서 이완 묘소 옆으로 이전하여 복원하였습니다. 맞배지붕에 겹처마로 되어있고 좌우에 풍판이 달린 형태입니다.



이완 묘비

이완의 묘 봉분은 정부인 파평윤씨와 합장하였습니다. 봉분 뒤편으로 사성이라고 하는 둔덕을 쌓았고 봉분에는 돌로 병풍석을 둘러섰습니다. 봉분 앞으로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으며 좌우측에 비석이 있습니다.

이완 묘는 고기동유원지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고기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 앞 고기로377번길을 따라 서쪽으로 약 500m 가량 나오면 북쪽에 이완 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큰 공을 세운 용인 출신 무신의 묘

85 이일 장군 묘소

종	목		용인시 향토유적 제21호
명	칭		이일장군묘소(李鎰將軍墓)
분	류		무덤 / 봉토분
시	대		조선시대
지정(등록)일		1990.11.22	
소재지		용인시 처안구 모현면 매산리 산 108-1	



이일 장군 묘소 전경



이일 장군 묘 봉분과 석물

이일(1538~1601)은 조선 선조·명종 때의 용인 출신 무신입니다. 1558년(명종 13)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뒤 경원부사로 특별임명 되어 북쪽 변방을 침입한 니탕개(尼湯介, 여진족 출신)를 물리쳤습니다. 그때 이일은 김종서의 군사용 지침서 『제승방략』을 보강하여 무장들에게 읽도록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순변사(巡邊使, 왕명을 띠고 변경을 순찰하던 특사)가 되어 왜군에 맞서 상주와 충주에서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명나라 원병과 함께 임진강·평양에서 왜군을 격퇴하고 평양을 방어했으며, 한양 도성을 다시 되찾을 때도 공을 세웠습니다.

그 뒤로 훈련도감이 설치되면서 좌지사(左知使, 고위 장교)가 되어 군사훈련을 맡았고, 한성판윤(정2품, 서울시장에 해당)을 거쳐 팔도의 순변사를 지냈습니다.



이일 장군 묘 봉분

그의 묘소는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상촌마을 고시능에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신도비가 서 있고, 그곳에서 20여 미터쯤 가면 부인 전주이 씨와 합장한 묘가 있습니다. 묘 앞에는 묘표와 상석·향로석·문인석이 서 있고, 묘 아래에는 이일이 탔던 말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일 장군 묘소로 가기 위해서는 모현초등학교에서 문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300m 이동후 매산 사거리에서 곡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550m 내려가야 합니다. 곡현로 619번길을 타고 서쪽으로 향하면 이일로를 만나게 되는데 동네를 통과하여 약 1.2km 가량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일 장군 묘소로 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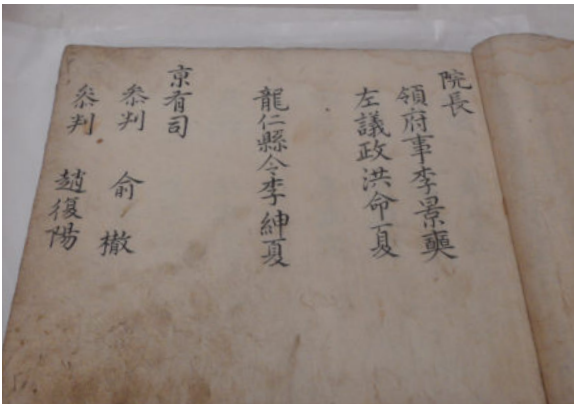
이일 장군 묘의 문인석

충령서원의 강당과 사당을 고친 기록 86 충렬서원 증수록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26호
 명 칭 | 충렬서원증수록
 (忠烈書院重修錄)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조선(1605년, 선조 38)
 수 량/면적 | 가로 28.8cm, 세로 24cm
 지정(등록)일 | 1992.10.12
 소 재 지 | 기흥구 동백3로 79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소유자(소유단체) | 충렬서원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충렬서원 증수록 표지(사진 : 용인시)



충렬서원 증수록 내용(사진 : 용인시)

이 책은 말 그대로 충렬서원의 건물들을 수리한 내역을 기록한 것입니다. 충렬서원은 정몽주를 배향한 서원인데, 1576년(선조 9)에 건립한 이래 임진왜란 때 불에 타자 1605(선조 38)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 이 책인데, 17세기 조선시대에 서원을 지을 때의 절차와 방법이 망라되어 있고, 그 시대의 실상이 담겨 있습니다.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사우 3칸, 동재·서재 각 2칸, 문루 3칸을 지었고, 문루 위층은 강당이며, 아래는 문주방과 고사(庫舍, 차고)를 갖추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지를 열면 먼저 중수록의 서문에 이어, 송곡 조복양과 호곡 남용익이 지은 상량문과 정몽주의 신위 이안제문(移安祭文, 신주나 영정을 옮기면서 지은 제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충렬서원의 중수를 추진했던 관계자의 명단이 적혀 있는데, 영의정 이경석(李景奭)을 비롯하여 여러 인사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령·방백들이 보낸 성금, 성품 내역을 적은 ‘구청소송기(求請所送記)’, 물품을 사거나 환가하여 지출한 ‘목단잡화질(木段雜貨帙)’, 건축자재 수급과 노역비 등을 기록한 ‘산림청구질(山林請求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목공·석공·와공·미장 등의 기술·건축 부문에 동원된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강당을 중건했을 때 소요된 물력과 사업 기간, 입주, 상량, 기와를 얹은 것 등 작업 공정, 장인·기술자들에게 지급한 급료, 논상으로 지급한 물종 등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장처인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은 용인시립동백도서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용인경전철 동백역에서 2번출구 방향으로 길을 건너 약 750m 가량 들어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왕족 출신이 입었던 옷

87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 유물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76호
 명 칭 |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義原君 李赫 一家 墓 出土遺物)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선조)
 수량/면적 | 130중 181점
 지정(등록)일 | 2013.08.2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박물관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중 능창대군의 망건(사진 : 문화재청)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은 1999년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위치한 의원군 일가 묘 이장 과정에서 수습한 유물 130종 18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군 이혁(1661~1722)은 인조의 셋째 아들 인평대군과 복천오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의원군에 봉해졌는데, 그의 후손이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고종입니다.

의원군 이혁의 일가 묘에는 능창대군(綾昌大君, 1599~1615)의 묘, 의원군 부부의 합장묘, 의원군의 5대손인 이연응(李沆應, 1818~1879)의 묘가 있는데, 세 개의 묘에서 복식(服飾)·서간(書簡)·지석(誌石, 죽은 사람의 행적을 적은 돌) 등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유물들은 1999년부터 경기도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수량이 많고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또한 이 출토유물들은 묘에 묻혀 있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생몰(生沒) 연대와 신분이 확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왕실 종친의 남녀 복식과 후손의 출토복식인데, 이런 유물들은 기존에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없고 발굴사례도 매우 드물어, 왕실복식과 장례문화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특히 능창대군의 망건(綱巾), 의원군의 단령(團領)·철릭(帖裏)·답호, 의원군 부인 안동권씨의 원삼(圓衫)·당의(唐衣), 이연응의 마고자(麻掛子) 등은 복식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들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 부자의 신도비

88 정윤복·정호선 묘 및 신도비

종 목		용인시 향토유적 제47호
명 칭		정윤복 정호선묘 및 신도비 (丁胤福 丁好善墓 神道碑)
분 류		무덤 / 봉토분, 유적건조물 / 기념물
시 대		조선(선조)
수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1999.1.21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산 21-3(묘) 전대리 416-1(신도비)
소유자(소유단체)		나주정씨 대사헌공파 종중
소유자(소유단체)		나주정씨 대사헌공파 종중



정윤복, 정호선 묘 전경



정윤복 묘 봉분과 석물

정윤복(丁胤福, 1544~1592)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개석(介錫)입니다. 그는 병조판서 옥형(玉亨)의 손자이며, 좌찬성 응두(應斗)의 아들입니다. 1567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고, 도승지, 동지중추부사, 사헌부대사헌 등을 지냈습니다. 1589년 기축옥사(서인들이 동인들을 숙청한 사건)가 일어났을 때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행호군으로 보직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참판을 제수 받고 선조를 모시고 가다가 가산군에 이르러 병사하였습니다. 임시로 가산군 군 경계에 묘를 썼다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 황해도 배천으로 이장하였는데, 뒤에 그곳의 지형이 좋지 못하다 하여 현재의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로 다시 이장하였습니다. 이후 선조 38년(1605) 조정에서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에 선정되었고,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되었습니다. 묘소에는 상석, 표석, 망주석, 문인석 등이 있습니다.



정호선 묘 봉분과 석물

정호선(1571~1632)은 정윤복의 아들이며 호는 동원(東園)입니다. 1601년(선조 34)에 진사가 되었고, 그 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지평(持平)·정언(正言)·수찬(修撰)·응교(應教)를 지냈습니다. 1611년(광해군 3) 강원도관찰사 때 부정을 한 춘천부사 이원엽(李元燁)과 양양 현감 신경우(申景遇)를 파면시켜 관리들의 기강을 세웠습니다.

1616년 천추사(千秋使, 중국 황제의 생일 축하 사절)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사임하였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에 복직하여 안변부사(安邊府使)와 풍기군수를 지냈고, 1627년 정묘호란 때 파수대장(把守大將)으로 죽령(竹嶺)을 지켰는데, 화의가 성립되어 철수하였다가 이듬해 병사하였습니다. 아버지 정윤복의 묘소 좌측에 묘를 썼습니다.



정윤복, 정호선 신도비와 비각

두 사람의 묘소에서 400미터 떨어진 곳에 신도비를 모신 비각이 있습니다. 정윤복의 신도비는 전체 높이 331cm, 비석 높이 218cm, 폭 92cm, 두께는 25cm 크기로, 1619년(광해군 11)에 세웠고 비문은 성균관 대사성 정경세가 쓴 것입니다. 정호선의 신도비는 전체 높이 326cm, 비석 높이 218cm, 폭 92cm, 두께 25cm이고, 1802년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춘추관 이준이 짓고 사간원 대사간 윤필병이 글씨를 썼습니다.

정윤복, 정호선 묘 및 신도비를 찾기 위해서는 용인 경전철 전대 에버랜드 역 2번출구를 기준으로 전대로76번길을 따라 서남쪽으로 약 200m 이동한 다음 전성로를 이용하여 약 450m 남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전성로에서 부곡로로 이어지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서쪽으로 약 450m 가면 정윤복, 정호선 신도비각을 만날 수 있으며 비각 앞에서 좌회전하여 약 30m가량 남쪽으로 내려가면 정윤복, 정호선 묘역이 있습니다.

광해군과 함께 폐위된 비운의 왕비 유씨의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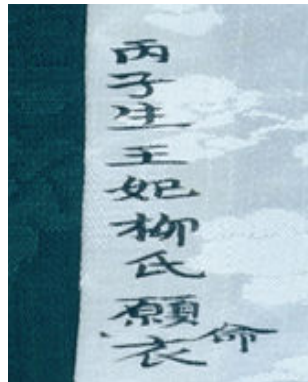
89 광해군비 당의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15호
명 칭 | 광해군비 당의 (光海君妃 唐衣)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1987.03.09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광해군비 당의(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은 조선조 15대 임금 광해군의 비유씨(柳氏, 1575~1623)가 입었던 당의입니다. 유씨는 판윤 유자신(柳自新)의 딸이며, 광해군이 즉위하자 세자빈에서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될 때 함께 폐위되어 1623년 강화로 유배를 떠난 후 유배 생활 1년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비입니다.



광해군비 당의의 글씨(사진 : 문화재청)

이 당의는 길이가 길고 긴 옆트임이 있는 여자용 장저고리의 일종으로 푸른색의 꽃과 새가 그려져 있는 홀당의입니다. 길이가 길고 소매의 아랫부분이 직선으로 되어있으며, 짧고 좁은 자주색 명주 옷고름이 달려있습니다. 깃과 동정은 넓고 당코깃으로 되었으며, 양옆이 진동선 바로 밑부터 터져 있고 색채나 형태 등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겹깃의 안쪽에 ‘병자생왕비유씨원명의丙子生王妃柳氏願命衣’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발견된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중에 이 유물과 형태와 기법이 유사한 왕비 장저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쪽 유물 모두 왕비유씨의 무병장수를 발원하는 명문이 있어 대사찰이나 왕실과 인연이 있는 사찰 불상에 봉헌되었던 불복장품으로 추측됩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조반정에 참가했던 무신 이중로에 대한 포상 내역과 초상화 90 이중로 정사공신 교서 및 초상



종 목 | 보물 제1174-1호, -2호
 명 칭 | 이중로정사공신교서및초상
 (李重老 靖社功臣敎書 및 肖像)
 분 류 | 기록유산 / 교지,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축
 지정(등록)일 | 공신교서 : 1993.11.05
 초상 : 2004.05.07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교서: 개인 / 초상: 경기도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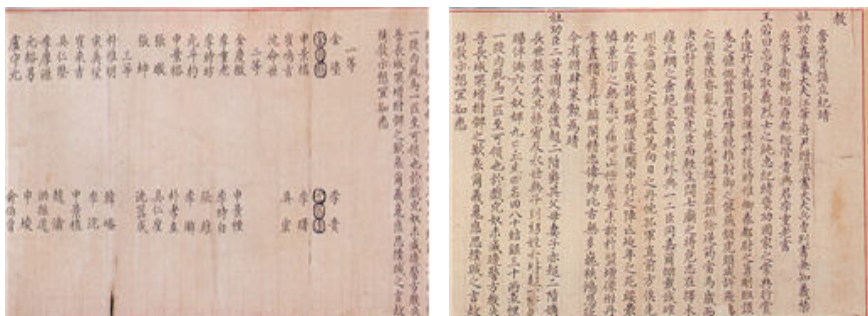
이중로 정사공신교서(사진 : 문화재청)

이중로 정사공신교서는 반정으로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인조가 무신 이중로(1577~1624)를 반정공신으로 책록하고 내린 교서입니다. 이중로는 조선 개국공신 이지란의 후손인데, 열여섯 살에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이듬해 선전관이 되었고, 광해군 13년(1621)에는 이천부사가 되었습니다. 1623년에 인조반정에 참가하여 정사공신 2등에 임명되었고 청흥군으로 봉해졌습니다.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괄이 공신 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난) 때 황해방어사로서 반란군을 저지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예성강 상류인 마탄(馬灘)에서 여울을 지키던 중 반란군의 급습으로 관군이 참패하면서 우방어사 이성부(李聖符) 등과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이 교서는 인조가 이중로가 죽은 뒤에 내린 것입니다. 인조는 이 교서를 내리면서 이중로의 관직을 2계급 올려주었고, 큰아들에게는 이중로가 누리던 벼슬의 지위를 영원히 세습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일하는 노비와 공신에게 내리는 노비 등을 합하여 19명의 노비, 말 80결, 은 30량, 옷감 1단, 말 1필 등을 내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교서는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에 대한 포상 내역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조는 이중로에게 포상을 내리면서 그의 초상을 그려 후세에 길이 남기게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중로는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흉배는 모란 및 해태문양이 수놓인 것을 착용하고 있으며,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두르고 있어 이 초상화가 무관 종2품 때의 도상임을 말해줍니다.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중 명단과 내용(사진 : 문화재청)

이 상의 특징을 들자면, 사모의 높이가 상당히 낮으며, 양쪽으로 뺨친 사모의 각(角, 사모 뒤편에 달린 뿔)은 넓적하고 둥글며 발색효과 없이 테두리를 굵게 둘렀습니다. 또한 7분면으로 인한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양 어깨의 형태 및 경사의 차이를 심하게 나타내면서 왼편 어깨는 둥글고 두텁게 나타나는데 비하여 오른쪽 어깨선은 상당히 급한 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세(取勢)에서 안면을 비롯하여 상반신은 완전히 7분면인데 반하여 하반신은 거의 8~9분면으로서, 이 시기보다 앞선 선무(宣武), 호성(扈聖), 청난(淸難) 세 공신상들이 왼쪽 단령의 트임만 표시된 데 비하여 이 상은 오른쪽에도 단령의 트임이 살포시 나타나서 상하반신의 취세에 약간 뒤틀림이 보입니다.

안면처리법은 안색의 주조색은 옅고 밝은 살빛인데, 이목구비 등 안면의 구성요소 및 외곽은 갈색 선으로 규정하고 다만 윗 눈꺼풀 부위만 검은 세선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상학에서 말하는 오악(五岳) 부위, 즉 안면골상에서 튀어 나온 부분에만 홍기(紅氣) 내지 적기(赤氣)를 붓의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 칠하였습니다. 이것은 피부 밑 골(骨)의 구조에 의해 만면의 고심세(高深勢, 높고 낮은 형세)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중로 초상(사진 : 문화재청)

단령은 굵고 검은 선으로 전체의 윤곽을 규정하였고, 옷 주름은 대강 간략히 그려 넣었는데, 아직 주름진 부위의 음영삽입은 시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화려한 채전(彩顛, 채색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 채전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고식을 보여주며, 그림 전체에 장중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중로 초상화는 17세기 초 조선조 공신상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동시에 화법 또한 특히 공교한 작품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인조 때 공신의 초상화와 교서

91 장만 선생 영정 및 공신녹권



장만선생 영정 관복본(사진 : 문화재청)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2호
 명 칭 |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녹권
 (張晩先生影幀 및 功臣錄券)
 분 류 | 기록유산 / 교지,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 17, 18세기
 수 량/면적 | 3점
 지정(등록)일 | 1991. 10. 19
 소 재 지 | 영정 2점 (경기도박물관)
 공신녹권 (경기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7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영정2점:경기도박물관유탁보관

장만(1566~1629)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전라도와 함경도의 관찰사와 형조판서 등의 벼슬을 거쳐 우찬성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인조 2년(1624)에 이괄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진무공신 1등으로 옥성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호는 ‘낙서’이며, 시호는 ‘충정’입니다.

장만 선생의 영정 2점과 진무공신 1등에 봉함을 명하는 교서는 1991년 10월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영정은 공신도(功臣圖) 형식의 초상화 1점과 유복 차림의 초상화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공신도 초상화는 인조3년(1625)에 도화서 화원이 그린 것인데, 왼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모(紗帽)와 넓은 사모 날개(각), 그리고 날개의 큼직한 운문(雲文 : 구름무늬) 묘사, 다소 가름하고 단정하면서도 운동감이 느껴지는 신체 묘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단령(團領 : 깃이 둥근 공복)은 간결하고 대범하게 평면의 느낌으로 표현하였고, 단령 뒷자락이 삼각형으로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의 공신도에서 보이는 전형에 속합니다. 상단 부분에 ‘충정’이라는 시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죽은 뒤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는 가로 113cm, 세로 246cm입니다.



장만 선생 공신녹권(사진 : 문화재청)

유복(儒服, 학창의) 차림의 초상화는 그린 연도를 알 수 없으나 공신도 초상화와 비슷한 연대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에서 장만은 호피를 걸친 의자에 반우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 복건(幘巾)을 쓰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린 다음 왼손에는 백우선(白羽扇 : 새의 흰 깃으로 만든 부채)을 들고 있습니다. 의담(椅踏, 발판) 밑의 바닥에는 화문석(花紋席) 돛자리를 깔고 있습니다. 얼굴의 곰보 자국은 공신도 초상화와 같지만 왼쪽 눈을 안대 없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크기는 가로 124cm, 세로 253cm입니다.

초상화와 함께 보관된 공신록권(교서)은 인조가 장만을 진무공신 1등에 봉한다는 내용이며, 여기에는 모두 32명의 공신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인물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크기는 가로 375cm, 세로 198cm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장만 선생 초상 유복본(사진 : 문화재청)

인조에게 반역 모의를 고발한 용인 출신 공신

92 허적 초상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25호
명 칭 | 허적초상(許嫡肖像)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 인조6년(1628)
수량/면적 | 견본설채, 화폭 75×125cm
지정(등록)일 | 1992.10.1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양대로 1650번길 103-2
소유자(소유단체) | 양천허씨 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양천허씨 문중



허적 초상(사진 : 용인시)

허적(許嫡, 1563~1641)은 조선 중기의 용인 출신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24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597년(선조 30)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한성판윤·공조참판을 지낸 뒤 죽산(원삼면 맹리)에 낙향하였습니다. 1628년 인조 때 유효립이 광해군의 복위를 위해 역모를 꾸렸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허적은 거사 하루 전날 아우 허계와 함께 조정에 고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으로 허적은 공신에 선정되었고, 양릉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허적의 초상은 1628년(인조 6)에 영사원훈공신에 선정되면서 그려진 것을 공신각에 봉안하였던 것인데, 훗날 가묘본 1분을 옮겨 그려 후손이 간직해왔습니다. 이 모사본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孟里)의 양천허씨(陽川許氏) 문중에 있으며, 1992년 10월 12일 용인시 향토유적 제 2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초상의 상단에는 ‘양릉부원군허적(陽陵府院君許嫡)’이라 쓰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물의 구도가 비교적 불안정하고 부분적으로 어색한 곳이 있어 원본을 본떠서 그린 흔적이 드러납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검은 색의 사모(紗帽)를 쓰고 있으며, 청록색의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초상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오는데, 화공이 이 그림을 그릴 때 꿈에 허적이 나타나서 “내 초상을 자세히 보라. 왼쪽 눈가에 점이 빠져 있느니라” 라고 말해서, 이튿날 원본을 보니 정말 점 하나가 있기에 그려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용인 출신 남양홍씨 무관들의 무덤 93 남양홍씨 판중추공파 무관묘역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48호
칭 칭 | 남양홍씨판중추공파 무관묘역
(南陽洪氏判中樞公派 武官墓域)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 17, 18세기
수량/면적 | 석성산 서쪽 능선 일원
지정(등록)일 | 1999. 7. 14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중동 산 16
소유자(소유단체) | 남양홍씨 판중추공파 시정공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남양홍씨 판중추공파 시정공문중



남양홍씨 판중추공파 무관묘역



남양홍씨 판중추공파 무관묘역 전경



묘역 내 상석과 향로석

기흥구의 성산(城山)에서 뺏어 내린 작은 능선에 남양홍씨 일파의 묘역이 있습니다. 판중추공파 시정공 문중의 묘역인데, 이 문중의 시조는 조선 중기의 무관이었던 홍제(洪霽, 1553~1635)입니다. 그는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지냈으므로 ‘시정공파’의 파시조가 되었습니다.

홍제는 용인 출신의 무관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군관으로 수원 방어에 공을 세워 원종공신 3등을 받았고 대호군을 지냈습니다. 묘소는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으며, 그의 묘 아래에 후손의 묘 5기가 있습니다.

문관들의 묘역은 더러 남아 있지만 무관들만으로 이루어진 묘역은 매우 드문데, 홍제의 후손들이 모두 무관이어서 한 가문 출신의 무관들이 묘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제의 증손자 하창(夏昌)은 어모장군을 지냈고, 하창의 아우 하명(夏明)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황해도 병마절도사·함경북도병사를 비롯하여 무관의 주요 요직을 거쳤습니다. 하명의 아들 우구(禹龜)도 무관이었습니다.

남양홍씨 판중추공파 무관묘역은 용인시립 동백도서관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백현마을롯데캐슬사거리에서 동백5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500m 가량 진입하면 묘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피난생활을 일기로 남긴 재야학자

94 오희문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34호
명 칭 | 오희문 묘(吳希文 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선조)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2. 10. 12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산5
소유자(소유단체) | 해주오씨 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해주오씨 종중



오희문 묘 전경(사진 : 용인시)

오희문(1539~1613)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고, 본관은 해주(海州)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했으나,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재야의 학자로 살았는데, 말년에 아들 오윤겸이 고위 관리로 승승장구하자 그 덕에 선공감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저서로 기행일기인 『쇄미록(鎖尾錄)』이 있는데, 임진왜란 중의 피난 생활 중에 당시 정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희문은 매부 임극신과 함께 영동의 외가를 방문하고, 장흥·성주 등지에 있는 노비들한테 신공을 받으려고 서울을 나섰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전라남도 장수의 영취산과 충청남도 예산·평안도 등에서 10여년 간 피난살이를 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쇄미록』은 1591년(선조 24)부터 1601년 2월까지 9년 3개월 간 총 7책으로 된 수필본 일기입니다. 국보 109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은 다른 기록보다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봉분은 둥글게 호석을 둘렀으며, 오석으로 세운 묘비는 사후 40면 뒤에 세운 것입니다. 묘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등 석물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선생의 묘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의 해주오씨 추탄 공파 묘역에 있습니다.

인조 때의 문신 오윤겸과 부인 경주 이씨의 묘

95 오윤겸 선생 묘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104호
 명 칭 | 오윤겸선생묘(吳允謙先生墓)
 분 류 | 무덤/봉토분
 시 대 | 조선 17, 18세기
 수 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87.02.12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로61번길 29
 소유자(소유단체) | 해주오씨 추탄공파
 관리자(관리단체) | 해주오씨 추탄공파



오윤겸 선생 묘 전경(사진 : 용인시)



오윤겸 선생 묘 전경

추탄 오윤겸(1559~1636)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해주입니다. 성혼(成渾, 율곡 이이와 함께 서인의 학문을 이끈 성리학자)의 문인으로 선조 15년(1582)에 사마시에 급제하였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송강 정철(鄭澈)의 종사관으로 발탁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뒤인 광해군 9년(1617)에는 일본에 가서 왜군에게 잡혀갔던 조선인 150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이때부터 일본과의 수교가 다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대사헌에 임명되었습니다. 인조 2년(1624)에는 이괄의 난이 일어났는데 인조가 공주로 피난하자 호위하였고, 그 뒤로 영의정(인조 6년, 1628)에 올랐습니다. 서인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의 정치 분쟁을 중재하였으며, 인조에게 정치혁신과 성리학 공부에 전념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봉분이 2개인데 하나는 부인 경주 이씨의 묘입니다. 묘역은 후손들이 1986년에 새로 단장하면서 봉분 아랫부분에 호석(둘레석)을 둘렀습니다. 2개의 묘 사이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상석의 양쪽에는 동자상·망주석·문인석이 각 1쌍씩 서 있습니다. 묘비는 인조 25년(1647)에 세운 것으로 김상헌이 비문을 짓고 송준길이 글씨를 썼습니다.

묘소는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해주오씨 추탄공파 선영에 있습니다.

병자호란 뒤 청나라에 끌려가 죽은 ‘삼학사’의 한 사람 96 오달제 묘소 및 대낭장비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3호
 명 칭 | 오달제묘소및대낭장비
 (吳達濟墓所帶囊藏碑)
 분 류 | 무덤/봉토분, 유적건조물/기념물
 시 대 | 조선시대(인조 15, 1637)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86. 5. 31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산45-14
 소유자(소유단체) | 해주오씨 추탄공파
 관리자(관리단체) | 해주오씨 추탄공파



오달제 묘소 전경



대낭장비

오달제(1609~1637)는 조선 중기 용인 출신의 문신입니다.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양촌마을에 그의 묘소가 있는데, 묘 안에 그의 시신은 없고 그가 사용했던 요대(혁대)와 주머니만 묻혀 있습니다. 그의 시신이 없는 까닭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 그가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했으므로 시신을 찾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낭장비’란 혁대와 주머니를 묻고 세운 비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달제는 1634년(인조 12)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청나라와의 사신 교환을 적극 반대하면서, 주화파(청나라와 화의를 추진한 당파)를 이끈 최명길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오달제 묘소의 석물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그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김상헌과 더불어 척화파(청과의 화의를 반대한 세력)의 주요 인물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조가 청군에 항복하자 청나라의 요구로 적진에 넘겨졌는데, 적장 용골대(龍骨大)가 호의를 베풀며 회유했지만 그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불의(不義)”라고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청의 수도인 심양(瀋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용골대의 갖은 협박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윤집(尹集)·홍익한(洪翼漢)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의 충절을 찬양하여 후세에 삼학사(三學士)라 불렀습니다. 사후에 그는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충렬(忠烈)’이란 시호를 받았습니다.



오달제 묘 봉분

오달제 묘 앞에는 묘비와 상석, 향로석이 있고 좌우로 동자석과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묘 앞에는 배우자인 고령신씨와 의령남씨의 묘가 있습니다. 묘소 입구에 위치한 대낭장비는 손자인 오경원이 세운 것인데, 비문에 의하면 의령남씨가 죽고 난 후 장례를 치르고 비석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달제 묘소 및 대낭장비는 죽전교차로에서 포은대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2km가서 오산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17세기 공신 초상화의 전형

97 황성원 초상



종 목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210호
 명 칭 | 황성원 초상(黃性元肖像)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2009. 03. 10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황성원 초상(사진 : 문화재청)

황성원(?~1667)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1627년(인조6) 유효립의 모반 사실을 밝혀낸 공으로 영사공신 2등에 봉해졌습니다. 유효립은 제천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에 반역을 꾸미다 잡혀 죽었습니다.

이 초상화에서 황성원은 오사모를 쓰고 녹색 단령을 입은 채 화면 왼쪽을 향해 약간 돌아서서 교의에 앉은 자세(좌안 7분면)이며, 손을 소매 속에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그림을 ‘전신교의좌상’이라 합니다. 얼굴은 짙은 회갈색으로 바탕을 칠했는데 굵은 선묘로 윤곽과 주름을 묘사하고 있으며, 수두로 얇은 흔적을 마치 물방울이 번지듯이 크게 표현했습니다. 눈동자의 동공은 짙고 검은 점으로 표현하였고, 수염은 듬성 듬성 그렸습니다. 매우 낮게 그린 사모와 작은 얼굴, 채전(무늬 있는 색종이)의 면적이 넓은 점, 흰 소매 끝을 그리지 않은 점 등에서 조선 중기 초상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전반 중기 공신상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영사공신도상으로는 이 초상화와 아들인 〈황진 초상〉만이 전해져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신이 된 아들의 초상화

98 황진 초상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11호
명 칭 | 황진초상(黃進肖像)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2009. 03. 10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 박물관

황진 초상(사진 : 문화재청)

황진(黃縉, 생몰년 미상)은 황성원의 아들이며, 판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1627년 유효립(柳孝立)의 모반을 알린 공으로 아버지와 함께 영사공신(寧社功臣) 2등에 봉해졌습니다.

초상화에서 황진은 두 손을 소매 속에 넣고 화면 왼편을 향하여 약간 돌아앉은 자세를 하고 교의에 앉아 있습니다. 낮은 오사모, 매우 좁은 단령의 목 부분, 오른 편 교의 뒤로 뺀 삼각형 무의 표현, 양쪽으로 트인 단령, 화려한 채전 등이 17세기 공신 도상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얼굴은 홍갈색의 가는 윤곽선을 사용하여 묘사했고, 코와 광대뼈 부분에는 갈색으로 입체감을 표현했습니다. 수두로 얽은 흔적을 마치 물방울이 번지듯이 표현하였고, 눈동자의 동공은 짙고 검은 점으로 표현하였으며, 수염은 듬성듬성 그렸습니다. 흑색 단령에 표현된 커다란 구름무늬(운문)는 옷자락보다 더 짙게 그렸으며, 윤곽선과 옷 주름선은 굵고 검은 선으로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흥배는 다소 크게 그렸으며, 배경에는 수평 금선을 촘촘하게 그렸고, 한 쌍의 백한(평과의 새)과 모란꽃을 오색구름과 함께 화려하게 묘사하였습니다.

부친 황성원의 초상과 세부 양식이 매우 흡사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작가가 그렸을 가능성이 큼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도승지로 인조를 보필했던 문신 99 이경증 신도비 및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46호
명 칭 | 이경증 신도비 및 묘
(李景曾 神道碑 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현종 4, 1663)
신도비(영조 50, 1774)
지정(등록)일 | 1997. 12. 10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68-16(묘)
영덕동 산 68-21(신도비)
소유자(소유단체) | 덕수이씨 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국유



이경증 묘 전경



이경증 묘 봉분과 석물

이경증(1595~1648)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이며,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성(汝省), 호는 미강(眉江) 또는 송음(松陰)입니다. 광해군 5년(1613)에 진사가 되었으나, 폐모론(廢母論, 영창대군의 생모를 폐위하려던 주장)이 일어나자 벼슬길을 접고 낙향하였습니다. 뒤에 인조반정으로 왕이 바뀌자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올랐습니다.

병자호란(인조14년, 1636)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에서 병방승지로서 인조를 보필했고, 도승지에 올랐습니다. 청(淸)의 사신을 만나 의연하게 외교활동을 펼쳤고, 이후 대사간, 병조판서,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올랐습니다. 예조판서 당시 청이 조선이 명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하자, 그는 목숨을 걸고 청에 가서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며 명과 내통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난국을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은 ‘정축년(1637)의 삼쾌사(三快事)’로 불렸고, 그는 많은 칭송을 받았으며, 이조판서에 올랐습니다.



이경증 묘 봉분

그러나 인조 24년에 그는 주시관이 되어 별시의 시제(시험문제)를 내었는데, 소현세자(인조의 맏아들)와 세자빈 강씨의 죽음을 시제로 삼아서 인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관직에서 쫓겨나 교외에 은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경증의 묘는 정부인(貞夫人) 완산이씨가 사망한 뒤 경기도 광주 대왕면 고등리에서 현재의 위치인 기흥구 영덕동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이경증 신도비와 묘소는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 11단지 안쪽에 있습니다. 흥덕마을 11단지와 15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어린이공원 왼쪽의 오솔길을 따라 약 100m 가량 북쪽으로 올라가면 신도비가 있고 그 위에 묘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증 신도비

묘역에는 묘표와 동자석 망주석 문관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묘 아래 입구에 신도비가 있는데 높이 228cm 폭 70cm 두께 70cm 규모입니다. 영조 50년(1774)에 건립되었는데, 오랜 풍화작용으로 글자를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문은 송시열의 제자였던 권상하(權尙夏)가 짓고 비문 글씨는 윤양후(尹養厚)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종이 이경석에게 공경의 뜻으로 하사한 궤장과 이를 하사하는 연회도를 그린 그림

100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

종 목 | 보물 제930호
칭 칭 |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
(李景奭 几杖 및 賜几杖 宴會圖 畫帖)
분 류 | 생활공예 / 목공예, 회화 / 기록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2종 6점
지정(등록)일 | 1987.12.26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이경석 사궤장 연회도 화첩(사진 : 문화재청)

이경석(1595~1671)은 조선 중기의 문신입니다. 선조 때부터 현종 때까지 요직에 있으면서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었고, 인조가 청나라에 굴복했을 때에는 청나라의 승전을 찬양하는 삼전도비의 비문을 썼습니다. 그 때의 일로 그는 글을 배운 것을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보물 제930호는 현종이 이경석에게 궤장을 내리고 축하연을 베푼 일을 그린 그림입니다. 궤장이란 의자와 지팡이를 아울러 부르는 말인데, 조선시대에는 신하가 일흔 살이 넘으면 왕이 신하에게 공경의 뜻으로 의자인 궤(几), 지팡이인 장(杖), 그리고 가마를 하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현종은 1668년 11월, 관례에 따라 원로대신 이경석에게 공경의 뜻으로 궤 1점과 장 4점을 하사하였고(사궤장) 연회를 베풀면서 도화서 화원에게 그림(연회도)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사궤장 연회도>입니다.

의자인 궤는 높이 93cm, 폭 77.4cm입니다. 접이식 의자라 펴고 접을 수 있는데, 앉는 부분을 질긴 노끈으로 엮어 접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을 기대는 등받이 부분은 괴목(회화나무)이며, 구멍을 가운데에 뚫었고, 등받이 표면은 자작나무 껍질로 감쌌습니다. 회화나무는 악귀를 물리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서 궁궐이나 서원에 많이 심었던 수목입니다.

지팡이인 장은 모두 4점인데, 새의 머리 모양이 장식된 189.5cm의 지팡이와 149.5cm의 칼(刀)이 들어있는 지팡이, 총 길이가 141cm인 삼 모양의 지팡이 2점입니다. 먼저 새머리형(鳥頭形) 지팡이 끝 부분에는 오리 모양이 달려 있고, 두 곳에 국화꽃 장식을 단 고리가 있습니다. 몸통 부분은 직선이고 반대쪽엔 작은 삼이 달려있습니다.



이경석 궤와 장

지팡이의 재질은 매우 가볍고 연한데, 대개 명아주의 줄기로 만들며 ‘청려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증풍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칼이 들어 있는 지팡이는 나무로 만든 손잡이를 잡아 빼면 칼날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칼날의 길이는 60cm이고 총 길이는 80.4cm이며, 끝 부분에는 무쇠삽이 달려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지팡이에는 삽 모양이 달려 있는데, 하나는 여름용이고 다른 하나는 겨울 외출용으로 보입니다. 지팡이에 삽 모양을 단 까닭은 지팡이를 살포(논의 물꼬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로 쓰기 위한 농경문화의 산물로 생각됩니다.

궤장을 하사할 때에는 반드시 잔치를 열어 의정부 대신들과 문무관들을 참석시켰고, 예문관이 작성한 교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이 〈사궤장 연회도〉는 연회 장면을 셋으로 나누어 그린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병궤장도〉는 임금이 내리는 궤장을 맞아들이는 장면, 〈선독교서도〉는 임금이 내린 교서를 낭독하는 장면, 〈내외선온도〉는 궁중악사와 무희들이 공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궤장을 내리는 것은 신하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였으며, 이 궤장은 매우 귀중한 유물로 여겨집니다. 벼슬이 정승까지 오르기도 어려웠지만, 70세까지 살기도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궤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던 공전에서 제작한 것인데다, 본 유물은 조선 중기의 궤장 제작규정 양식을 알 수 있는 공예품이기 때문입니다. 『연회도 화첩』 역시 당시 풍속도로 회화적 가치가 큰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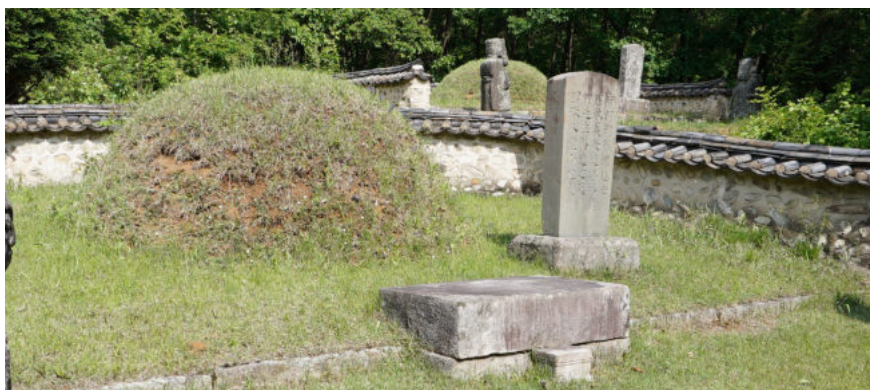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평생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한 실학의 시조 101 유형원 선생 묘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32호
 명 칭 | 유형원선생묘 (柳馨遠先生墓)
 분 류 | 무덤/ 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76.08.28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28-1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문화유씨 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문화유씨 종중



유형원 선생 묘역



유형원 선생 묘 봉분과 석물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정배산 남쪽 기슭에는 반원형 담장이 둘러쳐진 묘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조선사회에 새로운 학풍을 일으킨 반계(澗溪) 유형원(1622~1673) 선생의 묘소입니다.

유형원은 광해군 14년(1622)에 한성의 외가에서 태어났고, 일찍 아버지 유흠을 여의었는데 그는 ‘유몽인의 역옥’이라는 사건에 연여서 역적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유형원은 외삼촌 이원진한테 글을 배웠는데, 이원진은 하멜 표류 사건 당시 제주목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5세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7세에는 『서경』을 읽었으며, 20세에는 뛰어난 문장과 높은 학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과거시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32세였던 효종 4년(1653)에는 남다른 뜻을 가슴에 품고 전라북도 부안에 내려가 농사일을 하며 학문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습니다. 그의 학문성을 잘 알고 있던 지인들이 벼슬에 추천하였지만, 그는 극구 사양하고 부안에서 기근에 대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개혁을 구상하였습니다.



유형원 선생 묘 상석과 향로석

자신의 학문적 성과와 이상을 모두 쏟아 넣은 저서 『반계수록』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자영농민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성리학은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했는데, 실학이 학문으로 대접받게 된 것이 바로 그의 공로입니다. 그는 평생을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실학의 선구자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혼이 담긴 『반계수록』은 영조 46년(1770)에 왕의 특명으로 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유형원 선생 묘 문인석

봉분 앞에는 상석이 마련되어 있고 그 좌우에는 문인석 한 쌍이 서 있습니다. 봉분 주위로는 야트막하게 담을 둘렀습니다. 1976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유형원 선생 묘로 가기 위해서는 황석마을회관에서 용천로109번길을 따라 북쪽으로 약 400m 가량 올라오다가 삼거리에서 황새울로158번길로 약 200m 더 올라와야 합니다. 여기서 산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서쪽으로 들어오면 유형원 선생 묘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인 효성을 표현한 조선시대의 불화

102 감로탱화

종 목 | 보물 제1239호
칭 | 감로탱화 (甘露幀畵)
분 류 | 회화 / 불교탱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폭
지정(등록)일 | 1996.04.04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로 134
용인대학교박물관(삼가동)
소유자(소유단체) | 우학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대학교



감로탱화(사진 : 문화재청)

‘탱화’란 천이나 종이에 그린 불교그림을 가리킵니다. ‘감로탱화’는 불교와 조상숭배 의식이 결합된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은 조선 중기 이후 불교의 극락 사상과 유교의 효 사상이 결합된 형태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보물 1239호인 이 감로탱화는 배경이 산수화 풍이며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부처가 있는 이상세계를 표현하였고, 중단에는 제사상과 굶어 죽어가는 아귀에게 불교 의례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지옥과 아귀를 비롯한 윤회세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상단 중심부에는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진리를 상징하는 법신불), 노사나불(아미타불)의 삼신불과 칠불(七佛, 과거 세상에 나타났던 일곱 부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로탱화에서는 대개 삼신불을 생략하는 편이지만 이 탱화에서는 화엄사상(모든 천지만물을 비로자나불의 현현으로 보는 사상)의 영향으로 삼신불이 그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단 중심부에는 제사상과 의례를 지내는 승려와 굶주린 아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그 위에는 번개와 금줄로 신성한 구역을 구분하였습니다. 승려의 옷과 색, 북, 방울 등의 표현기법에서 당시 의례에 사용된 기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숙종 7년(1681)에 제작된 이 감로탱화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감로탱화(1649)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작품이며, 산수화풍의 배경 묘사는 조선시대 불화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장처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쟁의 시대, 소론 지도자의 초상화 103 남계 박세채 영정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3호
 명 칭 | 남계박세채영정
 (南溪朴世采影幀)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2점
 지정(등록)일 | 1996. 12. 24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남계 박세채 관복본 영정(사진 : 문화재청)



남계 박세채 유복본 영정(사진 : 문화재청)

남계 박세채(1631~1695)는 조선 중기의 문신입니다. 1659년 천거로 세자익위사 세마(정9품)로 관직에 올랐고, 송시열을 지지하며 서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송시열이 사망한 뒤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자, 박세채는 좌의정·우의정을 거치며 소론의 영도자로 활약하였습니다. 영조 때에는 탕평책을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여 당쟁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한 대표적인 문신입니다.

이 유물은 박세채의 초상화 2폭으로, 관복 차림의 상과 유학복식 차림의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관복 차림의 그림은 가로 93cm, 세로 175cm의 크기로, 공신의 반열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그린 공신도입니다. 머리에 높은 사모를 쓰고, 두 손은 앞으로 모아 소매 안에 넣은 채, 호랑이 가죽이 깔린 중국식 의자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전신좌상입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두 발은 발 받침대 위에 팔(八)자형으로 벌리고 있으며, 얼굴의 미세한 주름과 눈썹, 수염 등을 꼼꼼하게 묘사하였습니다. 녹색 의복은 농담을 적절히 하여 바탕을 칠하고, 진한 먹선으로 간략하게 선 처리를 하였습니다. 가슴의 흉배에는 두 마리의 학 문양이 있습니다. 호피가 깔린 의자는 17세기 전후의 공신도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며, 정면을 보고 있는 점도 이전의 초상화와 다른 점입니다.

유학자 복식의 그림은 가로 104cm, 세로 180cm의 크기로, 각이 진 사방모를 쓰고 두 손을 도포자락 안에 모으고 서 있는 전신상입니다. 얼굴의 골격과 술이 많은 눈썹, 눈가의 둥근 주름, 가슴까지 내려온 수염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의복은 몇 개의 선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여 대조적입니다. 서 있는 모습을 그린 점에서 다른 초상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두 작품은 박세채가 우찬성이 된 60세 전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2점 모두 유학자다운 풍모와 인품이 느껴집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보름달처럼 풍만한 느낌을 주는 달항아리

104 백자대호

종 목 | 국보 제262호
명 칭 | 백자대호 (白磁大壺)
분 류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1991.01.25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로 134
 용인대학교박물관(삼가동)
소유자(소유단체) | 우학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대학교



백자대호(사진 : 문화재청)

‘백자대호’는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커다란 백자 항아리로, 우리 말로는 ‘달 항아리’라고도 부릅니다. 이 유물의 크기는 높이 49.0cm, 아가리 지름 20.1cm, 밑 지름 15.7cm입니다. 이렇게 큰 항아리는 숙련된 장인들도 모양을 빚거나 구워낼 때 어려움을 느끼는데 물레로 항아리 모양을 만들다 보면 원심력과 흙의 무게 때문에 모양이 일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인들은 물레로 항아리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고 두 개를 접합시켜 전체 모양을 완성하였습니다.

국보 제262호로 지정된 이 항아리는 짧은 아가리가 사선으로 작은 각을 이루며 맵시 있게 꺾였고, 아가리 주변 아래에서부터 목이 따로 없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벌어지다가, 몸체 중앙의 접합부를 지나면서 다시 좁아져 아가리 지름과 비슷한 크기의 굽에 이르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조선시대 백자의 특징인 온화한 백색과 유려한 곡선, 넉넉하고 꾸밈없는 형태를 고루 갖춘 항아리로 국보 제261호 ‘백자호’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백자 항아리입니다. 옅은 청색의 유약이 안과 바깥 면에 고르게 발라졌으며, 겉면의 색조는 유백색(우유 빛깔)을 띠입니다. 이 항아리는 크기가 크고, 시원하고 당당한 모습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 사이에 만들어진 조선백자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처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친필 시 105 숙종어필 칠언시

종 목 | 보물 제1630호
 명 칭 | 숙종어필 칠언시
 (肅宗御筆 七言詩)
 분 류 | 기록유산 / 서간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1점 (보관함 포함)
 지정(등록)일 | 2010.01.04
 소 재 지 | 경기용인시기흥구상갈로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숙종어필 칠언시(사진 : 문화재청)

숙종(肅宗, 1661~1720)은 인조 때의 명상(名相)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의 문집인 『백헌집(白軒集)』을 읽은 뒤에 이경석의 후손에게 채색 꽃무늬가 찍힌 어찰지(御札紙, 국왕 전용 종이)에 친필로 칠언시를 써서 내려주었습니다.

이경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병자호란 때 인조의 간곡한 부탁으로 삼전도 비문(청의 승리를 기념하는 글)을 쓰면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지만, 존명사대의 명분을 앞세우는 송시열 등은 그를 오랑캐(청)한테 굴복을 주도한 소인배로 비난하였습니다. 이경석은 그 설움을 훗날 현종한테 보상받았습니다. 1668년 11월에 현종(顯宗)은 이경석에게 궤장과 축하 잔치를 그린 「사궤장연회도첩」을 내렸는데, 이 두 유물은 1987년 12월 26일 보물 제93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숙종어필 칠언시〉는 현재까지 알려진 숙종의 어필(왕의 필적) 가운데 가장 믿을만한 작품이며, 열성어제(列聖御製, 조선 역대 왕들의 시문집)인 『숙종어제(肅宗御製)』에도 실려 있어 어필 자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전서(篆書)로 ‘숙종성제보묵(肅宗聖製寶墨)’이라고 음각한 갑(匣)에 보관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합니다. 2010년 1월 4일에 보물 제163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18세기 초반의 문신 초상화 106 임방 초상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8호
명 칭 | 임방초상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 / 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2009. 03. 10
소 재 지 | 경기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임방 초상(사진 ; 문화재청)

임방(1640~1724)은 조선 후기(인조~경종)의 문신입니다. 현종 4년(1663)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고, 훗날 연잉군(영조)의 왕세제 책봉에 앞장섰다가 신임사화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그는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 『천예록』이라는 기이한 작품도 있습니다. 『천예록』에는 신선, 괴물, 귀신의 이야기 60여 편이 담겨 있는데, ‘천예록’이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자연현상이나 세상사의 기이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전우치 이야기도 이 책에 있습니다.

〈임방 초상〉은 반신상이며, 1719~1720년경 당시 화원들이 제작한 『기사계첩』에 들어있는 초상화와 같습니다. 18세기 초반 문신 초상화를 대표할만한 격조가 있습니다. 임방은 오사모를 쓰고 쌍학 흉배가 붙은 단령을 입었으며 삼금대를 착용한 채 화면 왼편을 향하여 몸을 약간 튼 자세로 그려져 있습니다. 배경은 그리지 않았고 오른편 위에 ‘임방의 초상으로 기사첩(耆社帖)에서 남은 것을 1744년(영조 20)에 표장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기사첩’은 1720년(숙종 46)에 완성된 『기사계첩(耆社契帖)』인데,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열었던 행사를 그린 화첩입니다. 당시 80세로 가장 연장자였던 임방은 이 화첩에 서문을 썼습니다. 이 화첩에 있는 임방의 초상화는 크기가 작을 뿐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초상화와 도상과 양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 그림은 조선 중기 초상화의 특징인 옷 주름 처리, 좌안칠분면의 자세와 함께, 조선 후기 특징인 옷 주름의 음영처리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18세기에 그려진 공신도상 107 임연 초상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3호
명 칭 | 임연초상(任 肖像)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 / 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2009. 03. 10
소 재 지 | 경기용인시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임연 초상(사진 ; 문화재청)

임연(1567~161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천(豊川), 자는 자정(子正)이고 호는 당호(棠湖)입니다. 1592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1603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였고 정언, 병조좌랑, 예조좌랑, 시강원 사서, 지평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광해군 연간에는 성균관 직장을 지냈고 함경도 안무어사(按撫御史)로 파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인목대비의 폐출에 찬성하였으며 후금과의 화의를 주장하는 등 광해군의 입장을 옹호하는 처세를 보였는데 이 때문에 죽은 후 관작을 추탈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1664년 아들인 임의백이 경상감사로 재직할 당시 상소를 올려 직첩(職牒: 관직 임명장)을 환급받고 풍안군(豊安君)으로 봉해졌습니다.

이 초상화는 임연 사후인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반에 원본을 따라 다시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18세기의 공신도상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얼굴을 그려낸 기법이 뛰어나고 공신으로서의 엄숙한 기상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복본으로 그려졌는데, 머리에 사모를 쓰고 흑단령을 입고 있으며, 가슴에는 운안홍배가 있습니다. 허리에는 학정금대를 착용하였고 흑단령의 트임 사이로 안에 입은 푸른색 직령포가 드러나 보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인물을 정면으로 그린 희귀한 초상화 108 남구만 선생 초상화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6호
명 칭 | 남구만 선생 초상화
(南九萬 肖像 肖像畫)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후기
수량/면적 | 견본설채(絹本設彩)
화폭 230×117cm
지정(등록)일 | 1990. 11. 22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510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개인

남구만 선생 초상(사진 ; 문화재청)

본디 남구만의 초상화는 다섯 본이 남아있다고 알려졌는데, 충청도 해미의 영당에 있었던 초상은 없어졌고, 남아있는 것은 국립박물관 소장본 1본과 갈담리의 3본 뿐입니다. 3본은 유복(儒服) 차림의 반신상과 전신상, 녹포단령(綠袍團領) 차림의 전신좌상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18세기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복본은 정면 전신상으로 머리에는 흑색관을 쓰고 학창의(鶴鬣衣)를 입었으며, 두 손은 배에 모으고 있습니다. 학창의는 흰색의 포로 깃과 도련·소매부리에 검정색의 연(聯)이 둘러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글(찬문)이 있는데,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썼고, 현손 남진화(南進和)가 글을 추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창의 차림의 반신상은 전신상을 옮겨 그린 작품으로 보입니다.

남구만 초상은 모두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초상은 좌안팔분 혹은 구분법으로 그려져서 오른쪽으로 몸을 약간 틀고 있는데, 남구만 초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대부의 옷인 학창의를 입고 있는 초상도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끄니다. 또한 18세기 후반의 초상화보다 입체감이 자연스럽다는 점도 이 초상화의 매력입니다. 남구만은 예술적 재능이 풍부했는데, 그런 그의 풍채를 잘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당대의 이름 있는 화원의 작품으로 판단됩니다. 남구만 초상은 정면상이라는 특성과 안면의 굴곡 있는 필법으로 우리 회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입체적 안면 묘사가 발전하는 시기의 양식으로 짐작됩니다.

남구만 선생의 초상은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파담마을 내 후손의 집에 3본이 있습니다. 갈담사거리에서 파담로149번길로 좌회전 후 250m 가량 진입한 다음 삼거리에서 파담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200m 가량 들어오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숙종 때 소론의 지도자 남구만의 묘 109 남구만 선생 묘소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5호
명 칭 | 남구만 선생 묘소
(南九萬 先生 墓所)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자정(등록일) | 1990. 11. 22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140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남구만 선생 묘소 전경



남구만 선생 묘소 봉분

남구만(1629~1711)은 조선 후기 현종·숙종 때 문신입니다. 대학자 송준길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고, 1651년(효종 2) 사마시(생원·진사 시험)를 거쳐 별시(임시 과거)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관료 생활 중에는 서인 소론(서인의 한 당파)의 지도자로서 남인을 탄핵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경신대출척과 갑술옥사입니다.

경신대출척은 숙종 6년(1680)에 남인이 쫓겨나고 서인이 정권을 잡은 사건이며, 갑술옥사는 숙종 20년(1694) 서인이 다시 남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구만은 남인들의 서인에 대한 반격 사건인 기사환국(숙종 15, 1689)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으나, 갑술옥사로 다시 재기하여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지냈습니다. 시호는 문충(文忠)입니다. 생전에 서화에도 재주가 뛰어났는데,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 그의 작품이며, 문집으로 《약천집》을 남겼습니다.



남구만 선생 묘소 봉분 배면

그의 묘소는 본디 양주의 불암산 화점동에 있었는데, 뒤에 후손들이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로 이장하였고, 1970년대 후반 묘역을 확장하면서 봉분에 네모난 지대석 기단을 둘렀습니다. 묘 앞에는 묘표와 망주석, 향로석 등이 있는데, 묘표석은 높이 90cm, 폭 67cm, 두께 35cm의 규모로 사각형 대좌 위에 몸돌을 올린 형태입니다. 묘소 입구 도로변에는 1991년에 세운 신도비가 있습니다.



남구만 선생 묘비

남구만 선생 묘소로 가기 위해서는 초부리휴게소사거리에서 백옥대로를 따라 약 100m 가량 북쪽으로 올라와서 백옥대로2120번길을 따라 마을로 진입해야 합니다. 약 400m 가량 들어오면 좌측에 남구만 선생 묘소로 올라가는 작은 포장도로가 있으며 도로를 따라 올라오면 우측 언덕 위에 선생의 봉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서인 소론의 영수 남구만의 사당 110 약천선생 별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 53호
칭 칭 | 약천선생 별묘
藥泉先生 別廟
분 류 | 유적건조물 / 사당
시 대 | 조선 후기
수량/면적 | 1곽
지정(등록)일 | 2001. 12. 20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521-3
소유자(소유단체) | 의령남씨 문충공파종회
관리자(관리단체) | 의령남씨 문충공파종회



약천선생 별묘 내부



약천선생 별묘

‘약천’은 조선 후기의 문신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의 호입니다. 그는 1651년(효종 2) 사마시를 거쳐 1656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습니다. 이조정랑을 비롯하여 대사간·승지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서인으로서 남인을 탄핵하였습니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자 소론의 영수가 되어 1684년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파담마을에 그의 신위와 영정을 모신 사당 있는데, 약천 선생은 이곳으로 낙향하여 21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약천선생 별묘 외삼문

약천 선생의 묘는 본디 양주의 불암산 화점동에 있었으나, 훗날 후손들이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로 이장하였고, 선생이 살던 마을에 가묘를 세우고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본래 있던 사당은 별묘라고 불렀는데, 전면 1칸, 측면 1칸이며, 지붕은 한식기와를 얹은 팔작지붕이고, 겹처마에 단청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고택은 약천 선생이 61세 때 낙향해서 살던 집이며, 의령남씨 문충공파 종중에서 매입하여 원형대로 고쳐짓고 내부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약천 선생의 신위와 영정이 안치되어 있으며, 선생의 유품인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 향토유적 54호 ‘의령남시문중고문서 일괄 9건’, 향토유적 제6호 ‘남구만 초상’ 등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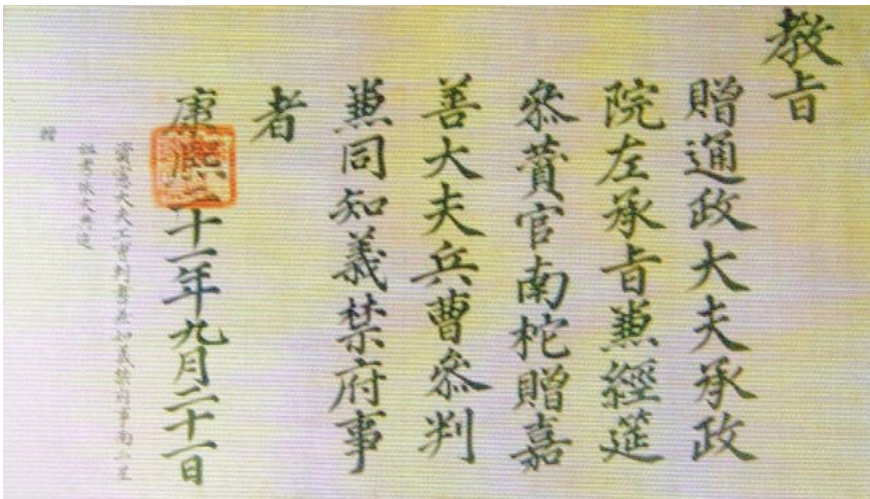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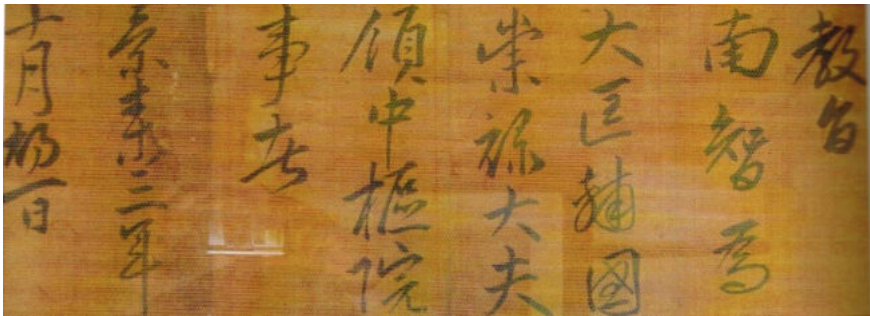


약천선생 별묘 내부

약천선생 별묘로 가기 위해서는 갈담사거리에서 파담로를 따라 서남쪽으로 약 100m 내려오다가 삼거리에서 문화재 안내판을 확인한 후 서쪽으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이후 약 600m 가량 골목길을 따라 들어오면 약천선생 별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약천 남구만과 관련된 고문서와 서찰 · 그림 111 의령남씨 문중 고문서 일괄 9건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54호
 명 칭 | 의령남씨문중고문서일괄9건
 (宜寧南氏門中古文書一括9件)
 분 류 | 기록유산 / 고문서
 수 량 / 면적 | 고문서 9건
 시 대 | 조선전기
 지정(등록)일 | 2001.12.20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521
 소유자(소유단체) | 의령남씨 문중공파 종회
 관리자(관리단체) | 의령남씨 문중공파 종회



의령남씨 문중 고문서 일괄 9건(사진 : 용인시)

의령남씨 문중 고문서는 약천 남구만 선생의 문중에 전해오는 고문서 들입니다. 남구만은 송준길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현종·숙종 때 격 렬했던 노론 대 소론의 당쟁 속에서 소론의 영수로 정국을 이끌었던 인 물입니다. 효종 2년(1651) 사마시를 거쳐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영의정 까지 올랐던 대신이자,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등의 작품을 남긴 문 장가였고, 서화에도 재주가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문서들은 약천교지, 시서표(詩書表), 재판결정문(판결문), 약천선 생 과지(科紙), 문하생 최석정의 제문, 약천 육필 서간문, 친필 그림, 약 천 묘소 선정서류, 교지 등입니다. 이 고문서들은 향토유적 제53호 지정 된 약천 선생 별묘(사당)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외에 ‘남은유서분재기’ 와 ‘남재왕지’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약천의 유품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을 모아 의령남씨 문 충공파 종회에서 시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2001년에 향토유적 제54 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유품은 약천 선생이 낙향하여 거쳐하였던 곳으 로 향토유적 제53호로 지정된 약천선생 별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 선시대에는 이곳을 ‘비파담’이라고 불렀으며, 인근에 선생의 묘소가 위 치하고 있습니다.

의령남씨 문중 고문서 일관9건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갈담사거 리에서 갈담리방면으로 우회전 후 파담로를 따라 200m 이동 후 우회 전한 다음 650m 앞 좌측에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문중 건물이 있습 니다.

몸과 얼굴의 각도가 다르게 그려진 초상화 112 오도일 초상화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14호
 칭 | 오도일 초상화(吳道一 肖像)
 분 류 | 회화 / 초상화
 시 대 | 조선 후기(1703, 숙종 29)
 수 량 / 면 적 | 견본설채, 크기 90 x 127cm
 지정(등록)일 | 1990. 11. 22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로
 61번길 7
 소유자(소유단체) | 해주오씨 문중
 관리자(관리단체) | 해주오씨 문중

오도일 초상화(사진 : 용인시)

오도일(1645~1703)은 1673년(현종 14)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부제학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다 파직을 경험하였으나 다시 승지가 된 인물입니다. 그 뒤로 주청부사(중국에 뭇가를 요청할 때 보내는 사신)로 중국에 다녀와서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도승지·병조판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민언량의 모함사건에 연여서 전라남도 장성으로 귀양 갔다가 그곳에서 1703년(숙종 29)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울진의 고산서원에 배향되었는데, 이 초상화는 그때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한말 고산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문을 닫았는데, 오도일의 초상은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가묘의 영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도일의 초상은 의자에 앉은 전신상(전신교의좌상)인데, 상당히 낡은 상태이지만 그림은 온전한 편입니다. 특이한 것은 몸체는 정면필법을 사용했으면서 얼굴은 오른쪽으로 약간 돌린 모습(좌안 7분명)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하반신에 비해 상반신을 크게 그린 점도 독특하며, 전체적인 구도가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오도일은 검은색 사모에 녹색단령을 입었으며 한 마리 학 흥배(단학흥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초상의 오른쪽 위에는 ‘울진현령오공도일유상(蔚珍縣令吳公道一遺像)’이라 쓰여 있고, 최석정의 글(찬문)이 있습니다.

오도일 선생의 초상화가 모셔진 영당은 해주오씨 추탄공파 묘역에서 오산로61번길을 따라 약 500m 북쪽으로 올라오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숙종 때 대제학을 지낸 합리적인 인물 113 이인엽 영정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1호
명 칭 | 이인엽 영정(李仁燁影幀)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 / 면 적 | 2폭
지정(등록)일 | 2003.09.04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이인엽 관복본 영정(사진 : 문화재청)

이인엽(1656~1710)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계장(季章), 호는 회와(晦窩)입니다. 1686년(숙종 8)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고, 벼슬은 홍문관 대제학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강화유수로 있을 때 강화도 방어를 위해 진(鎭)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그의 견해는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합리적인 인물이면서 지조와 명분 또한 중시하였다고 합니다.

〈이인엽 영정〉은 관복 차림과 편복(평상복) 차림 두 점입니다. 관복 본에서 이인엽은 녹색 단령에 사모를 갖춘 관복을 입고 호피를 깐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교의상입니다. 소매 속으로 두 손을 살짝 포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혜(鞋, 신발)는 족좌대위(발판)에 올려 놓았습니다. 흉배는 정이품에 해당하는 두 마리 학 문양이며, 허리에는 삽금대를 갖추었습니다. 가는 선으로 이목구비와 윤곽을 잡고 콧등을 약간 붉게 칠하는 ‘역명암법’을 썼고, 입가와 눈가주름 등에 음영을 넣었습니다. 시선은 우측면 하단을 내려보고 있어 사색하는 듯한 표정을 보입니다.

왼쪽 위 부분에는 ‘감진어사이공인엽(監賑御使李公寅燁)’이라고 쓰여 있는데, 감진어사는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왕이 지방에 파견한 특명사신입니다. 이인엽은 숙종 23년(1697) 42세 때 평안도에 감진어사로 파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편복본에서 이인엽은 방건에 직령포를 갖추고 있으며 반신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허리의 세조대(가느다란 띠)는 당상관용의 홍색을 매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관복본 전신상과 거의 동일하며 수염과 얼굴 생김새의 표현이 전신상보다 섬세하고, 붉은 음영이 다소 가미되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별지로 ‘대제학회와이선생상(大提學晦窩李先生像)’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인엽은 숙종 33년(1707) 52세 때 대제학을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글귀를 썼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이인엽 편복본 영정(사진 : 문화재청)

18세기 전기 문신상의 전형 114 김유 초상



종 목 | 보물 제1481호
칭 | 김유 초상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점
자정(등록)일 | 2006.12.29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청풍김씨 판서공파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김유 초상(사진 : 문화재청)

검재 김유(1653-1719)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송시열의 문하생이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였으며 황해도 관찰사와 이조참판 겸 대제학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의 초상은 18세기 초반에 가장 유행했던 반우향의 단령본 전신 교의좌상 형식으로 그려졌습니다. 또한 오른쪽 위에 ‘검재김선생화상 육십사세시사 儉齋金先生畫像 六十四歲時寫’라고 적힌 표제가 있어, 숙종 42년(1716) 선생이 64세 때의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정은 오사모에 녹포 단령의 관복 차림이며,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앉은 전신상입니다. 관복의 옷깃을 자연스럽게 묘사했고, 얼굴의 검버섯은 물론 수염의 검고 흰 털까지 정성껏 그렸습니다. 또한 당상관을 표시하는 쌍학문양의 흉배와 정2품을 지시하는 삽금대(鍍金帶: 황금 띠돈을 단 허리띠)는 이 초상화가 그려질 당시 김유의 품계와 일치하는데, 1715년(숙종41) 당시 김유는 종2품인 황해도관찰사에 올랐습니다.

장식 모피가 표범 가죽이 아니라 긴 줄무늬의 호랑이 가죽인 점, 양발 사이로 호랑이 얼굴의 일부를 살짝 보이게 그리고, 양발을 여덟 팔(八)자로 벌린 점, 교의자의 손잡이가 심하게 구부러지고 입체감을 표현하지 않은 점 등은 18세기 초반의 초상화들에서 전형적으로 엿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1710년대에 제작된 단령본 전신 교의 좌상인 이 영정은 그리 흔하지 않은 유물이며, 화가의 기량과 예술성도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합니다. 더구나 18세기 이후 가장 널리 유행한 조선 후기 초상화의 가장 전형적인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 규격은 세로 172cm, 가로 90 cm이며, 전체 규격은 세로 242.5cm, 가로 107cm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선 사대부의 인맥과 교류 상황을 볼 수 있는 유물 115 연행일록 · 연행별장 외 명현통찰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명 칭 | 연행일록·연행별장외명현통찰
(燕行日錄·燕行別章外名賢簡札)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3책56장
지정(등록)일 | 1988.12.02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연행일록. 연행별장 외 명현통찰(사진 : 문화재청)

조영복(1672~1728)은 조선 후기 숙종-영조 대의 문신이며, 1714년 예천군수로 있으면서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 헌납 등의 벼슬을 지내고 동래부사를 거쳐 도승지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한성부우윤이 되었고 난이 평정된 뒤에 벼슬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또한 서예에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1719년 승지가 된 해에 동지부사로 청나라 북경에 다녀왔는데, 『연행일록』을 비롯한 이 문화재들은 그때 쓴 친필 일기와 동료 대신들과 주고받은 송별시, 편지 등을 모아 만든 것입니다.

『연행일록』은 1719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숙종45~46년)까지 3월까지 북경을 다녀오면서 그가 직접 쓴 일기이며, 1책 6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궐에서 국왕을 뵈고 모화관에서 출발한 이후 북경에 도착하기까지 보고 겪은 일들, 각 지방의 인정과 풍속, 귀국할 때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기는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방 풍속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연행별장』은 북경으로 떠나기 전 1719년(숙종 45)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동료, 중신들과 주고받은 송별시를 모은 책입니다. 원래는 2책이었으나 현재는 1책만이 남아 있습니다.

『명현간찰』은 당시 노론의 대신 4명을 비롯한 기호지방(경기·충청) 명현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놓은 것입니다. 편지 1건을 1첩(帖)씩 만들어서 34건 35장이며, 조영복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인맥은 물론 명현들의 필적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한 인물, 두 화가의 색다른 초상화

116 조영복 초상

종 목 | 보물 제1298호
명 칭 | 조영복 초상 (趙榮福 肖像)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2폭
지정(등록)일 | 1999.12.15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조영복 연거복본 초상(사진 : 문화재청)



조영복 시복본 초상(사진 : 문화재청)

조영복(1672~1728)은 조선 숙종 때의 문신으로, 숙종 31년(1705)에 과거에 합격하여 승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벼슬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보물 제1298호로 지정된 조영복의 초상화는 총 2점으로, 하나는 흰색의 도포를 입고 있는 ‘연거복본’이고, 다른 하나는 공복을 입고 있는 ‘시복본’입니다.

연거복본 초상화는 동생인 조영석(1686~1761)이 경종 4년(1724)에 그린 것으로, 길이 125cm, 폭 76cm 크기이며 앉아 있는 전신상입니다. 문인화가로 이름을 날렸던 조영석은 풍속화와 인물화, 말 그림에 뛰어났습니다. 그림에서 조영복은 사방건에 도포를 입은 평소의 모습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조선 초상화에서는 드물게 양손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영정은 유학자의 기품이 잘 드러난 사대부의 모습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담아서 매우 가치가 높은 그림입니다.

시복본 초상화는 숙종의 어진을 그린 전문화가 진재해가 영조 1년(1725)에 그린 것인데, 연거복본을 그린 조영석이 초상화의 초본을 진재해에게 주고 공복을 입은 모습을 따로 그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진재해는 당시 초상화를 잘 그려 국수(國手)로 불린 당대 최고 화원이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조영복은 오사모를 쓰고 분홍색 시복을 입은 채 양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호랑이 가죽 의자에 앉아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길이 154cm, 폭 79cm의 크기로, 세밀하고 정교한 묘사가 돋보이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공신상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 초상화 두 점은 같은 시기에 두 명의 화가가 동일한 인물을 그린 점에서 그림의 성격과 특성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고사인물화를 함께 볼 수 있는 화첩 117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종 목 | 보물 제1796호
 명 칭 |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鄭敎筆 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 畫帖)
 분 류 | 회화 / 산수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첩(16쪽)
 지정(등록)일 | 2013.02.28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로 134
 용인대학교박물관(삼가동)
 소유자(소유단체) | 우학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대학교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표지(사진 : 문화재청)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
(鄭敳筆海嶽八景 및 宋儒八賢圖畫帖)’은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 화가인 겸재
정선의 작품입니다. ‘해악팔경’은 금강
산의 진경산수화 8점, ‘송유팔현도’는
중국 송대(宋代)의 유학자 8인을 그린
고사인물화 8점, 총 16폭으로 구성되었
습니다. 원숙한 필치와 과감한 화면구
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입니다.



정선필 해악팔경 및 송유팔현도 화첩(사진: 문화재청)

진경산수화 8폭은 비단 바탕에 수묵으로 그렸고 화폭의 크기는 세로 25.1cm, 가로 19.2cm입니다. 모두 금강산의 경관을 담고 있으며, 단발령(斷髮嶺), 비로봉(毘盧峰), 혈망봉(穴望峰), 구룡연(九龍淵), 웅천(甕遷), 고성문암(高城門岩), 총석정(叢石亭), 해금강(海金剛) 순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송유팔현도 8폭은 비단 바탕에 수묵담채로 그렸고 화면의 규격은 세로 30.3cm, 가로 20.3cm입니다. 각 장면의 내용은 중국 송대(宋代) 유학자 8명의 행적 혹은 시문(詩文)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화첩의 제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화풍이나 ‘정(鄭)’과 ‘선(敳)’을 각각 새기 백문방인(白文方印, 음각으로 새겨 글씨가 하얗게 나오는 네모난 도장)을 통해서 대략 1740년대 후반, 즉 겸재 나이 70대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초기의 고사인물화는 특정 시대와 상관없이 중국의 현인과 은자들을 그렸는데, 이 화첩에서 정선은 송대(宋代)의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화첩은 조선시대 후기 문인들의 취향을 잘 보여주고, 작품성이나 역사성에서도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소장처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현왕후의 친정어머니 조씨의 묘

118 풍창부부인 조씨 묘소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9호
칭 칭 | 풍창부부인 조씨 묘소
(豊昌府夫人 趙氏 墓所)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 후기(1741, 영조 17)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0. 11. 22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산 46-32



풍창부부인 조씨 묘소 전경



풍창부부인 조씨 묘소 봉분

‘부부인’이란 조선시대 여성에게 나라가 준 칭호인데, 왕비의 친정어머니, 또는 대군의 부인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기흥구 상하동에는 ‘민재궁’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용인 지역 8 명당의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조선 후기에 살았던 양반가 여성의 묘가 있는데, 그 여성이 바로 풍창부부인 조씨(1659-1741)입니다. 조씨는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의 친정어머니이자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아내입니다.

조씨는 딸이 숙종의 계비로 간택되어 외명부(外命婦, 조선시대 여성의 품계) 정1품인 부부인(府夫人)의 작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689년(숙종15) 희빈 장씨가 왕자 균(筠:뒤의 경종)을 낳고, 세자 책봉 문제로 기사환국(己巳還局, 송시열이 이끄는 서인들이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사건)이 일어나자 민비(인현왕후)가 폐위되면서 조씨의 부부인 작위도 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694년(숙종20) 3월 갑술옥사(甲戌獄事, 서인이 남인에게 복수한 사건)가 일어나 장희빈이 쫓겨나자 다시 인현왕후와 조씨의 작위도 회복되었습니다.



풍창부부인 조씨 묘소 상석과 향로석



풍창부부인 조씨 묘소의 문인석

조씨의 묘소는 1990년에 용인시 향토 유적 제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봉분 앞 왼쪽에는 묘비, 중앙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그리고 좌우에는 망주석과 문인석 등이 놓여있습니다. 묘비는 영조 17년(1741)에 건립했는데, 비문 뒷면의 글은 외손자 이재(李緯)가 지었고, 글씨는 손자 민우수가 썼다고 합니다. 또한 이 묘의 문인석은 복두공복형¹⁾의 문인석 양식에서 한층 더 발전한 양관조복형²⁾ 문인석 중 수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1) 복두(頭)와 공복(公服) : 복두는 관모의 하나로 1품에서 9품까지의 관원이 공복을 입을 때 착용함
- 2) 양관(梁冠)과 조복(朝服) : 양관은 조선시대 관리가 제례시 조복이나 제복에 착용하던 관모로 앞에 세로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를 양(梁)이라 하고 양의 숫자에 따라 품위의 상하를 구분하였음



풍창부부인 조씨 묘비

풍창부부인 조씨 묘소로 가기 위해서는 용인상하우편취급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인정프린스아파트교차로에서 좌회전 하여 중부대로 819번길을 따라 마을 내부로 들어와야 합니다. 약 800m 가량 들어오면 흥국생명 연수원 서쪽에 묘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년에 용인에서 후학을 양성한 노론계 학자

119 이재 선생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35호
칭 칭 | 이재선생 묘(李緯先生 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영조)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2. 10. 12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산58



이재 선생 묘(사진 : 용인시)

이재(1680~1746)는 조선 숙종에서 영조 연간의 학자입니다. 자는 희경(熙卿)이고, 호는 도암(陶庵), 혹은 한천(寒泉), 본관은 우봉(牛峰)입니다. 숙종 28년(1702)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고 단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신임사화와 정미환국 등으로 벼슬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임용되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후에 대사헌 등에 임명되었지만 출사하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용인에 머물며 후진양성에 힘썼고, 도암집(陶庵集), 도암과시(陶庵科詩), 사례편람(四禮便覽), 주자어류초절(朱子語類抄節) 등을 저술하였는데, 특히 사례편람은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관혼상제의 지침서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용인의 한천서원에 배향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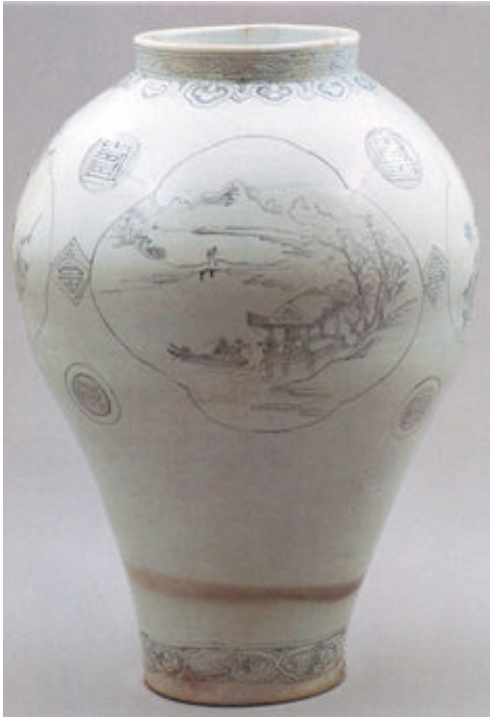
이재 선생의 묘는 원형의 봉분으로 되어 있으며, 봉분 앞으로 상석, 혼유석,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문인석과 망주석을 두고 있습니다. 봉분 우측의 묘비는 1883년(순조 33)에 건립된 것인데 오희상(吳熙常)이 찬(撰, 묘비를 지음)하였습니다. 정면의 큰 글자는 명필로 유명한 한호(韓濩, 한석봉)의 글씨를 집자하여 새겼습니다.

이재 선생 묘소로 가기 위해서는 천리삼거리에서 백옥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우회전하여 백옥대로652번길을 따라 약 700m 가량 들어오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늘씬하고 아름답게 생긴 청화 백자

120 백자 청화산수화조문대호

종 목 | 국보 제263호
명 칭 | 백자 청화산수화조문대호
(白磁 靑畵山水花鳥文 立壺)
분 류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1991.01.25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학교 134
용인대학교박물관(삼가동)
소유자(소유단체) | 우학문화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대학교



백자 청화산수화조문대호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백자 향아리로, 크기는 높이 54.8cm, 아가리 지름 19.2cm, 밑 지름 18cm입니다. 아가리 아래 어깨부분에서 점점 넓어지며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다가 서서히 좁아지면서 바닥면에 이르는 형태로, 굽은 안다리굽으로 된 키 높은 대형 향아리입니다.

향아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몸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로 붙인 흔적이 있습니다. 몸통 윗부분의 네 곳에 푸른색 안료로 네 개의 호(반원)를 연결하여 만든 마름꽃 모양의 화창(꽃창)을 큼직하게 그린 다음, 그 속에 산수문과 화조석문(꽃과 새, 돌 그림)을 교대로 그려 넣었습니다.

각각의 꽃창 안에 ‘부(富)’자를 도안하여 넣고 사다리꼴로 연결시켰으며, 꽃창 사이의 위·아래 네 곳에도 ‘수(壽)’자와, ‘강(疆)’자를 넣은 원이 있습니다. 유약은 투명하고 광택이 좋은 백자유로 전면에 고르게 칠해졌고, 표면의 색조는 옅은 회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중후반에 광주에 위치하였던 관요(관에서 운영하는 가마)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며, 형태가 아름답고 푸른색의 청화 안료로 그린 사실적인 문양들이 우수하고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백자 향아리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소장처인 용인대학교 박물관은 용인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왕실 초상화가 진재해가 그린 걸작 121 유수 초상



유수 초상(사진 : 문화재청)

종 목 | 보물 제1176호
 명 칭 | 유수 초상 (柳綬 肖像)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2점 (영정1폭, 함1점)
 지정(등록)일 | 1993.11.05
 소 재 지 | 경기용인시기흥구상갈로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이 유물은 조선 후기의 문신 유수(柳綏)의 초상화로 크기는 가로 88 cm, 세로 165.5cm입니다. 유수는 경종 1년(1721)에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정3품)에 올랐던 인물로, 영조 4년(1728) 원종훈(原從勳, 원종공신)에 책록되었습니다.

이 초상화는 의자에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는 전신상으로, 얼굴은 선으로 윤곽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여 온화한 성품을 표현하였습니다. 관모는 높게 그려 당시의 모자 형태를 보여주며, 청록색 관복에 한 마리 학 문양의 흉배와 허리띠(삽금대)는 문신으로서 그가 누린 지위를 보여줍니다. 의자에 깔린 호랑이 가죽, 발 받침대 위의 돛자리 문양 등에서 영조(재위 1724~1776) 당시 문신 초상화의 양식적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초상화와 함께 보관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림 상단에 유수 자신이 직접 쓴 발문이 있는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늙어서는 자식이 없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벼슬에 나아갔지만 성품이 세속에 굴하거나 아첨하지 않았고, 권력자와 부귀한 자를 싫어하여 물러가 부모 묘소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낚시와 바둑으로 소일하면서 자연과 벗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영조 2년(1726)에 왕실 초상화가였던 진재해(秦再奚, 1691~1769)인데, 그는 숙종의 전신상을 그려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수 초상은 제작연대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왕실 초상화가인 진재해가 그려 18세기 초상화 화풍을 훌륭하게 표현한 명작으로 꼽힙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기도 지방 살림집의 특징을 간직한 가옥 122 용인 이주국장군 고택

종 목 |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6호
명 칭 | 용인이주국장군고택
(龍仁李柱國將軍古宅)
분 류 | 유적건조물 / 가옥
수량/면적 | 1곽
지정(등록)일 | 2000.03.24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춘로 252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이주국장군 고택 사랑채



이주국장군 고택 문간채

치인구 원삼면 문촌리에는 오래된 고택이 한 채 있는데, 이 곳은 오백 이주국(1721~1798) 장군의 생가로 전하는 가옥입니다. 이주국은 조선 후기 영조·정조 대의 무신이며, 조선 2대 임금 정종의 아들인 덕천군의 후손입니다. 현재 문촌리에 그의 묘소와 신도비가 남아있으며, 묘소와 신도비는 용인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주국은 영조 16년(1740)에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무신으로서 많은 공적을 남겼고, 여러 도의 병마절도사를 거쳐 병조판서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고택의 안채 기와에 새겨진 명문을 보면, ‘건륭 18년 계유일 조작(造作)’이라고 되어 있어, 가옥이 지어진 시기를 영조 29년(1753)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옥의 구조는 사랑채, 안채,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로 지어졌으며, 청방·방·다락방과 아궁이를 짜임새 있게 갖추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이주국장군 고택 안채 배면과 사당방



이주국장군 고택 뒷마당의 터줏가리

정면 좌측에 청방과 다락을 두고 있으며 다락 아래에는 아궁이가 있는데 현재에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운데 두 칸에는 방과 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도 마루방이 있습니다. 우측면과 배면에는 판문이 설치되어 있어 정면과 달리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서까래는 한 단으로 된 홑서까래로 되어 있지만 추녀¹⁾끝에 사래²⁾를 덧붙인 점이 특징적입니다. 가옥은 후대에 일부 변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추녀 : 홑서까래 집에서 지붕의 형태가 팔작 지붕이거나 모임 지붕일 때 정면 및 후면 지붕과 측면 지붕이 만나는 모서리 경계를 받치는 나무 부재, 대체로 45도 각도로 결구됨

2) 사래 : 서까래 바깥쪽으로 겹서까래를 덧붙인 집에서 추녀 바깥쪽에 결구되어 겹서까래와 만나는 부재

안채는 ㄱ자형으로 왼쪽부터 광·부엌·안방·대청·건넌방 순이며, 안방 뒤쪽과 건넌방 앞에 각각 방이 있습니다. 광에는 다락을 설치하여 아래 공간과 윗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엌과 연결되어 물품의 보관과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청은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총 6칸에 이르는 넓은 공간인데, 정면은 트여있으며 배면에는 판문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청 우측으로는 건넌방이 있고 그 뒤쪽에 작게 사당방이 있는데 사당방 내부에는 감실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안채 뒷편에 작은 장독대를 마련했는데 그 사이에 짚을 묶어서 만든 터줏가리가 있습니다. 터줏가리는 터주신을 상징하는 신체(神體)를 의미하며 보통 원추형 모양으로 짚을 엮어 세워둡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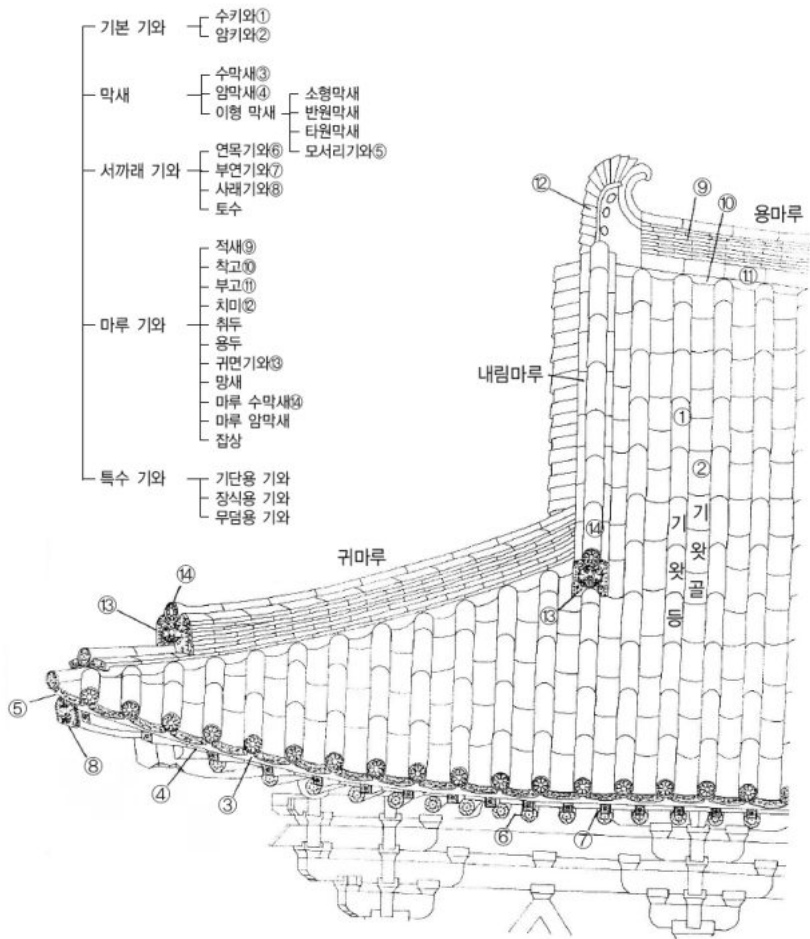
행랑채는 최근 복원 중수된 것으로 정면 7칸으로 대문·방·창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문은 행랑채와 연결되어 있으며 1칸의 솟을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가옥 내부에서 보았을 때 대문 우측으로 6칸, 좌측으로 1칸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대문 우측으로 붙어있는 2칸은 방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4칸에는 판문을 달고 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좌측의 1칸은 내부로 열려 있으며 집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주국 장군 고택은 가옥과 공간의 구성, 조정 수법 등에서 조선 후기 양반가옥으로서 격식을 갖춘 곳입니다. 각 건물 모두 기단을 단정히 설치한 후 그 위에 사다리꼴 형태의 초석을 두었으며, 각 칸의 너비가 넓고 건물을 이루는 부재의 크기도 큰 편입니다. 20세기 초엽까지 이주국 장군의 후손들이 거주했다고 하나, 이후에 정씨 소유로 바뀌면서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을 따 정영대 가옥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주국 장군 고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삼파출소에서 문춘로를 따라 약 2.5km 가량 들어와야 합니다. 고택은 문춘리 내에 있습니다.

<한국 전통건축의 기와>

(자료 : 문화재청)





암키와



수키와



왕지기와



암막새



수막새



척고막이



보습장



토수기와



망와(망새)



바래기(금새)기와



무량깃기와



부연초가리



연목초가리



귀면



집상



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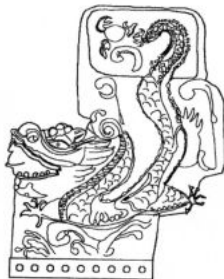
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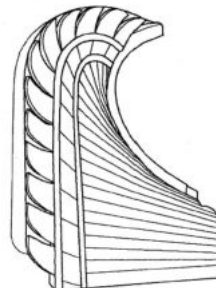
용두



정병통



취두



치미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무신 이주국의 묘

123 이주국 묘소 및 신도비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4호
칭 칭 | 이주국 묘소 및 신도비
(李柱國墓所 및 神道碑)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 정조22년(1798)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7. 12. 26
소 재 지 | 용인시원삼면문촌리산35-1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이주국 묘소 전경



이주국 묘소 봉분과 석물

원삼면 문촌리 〈이주국 장군 고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이주국 장군의 묘소가 있습니다. 이주국의 묘는 그리 크지 않은 봉분에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신도비는 정조 24년(1800), 그가 죽은 지 3년 뒤에 세웠는데, 묘소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주국은 조선 2대 임금 정종의 서자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이며, 조선 후기의 무신입니다. 그는 영조·정조 대에 무신으로 활약했으며, 1748년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온 뒤로 여러 도의 도병마사와 수군절도사 등 무반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용모가 건장하고 뛰어났으며, 성품은 강직해서 권세 있고 부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아 명망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대립할 때가 많았고, 여러 번 문신들한테 횡포를 당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정조는 두텁게 신임했고 성도·궁성 호위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의 호는 ‘오백(梧栢)’인데, 정조가 하사한 것이라 합니다. 어느 날 정조가 춘당대(春塘臺)에서 신하들과 활쏘기를 했는데, 그때 이주국의 당당한 모습이 마치 추운 겨울철에도 잎이 푸른 소나무와 측백나무 같다고 그런 호를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이주국장군 묘소의 석양

이주국 장군의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으로 망주석과 석양, 문인석이 각각 2기씩 서 있어 묘역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양은 머리의 뿔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뿔의 크기가 작은 쪽의 목에는 물결무늬처럼 양 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도비의 몸돌은 오석으로 되어 있으며 팔각지붕 형태의 지붕돌과 장방형의 받침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석의 높이는 약 1.9m, 폭은 약 0.8m, 두께는 약 0.4m이며, 비문은 송환기(순조 때의 문신, 송시열의 후손)가 지었고, 글씨는 이주국의 후손인 이재의가 썼다고 합니다.

이주국 장군과 관련된 유적으로 이주국 장군 고택과 이주국 장군이 낙향하여 지었다는 ‘퇴보정’으로 추정되는 정자 터가 있습니다.



이주국장군 묘소의 문인석

이주국 묘소 및 신도비는 이주국장군 고택에서 문촌로를 따라 북서쪽으로 약 200m 가량 진입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제작된 조선 팔도 지도의 일부

124 함경도 · 경기도 · 강원도 지도

종 목 | 보물 제1598호
 명 칭 | 함경도·경기도·강원도 지도
 (咸鏡道·京畿道·江原道 地圖)
 분 류 | 기록유산 / 지도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4장
 지정(등록)일 | 2008.12.22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629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경희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함경도·경기도·강원도 지도(사진 : 문화재청)

이 지도는 18세기 무렵에 제작한 조선의 도별지도 중 일부입니다. 지도의 내용과 표기된 지명은 1770년에 신경준(申景濬, 1712~1781, 조선 후기의 문신)이 주도하여 제작한 20리 방안을 사용한 대형 군현 지도와 거의 동일하며 색감이 아주 화려합니다. 신경준은 영조의 명을 받아 1770년에 군현도인 《열읍도》, 도별도인 《팔도도》, 전국지도인 《동국여지도》를 모두 만들었고, 조선 지리학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열읍도》 계통은 많이 발견되었지만 팔도도와 전국지도는 발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유물은 종이에 채색을 한 필사본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도는 각각 1매이고, 함경도 지도는 남도와 북도로 각각 1매씩입니다. 경기도 지도는 101.5×82.5cm, 강원도 지도는 153.0×163.9cm, 함경북도 지도는 152.0×119.6cm, 함경남도 지도는 215.0×127.8cm의 크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1770년에 신경준이 주도하여 만든 《팔도도》 계통의 원본이거나 최소한 원본에 아주 가깝게 필사한 지도라고 판단됩니다.

《동국지도》를 제작한 실학파 지리학자 정상기(鄭尙驥, 1678~1752)에 의해 시작된 정확한 지도 제작의 흐름은 ‘여지도’(輿地圖, 종합 정보가 담긴 지도)의 대가 정철조(鄭喆祚, 1730~1781)로 이어졌고, 이들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지도가 신경준의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준의 지도는 두 사람의 지도보다 훨씬 큰 지도였고, 김정호(金正浩, ?~1866)의 《청구도》 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물은 조선 지도학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 양호한 보관 상태, 현재까지 동일 계통의 지도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지도로 판단됩니다.

이 유물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혜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노론계 인사

125 홍계희 묘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37호
명 칭 | 홍계희 묘(洪禧墓)
분 류 | 무덤/ 봉토분
시 대 | 조선(영조 48, 1772)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2. 10. 12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847번길 17-8
소유자(소유단체) | 남양홍씨 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남양홍씨 종중



홍계희 묘 전경



홍계희 묘 봉분

홍계희(1703~1771)는 조선 영조 때의 문신이며,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순보(純甫), 호는 담와(淡窩)입니다. 1737년(영조 13) 별시문과에 장원, 정언, 수찬을 역임하였고 1742년 북도감진어사(北道監賑御史, 기근이 든 지방에 보낸 어사)로 나갔으며, 이듬해 별견어사(別遣御使, 특별임무를 안고 공개활동을 하는 어사)가 되어 북로(北路)의 지형(地形)을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공으로 공조참의와 부제학 등을 지내고, 1747년에는 대사성이 되었으나, 성균관 유생들을 기숙사에서 생활(居齋)하게 하지 않았다는 죄로 파직되었습니다. 이듬해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다녀와서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습니다.



홍계희 묘의 석양

1750년에는 병조판서로 균역법(均役法, 백성들이 세금으로 바치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제도) 시행에 힘썼습니다. 1762년 경기도관찰사로 나갔을 때는 노론계의 핵심 인사로 활약하면서, 지인 윤종의 노비였던 나경언(羅景彦)의 고변 사건¹⁾을 배후조종하여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 중추부판사·봉조하가 되었는데, 1777년(정조 1)에 아들 술해(述海)와 손자 상간(相簡)이 대역죄로 사형을 받자 그도 관직을 빼앗겼습니다.

1) 나경언 고변사건 : 노비였던 나경언이 사도세자의 비행과 난행을 형조에 고발한 일



홍계희 묘비

그의 묘소는 처인구 모현면 일대에 있습니다. 묘역에는 상석, 묘비, 장명등, 석양, 망주석, 문인석 등 석물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묘비는 1772년(영조48)에 만들어진 것으로 팔작지붕 형태의 지붕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산4리 마을회관에서 곡현로847번길을 따라 서쪽으로 약 100m 가량 들어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영조에게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던 노론계 문신 126 조중회 선생 묘소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7호
명 칭 | 조중회 선생 묘소
(趙重晦先生墓所)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1782, 정조 6)
지정(등록)일 | 1990. 11.22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 49-1



조중회 선생 묘(사진 : 용인시)



조중회 선생 봉분과 석물(사진 : 용인시)

조중회(1711~1782)는 조선 영조·정조 때의 문신이며, 본관은 함안입니다. 이재(李穡, 조선 후기의 노론계 재야학자)의 문인이었고, 영조 12년(1736) 정시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병조·이조판서까지 올랐고,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때, 노론의 입장에서 사도세자의 잘잘못을 목숨을 걸고 낱알이 고하여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무장(전라북도 고창의 옛이름)에 유배되었습니다. 곧 풀려났지만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봉조하(奉朝賀, 은퇴한 고위 관료에게 준 명예직)로서 노론계로부터 지조 높은 문신으로 명망이 높았으며, 사후에 ‘충헌(忠憲)’이란 시호를 받았습니다.



조중회 선생 묘소의 석물

그의 묘소는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구봉산 서북쪽 기슭에 있는데, 부인 완산이씨와 합장되어 있습니다. 묘 앞 왼쪽에 묘비가 있고, 중앙에 혼유석·상석·향로석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유석이란 죽은 이의 넋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직사각형의 넓적한 돌입니다. 묘비의 글씨는 명필로 이름높은 한호의 글씨이며, 후면의 글씨는 안진경의 해서체로 쓰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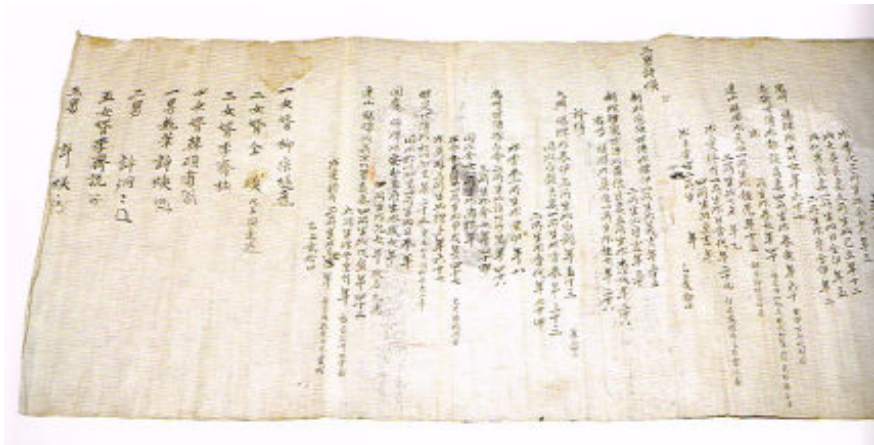
조중회 선생 묘소로 가기 위해서는 학일교차로 사거리에서 고초골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약 600m 가량 내려오면 산자락에 조중회 선생 묘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중회 선생 묘비

시집간 딸도 부모의 재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문서 127 양천허씨 노비 분재기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 36호
 칭 | 양천허씨 노비 분재기
 (陽川許氏 奴婢分財記)
 분 류 | 기록유산 / 고문서
 시 대 | 조선 숙종-정조때
 지정(등록)일 | 1992.10.12
 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9
 소유자(소유단체) | 양천허씨 수색공 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양천허씨 수색공 종중



양천허씨 노비 분재기(사진 : 용인시)

이 분재기(分財記, 상속문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양천허씨(陽川許氏) 종중(宗中)에 전하는 고문서(古文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 숙종 7년(1681)부터 정조 8년(1784)까지 103년 간 양천허씨 문중의 3남 5녀에게 노비(奴婢)를 나누어 주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노비문건(奴婢文件)입니다.

여서(女婿, 딸의 남편, 사위)부터 삼남(三男) 허환(許煥)에 이르기까지 8남매에게 태어난 순서대로 노비를 나누어주었으며, 그 사실을 공증하기 위해 관부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딸은 출가외인(시집간 딸은 남의 집 식구)이라 하여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기록을 통해 조선 후기에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분재기는 조선시대에 대한 통념을 바로잡아주는 자료이며, 당시 신분제도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김홍도의 스승 강세황의 완숙한 서체가 담긴 서첩 128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종 목 | 보물 제1680호
명 칭 |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姜世晃 行草 豹菴遺彩)
분 류 | 기록유산 / 서간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2010.10.25
소재지 | 경기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사진 : 문화재청)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내용(사진 : 문화재청)

표암 강세황(1713-91)은 영조·정조 때의 문인이자 화가, 서예가였고, 서화 평론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대 가장 뛰어난 화가 김홍도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표암유채》는 1790년(정조 14) 겨울에 강세황이 송나라 양시(楊時) 등 역대 명인의 시에서 일부 구절을 행서와 초서로 쓴 서첩입니다. 서첩 말미에 우리나라 남쪽에서 생산되었던 죽청지(竹淸紙, 매우 얇고 질긴 닥종이)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 조선 후기(18세기 말)에 서예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종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죽청지는 영조에서 정조 연간의 궁중 행사를 기록한 각종 의궤에도 사용되었고, 사신에게 주는 예물로 쓰였다고 합니다.

강세황의 필적은 오늘날 서첩, 간찰, 병풍 등으로 다양하게 전하지만, 이 서첩처럼 연대와 내력이 분명한 예는 드뭅니다. 더욱이 이 서첩은 그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말년에 해당하는 작품이며, 강세황의 완숙한 서풍(서체 양식)을 보여줍니다. 총 13장 26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세로 54.7cm, 가로 31.5c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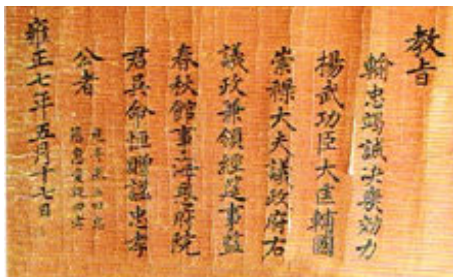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천연두 자국까지 묘사한 조선후기 문신 초상화 129 오명항 초상과 양무공신 교서



오명항 영정(사진 : 용인시)

종 목 | 보물 제1177호
 명 칭 | 오명항 초상 / 양무공신교서
 (吳命恒 肖像 및 揚武功臣敎書)
 분 류 | 회화 / 인물화, 기록유산 / 교서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3점 (영정 1폭, 함1점, 교서 1축)
 지정(등록)일 | 1993.11.05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양무공신 교서(사진 : 용인시) 양무공신 교서 함(사진 : 문화재청)

오명항(1673~1728)은 조선 중기의 문신입니다. 숙종 31년(1705) 문과에 급제하였고 그 뒤 이조좌랑, 병조판서, 우의정까지 올랐던 인물로, 영조 3년(1727) 이인좌의 난(영조의 즉위에 불만을 품고 소론 계열이 일으킨 반란)을 평정한 공로로 1등 공신으로 봉해졌습니다. 이 유물은 오명항을 그린 초상화 1점과 1등 공신으로 임명하는 교서 1부, 그리고 이 유물들을 담았던 나무 함(상자) 1점 등 3점입니다.

초상화는 가로 1.03m, 세로 1.74m로 비단에 채색하여 그린 전신상입니다. 오명항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머리에는 검은색 사모를 쓰고 짙은 청록색의 관복을 입었습니다. 두 마리 학이 수놓인 흉배를 통해서 이 초상화가 공신이 된 후에 그려진 전형적인 공신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높게 그린 사모와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 발을 팔(八)자로 벌린 모습에서는 그 당시의 화풍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색의 얼굴에 윤곽선과 양턱, 눈 주위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얼굴의 굴곡을 표현했고, 천연두 자국과 코밑의 점까지 그려서 강직하고 진지한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교서는 가로 289.5cm, 세로 42.9cm로 닥나무로 만든 바탕에 비단을 배접하여 만들었습니다. 먼저 감색 선을 위와 아래에 2cm 폭으로 덧붙이고, 다시 붉은색 선으로 사각의 테두리를 두른 다음 세로로 63개의 선을 그어 그 안쪽에 검은색으로 내용을 적었습니다. 교서의 내용은 반란을 진정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1등공신 1명, 2등공신 7명, 3등공신 7명을 공훈 한다는 글과 해당되는 신하 15명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교서의 좌우에는 나무로 축을 부착하여 말아둘 수 있게 하였고, 뒷면에는 신치근이 만들고 조명교가 글을 썼다는 명문기록이 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영조가 두텁게 신임했던 소론계 인물 130 오명항 선생 묘소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12호
칭 칭 | 오명항선생묘소
(吳命恒先生墓所)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1793, 정조 17)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0. 11. 22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산 5



오명항 선생 묘소 전경(사진 : 용인시)



오명항 선생 봉분(사진 : 용인시)

오명항(1673~1728)은 조선 후기 현종~영조 때의 문신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글과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1705년(숙종 31) 식면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쳤고, 왕의 비서에 해당하는 ‘승지’를 지냈습니다.

영조 3년(1727), 영조가 극심한 당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당색이 온건한 인사들로 정국을 개편(정미환국)할 때 오명항은 소론계 인사로 지중추부사로 기용되었고, 이조·병조판서를 지냈습니다. 이듬해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죽산에서 반군을 토벌하여 분무공신 1등이 되었고, 해운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론이었던 오명항을 깊이 신임하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명항 선생 묘소의 무인석과 장명등(사진 : 용인시)

묘역 앞에는 팔작지붕 양식의 지붕돌을 올린 묘비가 있는데, 정조 17년(1793)에 세워진 것입니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과 상석, 망주석, 장명등, 문무인석과 같은 여러 가지 석물이 놓여 있습니다. 오명항은 효성이 지극하여 고향에 효자정문이 세워지기도 하였는데, 시호 역시 ‘효’자가 들어간 ‘충효(忠孝)’입니다.

오명항의 묘소는 처인구 모현면 문수산 서남쪽, 해주오씨 시조단 뒷산에 있습니다. 오명항 선생 묘로 가기 위해서는 해주오씨 추탄공파 묘역에서 오산로99번길을 따라 동북쪽으로 약 300m 이동하여 해주오씨 재실을 지난 후 해주오씨 시조단을 좌측에 두고 뒷산으로 올라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명항 선생 묘비(사진 : 용인시)

조선 정조 연간의 명재상이 잠든 곳 131 채제공 선생 묘

종 목 | 경기도기념물 제17호
명 칭 | 채제공선생묘
(蔡濟恭先生墓)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73.07.10
소 재 지 | 경기용인시 처인구 역부동
산 5
관리자(관리단체) | 개인



채제공 선생 묘 전경



채제공 선생 묘 봉분

채제공(1720~1799)의 본관은 평강(平康)이고, 자는 백규(伯規), 호는 변암(樊巖), 혹은 변옹(樊翁)입니다. 1735(영조11)년 15세로 향시에 급제한 뒤 1743년 문과정시에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임명되면서 관직에 올랐습니다. 이후 청요직(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맡았던 청직과 요직을 함께 일컫는 말)인 예문관 사관직을 거쳤습니다. 이후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아가 균역법의 폐단과 변방의 대비에 대한 문제를 진언하였고, 내직으로 복귀한 후에는 승정원 동부승지와 대사간 등을 거쳐 도승지로 임명되었습니다.

1758년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가 악화되고 세자 폐위의 비망기(임금이 승지에게 내리던 명령장, 혹은 의견서)가 내려지자 죽음을 무릅쓰고 막아 철회시켰는데, 이를 두고 후일 영조는 정조에게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1762년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난 후 사도세자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상을 다 치른 채제공은 다시 복직하여 개성유수, 예문관 제학, 비변사 당상, 홍문관 제학, 함경도 관찰사, 한성판윤 등을 거쳤습니다.

1776년 영조가 죽자 국장도감제조에 임명되어 행장, 시장, 어제, 어필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어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할 때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서 옥사를 처결하였습니다. 정조 원년부터 약 8년간 소론의 공격을 받아 칩거하였으나 1788년 우의정에 특채된 후 영의정에 올라 수원 화성을 건립하는 성역을 담당하다가 1798년 사직하였습니다. 1799년에 사망하였고 장례는 사림장(士林葬)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시호는 문숙(文肅)입니다.

채제공은 정통 성리학의 견해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양명학,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을 비판하였으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측면에서 선용할 수 있다면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주교(西學, 서양학문)에 대해서는 이적(夷狄, 오랑캐)인 청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보았지만 서학을 믿는 자들을 역적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성리학으로 교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번암집(樊巖集) 58권이 전해지는데 책머리에 정조의 친필어찰 및 교지를 수록하였습니다. 순조 연간에 충청남도 청양에 그의 영각(影閣)이 세워졌으며, 1965년에는 부여에 채제공, 홍가신, 허목을 기리는 도강영당(道江影堂)이 세워졌습니다.

채제공 선생 묘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데 봉분 앞으로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과 석양(石羊)이 한 쌍씩 있습니다. 묘 아래에 신도비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묘소에서 약 80m 가량 내려오면 정조 임금이 친히 글을 지은 어제뇌문비(御製誄文碑)가 있기 때문입니다. 봉분은 높이가 약 2m, 직경이 약 5m 규모입니다.

채제공 선생 묘는 용인 경전철 김량장역 1번 출구로부터 낙은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500m 올라온 후, 낙은로50번길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채제공 선생 묘비

채제공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조가 내린 제문 132 채제공 선생 뇌문비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6호
 명 칭 | 채제공선생뇌문비
 분 류 | 금석각 / 비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78.11.10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안구 역북동 산3-12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채제공 선생 뇌문비



채제공 선생 뇌문비각

채제공(1720~1799)의 호는 번암(樊巖), 혹은 번옹(樊翁)이며, 조선 후기 영조·정조 때의 문신이자 명재상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15세 때 향시에 급제하고, 23세 때인 영조 19년(1743)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문관 사관과 충청도 암행어사를 지냈으며 도승지·병조판서·평안도 관찰사를 거쳐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지냈습니다.

도승지로 임명된 해 영조와 그 아들인 사도세자의 사이가 악화되어 세자를 폐하는 비망기가 내려졌는데, 채제공이 목숨을 걸고 이를 막아 철회시켰습니다. 후일 채제공이 모친상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후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이때 사도세자를 향한 충심을 확인한 영조는 손자인 정조에게 ‘채제공은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자 너의 충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재상으로 일했던 10여 년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정조를 보필하였는데, 상업을 확대하고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정조는 채제공이 세상을 떠나자 슬퍼하며 몸소 애도의 글을 지어 내렸는데, 그 글이 바로 정조 23년(1799)에 세워진 〈채제공선생뇌문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뇌문’이란 왕이 신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손수 고인의 공적을 높이 기리기 위해 쓴 조문 형식의 글이고 그 글을 비석에 새긴 것이 ‘뇌문비’입니다.

뇌문비는 채제공의 묘소 아래에 건립된 비각 안에 있습니다. 네모난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우고, 지붕돌을 얹었는데, 받침돌과 지붕돌은 화강암이며 비석의 몸돌은 검은 빛갈의 오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문을 쓴 사람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문은 정조의 필체로 보이며 비의 명칭은 허목의 글씨체로 짐작됩니다. 비각은 정면, 측면 각 1칸으로 팔작지붕입니다.

비문에는 채제공의 공적을 기리는 내용과 애도의 마음이 담겨있는데, 서두에 “소나무처럼 높고 높아 우뚝 솟았고, 산처럼 깎아지른 듯 험준하여라”라고 칭송하였고, “그 기개는 옅은 구름같이 넓고, 도량은 바다를 삼킬 듯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조는 “경(채제공)을 알고 경을 쓰에 내 독실하게 믿었노라”, “조정에 노성(老成, 채제공)이 없다면 국가를 어찌 보존하랴. 또한 어버이에게 효도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경 같은 이는 매우 드물도다” 하고 채제공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채제공 선생 뇌문비각(사진 : 문화재청)

채제공 선생 뇌문비는 용인 경전철 김량장역 1번 출구로부터 낙은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500m 올라온 후 낙은로50번길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정조를 성공한 군주로 이끈’ 채제공 [蔡濟恭]

채제공은 1743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1758년(38세)에는 영조의 도승지가 되었는데, 당시 영조가 사도 세자 폐위에 관한 명이 담긴 비망기(왕이 승지에게 내리던 문서)를 내리자 목숨을 걸고 반대하여 명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 뒤로 영조의 두터운 신임 속에 대사헌을 비롯하여 지방의 행정직과 중앙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습니다. 1772년에는 세손(정조)을 잘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는데, 그 뒤로 채제공과 정조는 사제의 관계에서 군신의 관계로 인연을 이어나갔고, 왕위에 오른 정조가 가장 믿고 의지한 신하가 바로 채제공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노론의 노여움을 사 8년이나 정조의 곁을 떠나있기도 했는데, 1788년 정조는 특명을 내려 채제공을 우의정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조에게 ‘당파를 없앨 것, 탐관오리를 처벌할 것,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 등을 간곡하게 건의하였고, 남인에 속하면서도 노론이 대세인 조정에서 3년 동안 홀로 정승을 맡아 정조를 보필하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사도 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련된 인사들을 처벌하고, 정조의 탕평책에 노론 인사들을 참여시킨 것도 채제공의 지략에서 나왔습니다. 1793년 이후 정조는 채제공에게 수원 화성 건설 총책임을 맡겼고, 그는 정약용을 통해 2년 8개월여 만에 완공해냈습니다.

나라살림을 맡은 재상으로서 그의 가장 큰 공적은 ‘신해통공’입니다. 대상인(시전 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소상인(난전 상인)에게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가했는데,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망했을 때 정조는 “50여 년 동안 벼슬하면서 굳게 간직한 지조는 더욱 탄복할 만하다.”라고 말하며 슬퍼했습니다.



보물 제1477-2호 채제공 금관조복본(사진 : 문화재청, 소장 : 채규식)

정조의 정적으로 알려졌던 심환지의 실제 모습

133 심환지 초상



종 목 | 보물 제1480호
명 칭 | 심환지 초상 (沈煥之肖像)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초상화1점 / 함 1점
지정(등록)일 | 2006.12.29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공유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심환지 초상(사진 : 문화재청)

심환지(沈煥之 1730-1802)는 조선 후기 영·정조 대의 문신이며, 1798년에 우의정, 1800년(순조 즉위)에 영의정을 지낸 인물입니다. 당쟁의 시대에 노론 벽파의 영수로 정국을 주도하였으며, ‘사도세자의 죽음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여 정조와 팽팽하게 대립한 ‘정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조가 민감한 정치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심환지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고, 이를 통해 정책을 의논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환지 영정〉은 양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의자에 앉아 있는 좌안구분면의 전신상이며, 바닥에는 화문석 자리가 깔려있는 그림입니다. 화면 상단에는 “영의정문충공만포심선생진 領議政文忠公晩圃沈先生眞”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심환지가 영의정이 된 1800년 이후에 그려진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그림에서 심환지는 높은 오사모에 짙은 녹색의 단령을 입고 가슴에는 쌍학 흉배가 붙어있으며, 서대(犀帶, 1품 고관의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족좌대와 원근법으로 처리된 화문석, 의복의 두드러진 명암법 등은 19세기 초반의 사실적인 초상화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이 초상화는 심환지의 얼굴을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이나, 의복과 기물이 지극히 정교하게 그린 점, 그리고 심환지의 높은 지위를 감안했을 때 당시 가장 기량이 뛰어난 초상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환지 영정〉을 보면 대상의 요체를 정확히 포착하여 인물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질감을 잘 나타낸 기물의 표현으로 박진감 넘치는 시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성과 장식성의 조화를 잘 보여주며 매우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화면은 가로 89.2cm, 세로 149cm이며, 전체 크기는 가로 103cm, 세로 213.5cm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서왕모가 베푼 연회 장면을 그린 신선도

134 요지연도

종 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명 칭 | 요지연도(瑤池宴圖)
분 류 | 회화 / 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8폭
지정(등록)일 | 2003.09.04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요지연도(사진 : 문화재청)

〈요지연도(瑤池宴圖)〉는 서왕모(西王母, 불사약을 가진 선녀)의 거처인 곤륜산(崑崙山) 요지(瑤池)에서 열린 연회 장면을 그린 작품이며 총 여덟 폭의 병풍으로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옛 문헌인 『죽서기년(竹書紀年)』과 『목천자전(穆天子傳)』에 서왕모와 주목왕(周穆王, 주나라 목왕)의 연회에 군선(群仙)들이 초대되어 가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것입니다.

화면 중앙 4·5폭에 서왕모와 주목왕이 연회를 즐기는 장면이 담겨 있고, 7·8폭에는 요지를 향해 구름을 타거나 바다를 건너오는 불보살과 신선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화면 전체에 상징성이 담긴 인물들과 반도(蟠桃, 신선계의 복숭아)를 비롯한 동식물들이 고루 그려져 있으며, 신비감을 주는 구름과 기이한 형상의 암석, 바다의 물결 표현은 각 도상(미술 작품에 표현된 인물과 형상)들에게 자연스럽게 공간감을 줍니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1700~1850)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파노라마식 화면 구성에 청록의 화려한 채색기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장식적 효과가 강한 화원풍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그림은 궁중에서 좋아한 병풍그림 중 하나였으며, 화면구도나 포치법(늘어놓는 방법), 각 도상들의 구성을 볼 때, 왕실그림의 십장생도(十長生圖)와 불교그림의 감로탱화(甘露幀畵)와 많은 관련성이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선경도(仙境圖)’라고도 부르며, 신선사상 등 장수(長壽)와 현세기복(現世祈福)의 염원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탄생축하와 혼인용, 축수용(祝壽用) 병풍으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화승 경천이 그린 불화

135 보광사 신중탱화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64호
명 칭 | 보광사 신중탱화
분 류 | 회화 / 불교탱화
시 대 | 근대 / 개항기
지정(등록)일 | 2009. 11. 20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차인구유림로
177번길 71 보광사
소유자(소유단체) | 보광사
관리자(관리단체) | 보광사



보광사 신중탱화(사진 : 용인시)

〈보광사 신중탱화〉는 보광사 신도가 2000년에 서울 남도화랑에서 구입하여 2001년 보광사 주지 대운스님에게 시주한 것입니다. ‘신중’이란 부처님의 정법(正法)과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한 신들을 말합니다. 신중탱화는 토착신앙이 불교와 만나면서 등장했는데, 조선시대에 소재강복(消災降福,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내림)이라는 현세 이익이 부각되면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신중의 수는 중국의 토착신들과 우리나라의 토착신들까지 융합되면서 더욱 많아졌는데 인왕, 제석, 범천, 위태천, 천룡팔부중, 사천왕 등으로 일컬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중탱화는 18~19세기의 것이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광사 신중탱화〉는 제석·범천·천룡탱화의 도상구조인데, 상단부에는 범천과 제석천이 합장하고 마주보는 자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하단부에 묘사된 천룡탱화는 투구를 쓴 위태천을 중심으로 천룡과 팔부중, 사천왕 등 무장 신중들이 보입니다. 이런 형식은 신중탱화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도상이며, 범천과 제석천 옆에는 홀을 든 일궁천자(日宮天子)와 월궁천자(月宮天子), 주악천녀(奏樂天女), 천동(天童) 등의 천부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커다란 금강저를 짊고 정면을 보는 위태천 옆에는 무장인 천룡팔부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도 적지만, 도상의 구조가 단조롭지 않고 안정감 있게 그려졌습니다.

이 탱화는 화승 경천을 비롯한 비구 5명, 사미(沙彌) 2명이 그려다고 합니다. 제작연대는 일부러 지우고 그 위에 가경십칠년(嘉慶十七年, 1812)이라 썼으나, 실제로는 1847년(도광27년, 정미) 또는 1907년(광서33년, 정미)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신중탱화는 위태천 광배 일부가 덧칠해진 것을 제외하면 보존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탱화가 소장된 보광사는 성산로 역북터널을 통과한 후 유림로177번 길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순조의 셋째딸 덕온공주가 입었던 옷 136 덕온공주 당의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
 명 칭 | 덕온공주 당의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지정(등록)일 | 1964.12.07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덕온공주 당의(사진 : 문화재청)



덕온공주 당의 앞면과 뒷면(사진 : 문화재청)

덕온공주(1822~1844)는 조선 후기 순조(재위 1800~1834)의 셋째딸입니다. 덕온공주가 입었던 당의는 공주의 손녀인 윤백영이 저고리와 노리개, 원삼 등과 함께 아버지인 윤용구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일곱 살 되던 해에 대궐에 입궐하면서 자신의 몸에 맞게 고쳐 입었다고 합니다.

당의란 조선시대 궁중과 사대부 여인들이 저고리 위에 입던 예복으로, 모양은 저고리와 비슷하지만 앞과 뒤의 길이가 길고 옆이 터져 있는 옷입니다. 덕온공주 당의는 자주색 비단에 옷 전체에 금실로 수(壽)·복(福)이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공주가 혼인한 첫해(1837) 동짓날에 입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 전해옵니다.

이 당의는 입었던 사람이 덕온공주로 신분이 뚜렷하고, 연대가 확실한 왕실의 유물로서 조선 후기 상류층의 복식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1964년에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16세 때 혼인하면서 예복으로 입었던 옷

137 덕온공주 의복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11호
칭 칭 | 덕온공주 의복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지정(등록)일 | 1987.02.12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덕온공주 의복(사진 : 문화재청)



덕온공주 의복(사진 : 문화재청)

덕온공주(德溫公主:1822~1844)는 조선 23대 임금 순조(純祖)의 셋째 딸이며 순조 5년(1822) 6월 10일에 출생하여 헌종 3년(1837) 16세 때 남영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에게 하가(혼인)하였던 인물입니다. 헌종 10년(1844) 5월에 사망했는데, 당시 헌종 계비 간택에 참석했다가 먹은 음식이 잘못되어 급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공주는 임신 중이었고, 태아도 함께 사망하였습니다.

공주가 생전에 사용하였던 유물들은 윤용구의 딸인 윤백영(尹佰榮) 여사가 보관해 오다가 1960년대부터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석주선(1911~1996)교수에게 기증하였습니다. 현재 이 유물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적색 직금당의 1점은 1964년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 <덕온공주 당의> 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유물 일습은 복식 6점과 기타 수식류(머리에 꽂는 장식)와 생활용품 33점으로 나누어 1987년에 중요민속문화재 제211호와 제212호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211호 <덕온공주 의복> 은 원삼 1점, 당의 1점, 장옷 1점, 삼회장저고리 1점과 누비삼회장저고리 2점으로 총 6점이며, 구한말 궁중의 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유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온공주가 궁중에서 사용했던 생활용품

138 덕온공주 유물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12호
칭 칭 | 덕온공주 유물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일괄(33점)
지정(등록)일 | 1997. 12. 26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덕온공주 유물(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들은 덕온공주가 사용하였던 생활용품으로, 공주의 손녀인 윤백영으로부터 입수된 것입니다. 노리개, 수식류(머리 장식)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용품까지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에 공주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유물입니다.

유물의 종류로는 자라춤치노리개 1점, 땡기 4점(제비부리땡기1, 매개땡기2, 띠구지땡기1), 빗 8점(주철빗4, 화각빗4), 화장도구 6점(분첩2, 연지첩1, 도장1, 수건1, 소자1), 보자기 6점(노리개보3, 아청모시보1, 족두리보1, 날염보1), 재봉도구 2점(주단척1, 색형겹상자1), 기타류 6점(저울과 저울집 2, 국자 1, 패물선과 집 2, 화각모필 1) 등 총 6종 33점에 달합니다.

특히 공주 책봉 당시 사용하였던 제비부리 금박땡기와 가체¹⁾(加髻)를 착용할때 보조로 사용하는 자색 매개땡기 등은 당시 공주의 복식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또한 국자 자루 뒷면에 ‘덩유등츄더동궁길네 시고간이뉴사’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고, 저울 접시에 왕실의 어압(御押, 도장)이 음각되어 있어 왕실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로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가체 : 여자가 복식을 갖출 때 머리 술이 많아보이도록 하기 위해 올리는 땡은 머리

덕온공주가 혼인하던 날 항아가 입었던 당의

139 항아 당의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13호
명 칭 | 항아당의(姮娥唐衣)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일괄(33점)
지정(등록)일 | 1987.03.09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항아 당의(사진 : 문화재청)

이 당의는 순조의 셋째딸 덕온공주가 1837년 남녕위 윤의선과 혼인할 때 향아가 있었던 당의입니다. 향아란 본래 달에 산다는 선녀를 뜻하였지만 계례(여성의 성인식)를 치른 궁궐 나인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당의 안자락 안깃에 ‘형유등추길례시녀동궁 고간이류구’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형유’는 정유년(1837)이며, 녀동궁(저동궁)은 덕온공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옷은 정유년 공주의 길례(혼인)에서 향아가 입었던 예복으로 생각됩니다.

소재는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흑자색 명주에 분홍명주로 안을 넣은 겹옷입니다. 발기(궁중의 행사를 기록한 책자와 문서)에서 비자에게 제공된 ‘아청듀겹당저고리’도 흑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의는 깃 너비 9cm의 당코깃¹⁾이며 회장²⁾배래³⁾는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 끝에는 흰 한지로 만든 6cm 너비의 거들치⁴⁾를 달았습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당코깃 : 옷깃이 목판깃의 형태이나 앞 코가 둥글게 된 저고리

2) 회장 : 옷깃 뒷부분 중앙에서 소매 끝단까지의 길이

3) 배래 : 한복 소매의 아랫단

4) 거들치 : 소매 끝단에 덧댄 부분

17세 헌종의 혼례식 풍경

140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종 목 | 보물 제733-2호
 명 칭 |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憲宗嘉禮陳賀圖 屏風)
 분 류 | 회화 / 기록화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1좌
 지정(등록)일 | 2011.11.01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 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헌종가례진하도 병풍(사진 : 문화재청)

〈헌종가례진하도병풍〉은 1844년 조선조 제24대 왕인 헌종(憲宗, 1827~1849)이 효정왕후(孝定王后)와 가례(嘉禮, 혼례)를 치른 후 진하(축하) 장면을 여덟 첩(폭)으로 그린 궁중기록화입니다. 8세에 즉위한 헌종은 16세에 정비였던 효현왕후 김씨(孝顯王后, 1828~1843)를 잃었습니다. 이듬해 10월 18일 홍재룡의 딸을 계비 효정왕후로 책봉하였으며, 21일 신랑인 왕이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례(親迎禮)와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나눠 마시는 동뢰연(同牢宴)을 거행하였습니다.

〈헌종가례진하도병풍〉의 크기는 세로 51cm, 가로 115cm이며, 제1첩에는 예문관 제학 조병구(趙秉龜, 1801~1845)가 지어올린 ‘가례후진하 교시시반교문’이 쓰여 있습니다. 반교문이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그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표하는 글입니다.

제2첩에서 7첩까지 여섯 폭에는 창덕궁 인정전을 배경으로 진하례가 그려져 있는데, 효정왕후의 책봉, 가례, 진하가 치러진 장소는 경희궁(慶熙宮)이므로 이 그림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진하도 병풍에서는 실제 장소와 상관없이 늘 창덕궁 인정전이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그 까닭은 왕이 다른 궁궐에 살면서도 창덕궁 인정전을 가장 권위 있는 궁궐(정궁)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병풍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창덕궁 인정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각과 함께 산수, 수목, 사람과 말이 질서정연하고도 호화롭게 묘사된 가운데, 문무백관들이 질서정연하게 집결해 있습니다. 평행사선의 구도와 부감법(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표현한 궁궐 장면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으며, 국왕과 국체를 상징하는 의장을 총동원한 진하 장면은 조선왕실문화의 위엄과 화려한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습니다.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본(사진 : 문화재청)

제8첩에는 선전관청의 관원으로 구성된 ‘선전관 좌목’이 보입니다. 윤명(尹明, 1779~?)과 이희경(李熙庚, 1790~?)을 비롯하여 모두 25명의 선전관원들이 그려져 있으며, 각 인물들의 품계, 관직명, 생년, 과거급제년, 본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목으로 보아 이 병풍은 선전관들이 주도하여 헌종 가례와 진하를 기념하여 제작한 선전관청의 계병(나라의 큰 행사를 그림으로 그린 병풍)이라 할 수 있으며, 관행에 따라 이 병풍을 좌목에 들어 있는 선전관원 전원에게 하나씩 나눠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극세필과 진채(진하고 강한 채색)로 이루어진 대폭의 가례도는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167년 전의 궁중혼례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자료입니다.

〈헌종가례진하도병풍〉과 같은 내용의 그림이 동아대학교박물관 (1982년 보물 제733호로 지정)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각각 1점씩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 병풍은 밑그림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며, 각종 의장물이나 인물의 복식과 위치,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수효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표현 양식은 거의 같아서 제작 시기는 같은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박물관에 있는 〈헌종가례계진하도병풍〉은 조선후기의 왕실의 주요행사인 가례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입니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궁중행사도 계병들과 비교하면 예술적 완성도에서 약간 뒤지지만, 먼저 문화재로 지정된 ‘보물 제733-1호 〈헌종가례계진하도병풍〉’과 같은 필치 및 화풍을 보여주며, 상태는 오히려 더 좋은 편입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흙으로 빛은 불교 성자상

141 소조 독존나한상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61호
명 칭 | 소조 독존나한상
(塑造 獨尊羅漢像)
분 류 | 불교조각 / 나한상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2007. 06. 29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산33-25 서학사
소유자(소유단체) | 서학사
관리자(관리단체) | 서학사



소조 독존나한상

〈소조 독존나한상〉은 현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서학사 법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향토유적 제61호이며, 전체 높이는 45cm입니다. 소조불이란 제작 기법에서 흙으로 빚은 불상, 토불을 가리킵니다. 나한은 ‘아라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욕망의 사슬과 일체의 번뇌를 끊은 존재이며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無學)의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 이유로 나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는 성자이며 부처의 직계 제자와 역대의 수많은 고승대덕을 ‘나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한상은 조선 후기에 사찰의 중창과 중수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나한상은 10대 제자, 16나한, 18나한, 500나한 등으로 제작되며 하나의 나한상만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한상은 원래 여러 나한상 중 하나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학사 측의 말에 의하면, 1930년대에 어떤 보살이 이 나한상을 모셔 놓고 도량(절)을 세우기를 서원하여 서학사를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노인의 모습으로 제작된 이 나한상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약한 편이며, 옆에서 보면 L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생동감 있는 얼굴에 중품중생인의 수인을 짓고서 결가부좌하고 있습니다. 신체에는 홍색 법의가 걸쳐졌는데, 법의의 문양은 금채(金彩)여서 화사한 느낌을 줍니다. 뒷면은 평평하게 처리하였으며, 제작방식은 전통기법대로 벗짚을 섞은 진흙으로 두텁게 조성하였습니다.

소조 독존나한상이 모셔진 서학사로 가기 위해서는 처인구청후문사 거리에서 중부대로1424번길을 따라 남쪽으로 150m 가량 내려온 후 중부대로1440번길을 따라 동쪽으로 150m 정도 가면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집무할 때 입었던 평상복

142 흥선대원군 자적단령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14호
명 칭 |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
(興宣大院君 紫赤 團領)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1987.03.09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흥선대원군 자적 단령(사진 : 문화재청)



홍선대원군 자적 단령의 기린 흉배(사진: 문화재청)

이 유물은 홍선대원군 이하응(1820~1898)이 입었던 자주색 단령인데, 단령이란 집무를 볼 때 입던 평상복을 말합니다. 겉감은 자주색으로 둥근 깃이고, 안감은 붉은색으로 곧은 깃이며, 넓은 동정이 달려있습니다. 소매가 넓고 고름은 붉은색과 자주색을 짙으로 겹쳐 달아서 모두 4개가 양옆에 달려있습니다.

단령의 가슴 부분에는 기린 흉배가 붙어있는데, 기린 무늬는 대군의 신분 표시입니다. 이 흉배는 흑색의 공단에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았는데, 기린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바위와 물결무늬 등을 수놓고 위의 양옆에는 구름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옷의 크기로 보아 홍선대원군의 신체는 작은 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유품은 보존상태가 매우 좋고, 기린 흉배까지 포함되어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어 왕족의 복식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생각됩니다. 단령 형태가 겹단령에 소매가 넓은데, 이러한 복식은 고종 32년(1895) 이전에 입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비의 평소 옷차림을 보여주는 초상화

143 허전 초상



종 목 | 보물 제1728호
명 칭 | 허전 초상 (許傳 肖像)
분 류 | 회화 / 인물화
시 대 | 조선시대
수량 / 면적 | 1폭
지정(등록)일 | 2011.12.23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 박물관(상갈동)
소유자(소유단체) | 경기도지사
관리자(관리단체) | 경기도박물관

허전 초상(사진 : 문화재청)

조선 말기의 문신인 허전(1797~1886)의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이로(而老), 호는 성재(性齋)입니다. 그는 타고난 바탕이 영특하고 인품이 좋고 호탕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의 학문을 이어받아 『효경』을 먼저 읽었고, 실학자 이익(李瀾)으로부터 안정복(安鼎福)을 거쳐 황덕길(黃德吉)로 이어지는 학맥을 이어받아 기호(경기와 충청을 아울러 부르는 말) 남인학파에 속했고, 영남 퇴계학파를 계승한 유치명(柳致明, 1777~1861)과는 학문적으로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허전의 저서로는 『성재문집(性齋文集)』과 선비의 생활의식을 집대성한 『사의(士義)』, 『종요록(宗堯錄)』, 『철명편(哲命編)』이 있습니다.

〈허전초상〉은 얼굴을 모두 선묘(선으로만 그린 그림)로 표현하였는데, 피부의 결에 따라 선을 무수히 잇대어 그려 입체감을 나타내었습니다. 눈은 위 눈꺼풀이 늘어진 모습까지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눈초리가 매섭게 올라가 있어 노학자의 꾀꾀한 성품이 엿보입니다. 옷 주름 역시 선으로 묘사하고, 그 위에 짙은 회색 선으로 덧그려 음영을 처리하였습니다. 허전의 앞에는 책상이 놓여 있고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러한 점은 18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 구성으로 초상화 주인공의 신분과 취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허전 생존 당시 어명에 의해 그려졌다고 하므로 1886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 후기 초상화 중 유복(儒服: 심의深衣)을 입은 초상화의 전형적인 작품입니다.

허전을 그린 초상화에서는 흑관(黑冠: 검은색 관으로 유학자들이 평상시 쓰던 모자)을 쓰고 심의(深衣: 선비들이 입던 옷)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허전초상〉은 이택당(麗澤堂, 허전의 영정을 모신 곳) 안의 물산영당(勿山影堂, 초상화를 모셔놓은 건물)에 보존되어 오다가 2008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소장처인 경기도박물관은 상갈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 심동신이 입었던 당상관용 조복

144 심동신 금관조복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호
명 칭 | 심동신 금관조복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19세기)
지정(등록)일 | 1964.12.07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심동신 금관조복(사진 : 문화재청)

심동신(1824~?)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이 유물은 그가 입었던 조복입니다. 조복이란 문신과 무신들이 동지와 설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지낼 때 입었던 옷으로 ‘금관조복’이라고도 하였습니니다. 〈심동신 금관조복〉으로 명명된 이 유물은 금관, 적초의, 적상, 청초의(청초중단), 운학금환수, 패옥, 서대, 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관은 5개의 금색선이 붙여진 오량관이며 나무비녀로 고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조복인 적초의는 날씨가 더울 때 쓰는 향라(모시)로 만든 붉은색의 홑옷으로, 깃은 직선이고 넓은 동정이 달렸으며 소매가 넓고 양옆이 트였습니다. 청초의는 조복인 적초의 안에 입는 옷으로 ‘중단’이라는 청색 명주로 만든 홑옷입니다. 직선의 깃에 동정이 있고 소매부리와 도련 등에 검은 선이 둘러져 있는 형태입니다. 적상(치마)은 조복인 적초의와 같이 향라로 만들었으며, 전체를 잔주름으로 처리하였고 앞 3폭, 뒤 4폭의 양식으로 앞면이 뒷면보다 좁게 되어 있습니다. 운학금환수는 후수를 말하는데 큰 대와 함께 달려 있으며 붉은색 바탕에 파란색, 노란색, 흰색의 세 가지 색으로 구름과 학을 수놓았습니다. 윗부분 양쪽에는 금환 2개가 달려 있습니다. 패옥은 조복을 입을 때 허리 양 옆에 하나씩 달아 늘어뜨리던 장신구로 한 쌍이 온전히 남아있으며, 위에는 낫쇠로 된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서대는 조복에 쓰던 허리띠이고, 홀은 조복을 입을 때 양손에 쥐어 예를 표시하던 물건으로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심동신 금관조복은 1890년대를 전후한 구한말의 유품으로 부속품까지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복식사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유혹을 뿌리치고 산에 들어간 구한말 대신

145 윤용구 유물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16호
명 칭 | 윤용구 유물 (尹用求 遺物)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일괄(4점)
지정(등록)일 | 1987.03.09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윤용구 유물(사진 : 문화재청)

윤용구(1853~1939)는 조선시대 말과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문신이자 서화가이며, 본관은 해평입니다. 1871년(고종 8) 정시문과에 급제한 뒤 예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1895년 을미사변¹⁾ 뒤로 법부·탁지부·내무부 대신으로 수십 차례 부름을 받았지만 취임하지 않고 서울 근교 장위산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호를 ‘장위산인’이라 하였습니다. 한일병합 직후 일본 제국 정부가 그에게 남작 칭호를 내렸으나 거절하였고, 서화와 거문고, 바둑으로 날을 보내며 세상일을 멀리하였던 인물입니다. 남긴 그림으로는 〈묵죽〉(간송미술관 소장) 등이 있습니다.

〈윤용구 유물〉은 중요민속문화재 제216호로 지정되었는데, 이 유물은 관복 1점, 상의와 하의를 따로 구성하여 허리에 연결시킨 특이한 형태의 옷인 철릭 1점, 두루마기와 비슷하지만 뒤가 트인 옷인 동달이(전복 안에 입는 옷) 1점, 명주실을 여러 겹 꼬아 납작하게 짠 끈인 광다회 1점 등 총 4점입니다.

관복의 길감은 짙은 청색의 비단으로 둥근 깃의 단령이며, 안감은 남색 비단으로 곧은 깃의 직령입니다. 깃에는 넓은 동정이 달려있고 소매의 통이 크며 흥배는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릭은 청색 구름무늬 비단의 홑옷입니다. 곧은 깃으로 된 직령이며, 동정이 있고 소매는 통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원 소매는 단추로 연결되어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 활동에 편리하며, 주름 잡힌 넓은 치마부분이 허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다회는 철릭에 매는 띠로 홍색 명주실로 짰습니다. 동달이는 전복에 갖추어 입는 옷이며,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소매로 되어있습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을미사변(乙未事變) : 1895년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주동으로 일본 자객들이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조선시대에 많은 인재를 길러냈던 요람 146 용인향교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1호
명 칭 | 용인향교 (龍仁鄉校)
분 류 | 교육기관 / 향교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 / 면 적 | 1곽
지정(등록)일 | 1986. 5. 31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335 용인향교
소유자(소유단체) | (재단법인) 경기도향교재단
관리자(관리단체) | (재단법인) 경기도향교재단



용인향교 전경



용인향교 명륜당

향교는 조선시대에 지방에 세운 국립 교육기관입니다. 용인향교는 1400년(정종 2)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용인’이란 지명이 1414년(태종 14)에 생겼으므로 그 이후에 창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986년에 용인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용인읍지』에 따르면, 용인향교는 자좌오향(子坐午向: 정남향)의 좌향²⁾이며 홍살문과 외삼문의 진입 영역, 명륜당과 동서재의 강학 영역, 전사청·제기고·내삼문·대성전 제향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홍살문과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과 대성전만 남아 있습니다. 용인은 조선시대에 생원·진사 139명과 문과 53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는데, 용인향교는 충렬서원·심곡서원·한천정사(도암 이재가 지은 사교육기관)와 함께 급제자 배출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 1) 조선왕조실록 태종실록 12책 28권, 갑오년(태종 14) 8월 21일(신유) 4번째 기사에 용구와 처인을 병합하여 용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
- 2) 12간지에 따라 건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순서이며 자좌는 건축물이 정북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향은 정남을 향하여 건립되었다는 의미



용인향교 명륜당 정면

건물 배치를 살펴보면 교육 관련 건물을 앞에 배치하고, 제사 관련 건물을 뒤에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입니다. 팔작지붕으로 된 명륜당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인데, 일반적인 향교 건축과 달리 정면이 아니라 배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명륜당은 좌우측으로 방을 두었고 가운데 6칸에는 대청마루를 설치하였으며 마루 뒤편으로 판장문을 달았습니다.

맞배지붕인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기둥 위에 물익공 양식의 공포를 올리고 단청을 칠하여 위엄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춧돌은 넓고 평평한 사각형 초석이나 기둥은 원기둥을 세웠습니다.

외삼문과 내삼문은 각각 3칸의 솟을삼문 형식이며 단청을 칠하여 향교 공간으로서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삼문과 내삼문의 기둥 위에는 익공을 올렸고 상인방과 도리 사이에 소로를 끼우는 소로수장을 통해 격식을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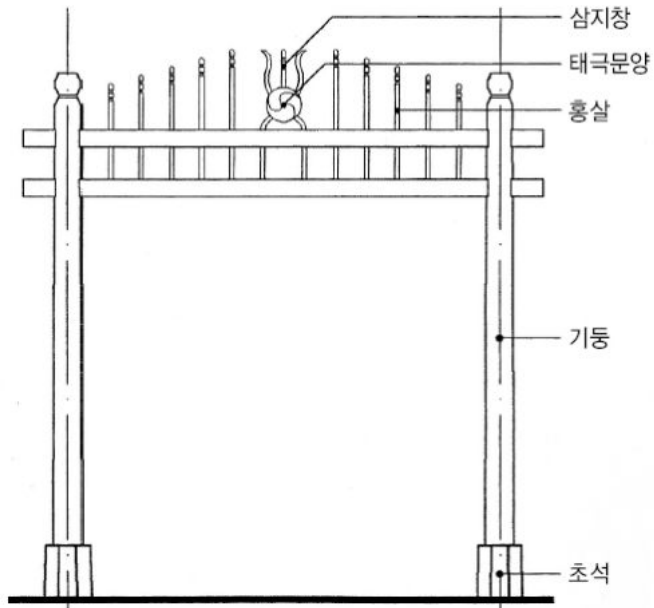
용인향교 대성전

용인향교는 본디 마북리 구교동에 있었는데, 구교동이라는 명칭이 본래 향교가 있었던 동네라는 뜻입니다. 1894년(고종 31)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는데, 그 뒤로 교육 기능은 중단하고 문묘의 향사만 받아들여왔습니다.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삼문이 소실되어 주춧돌만 남아 있었던 것을 복원하였으며, 명륜당 역시 1960년대에 복원한 것입니다. 2000년부터는 충효교육관을 지어 한자 교육,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향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데, 구성동 주민센터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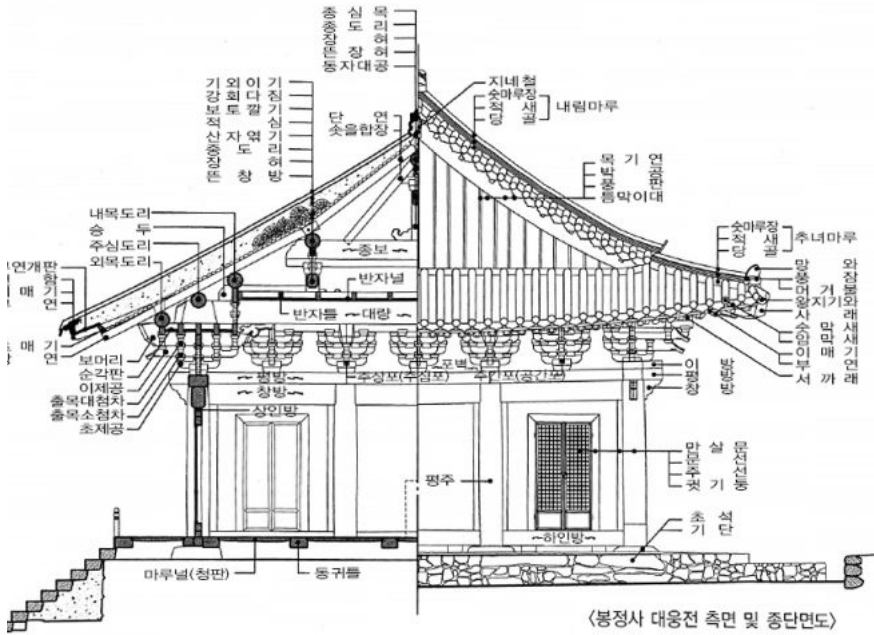
<홍살문의 구조와 부분별 명칭>

(자료 : 문화재청)



<한국 전통건축의 구조와 부분별 명칭>

(자료 : 문화재청)



화승 연허당 병규가 그린 산신도 147 장경사 산신탱화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62호
명 칭 | 장경사 산신탱화
(長庚寺 山神幀畵)
분 류 | 회화 / 불교탱화
시 대 | 근대/개항기
수 량/면적 | 가로 80cm, 세로 94cm
자정(등록)일 | 2009.03.04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로130번길 11-25
소유자(소유단체) | 장경사



장경사 산신탱화(사진 : 용인시)

〈장경사 산신탕화〉는 용인시 향토유적 제62호이며, 크기는 가로 80cm, 세로 94cm 입니다. 산신(山神)은 자식을 점지해주고 그 생명을 악귀로부터 보호하여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이며, 불교에서는 호법신신으로 불리면서 사찰 내 산신각, 산왕각, 또는 삼성각에 배치됩니다.

이 탕화에는 산신과 호랑이, 동자 두 명이 그려져 있으며, 목면에 채색한 것입니다. 형태의 윤곽선을 따라 채색을 벗겨 낸 흔적이 많은데, 예를 들면 황색 호랑이는 흰색이 일부 남아있어 원래 백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굵히고 깎인 자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를 데리고 앉아 있는 산신은 흰 수염과 백발의 노인입니다. 얼굴은 둥근 편으로 선 주위에 음영을 표시하여 초상화를 보는 듯합니다. 두 어깨에는 도포식의 붉은 옷을 걸치고, 자연스럽게 앉아 왼쪽 무릎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호랑이를 쓰다듬고 왼손은 불로초를 들고 있습니다.

산신의 뒤쪽에는 두 동자가 공양물과 천도복숭아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 옆 푸른 바위 위에는 붉은색과 흰색의 불로초가, 상단에는 소나무 가지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으며, 19세기 후반 불화에 많이 쓰인 적색과 청색이 주요 색상입니다.

이 산신도는 19세기 활동한 연허당 병규가 1897년에 아기의 수명장수를 목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제작자와 제작연월일, 봉안 장소, 제작 동기 등이 뚜렷하기 때문에 산신탕화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산신탕화가 소장된 장경사는 학일1리 경로회관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평상복으로 입었던 옷

148 고종의 누비저고리

종 목 | 중요민속문화재 제210호
명 칭 | 고종의 누비저고리
(高宗의 縷緋저고리)
분 류 | 복식공예 / 의복
시 대 | 조선시대
지정(등록)일 | 1987.02.12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고종의 누비저고리(사진 : 문화재청)

이 유물은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이 평상복으로 입던 누비저고리입니다. 고종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昞應)의 둘째 아들이며, 철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누비저고리는 고종의 질녀(姪女)인 안동김씨 김인규(金仁奎) 부인이 입궐하였다가 왕실에서 하사받은 유물입니다.

자적색 구름무늬 숙사(熟紗, 삶은 명주실) 겹감과 흰색 명주 안감을 겹쳐 놓은 후 0.3~0.5cm 간격으로 정교하게 누빈 잔누비(細樓緋) 저고리로서, 잘게 누빈 누비선에 풀을 칠하고 인두로 다려 마치 코듀로이 직물처럼 입체적인 느낌을 보였는데, 이러한 누비형태를 오목누비라고 하였습니다.

옷 고름은 누비지 않았고, 동정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만 깃 부분의 누비 간격이 몸판보다 넓고 바느질도 성글게 되어 있어서 동정을 달았던 위치로 추정됩니다. 겹감은 일정한 크기의 작은 구름무늬(운문) 사이에 박쥐문으로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문양의 옷감이 고종의 후궁이었던 광화당의 원삼(중요민속문화재 제52호)에도 사용되어 눈길을 끕니다.

겹깃의 모양은 둥근 반달깃 형태이며 안깃은 목판깃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저고리 형태입니다. 길이는 57.5cm이며 화장 80.5cm 품 49cm이며, 진동에서 수구에 이르는 배래선이 완만한 곡선을 보입니다. 국말의 왕실유물들이 대부분 예복 중심의 유물들임에 반해 이 옷은 평상복으로 고종이 입었던 옷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렬서원의 역대 원장을 적은 책첩

149 충렬서원 선생안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27호
명 칭 | 충렬서원 선생안
(忠烈書院 先生案)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
시 대 | 조선 후기
지정(등록)일 | 1992. 10. 12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79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소유자(소유단체) | 충렬서원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충렬서원 선생안(사진 : 용인시)

서낭당 역할을 하는 돌무지와 느티나무

150 운학동 돌무지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42호
명 칭 | 운학동 돌무지
(雲鶴洞 돌무지)
분 류 | 민간신앙 / 마을신앙
시 대 | 조선시대
수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97. 12. 10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141



운학동 돌무지 전경



운학동 돌무지

운학동의 중간말이 끝나는 곳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옆에 크고 작은 돌이 무덤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용인시 향토유적 제 42호로 지정된 운학동 돌무지입니다. 이 돌무지와 느티나무는 서낭당(성황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돌무지의 돌들은 10~40cm 정도 되는 잡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의 넓이는 직경 370cm, 높이 200cm 정도입니다. 돌무지 앞에는 최근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습니다.

돌무지 옆 안내판에는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이곳의 느티나무 아래 제단을 차리고 매년 10월 제를 올리며 매우 신성시하는 곳입니다’라는 안내 글이 담겨 있습니다.



운학동 돌무지 옆 느티나무

운학동 돌무지는 앞쪽에 국사봉을 마주하고 있으며 마을 앞산인 석화산 하단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돌방무덤과 비교해 볼때 돌무지 무덤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형적인 서낭당의 형식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본래 운학동 돌무지가 형성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려우나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구역이고, 또한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무덤이라기 보다는 서낭당으로 활용되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학동 돌무지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길

운학동 돌무지는 운학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 후문을 지나 동부로 465번길을 따라 100m 이동 후 운학로에 합류하여 900m 가량 이동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태교에 대한 책을 남긴 여성의 묘 151 이사주당 · 유한규모

종 목		용인시 향토유적 제67호
칭 칭		이사주당·유한규모
분 류		무덤/봉토분
시 대		조선시대
수 량/면적		1기
지정(등록)일		2016. 01. 06
소 재 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산85



이사주당·유한규모(사진 : 용인시)

이사주당(1739~1821)의 조부는 이함부(李咸溥), 부친은 통덕랑을 지낸 이창식(李昌植)입니다. 유한규(柳漢奎)와 혼인하였으나 부군은 17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사주당은 목천 현감으로 재직한 유한규의 네번째 부인이고 1남 3녀를 낳았는데, 그녀는 현재의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와 매산리 일대에서 한평생을 보내며 아들 유희(柳僖)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서삼경과 『가례』, 『소학』 등에 밝아 상사(上舍) 이면눌(李勉訥)과 감역(監役) 이양연(李亮淵)이 사주당에게 가르침을 청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주당은 유언으로 『태교신기(胎教新記)』 이외의 모든 글을 불사르도록 하였습니다.

『태교신기』는 사주당이 읽은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및 의서(醫書)에서 태교 관련 이야기를 뽑아 정리하고, 몸소 네 명의 자식을 낳아 기른 경험을 토대로 저술하였습니다. 본래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주당의 아들 유희가 한글로 번역하고 발문을 써서 1801년에 완성했다고 하며, 1936년 정인보가 경남 예천의 소장본을 얻어 보고 해제를 작성하여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책은 태교의 이념과 원리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담고 있는 태교 전문서라는 점에서 다른 태교 관련 서적과 차별화됩니다.

이사주당·유한규의 묘에는 봉분과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원래 봉분만 조성되었으나 후손이 석물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상석 측면에는 소화 신사년(1941)에 5세손 내익과 현손 운영이 석물을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주당·유한규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생회관 건물 뒤편에서 남쪽 산길을 따라 약 300m 진입하면 위치하고 있습니다.

5

근대문화유산



을사조약의 파기를 요구하며 자결한 민영환의 묘 152 민영환 선생 묘

종 목 | 경기도 기념물 제18호
 명 칭 | 민영환선생묘 (閔泳煥先生墓)
 분 류 | 무덤/봉토분
 시 대 | 조선시대
 수 량/면적 | 1기
 지정(등록)일 | 1973.07.10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산36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용인시
 관리자(관리단체) | 용인시



민영환 선생 묘 전경

- 1) 을사조약 : 을사보호조약, 또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며,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황제가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대한제국 대신들을 강제로 협박하여 외교권을 포기하고 통감부를 설치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에 날인하도록 하였음

이 곳은 1905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에 항거하여 자결한 민영환 (1861~1905)을 모신 묘입니다. 본래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마을에 있었으나, 1942년에 후손들이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민영환은 구한말의 대신이고, 고종 15년(1878)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 한성부판윤, 주미전권대사 등을 거쳤습니다. 1896년에는 특명전권공사(외교관의 하나인 공사의 정식 명칭)로 임명되어 러시아·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을 방문하여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제도와 근대화한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 독립협회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을 시도했으며, 친일 각료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일본의 내정간섭을 비판하였습니다.

일본이 을사조약(1905)¹⁾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자 의정대신 조병세 등과 함께 조약에 찬동한 을사오적²⁾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죽음으로 항거하기 위해 대한제국 백성들과 각국 공사, 그리고 고종 황제에게 고하는 3통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자결하였습니다. 이 유서는 그의 유품과 함께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습니다.

봉분 뒤쪽에 사성(莎城)이라고 하는 높은 둔덕을 쌓고 그 위에 담을 설치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봉분 앞 좌우로 문인석 한 쌍이 있고 우측으로는 묘비가 서 있습니다. 묘역의 입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을 새긴 신도비가 서 있습니다.

민영환 선생 묘는 구성초등학교 뒤편 산 기슭의 마북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2) 을사오적 : 을사조약에 찬동한 5명의 대신으로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부대신 권중현을 일컬음

〈한일신협약〉 체결에 울분을 토하며 순절한 용인 인물 153 이한응 열사 묘소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49호
명 칭 | 이한응 열사 묘소
(李漢應 烈士 墓所)
분 류 | 무덤 / 봉토분
시 대 | 1905년 (광무 9)
지정(등록)일 | 1999. 7. 14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이등면 덕성리
산70-1
소유자(소유단체) | 개인



이한응 열사 묘소 전경

이한응(1874~1905) 열사는 대한제국 고종 때의 외교관으로 기울어 가는 나라를 보다 못해 스스로 자결한 인물입니다. 그는 처인구 이동면에서 태어났고, 16세 때 관립영어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21세 때 성균관 진사시험에 합격했고 28세 때인 1901년 3월 주한 영국·벨기에 양국공사관의 참사관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공사 민영돈 대신 특별서리공사가 되어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활약하며 대한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 애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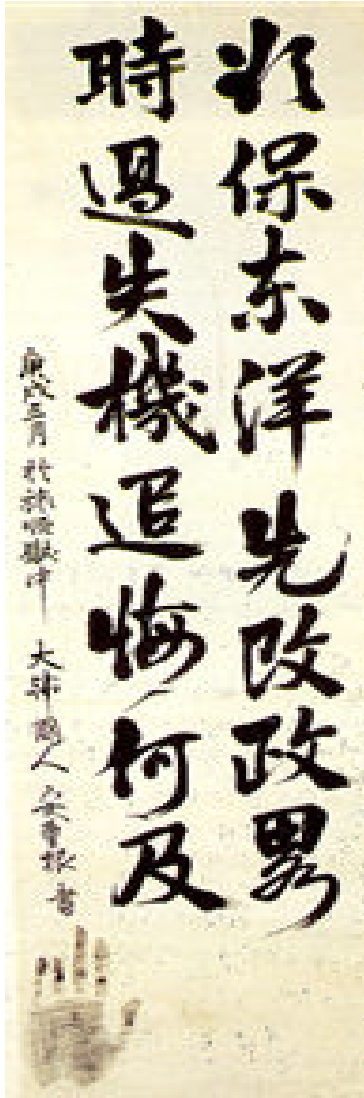
그러나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탄하기 위해 강제 조약을 맺자 울분을 토하며, 마침내 1905년 봄에 유서를 남기고 32세에 영국에서 순절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일제는 한국을 병탄하기 위해 마지막 조치로 7개항의 불평등한 조약(한일신협약, 혹은 정미7조약이라고도 함)을 강제로 맺었습니다.

고종황제는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하며 제문을 보냈고, 많은 애국지사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민영환 열사의 순절이 이어졌고, 2년 뒤 이준 열사의 헤이그 순절이 이어졌습니다.

이한응 열사의 유해는 1905년 7월 고향인 용인에 안장되었습니다. 고종은 그를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내부협판에 추서했으며, 위패는 장춘단에 모셔졌습니다. 용인시 이동면에 위치한 묘소에는 1965년에 설치한 상석과 망주석·묘비 등이 있습니다. 봉분 뒤편으로 둥글게 담장을 둘러했으며 좌우로 망주석을 세워 묘역 공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해오는 유품으로 친필유서·일지 등이 있습니다.

이한응 열사의 묘소는 이동면 덕성리에 있는데, 덕성3리입구교차로에서 백옥대로320번길을 따라 동쪽으로 약 300m 진입한 후 좌측의 농로를 따라 200m 정도 들어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제 통치자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 154 안중근 의사 유묵



안중근의사 유묵(사진 : 문화재청)

종 목 | 보물 제569-21호
명 칭 | 안중근의사 유묵
(安重根義士 遺墨)
분 류 | 기록유산 / 서예
시 대 | 대한제국시대
지정(등록)일 | 1991.07.12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관리자(관리단체)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안중근 의사는 황해도 해주 출신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아버지가 황해감사의 요청으로 산포군을 조직하여 동학군을 진압하려고 나서자 함께 따라나섰는데, 그때가 열여섯 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선이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자 독립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06년에는 삼흥학교를 설립하고, 돈의학교를 인수하여 민족의식 교육에 전념하였고, 의병이 되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여 일본군 정찰대를 공격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도착했을 때 그는 권총을 쏘 3발을 명중시켰습니다. 이후 여순감옥에 수감된 그는 1910년 3월 26일 형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이 유물 ‘안중근의사 유묵’은 여순 감옥에 근무하던 일본인 교도관 오리다 가미(折田 督)가 안중근 의사한테 받아 간직해온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오리다는 일본으로 돌아가 조카인 오리다 간지(折田 幹二)에게 이 유물을 상속하였고, 그 뒤로 1989년 2월 20일 단국대학교에 기증되었습니다. 안중근의사 유묵의 내용인 ‘육보동양선개정 제시과실기추회하급(欲保東洋先改政界時過失機追悔何及)’은 “동양을 보존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침략정책을 버려야 한다. 때가 지나고 기회를 잃으면 후회한들 무엇하랴!”라는 뜻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 갇혀서도 일제 당국을 향해 침략정책의 잘못을 고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일본인 집정자들의 각성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유묵의 크기는 세로 100.3cm, 가로 23cm이며, 종이 재질은 중국 안위성 선성현에서 만든 선지(宣紙)이고, 글씨(반초서)로 2행 16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왼쪽에 “경술삼월(庚戌三月, 1910년 3월) 여순옥중(旅順獄中) 대한국인(大韓國人) 안중근서(安重根書)”라고 묵으로 쓴 글씨와 장인(掌印: 손바닥으로 찍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대기 한국이 낳은 천재 작곡가

155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종 목 | 등록문화재 제479호
칭 칭 |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洪蘭坡 童謠 樂譜 原版)
분 류 | 등록문화재
시 대 | 근대
수량/면적 | 1식(51개)
지정(등록)일 | 2011.10.17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사진 : 문화재청)

홍난파(1898~1941)는 경기도 남양군 둔지곶면(지금의 화성시 활초동)에서 태어났으며, 작곡가·바이올린 연주자·지휘자입니다. 1912년 14세 때 YMCA 중학부에 들어가서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음악기관인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과에 입학하여 김인식한테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1917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동경음악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다가 재일 유학생들의 항일운동에 함께 하였고, 귀국한 뒤로 대한매일신보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첫 창작곡집 『처녀혼』을 발표하였습니다.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은 그가 작곡한 동요집 『조선동요백곡집』을 발간할 때 사용한 인쇄 원판입니다. 나무 위에 오선보를 새긴 금속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50곡 중 〈달 마중〉을 제외한 49곡에 해당하는 원판 51개가 남아있습니다.

홍난파는 1929년에 〈조선동요 백곡집 제1편〉을 등사본으로 발간하였고, 1930년~1931년에 〈조선동요 백곡집 상편〉, 1933년에는 〈조선동요 백곡집〉을 발행하였는데, 이 악보 원판은 〈조선동요 백곡집〉과 삽화, 쪽수, 악보체, 가사 등이 일치합니다.

그의 대표작은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 〈풍당 풍당〉, 〈하모니카〉, 〈작은 별〉 등인데, 이 노래들은 한국창작동요를 상징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 악보 원판은 우리나라 근대기 동요와 음악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생각됩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어’로 불린 화승 보응의 작품 156 치성광여래도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58-1호
명 칭 | 치성광여래도
(熾盛光如來圖)
분 류 | 회화 / 불화
시 대 | 1938년
수량/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2007. 3. 30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군곡리 331-5
소유자(소유단체) | 광제사
관리자(관리단체) | 광제사



치성광여래도(사진 : 용인시)

광제사에 있는 〈치성광여래도〉는 용인시 향토유적 제58-1호이며, 북두칠성을 불교의 호법신으로 받아들여서 여래의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그린 불화입니다. ‘금어’(불상, 탕화, 단청의 세 가지를 다 그리는 사람을 일컫는 명칭)로 불렸던 보응스님의 1938년 작품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일월상과 함께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고대인들은 북두칠성을 죽은 이의 영혼을 내세로 인도하는 길잡이로 생각했습니다. 불교는 밀교의 영향으로 점성술을 받아들였고, 도교의 영향으로 일월성신(日月星辰)을 부처로 의인화하여 신앙화하였습니다.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여래로 묘사한 치성광여래(칠성의 주불)와 함께 재앙을 물리치고 질병을 다스리며 득남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치성광여래도로는 고려시대의 것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송유역불 정책 속에서도 소격서(도교의 제사를 맡은 관아)에서 북두칠성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칠성신앙이 이어졌습니다. 조선 전기의 칠성도에는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치성광여래왕림도〉(1569)처럼 치성광여래와 그를 둘러싼 천체의 별들을 함께 그렸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불교가 민간신앙과 결합하면서 칠성신앙이 확산되었는데, 조선 후기 사찰에 칠성각이 생겨나는 것을 그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광제사의 치성광여래도는 왼손에 금륜을 든 치성광여래를 중앙에 배치하고 왼쪽에 일광보살, 오른쪽에 월광보살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림의 상단에는 여덟 명의 신선이 있고, 치성광여래 밑에는 능선으로 반원을 그리고 도인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치성광여래도의 아래쪽에는 ‘세존 2965 12월 28일 경성 돈암정 흥천사 조성’이라는 기록과 ‘송주비구¹⁾운성, 금어비구 선허 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치성광여래도를 소장하고 있는 광제사는 영곡사거리에서 고당-수산간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900m 가량 이동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1) 송주비구 : 불화를 그릴 때 불경을 외운 승려

불법을 지키려는 신중들을 그린 불화

157 신중도



종 목 | 용인시향토유적 제58-2호
명 칭 | 신중도(神衆圖)
분 류 | 회화 / 불화
시 대 | 1938년
수 량 / 면적 | 1점
지정(등록)일 | 2007. 3. 30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331-5
소유자(소유단체) | 광제사
관리자(관리단체) | 광제사

신중도(사진 : 용인시)

신중도는 불교탱화의 하나로 불교의 호법(불법수호) 정신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뒤로 불교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제석천¹⁾과 위태천²⁾같은 신중들 외에 시왕신·칠성신·산신 같은 토속신들이 불교의 신중이 되었는데, 그들을 그린 그림이 ‘신중도’입니다.

이 불화는 19세기 이후의 신중도상을 충실히 따랐는데, 색채는 적색과 청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탱화의 왼쪽 위 신중은 제석천이고 오른쪽 신중은 위태천입니다. 하단에는 무장한 팔부신중(불법을 수호하고 대중을 교화하는 신장으로 천, 용, 야차, 아수라, 건달바, 긴나라, 가루라, 마후라가)이 그려져 있고 상단에는 동자상을 그려 놓았습니다. 1950년대 이전 우리나라 근대기 불교 그림의 대가였던 화승 보응의 작품입니다.

제작 연도는 1938년인데, 광제사에 있는 〈치성광여래도〉와 같은 시기에 그려졌으며, 경성 돈암정 흥천사에서 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탱화를 그리는데 참여한 시주자인 엄봉현 외 10여 명의 명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신중도는 치성광여래도와 함께 용인 광제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 제석천 : 힌두교의 인드라를 불교에서 신으로 받아들인 것

2) 위태천 : 위타천이라고도 하며 브라만교의 스칸다를 불교에서 신으로 받아들인 것

어린이 그림 같은 독특한 화풍을 남긴 서양화가 158 용인 장욱진 가옥

종 목 | 등록문화재 제404호
명 칭 | 용인 장욱진 가옥
(龍仁 張旭鎭 家屋)
분 류 | 유적건조물/가옥
수량/면적 | 한옥 2동, 양옥 1동
지정(등록)일 | 2008. 09. 17
소재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38, 243-5번지,
244-2번지
소유자(소유단체) | 한옥:장욱진미술문화재단
양옥:개인
관리자(관리단체) | (재)장욱진 미술문화재단



장욱진 작, <자동차 있는 풍경>

장욱진(1917~1990)은 우리나라의 1세대 서양화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서양화를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마치 어린이 그림 같고 동화책의 그림 같기도 하면서 표현의 세련성과 조형적 구성이 치밀한 그림을 그렸고, 독특한 화풍을 보여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주제 요소는 시골의 초가집·기와집·남녀노소·강아지·소·새·산·나무·해와 달 등이었으며, 이러한 주제들을 자유롭게 또는 어린이 마음 같으면서 해학적으로 그려 자신만의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용인 장욱진 가옥〉은 등록문화재 제404호로 지정되었는데, 장욱진 화백이 1986년부터 작고할 때까지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한 곳입니다. 안채와 사랑채, 광채로 구성된 한옥과 벽돌로 지은 양옥 1채이며, 기흥구 마북동 243-5에 있습니다. 장욱진 화백이 이주하였던 1980년대의 이 지역은 집 앞에 야트막한 동산이 있고 주변에 개울이 흐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옥은 경기도 서민 가옥의 기본 모양을 따른 튼 ‘口’자형이며, 장욱진 화백이 원래 초가집이었던 이곳을 직접 수리하여 작업실과 거주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건물의 골조는 한식으로 되어있지만 지붕에는 수키와와 암키와가 하나로 되어있는 일식기와가 올려져 있습니다. 원래 가옥이 초가로 지어졌으므로 가옥을 이루는 구조와 부재의 크기 면에서 전통기와의 무게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식 개량기와를 올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깥채는 ㄱ자 형으로 되어 있으며 사랑채와 광채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채는 대들보 위에 대공을 올리고 중도리를 2개 올린 후 두 도리 사이를 평평하게 처리한 사랑가 형식입니다. 정면 2칸, 측면 1칸 반



장육진 가옥 사랑채

규모이며, 정면에 툇마루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채와 이어지는 광채는 도리가 3개인 삼량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채는 바깥채와 서로 마주보도록 L자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부엌은 지붕의 높이가 높은 오량가 구조로 되어 있으며 건넌방은 높이가 낮은 사랑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랑채의 사랑가 구조는 좌우 대칭인 평사랑 구조인데 반해, 안채 건넌방의 경우 방 중심의 종도리를 기준으로 앞쪽에 기둥 상단의 주심도리와 툇마루 끝의 도리를 두고 뒤쪽에 한 개의 주심도리를 둔 비대칭 사랑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가 형식은 민가에서 볼 수 있는 지붕 구조인데 현재 장육진 가옥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양옥은 1953년에 그린 자신의 작품 <자동차 있는 풍경>의 벽돌집을 바탕으로 장육진 화백이 직접 구상하고 손수 지은 집으로, 작가의 미술 세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로 평가됩니다. 1989년에 신축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벽돌집이며,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으



장육진 가옥 양옥

로도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외부는 적벽돌 치장쌓기로 마감되어 있으며,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을 올렸고 처마에는 동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지하층에는 서재, 부엌, 창고, 보일러실 등이 있고, 건물 내부 계단이나 뒤뜰의 옥외 계단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양옥 1층에는 침실, 욕실, 응접실, 식당, 주방을 두었으며,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난로를 설치하였고 응접실에는 대리석을 깔았습니다. 2층은 작업실로 꾸며졌으며, 작업실 북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그림을 그리는 도중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옥과 양옥 이외에도 부속채로 관어정이라는 이름의 정자와 한옥 일부를 개수한 집운헌이라는 찾집이 있습니다.

용인 장육진 가옥은 구성동 주민센터에서 마북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600m 올라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조광조가 학문을 논하던 조선 전기의 정자

159 사은정

종 목 | 용인시 향토유적 제50호
명 칭 | 사은정(四隱亭)
분 류 | 유적건조물 / 가옥
시 대 | 조선시대(현대에 복원)
수량/면적 | 정면 3칸, 측면2칸
지정(등록)일 | 2001. 3. 17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61(지곡동 615)
소유자(소유단체) | 한산이씨, 한양조씨 종중
관리자(관리단체) | 한산이씨, 한양조씨 종중



사은정 전경



사은정 정면

본래 사은정은 중종 때의 명현인 정암 조광조, 방은 조광보, 회곡 조광좌, 음애 이자 등이 모여 학문을 논하고 후학을 기르던 유서 깊은 정자입니다. 정범조(鄭範祖, 조선 후기 문신)가 지은 「사은정기」를 보면, 사은정은 조광조가 도를 강학하던 곳인데, ‘정자는 구성의 치소와 남쪽 취봉과 보개산 중간에 있다. 높은 벽과 층층한 바위 맑은 시내와 구부러진 물의 승경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위치는 지금의 지곡리 입구 두암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자 이름에 ‘隱’(숨길 은)자를 쓴 것은 ‘숨어서 농사짓고, 숨어서 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음애 이자는 조수재에게 보낸 글에서 ‘정암·방은·회곡 형제와 음애가 도의로 사귀어 맺어 서로 함께 즐거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四隱’을 ‘네 가지 즐거움’이라 밝혔는데, 농사짓기(耕)·나무하기(薪)·남시질(釣)·나물캐기(菜)가 그것입니다.



사은정 내부의 지붕가구와 기록

사은정은 신진사류의 대표주자였던 조광조와 혈기 왕성한 사림 인사들이 왕도정치를 꿈꾸던 요람이며 그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유적입니다. 16세기 초부터 많은 묵객들이 다녀간 유서 깊은 곳이며 <사은정 중수기>에는 문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차츰 퇴락하였다가 1876년(고종13)에 정암, 음애, 회곡 선생의 후손들이 힘을 합쳐 정자를 중건하였는데 서재를 다시 지었고 방을 만들고 단청도 새로 칠했다고 합니다. 이후 1925년에 다시 중건하였습니다.



사은정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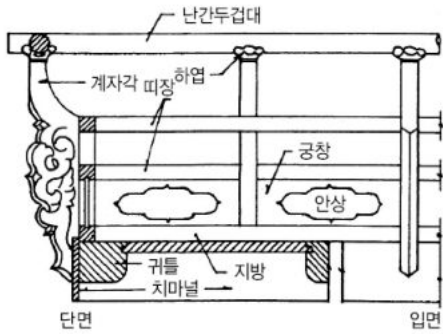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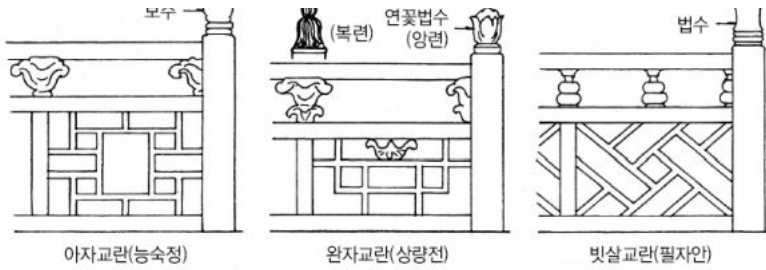
현재의 사은정은 한때 시멘트블록 집으로 남아있던 것을 옛 문헌을 참고하여 1988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서까래 바깥으로 겹서까래를 건 겹쳐마 양식에 팔작지붕을 올렸고 단청을 칠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오른쪽 뒤편의 1칸을 온돌방으로 꾸미고 나머지 공간은 마루 바닥으로 하였습니다. 모서리 부분의 서까래는 선자연¹⁾이 아니고 마죽연²⁾으로 되어있는데 그 아래에 선자연과 같이 부채꼴로 나무판을 대어 꾸몄습니다. 사은정은 새로 복원한 것이지만 현판은 2백여 년 전에 올린 것입니다.

사은정은 지곡초교삼거리에서 사은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1km 간 다음 남부CC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약 100m 가량 올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 1) 선자연 : 팔작지붕 집에서 한옥의 모서리 부분 서까래(연목)를 부채꼴 형태로 만드는 것, 서까래 안쪽이 한 점에서 모이도록 만드는 방식
- 2) 마죽연 : 선자연처럼 서까래 안쪽이 한 점에서 모이지 않고 흐트러진 형태로 만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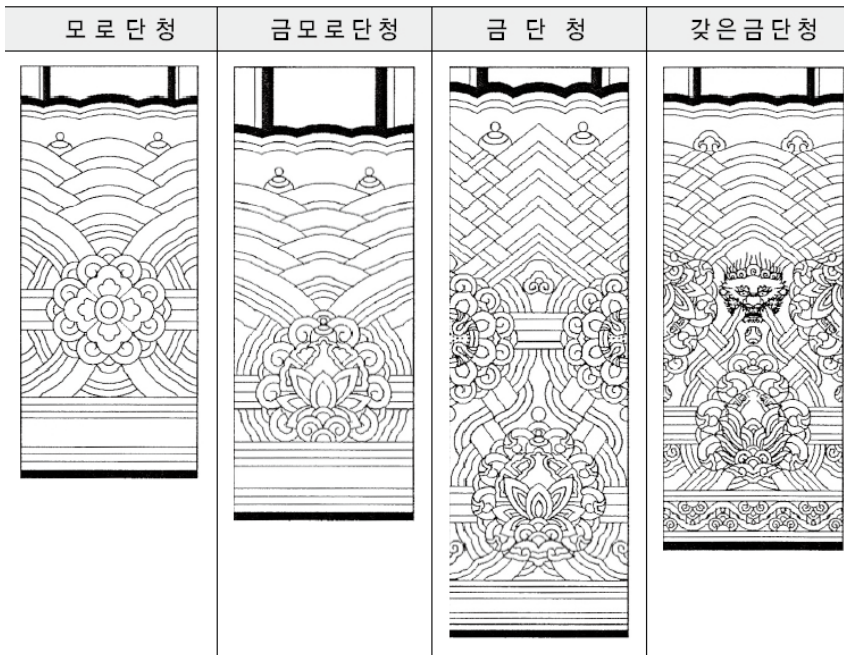
<한국 전통건축의 난간>

(자료 : 문화재청)



<한국 전통건축의 단청>

(자료 : 문화재청)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곤충학자의 유품

160 석주명 유품



종 목 | 등록문화재 제610호
명 칭 | 석주명 유품
분 류 | 등록문화재
시 대 | 조선시대
지정(등록)일 | 2014.10.29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유자(소유단체) | 단국대학교



석주명 유품 중 채집망과 장갑(사진 : 문화재청)

석주명(石宙明, 1908~1950)은 대한민국의 나비연구가이자 생물학자, 곤충학자, 동물학자, 박물학자입니다. 석주명의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1908년 평양에서 요리집을 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사업으로 번 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석주명에게 당시 무척 귀했던 신식 타자기를 선물해줄 정도로 교육열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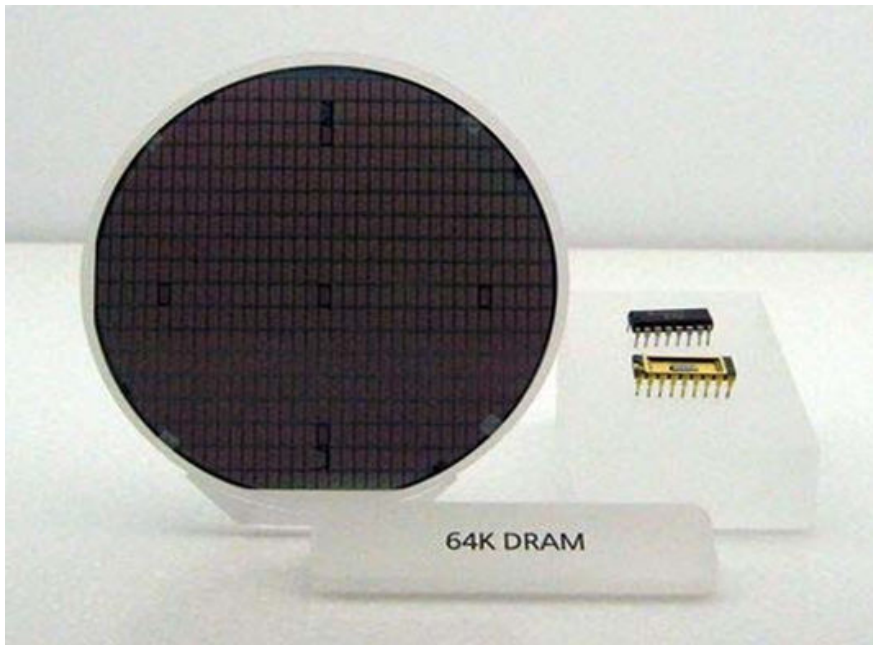
〈석주명 유품〉은 세계적인 곤충학자로도 인정받은 석주명 박사의 나비채집 관련 물품입니다. 기성품이 아닌 독창적으로 연구하여 제작한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채집망, 장갑, 가방, 모자 등 석주명 박사가 활발히 활동한 1930-1940년대 우리나라 과학사 및 생활사를 밝혀주는 자료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장처인 석주선기념박물관은 단국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연 첨단기술 제품

161 삼성전자 64K DRAM

종 목 | 등록문화재 제563호
칭 칭 | 삼성전자 64K DRAM
분 류 | 등록문화재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2013.08.27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3 (주)삼성전자
소유자(소유단체) | (주)삼성전자
관리자(관리단체) | (주)삼성전자



삼성 64K DRAM(사진 : 문화재청)

삼성전자는 1983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로 반도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 64K DRAM〉인데, 손톱만한 크기의 칩 속에 6만4천 개의 트랜지스터 등 15만 개의 소자를 800만 개의 선으로 연결해 8천 자의 글자를 기억할 수 있는 초고밀도 집적회로급(VLSI) 반도체입니다.

이 64K DRAM 개발로 삼성전자는 첨단기술이라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으며, 집적회로의 실용화는 우리 사회를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기술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6

무형문화유산



나무에 깃든 우리 문화를 찾아내는 장인

162 소목장

종 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명 칭 | 소목장(小木匠)
분 류 | 무형유산 / 목공예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1975.01.29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내
보유자(보유단체) | 박명배



소목장 보유자 박명배



소목장의 도구



나무를 가공할 때 사용하는 끌

과거 목수는 크게 건물을 짓는 대목과 창호와 가구 등을 제작하는 소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소목장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주로 왕실과 상류층을 위한 고급 목가구와 창호를 만들다가 차츰 민간에 보급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목장 박명배 선생님은 18세였던 1951년에 소목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최희권 씨가 운영하던 아틀리에의 연구생으로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47년째 소목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는 먼지와 소음 등이 문제가 되어 2001년에 용인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소목을 살림살이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따라서 사랑방과 안방, 주방 등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들어가는 가구며 세간들이 모두 달라야 한다는데, 이를테면 사랑방에는 사대부들이 사용하는 학문과 관계된 가구가 자리 잡아야 하고, 안방에는 의복이나 생활에 관련된 집기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도 제기를 보관하는 공간, 농기구를 들여놓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적절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소목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박명배 선생님은 과거 청와대 안방, 교황청 박물관의 사랑방, LA와 워싱턴의 한국문화원 등의 내부를 꾸미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다양한 공구류를 구비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는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조선식 밀이대패와 통 쇠로 된 조선 끌도 포함되어 있어 도구적인 측면에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공예를 후대에 전달하는데 충실하고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목 공예에 관한 책과 교재 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옛 의례와 법도를 이어가는 계승자

163 종묘제례

종 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명 칭 | 종묘제례(宗廟祭禮)
 분 류 | 무형유산 / 전통연행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1975.05.03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내
 보유자(보유단체) | 이형열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



종묘제례 봉행 장면(사진 : 문화재청)



종묘제례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일무(사진 : 문화재청)



종묘제례 시 술잔을 올리는 헌작(사진 : 문화재청)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종묘에서 해마다 지내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종묘제례는 사직제례와 더불어 국가의 큰 제사인 대사에 속하는데 종묘제례의 경우 정시제와 임시제로 나누어 지냈습니다. 정시제는 1월, 4월, 7월, 10월에 지냈고,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 때에만 지냈는데, 해방 이후에는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만 한번 지내고 있습니다.

종묘제례 전수자인 이형열 선생님은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께 자연스럽게 제례와 예법을 익히셨으며, 이후 서울에서 근무할 때에도 종묘제례와 사직제례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국조오례의 등 과거의 문헌을 영인하여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례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선잠단, 선농단, 삼각산 제례 등을 복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용인 포은문화제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의 제례를 연구하고 있으며, 종묘제례 등 나라의 큰 제사를 치르기 위한 제관을 길러내는 교육에 힘쓰고 계십니다.

현재 종묘제례의 절차는 취위(就位), 영신(迎神), 행신나례(行晨裸禮), 진찬(進饌),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飲福禮), 철변두(撤籩豆), 망료(望僚), 제후처리(祭後處理)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종묘제례는 200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소리를 알리고 전하는 예인

164 경기민요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종 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칭 칭 | 경기민요(京畿民謠)
분 류 | 무형유산 / 민속음악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1975.07.12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내
보유자(보유단체) | 이춘희

경기민요는 과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전승되던 민요 전부를 뜻하는데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민요에는 ‘경기십이잡가’와 ‘경기민요’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잡가는 가곡이나 가사와 같은 정가와 대비되는 속가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속가 중에서도 길이가 긴 노래를 앉아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좌창’이라고도 하며, 그 가운데 느린 장단으로 된 십이잡가를 ‘긴잡가’라고 부릅니다. 경기긴잡가에는 유산가, 제비가, 소춘향가, 십장가, 적벽가, 선유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출인가, 방물가, 달거리 등 12곡이 있습니다. 장단은 느린 6박 도드리장단이나 3박 세마치장단으로 치는 경우가 많고 선율은 서도소리와 경기소리가 섞여있는 독특한 음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민요 계승자인 이춘희 선생님은 17세 때인 1967년부터 소리를 공부하고 싶어 하셨지만 어머님과 집안 어른들을 설득하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19세의 나이로 서울 종로에서 소리연구소를 운영하던 이창배 선생님과 정득만 선생님의 제자로 들어가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춘희 선생님의 스승인 이창배 선생님과 정득만 선생님은 당시 단체종목인 선소리 산타령 보유자셨는데 그 분들께 가곡, 가사, 시조, 잡가 등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춘희 선생님은 1996년에 국립국악원의 지도위원직을 맡았고 1998년부터 ‘소리극’이라는 형식의 공연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국립국악원의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2010년에 다시 감독으로 발령받기도 하셨습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 직접 부르기도 하셨으며, 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된 경기십이잡가와 청춘가, 창부타령 등 경기민요를 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소리 학교를 운영하면서 전통예술을 이어갈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침선공예의 전통을 계승하는 장인 165 자수장(민수)

종 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5-1호
명 칭 | 자수장(민수)
분 류 | 무형유산 / 침선공예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1998.09.21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 내
보유자(보유단체) | 신상순



자수장 보유자 신상순(사진 : 문화재청)

침선공예란 우리 전통기법으로 천에 수를 놓는 공예를 뜻합니다. 전통 자수를 놓을 때 사용하는 바늘은 일반적인 바느질용 바늘에 비해 길이가 짧고 가늘며 바늘의 귀가 작고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은 점, 선, 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며 실의 종류는 푼사, 끈사, 깔깔실, 금은실, 징금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금(錦)·주(紬)·능(綾)·단(緞)·사(紗)·라(羅) 등의 천에 수를 놓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에 장복서(掌服署)라는 기관을 두고 왕실에서 필요한 자수품을 생산하였으며, 민간에서도 자수를 잘 놓는 사람들이 소집되어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병자호란 이후 평안도 안주수(安州繡)의 장인이 궁궐에 들어가 수를 놓는 일(궁수, 宮繡)을 하였는데 남성이 수를 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5-1호로 지정된 신상순 선생님은 민간의 자수인 민수(民繡)를 놓는 장인입니다. 경상남도 마산 출신으로 1950년대 마산여고의 가사과목 교사였던 김난초 선생님께 자수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1971년에 자수원 화린공방을 운영하면서 자수를 일상생활에 가깝게 접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화조도 병풍, 백동자도 병풍 등의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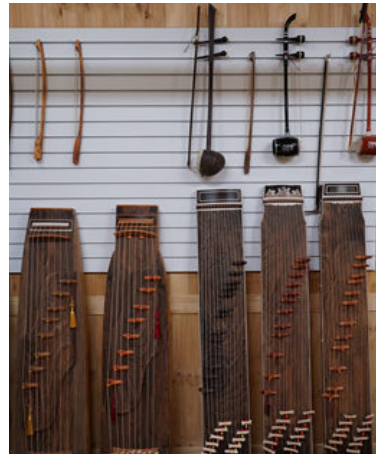
우리 악기의 전통을 이어가는 장인

166 현악기

종 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0-2호
칭 칭 | 현악기
분 류 | 무형유산 / 목칠공예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1999.10.18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25 대우프론티어밸리내
보유자(보유단체) | 최태순



현악기 보유자 최태순



거문고, 가야금, 해금



40년 가량 된 가야금

현악기 장인인 최태순 선생님은 1950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적 악기를 만들던 장인인 고모부 김광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며 일을 거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서울로 악기를 팔러 올라가셨던 고모부가 악기 연주자인 박성옥 선생님과 함께 전주로 피난을 오셨는데 서울이 수복될 때 까지 함께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고모부의 악기제작소는 당시 전주에서 유일하게 악기를 만들던 곳이었고 전국적으로 제작의뢰를 받던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최태순 선생님은 이렇게 고모부와 박성옥 선생님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15세가 되었을 즈음, 선생님 댁은 고모부님 댁과 분가하였는데 이때부터 선생님은 고모부님 댁에 머물며 본격적으로 악기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고모부님과 선생은 1960년대에 서울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국립국악원의 악기를 제작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미국 스미스박물관의 공방에서 한 달여간 악기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지켜본 한국 민속촌의 초청으로 1982년부터는 민속촌 공간 내에 작업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악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용인시 기흥구에 작업장을 두고 그 곳에서 악기제작과 기술 전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접이식 거문고

우리 현악기는 접착제로 아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작업장에는 19세 때 만든 악기도 있고, 만들어진지 40년이 넘는 악기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중에 사용하였던 접고 펼 수 있는 거문고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과거 좁은 방 안에서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작은 크기로 만들었지만 현대가 되면서 넓은 공연장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크기가 커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작업장은 단순히 악기를 만드는 곳을 넘어서서 악기에 대한 역사를 보존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최태순 선생님의 아들인 최정욱 님이 전수자로 지정되어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문고와 가야금

불교 미술과 전통 공예의 극치 167 주성장(불구)



청동으로 만든 불상

종 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7호
 명 칭 | 주성장(불구)
 분 류 | 무형유산 / 금속공예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2008.03.24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등림리 내
 보유자(보유단체) | 이완규



주성장 보유자 이완규(사진 : 이완규)



재현된 다뉴세문경(사진 : 이완규)

주성장이란 쇠를 녹여 물품을 만드는 주물기술을 지닌 장인을 뜻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무기를 만들던 군기감이나 금속활자를 만들던 주자소에서 활동하던 경공장이 중심이었으나 17세기 이후 개인적으로 물품을 제작하던 장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18세기 이후 사찰의 범종과 금고(쇠북), 향로, 시루 등 다양한 철제 물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주성장 보유자 이완규의 작업 장면
(사진: 이완규)

주성장 이완규 선생님은 불교 미술품과 청동기 시대 다뉴세문경을 재현하는 작업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1982년부터 주물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청동으로 반가사유상 등의 불상을 재현하다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다뉴세문경을 만드는 것이 현대기술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재현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였습니다.

약 10여 년간의 연구와 작업을 통해 다뉴세문경을 재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청동기 시대 문화유산과 촛대, 불상, 향로 등의 불교유산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만드는 작품이 언젠가 문화유산으로 남게 될 수도 있으므로 혼을 담아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공예품과 기술을 후세에 전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로움을 소리로 이끌어내는 장인

168 주성장(범종)

종 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7-1호
명 칭 | 주성장(범종)
분 류 | 무형유산 / 금속공예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2008.03.24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내
보유자(보유단체) | 정동후



주성장 작업공간



주성장 보유자 정동후



주성장 보유자 정동후의 작업 모습



제작중인 반자

주성장 정동후 선생님은 1968년 서울에서 불상을 만들던 신상무 선생님 공장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주물 작업을 익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불상 제작으로 시작하였다가 동으로 부처님을 만들면서 동종 제작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어느덧 47년째 종을 만들어 오고 계십니다.

종을 제작할 때에는 우선 크기와 문양을 결정한 후, 종을 치는 당좌의 위치를 결정하고 종 모형에 무늬를 새기는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 다음, 밀납이나 흙으로 종의 외형틀과 내형틀을 만들고 이 틀에 쇳물을 부어 종을 만들게 됩니다. 종이 만들어지면 착색 작업과 표면 가공작업이 이어지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보통 3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동후 선생님이 만든 종은 주로 불교 사찰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오대상 상원사 동종과 해인사, 통도사, 선암사, 예천 용문사, 설악산 오세암 종 등이 있으며, 백담사 오백나한전의 불상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만들면서 익힌 기술과 원동력을 혼자 독점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아들이 주물 제작을 함께하며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용인 지역 예인의 맥을 잇는 장인

169 경기고깔소고춤

종 목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6호
칭 칭 | 경기고깔소고춤
분 류 | 무형유산 / 민속음악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2015.11.20
소 재 지 | 경기용인시기흥구 보라동내
보유자(보유단체) | 정인삼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 정인삼(사진 ; 정인삼)

과거 전국팔도의 재인청 중 가장 으뜸이 되던 곳은 바로 화성 재인청이었습니다. 재인청은 18~19세기에 만들어져 1920년까지 남아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궁궐의 큰 행사나 외국 사신이 방문했을 때 재인을 선발하여 잔치를 배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재인청의 수장을 대방이라 칭하였고 화성 재인청의 수장을 도대방이라 하였는데 마지막 도대방은 춤꾼이셨던 고 김인호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김인호 선생님은 용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여 김량장 할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김인호 선생님의 제자가 경기 재인청의 고 이동안(1906~1995) 선생님이는데,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인 정인삼 선생님은 바로 이동안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정인삼 선생님은 1942년 생으로 용인에서 태어났습니다. 1975년에 이동안 선생님을 처음 만난 후 80년대부터 소고춤, 진쇠춤, 신칼대신무, 태평무, 장검무 등을 전수받았으며, 이동안 선생님의 수제자였던 정경파 선생님의 지도를 통해 춤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춤들은 모두 남자들이 추는 춤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인삼 선생님도 남자제자들에게 춤을 가르쳐 전수하고 있습니다.

정인삼 선생님은 용인 출신 예인으로서 용인을 본향으로 하는 춤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의 무형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용인 출신 제자들에게 춤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로부터 이어져 온 마을 제례와 놀이

170 용인 할미성 대동굿

종 목 | 용인시 향토민속 제1호
칭 칭 | 용인할미성 대동굿
(龍仁 老姑城 大同굿)
분 류 | 무형유산 / 무속의례
시 대 | 현대
지정(등록)일 | 2016.01.06
소 재 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내
보유자(보유단체) | 할미성대동굿보존회
할미성농악보존회



용인 할미성 대동굿 시연(사진 : 용인시)

대동굿은 마을사람들 모두의 안녕을 빌고 구성원의 단결을 다지는 제례입니다. 만신이라고도 불리는 무당이 제례를 집전하는데, 일반적인 굿과 달리 마을 사람들이 농악과 악기연주를 통해 하나가 되는 놀이문화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용인 할미성 대동굿을 할 때에는 할미성을 쌓았다고 전해지는 마고할미와 할미성 양애부처, 아드님(군옹마마), 따님(말명신), 잣고개 서낭 등을 산신으로 모시고 제례를 지냅니다.

연희과정은 크게 산제, 본향신맞이, 걸립농악, 타동맞이, 대동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인 할미성 대동굿은 좋지 않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굿의 성격을 띠는데, 그 중에서 대방위굿이라 하여 동네주민들의 속옷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어 허수아비와 함께 헛장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는 대동굿을 통해 마을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농악을 할 때에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과 농악을 겨루는 타동맞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2개 마을이 모이는데, 굿을 주관하는 원동이 이웃동네 타동을 초청하여 서로 농악을 겨루다가 마침내 합굿을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용인 할미성 대동굿은 보존회를 중심으로 굿, 농악, 악기 연주를 함께 전승해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京畿道, 1988, 機內寺院誌
- 李仁寧, 1997, 내고장 龍仁 文化遺蹟總攬, 龍仁文化院 附設 郷土文化研究所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외, 2000, 용인의 역사지리, 용인시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외, 2001, 용인의 불교유적, 용인시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외, 2001, 용인의 분묘문화, 용인시
- 용인시 외, 2003,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문식·김정호, 2003,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 文明大, 2005, 龍仁 華雲寺 木 阿彌陀·藥師佛坐像, 講座 美術史 24,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吳虎錫, 2005, 高麗時代 竹州地域 石造美術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기표, 2005, 龍仁 魚肥里 三層石塔에 대한 考察, 龍仁 東度寺(漁肥里 寺址) 東度寺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2006, 용인시사 (용인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I·II, 용인시사편찬위원회
- 기전문화재연구원·용인시, 2006, 용인 심곡서원, 학술조사보고 76책
- 향토문화연구소, 2007, 용인시 문화재총람, 용인문화원
- 정성권, 2007, 高麗 光宗代 石佛의 특성과 영향, 文化史學, 한국문화사학회
- 국립중앙박물관, 2009,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 수원대학교박물관, 2009, 용인 서봉사지 지표조사 보고서, 수원대학교박물관
- 충주대학교, 2009, 용인 석성산봉수, 충주대학교
- 문화재청, 2010, 용인 장옥진 가옥, 문화재청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0, 용인 심곡서원Ⅱ 학술조사보고, 경기문화재연구원
- 불교문화재연구소, 2010, 한국의 사지 -경기남부, 불교문화재연구소
- 이승연·이상해, 2010, 심곡서원의 조영과정과 배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9권3호
- 이희봉, 2010, 논문 “심곡서원 조영과정과 배치에 관한 연구” 및 마구잡이성 복원에 대한 토론, 건축역사연구 제19권 4호
- 이희봉, 2010, 심곡서원 조영 단계별 원 배치 추정, 건축역사연구 제19권 5호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2, 용인 서봉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용인문화유적전시관, 2012, 보정동 고분군, 용인문화유적전시관
- 한국고대학회, 2013, 용인의 고대에서 중세로의 변화 - 할미산성과 석성산성, 한국고대학회
- 경기문화재연구원, 2014, 용인 양지향교 강학구역 시·발굴조사 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4, 용인 할미산성(Ⅱ),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심곡서원, 2014, 심곡서원 사적지정 신청보고서, 심곡서원
- A&A문화연구소, 2014, 심곡서원에서 문화유산의 향기를 느끼다, A&A문화연구소
- A&A문화연구소, 2014, 심곡서원의 가치와 활용방안, 용인시·A&A문화연구소
- 우장문, 2015, 용인의 선사시대 돌 문화, 심곡서원 특별강좌 발표자료
- 용인문화원, 2015, 용인역사문화지도, 용인문화원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5, 용인 할미산성 3·4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한국문화유산연구원
- 용인문화유산연구소, 2015, 용인 처인성 홍보관 건립 기본계획, 용인문화유산연구소

문화재청 문화재정보(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search01_new.jsp?mn=\N_04_03_01&mc=\N_04_03_01)
문화재청 문화재각부명칭(http://www.cha.go.kr/html/finlPage.do?pg=/heritage/knowledge/name_01.jsp&mn=\N_04_02_04)
디지털 용인문화대전(<http://yongin.grandculture.net/?local=yongin>)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main.do>)
한국학중앙연구원(<http://www.aks.ac.kr/home/index.do>)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용인문화원(<http://www.ycc50.org/>)
용인시민신문(<http://www.yongin21.co.kr/>)
용인시청(<http://www.yongin.go.kr/>)
종묘제례 전수교육교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국문화유산총람 제1집(CD롬)



사람들의 용인

